尊者庵址

1996

濟　州　道

濟州大學校博物館

강창화





1. 존자암지 원경
2. 존자암지 근경





3. 존자암지 발굴전 근경
4. 존자암지 발굴조사 개토제





5. 제3단 석축시설과 건물지
6. 제2단 석축시설





7. 건물지(1)
8. 건물지(1) 초석 배치상태





9. 제2단 석축과 계단
10. 제2단 석축 축조상태





11. 건물지(3),(4) 근경
12. 건물지(3) 노출상태





13. 건물지(3),(4) 기단석렬과 내부시설
14. 건물지(3),(4) 정면기단 석렬





15. 건물지(3),(4) 중복상태
16. 건물지(3) 온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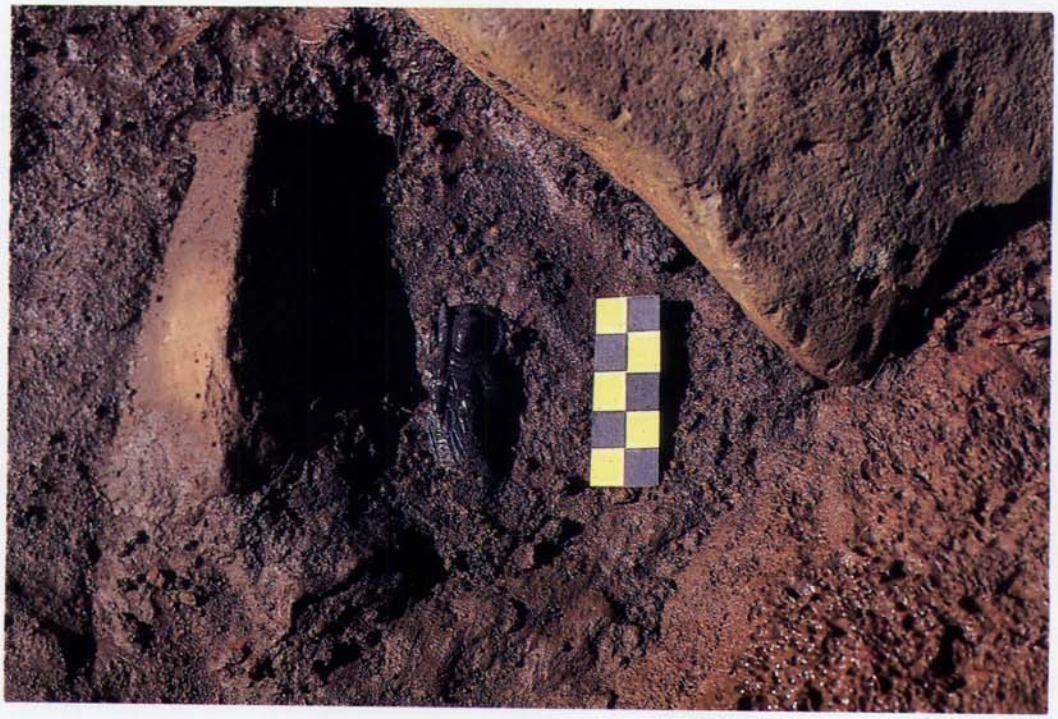
17. 건물지(5)
18. 비각추정지





19. 석종형부도의 탑신부
20. 부도지





21. 기와 출토상태
22. 청동제 사천왕상 출토상태



발 간 사

『동국여지승람』『남사록』 등의 문헌에 한라산 영실 서편 불래악 중턱에 고양부 삼을라 때부터 존자암이라는 고찰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고려대장경』 법주기에도 석가모니 제자 16존자중 발라타 존자가 탐몰라주에서 불도를 전파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가 佛國淨土의 발원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제주 불교의 맥을 잇고, 문화사적지로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93년과 '94년도 두차례 걸쳐 古刹 존자암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존자암은 고려말인 14세기에서 부터 조선중기 1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5개소, 부도 등의 遺構와 名文기와, 그리고 청동제 사천왕상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에 의해 지난 '95년 7월 이 곳을 도지정 기념물 제43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없는 지역은 미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래학자들도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개성이 그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듯이, 이 존자암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서 제주의 문화적 개성과 그 가치를 더욱 빛내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조사보고서가 위대한 제주문화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발굴조사에 열정을 쏟으셨던 조사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 1월 일

제주도지사 신 구 범

目　　次

화　보

발간사

제1장 조사 개요/27

제1절 조사기간과 조사단 구성

제2절 조사 경과

제2장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31

제1절 유적의 위치및 환경

제2절 역사적 배경

제3장 조사 내용/38

제1절 발굴전 현상

제2절 발굴 방법

제4장 유　구/41

제1절 건물지

제2절 부속시설지

제3절 기타시설지

제4절 주변유구 Trench · 지표조사

제5장 유　물/69

제1절 기와

제2절 도자기

제6장 종합 고찰/157

제1절 유구

제2절 유물

제7장 맺음말/167

〈附錄〉

1. 濟州島 出土 高麗後期 銘文瓦/171
2. 「修正禪師大夫金仲光」銘文瓦/186
3. 尊者庵 關係 古文獻/187

圖版 /195

圖面目次

圖面 1 유적위치도/37
圖面 2 발굴구역내 지형도·발굴구획도/40
圖面 3 발굴 유구 전체 실측도/47
圖面 4 제1단 석축시설내 유구실측도/57
圖面 5 건물지(1) 실측도/58
圖面 6 제2단 석축시설내 건물지(2),(3),(4) 실측도/59
圖面 7 제3단 석축시설내 유구 실측도/60
圖面 8 건물지(5) 실측도/61
圖面 9 제4단 석축시설내 부도지 실측도/62
圖面 10 부도 복원 실측도 /63
圖面 11 제2단 석축과 계단지(1) 실측도/64
圖面 12 제3단 석축과 계단지(3) 실측도/65
圖面 13 탑지추정지 실측도/66
圖面 14 敷石시설 실측도/67
圖面 15 E-W Trench(1)내 적석 시설물 실측도/68
圖面 16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1)/75
圖面 17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2)/76
圖面 18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3)/77
圖面 19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4)/78
圖面 20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5)/79
圖面 21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6)/80
圖面 22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7)/81
圖面 23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8)/82
圖面 24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9)/83
圖面 25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10)/84
圖面 26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1)/88
圖面 27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2)/89
圖面 28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3)/90
圖面 29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4)/91
圖面 30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5)/92
圖面 31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1)/97
圖面 32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2)/98
圖面 33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3)/99
圖面 34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4)/100
圖面 35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5)/101
圖面 36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6)/102

圖面 37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7)/103
圖面 38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8)/104
圖面 39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9)/105
圖面 40 존자암지 출토 청자/107
圖面 41 존자암지 출토 분청(1)/114
圖面 42 존자암지 출토 분청(2)/115
圖面 43 존자암지 출토 분청(3)/116
圖面 44 존자암지 출토 분청(4)/117
圖面 45 존자암지 출토 분청(5)/118
圖面 46 존자암지 출토 분청(6)/119
圖面 47 존자암지 출토 분청(7)/120
圖面 48 존자암지 출토 분청(8)/121
圖面 49 존자암지 출토 분청(9)/122
圖面 50 존자암지 출토 분청(10)/123
圖面 51 존자암지 출토 백자(1)/136
圖面 52 존자암지 출토 백자(2)/137
圖面 53 존자암지 출토 백자(3)/138
圖面 54 존자암지 출토 백자(4)/139
圖面 55 존자암지 출토 백자(5)/140
圖面 56 존자암지 출토 백자(6)/141
圖面 57 존자암지 출토 백자(7)/142
圖面 58 존자암지 출토 백자(8)/143
圖面 59 존자암지 출토 백자(9)/144
圖面 60 존자암지 출토 백자(10)/145
圖面 61 존자암지 출토 백자(11)/146
圖面 62 존자암지 출토 백자(12)/147
圖面 63 존자암지 출토 백자(13)/148
圖面 64 존자암지 출토 백자(14)/149
圖面 65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1)/153
圖面 66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2)/154
圖面 67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3)/155
圖面 68 존자암지 출토 청동개·벼루·사천왕상/156

圖版目次

圖版 1/197
① 유적 원경(한라산 1100고지에서)
② 유적 원경(남에서)

圖版 2/198
① 유적 근경(남에서-발굴전상태)
② 유적 전경(북에서)
③ 유적 전경(남에서)

圖版 3/199
① 유적 전경(남에서)
② 유적 전경(북에서)

圖版 4/200
① 제1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남동에서)
② 제1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동에서)

圖版 5/201
① 제1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남에서)
② 제1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남서에서)

圖版 6/202
① 제1단 석축시설 노출상태(세부)
② 제1단 석축시설 축조상태(세부)

圖版 7/203
① 건물지(1) 발굴상태(남에서)
②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동에서)

圖版 8/204
① 건물지(1) 원경(북에서)
② 건물지(1) 근경(서에서)

圖版 9/205
①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동에서)
②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서에서)

圖版 10/206
① 건물지(1) 초석(1)
② 건물지(1) 초석(2)
③ 건물지(1) 초석(3)
④ 건물지(1) 초석(4)

圖版 11/207
① 건물지(1) 초석(5)
② 건물지(1) 초석(6)
③ 건물지(1) 초석(7)
④ 건물지(1) 초석(8)

圖版 12/208
① 건물지(1) 초석(9)
② 건물지(1) 초석(10)
③ 건물지(1) 초석(11)
④ 건물지(1) 초석(12)

圖版 13/209
① 제2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동에서)
② 제2단 석축시설 노출광경(북에서)
③ 제2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북에서)

圖版 14/210
① 제2단 석축 및 계단 노출상태(북서에서)
② 제2단 석축시설 축조상태(남에서)
③ 제2단 석축시설 동편 축조상태(남동에서)

圖版 15/211
① 제2단 석축시설 중앙 계단 축조상태(남동에서)
② 제2단 석축시설 동편 축조상태(남동에서)
③ 제2단 석축시설 동편 축조상태(세부)

圖版 16/212
① 제2단 석축시설 원경(동에서)
② 제2단 석축시설 원경(남에서)

圖版 17/213
① 제2단 계단석 축조상태(세부)
② 제2단 계단지 노출상태(남에서)

圖版 18/214
① 제2단 석축시설 동편 노출상태(남에서)
② 제2단 석축시설 계단 노출상태(남에서)

圖版 19/215
① 제2단 대지 발굴 전 상태(북서에서)
② 제2단 대지 발굴 전 상태(서에서)

圖版 20/216
① 건물지(2) 기단석렬 노출광경(서에서)
② 건물지(2) 노출상태(북에서)

圖版 21/217
① 건물지(2)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2),(3)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2) 기단석렬 노출상태(북동에서)
④ 건물지(2) 기단석렬 노출상태(남에서)

圖版 22/218
① 건물지(2) 기단석렬 맞물림 상태(서에서)
② 건물지(2) 기단석렬 축조상태(남에서)
③ 건물지(2)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圖版 23/219
① 건물지(2) 내부 부석시설(판석조) 노출상태(북에서)

② 건물지(2) 내부 부석시설 노출상태(서에서)

圖版 24/220

① 건물지(2) 내부 배수시설 및 Test Pit 노출상태(북에서)
② 건물지(2) 내부 배수시설(남에서)
③ 건물지(2) 내부 배수시설 및 덮개돌 노출상태(북에서)

圖版 25/221

① 건물지(2) 내부 Test Pit 노출상태(동에서)
② 건물지(2) 내부 Test Pit 서벽 토층상태
③ 건물지(2) 내부 Test Pit내 초석 노출상태(위에서)

圖版 26/222

① 건물지(3) 원경(전경-남서에서)
② 건물지(3) 원경(북에서)

圖版 27/223

① 건물지(3) 근경(남서에서)
② 건물지(3) 근경(남서에서)

圖版 28/224

① 건물지(3) 노출상태(북에서)
② 건물지(3) 내부 적심석 배치상태(북서에서)
③ 건물지(3) 내부 적심석 배치상태(동에서)

圖版 29/225

① 건물지(4) 기단석렬 노출상태(위에서)
② 건물지(4) 내부 적석채움상태(위에서)
③ 건물지(4) 내부 퇴적상태(남에서)
④ 건물지(4) 내부 Test Pit 노출상태 및 퇴적상태(위에서)

圖版 30/226

① 건물지(3)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3),(4) 기단석렬 배치상태(동에서)
③ 건물지(3)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④ 건물지(3),(4) 기단석렬 노출상태(동에서)

圖版 31/227

① 건물지(3),(4)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3),(4) 배치상태(서에서)
③ 건물지(3),(4) 중복상태(위에서)
④ 건물지(3),(4) 중복상태(위에서)

圖版 32/228

① 건물지(3),(4)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3),(4) 중복상태(동에서)
③ 건물지(3),(4) 기단석렬 축조상태(동에서)
④ 건물지(3),(4) 중복상태(위에서)

圖版 33/229

① 건물지(3)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4) 기단석렬 축조상태(서에서)
③ 건물지(4)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④ 건물지(3) 기단석렬 상면 축조상태(서에서)

圖版 34/230

① 건물지(4) 기단석렬 노출상태(동에서)
② 건물지(3),(4) 기단석렬 배치상태(동에서)

圖版 35/231

① 건물지(3),(4) 중복상태(세부)
② 건물지(3),(4) 중복상태(세부)

圖版 36/232

① 건물지(3) 기단석렬 축조상태(남에서)
② 건물지(3)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③ 건물지(3)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④ 건물지(3)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圖版 37/233

① 건물지(3)기단석렬 노출상태(동에서)
② 건물지(3) 내부 배수시설 노출상태(동에서)
③ 건물지(3) 내부 아궁이시설 노출상태(위에서)

圖版 38/234

① 건물지(3) 내부 성토층과 적석유구 노출상태(세부)
② 건물지(3) 내부 아궁이 시설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3) 내부 아궁이 시설 및 적석유구 노출상태(위에서)

圖版 39/235

① 건물지(3) 동편 온돌시설 노출상태(위에서)
② 건물지(3) 동편 온돌시설 노출상태(세부)
③ 건물지(2) 동편 기단석렬 노출상태(위에서)

圖版 40/236

① 건물지(3) 내부 적심석(1) 축조상태
② 건물지(3) 내부 적심석(2) 축조상태
③ 건물지(3) 내부 적심석(3) 축조상태
④ 건물지(3) 내부 적심석(4) 축조상태

圖版 41/237

① 건물지(3) 내부 적심석(5) 축조상태
② 건물지(3) 내부 적심석(6) 축조상태
③ 건물지(3) 내부 적심석(7) 축조상태
④ 건물지(3) 내부 적심석(8) 축조상태

圖版 42/238

① 건물지(3) 내부 적심석(9) 축조상태
② 건물지(3) 내부 백자편 출토상태
③ 건물지(3) 내부 적심석(10) 축조상태
④ 건물지(3) 내부 적심석(11) 축조상태

圖版 43/239
① 제3단 석축시설 노출상태(서에서)
② 제3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동에서)
③ 제3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동에서)
圖版 44/240
① 제3단 대지 발굴전 비각지 상면지표 상태
② 제3단 대지 발굴전 상태(남에서)
圖版 45/241
① 건물지(5)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5) 노출상태(북에서)
圖版 46/242
① 건물지(5) 노출상태(남동에서)
② 건물지(5) 축조상태
圖版 47/243
① 비각지 노출상태(북서에서)
② 비각지 하단 건물지(5) 정면 기단석렬 노출상태
③ 비각지 뒷편 담장 노출상태
④ 비각지 서편 담장 노출상태
圖版 48/244
① 비각지 서편 담장 노출상태(서에서)
② 비각지 서편 담장 축조상태(세부)
③ 비각지 담장 축조상태(세부)
④ 비각지 서편 담장하부 유물 출토상태(세부)
圖版 49/245
① 비각지 내부 부석상태(서에서)
② 비각지 담장 축조상태(위에서)
③ 비각지 내부 부석시설 노출상태(세부)
④ 건물지(5)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圖版 50/246
① 건물지(5) 동편 담장 노출상태(동에서)
② 건물지(5) 동편 담장 축조상태(동에서)
③ 건물지(5) 동편 담장 축조상태(북에서)
圖版 51/247
① 건물지(5) 기단석 및 초석 배치상태(남동에서)
② 건물지(5) 기단석 및 초석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5) 기단석렬 및 초석군 노출상태(서에서)
④ 건물지(5) 북벽 토층 단면상태
圖版 52/248
① 부도지: 지대석과 중대석 축조상태
② 탑신과 상륜부
圖版 53/249
① 부도지 원경
② 부도지 원경
③ 부도지 노출상태(근경)
圖版 54/250
① 부도(지대석, 중대석) 노출상태(위에서)
② 부도(지대석, 중대석) 노출상태(위에서)
③ 부도(지대석, 중대석) 노출상태(정면)
圖版 55/251
① 부도(지대석, 중대석) 축조상태(세부)
② 부도(지대석) 축조상태(세부)
③ 부도(지대석) 축조상태(세부)
④ 부도(지대석) 축조상태(세부)
圖版 56/252
① 부도 중대석 노출상태
② 부도 사리공 노출상태
③ 청동 사천왕상 출토상태(세부)
圖版 57/253
① 탑지 추정지 근경
圖版 58/254
① 탑지 추정지 적석유구
② 탑지 추정지 주공석
圖版 59/255
① 탑지 추정지 주변 노출상태
② 탑지 추정지 주공석 노출상태(세부)
③ 탑지 추정지 주공석 하층 적심상태(세부)
圖版 60/256
① 유적 동남편의 小川과 貯水施設
② 동서트렌치(1) 내부 제Ⅱ단 적석시설 노출상태
③ NS Tr.(1) 적석시설 노출상태
圖版 61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1)/257
圖版 62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2)/258
圖版 63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3)/259
圖版 64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4)/260
圖版 65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5)/261
圖版 66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6)/262
圖版 67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7)/263
圖版 68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8)/264
圖版 69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9)/265

圖版 70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10/266
圖版 71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1)/267
圖版 72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2)/268
圖版 73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3)/269
圖版 74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4)/270
圖版 75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5)/271
圖版 76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1)/272
圖版 77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2)/273
圖版 78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3)/274
圖版 79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4)/275
圖版 80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5)/276
圖版 81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6)/277
圖版 82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7)/278
圖版 83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8)/279
圖版 84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9)/280
圖版 85 존자암지 출토 청자/281
圖版 86 존자암지 출토 분청(1)/282
圖版 87 존자암지 출토 분청(2)/283
圖版 88 존자암지 출토 분청(3)/284
圖版 89 존자암지 출토 분청(4)/285
圖版 90 존자암지 출토 분청(5)/286
圖版 91 존자암지 출토 분청(6)/287
圖版 92 존자암지 출토 분청(7)/288
圖版 93 존자암지 출토 분청(8)/289
圖版 94 존자암지 출토 분청(9)/290
圖版 95 존자암지 출토 분청(10)/291
圖版 96 존자암지 출토 백자(1)/292
圖版 97 존자암지 출토 백자(2)/293
圖版 98 존자암지 출토 백자(3)/294
圖版 99 존자암지 출토 백자(4)/295
圖版 100 존자암지 출토 백자(5)/296
圖版 101 존자암지 출토 백자(6)/297
圖版 102 존자암지 출토 백자(7)/298
圖版 103 존자암지 출토 백자(8)/299
圖版 104 존자암지 출토 백자(9)/3001
圖版 105 존자암지 출토 백자(10)/301
圖版 106 존자암지 출토 백자(11)/302
圖版 107 존자암지 출토 백자(12)/303
圖版 108 존자암지 출토 백자(13)/304
圖版 109 존자암지 출토 백자(14)/305
圖版 110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1)/306
圖版 111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2)/307
圖版 112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3)/308
圖版 113 존자암지 출토 청동개·벼루·사천왕상/309

揷圖目次

揷圖1 존자암 가람의 변천/158
揷圖2 존자암지 건물지(5) 복원도/159
揷圖3 존자암지 출토 분청의 문양/163
揷圖4 존자암지 출토 백자의 명문/164
揷圖5 법화사지 출토 명문와/181
揷圖6 수정사지 출토 명문와/182
揷圖7 원당사지 출토 명문와/182
揷圖8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183
揷圖9 제주목관아지 출토 명문와/184
揷圖10 제주목관아지 출토 명문와/185

일러두기

* 본문 도면의 방향표시는 모두 나침반에 의한 북이다.
** 모든 도면의 축소비는 해당도면의 하단에 명시하였다.
*** 본 보고서는 가급적 유물·유구에 관한 용어를 한글로 다루었다.

제1장 조사개요

이 조사보고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 1번지, 한라산 靈室 서북편의 '볼래오름'서녘 자락에 위치한 존자암지를 발굴조사하여 그 내용을 정리 보고한 것이다.

1993년에 실시한 1차조사에서 4단의 석축시설과 건물지, 비각지, 부도와 부도지, 배수시설, 적석시설 등이 확인되었고,1994년에 실시한 2차조사는 이들 유구에 대한 확장조사와 하층유구조사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 만들어진 건물지와 석축시설이 비교적 정교하게 축조되었고 상당한 인력을 동원하여 모든 시설물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존자암은 한라산 산정근처인 1200m 高地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곳곳에 생토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유구·문화층이 그리 깊지 않으리라 여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인위적으로 형성된 유구층이 깊고 문화층이 적어도 2期에 걸쳐 퇴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차 존자암지 발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조사단구성과 조사경과를 개략적인 내용으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조사기간과 조사단구성

1. 1차조사

1) 조사기간

1993년 3월 16일 - 10월 31일

2) 조사비

48,000,000원

3) 조사단구성

단　　장 : 李淸圭(前 濟州大博物館長,現 嶺南大敎授)
지 도 위 원 : 황수영(前 東國大學校總長)
張慶浩(文化財硏究所長)
정영호(敎員大學校敎授)

자 문 위 원 : 金奉玉(濟州道文化財委員)
조 사 위 원 : 高昌錫(現 濟州大博物館長, 史學科敎授)
金鴻植(明智大學校敎授)
조 사 원 : 高光敏(濟州大學校博物館學藝硏究士)
康昌和(濟州大學校博物館硏究員)
姜彰彦(濟州大學校博物館硏究員)
김인한(敎員大學校博物館)
행 정 담 당 : 朴景弘(濟州大博物館)
조사보조원 : 梁允豪(濟州大學校史學科 卒業生), 金貞善(史學科4年), 金慶柱, 方文培, 朴容範, 高禎敏, 金宗燦, 吳蓮淑(濟州大史學科3年) 李美子, 金永心(濟州大史學科2年), 서신아, 김경아(濟州大史學科1年)

2. 2차조사

1) 조사기간
1994년 7월 16일 - 10월 31일

2) 조사비
22,800,000원

3) 조사단구성

단 장: 李淸圭(前 濟州大博物館長, 現 嶺南大敎授)
조사 위원: 高昌錫(現 濟州大博物館長, 史學科敎授)
金鴻植(明智大學校敎授)
尹德香(全北大學校敎授)
조 사 원 : 康昌和(濟州大學校博物館硏究員)
姜彰彦(濟州大學校博物館硏究員)
행정 담당: 朴景弘(濟州大博物館)
조사 보조원: 金慶柱(現 嶺南大學校大學院生),
金貞善(現 東國大學校大學院生),
吳蓮淑(現 漢陽大學校大學院生),
方文培(現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朴容範(現 濟州大學校博物館)
高禎敏(現 濟州道敎育博物館)
梁允豪(濟州大史學科卒業生)
Hunker(스위스인, 캐나다대학생)
金宗燦, 秦敬愛, 고민정, 玄英二, 나정옥(濟州大史學科 學生)

그 외에 발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濟州道廳의 김명립과장을 비롯하여 문철부계장,

박성종연구관, 우명훈, 김명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줄곧 현장에 나와 정성을 다해 도움을 주신 주진아 스님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濟州大 國文學科 박정섭외 여러학생들이 발굴에 참가하여 도움을 주었다.

報告書의 原稿와 圖面, 그리고 寫眞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완성되었다.

제1-2장 調査概要와 自然環境 : 李淸圭, 康昌和
제2장 歷史的背景 : 高昌錫
제3-4장 調査內容과 遺構 : 康昌和
제5장 遺 物: 朴容範, 金貞善
제6장 綜合考察 :李淸圭, 康昌和
제7장 맺음말 :李淸圭, 康昌和
附 錄 濟州島 出土 高麗後期 銘文瓦 : 朴容範
圖 面 : 金慶柱, 朴容範, 金貞善, 金宗燦, 李尙美, 고민정, 秦敬愛, 玄英二
寫 眞 : 康昌和
編 輯 : 康昌和, 金慶株, 金貞善, 李尙美

제2절 조사경과

1. 1차조사

1) 발굴용역계약 : 1992년 11월 31일

1차 발굴의 용역은 1992년 11월 31일에 계약되어 졌고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의 발굴허가는 11월 15일에 이루어졌다. 발굴용역이 체결된 후 발굴에 바로 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유적이 자리한 높이가 해발1200m고지로 한설과 폭우가 계속되고 12월이 되면서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인근 일대가 산행이 통제될 상황이어서 발굴을 진행할 수 없었다.

2) 발굴지내 잡목·잡초제거 : 1993년 3월 15일- 4월 15일

발굴구역중 유구가 지상에 노출된 부분에 한해 잡목을 제거하고 유적주변 정리작업을 실시하였다. 고산지대 식물이 무성히 자라나 유구상층을 완전하게 덮고 있었고

잡목의 뿌리가 지표하 30㎝까지 뒤엉켜 있어서 지표제거시 어려움이 있었다.

3) 트렌치 조사: 1993년 4월 16일- 1993년 6월 30일

발굴구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에 해당한다. 남쪽과 북쪽의 높이차는 12m정도이고 완만하게 내려오는 산허리부분이다. 건물지와 시설물이 자리한 부분은 원상의 경사진 지면을 수평으로 平削하여 건물을 축조한 흔적이 보이는 데 크게 이러한 단시설이 4개소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폭 2m, 길이 50m의 중앙 트렌치를 설정하고 난후 이미 노출된 유구의 주변에 폭 2m의 트렌치를 넣어 유구를 노출시켜 나갔다.

4) 유구노출 및 실측작업: 1993년 7월 1일 - 10월 30일

트렌치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를 노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노출작업을 집중한 곳은 건물지(1)과 塔址가 있는 제1단석축대지와 비각지가 노출된 제3단석축대지, 그 중간지점인 제 2단석축대지내 건물지와 기타시설물, 제4단의 浮都址와 그 주변이다. 제2단의 석축은 1m이상 쌓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층유구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유구보완조사및 실측작업을 실시하였다.

2. 2차조사

1) 발굴용역계약 및 착수: 1994년 7월 12일-7월 16일

발굴용역은 1994년 7월 12일에 계약되어졌고 발굴은 7월 16일부터 착수되었다.

2) 유구확장조사 및 하부유구층조사:1994년 7월 17일-9월 23일

1차조사시 확인된 4개의 석축시설 상면의 유구에 대한 확장발굴 및 하부유구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건물지 5개소, 석축시설 3개소, 탑지추정지 1개소에 대한 성토층 및 축조방법 등을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진촬영 및 실측작업:1994년 9월 24일-10월 31일

1차조사에 이어 실측작업을 추가한 곳은 건물지 구역과 하층유구부분이다.

제2장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

제1절 유적의 위치 및 환경

유적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1번지내에 소재한다. 영실 서북편에 자리한 볼래오름의 남사면 능선에 자리한다(圖面1, 圖版1).

볼래오름[1]은 천백도로(제2횡단도로)의 해발 1100m지점에서 볼 때 靈室의 기암절벽 너머 멀리 漢拏山 정상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타고 가까이 좌우로 세 독립봉이 버티고 있는 그 제일 오른쪽의 봉우리다. 거리 약 2㎞, 완만하고 길게 비탈져 내린 서사면의 수림대까지는 기암괴석이 어우러지는 濕原이 벌어지고 여기에는 군데군데 水草가 자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하나의 자연정원을 이루는 이 습원은 볼래오름이 가진 특색의 하나이며 1100고지 자체가 그 서녘 자락인 셈이다. 북군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볼래오름은 행정구역상 西歸浦市 中文(河源)洞관할이나 북동쪽 사면 일부가 涯月邑과의 경계에 걸쳐져 있다. 남쪽의 주봉이 표고 1362m, 북동쪽 봉우리가 1351m로 그 사이 평평한 등성마루는 북서향으로 넓게 벌어진 말굽형을 이룬다.

존자암지로 들어서는 등산로는 현 국립공원 영실사무소의 주차장 한쪽에서 숲 속으로 오솔길이 나 있다. 죽죽 뻗어오른 교목림에 무성한 조릿대밭을 가르는 외줄기 숲길을 1㎞남짓, 도중에 옛 표고재배장이던 물통(못)을 두엇 거치고 졸졸 물이 흐르는 작은 골짜기를 건너면 숲이 트인 산허리에 尊者庵옛터가 나타난다. 시간으로는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이다.

제2절 역사적 배경

尊者庵에 대한 文獻上의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처음 나타난다. 濟州牧 佛宇條의 尊者庵 夾注에,

「在漢拏山西嶺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1) 金鍾喆,「오름나그네〈143〉-볼래오름」,濟民日報 1993年 6月 2日字

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즉 尊者庵은 漢拏山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 곳 洞窟에 마치 僧이 道를 닦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어 세상에 修行洞[수행하는 동굴]이라 전해졌다는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은 朝鮮 前期의 대표적인 地理書로, 원래는 朝鮮 成宗 12년(1481)에 편찬한 『東國輿地勝覽』을 中宗 25년(1530)에 增補하고 冊名에 '新增'이란 두 글자를 첨가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리고 『東國輿地勝覽』 이후에 增補된 내용은 반드시 '新增'이라 하여 그 增補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尊者庵의 항목에는 '新增'이란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東國輿地勝覽』 편찬 당시의 기록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李元鎭의 『耽羅志』에는 尊者庵에 대한 기록이 두 곳에 나타나고 있다. 즉 濟州牧 佛宇條의 尊者庵 夾注에는,

「舊在漢拏山瀛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 卽大靜境也」

라 하였고, 大靜縣 佛宇條의 尊者庵 夾注에는,

「在漢拏山西麓 縣東六十里 寺東有泉 湧出流至百步許 伏流地中」

이라 하였다. 즉 濟州牧條에서는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敷衍하여 尊者庵의 애초의 위치를 瀛室이라 하였는가 하면, 지금은 서쪽 기슭에서 밖으로 10리쯤 옮겼는데 곧 大靜 지경이라 하였다. 그리고 大靜縣條에서는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대정현에서 동쪽으로 60리 거리이다. 庵子 동쪽에는 샘이 있어 물이 솟는데 백보쯤 흘러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처럼 두 개의 기록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 기록 내용으로 본다면, 前者는 원래의 위치와 옮긴 장소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後者는 옮긴 이후의 위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李元鎭이 濟州 節制使로 부임하여 在職했던 시기는 『觀風案』 등에 의하면, 孝宗 2년(1651) 7월에서 4년 10월까지로 되어 있고, 또 그가 『耽羅志』를 간행한 연도는 申纘의 跋文에 '癸丑季秋上瀚'이라 하여 癸丑年(孝宗 4, 1653) 9월 上旬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尊者庵은 孝宗代 이전, 그 어느 시기에 그 위치가 瀛室에서 大靜 지경으로 옮겨진 것이 된다. 그리고 李源祚의 『耽羅誌草本』 濟州牧 古蹟條에는 濟州島 내에 있었던 寺刹이 지금은 모두 철폐되었다고 前提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찰들에 대한 종전의 기록들을 인용하여 古蹟條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發掘 調査와 관련된 지역은 孝宗代 이전, 즉 17세기 중반 이전의 尊者庵의 터전인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바로 孝宗 2년에 安覈御史로 왔던 李慶億의 다음과 같은 詩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尊者庵이 이름난 절로 알았더니　　尊者知名寺
황량한 반조각의 옛터일세　　荒涼半舊墟

千年 묵은 塔은 외로이 서 있는데　　千年孤塔在
한 방은 두어 개 서까래만 남아 있다　　一室數椽餘
海客이 지나가는 일 적으니　　海客經過少
미개한 僧은 禮法도 소루하다　　蠻僧禮法疏
가을 밤에 南極을 바라보니　　秋宵望南極
俗世의 걱정이 어느새 사라졌네　　塵慮已全除

즉 "천년 묵은 탑은 외로이 서 있는데, 한 방은 두어 개 서까래만 남아 있다."고 하여 廢墟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분만 아니라 肅宗 28년(1702)에 濟州 節制使로 부임했던 李衡祥의 『南宦博物』에도,

「(前略) 上有修行洞 洞有七星臺 坐禪巖云 是古僧八定之墟 其曰尊者庵」

이라 하여, "위에는 修行洞이 있고 洞(窟)에는 七星臺가 있어 이를 坐禪巖이라 하는데, 이는 옛날 僧의 八定之墟[2]로 이를 尊者庵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尊者庵은 어느 때, 누구에 의해 건립된 庵子일까. 이에 대해 상세한 내막을 전해 주는 文獻記錄은 없다. 다만 好事家들은 大藏經 法住記의 第六尊者[3] 跋陀羅 Bhadra[4]가 9백명이나 되는 阿羅漢[약칭 羅漢][5]과 함께 나누어 살았다는 耽沒羅洲를 濟州島에 比定하여 마치 尊者庵이 跋陀羅 尊者에 유래된 것 같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跋陀羅가 梵語 '브하드라'의 音寫[漢譯]인 이상 '耽沒羅洲'도 梵語의 音寫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것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우기 그 시기가 紀元前의 이야기일진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당시 印度 原始佛教史의 충분한 文獻的 考證이나 考古學的 뒷받침이 없이는 위험한 發想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唐나라 玄奘(600-664)이 譯出했다는 이 法住記는 佛滅 후 800년에 이르는 사이에 獅子國<지금의 스리랑카, 錫蘭·錫崙 등으로 音譯된다>의 大阿羅漢 難提蜜多羅 尊者에 의

2) 八定은 色界의 一禪, 二禪, 三禪, 四禪의 4定과 無色界의 空無邊處, 識無邊處, 無所有處, 非想非非想處의 4定을 합한 것. 『四教儀註』 參照.
3) 佛家에서의 尊者는 梵語 Arya 阿梨耶 의 譯語. 有德한 者, 德·行·智를 갖춘 者, 또 高齡有德한 者를 말하며, 阿羅漢의 尊稱이다. 『資持記』 下三에 "尊者는 臘數가 오래 되고 德이 重하여 사람이 존경하는 者" 라고 하였고, 『行事鈔』 下三에는 "下座에서 上座를 칭하여 尊者라 하고, 上座가 下座를 부를 때 慧命이라 한다."고 하였다.
4) 跋陀羅는 '부하드라' Bhadra 의 音寫로, 『華嚴經探玄記』에는 '賢'으로 漢譯되어 있다. 16羅漢名 외에도 比丘尼의 이름, 三藏法師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으며, 星名, 나무명칭(龍樹) 등으로도 쓰였다.
5) 阿羅漢은 小乘佛教에 있어서는 最上級의 修行者로서 功德이 具備한 학자의 총칭이라 하였다.

해 꾸며졌다. 즉 正法을 守護하려고 盟誓한 16인의 阿羅漢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16인의 아라한은 넓은 의미로는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면서 衆生을 濟度하는[正法을 지키는]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이다. 16阿羅漢의 名字와 住處는 법주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序頭에,

「尊者告曰 汝等諦聽 如來先已說法住經 今當爲汝粗更宜說」

이라 하여, "尊者가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釋迦如來께서는 앞서 이미 法住經[涅槃經]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간략히 다시 말하리라."

라고 하여, 佛說을 阿羅漢들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다. 계속하여 記에는,

「佛薄迦梵般辣涅槃時 以無上法 付囑十六大阿羅漢 幷眷屬等 令其護持使不滅沒」

이라 하여, "부처님이 涅槃하실 때 16阿羅漢에게 佛滅 후의 佛敎護持를 付囑하셨다."고 하였으며, 부처님의 진리가 잘 지켜지는 正法期에는 불교를 지키고, 불교의 이상과 실현이 없는 末法期에는,

「及勅其身與諸施主作眞福田 令彼施者得大果報」

라 하여, "佛敎人들의 福田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涅槃과 果報를 얻게 한다."는 것이다. 어떻든 이 16羅漢에 대한 信仰은 中國·韓國·日本 등지에서 7·8세기 이후 크게 성행하였다.

한편 冲庵 金淨의 〈尊者庵記〉(金尙憲의 『南槎錄』에서 再引用)에 의하면,

「夫尊者之爲庵 肇造三姓初起之時 而久傳三邑鼎峙之後」

라 하여, "尊者庵은 高·良·夫 三姓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세워졌는데, 三邑이 鼎立된 후에까지 오래도록 전하여졌다."고 하였다. 또 "庵子의 面勢는 相地書[地理書]에 들어맞는 것이 많다. 그 터로 말하면, 主峯은 넓고 크며 둥굴게 넘어가고 높으면서도 점점 낮아져 마치 봉황새가 날개를 펼치듯 하고 아래로 웅크려 사랑스럽게 그 병아리를 보는 것과 같은데, 이는 玄武의 奇이다. 찬 샘의 근원이 깊으며 옥소리를 내며 맑은 물을 쏟아내는데, 향기로운 물줄기가 이른바 '月德이 그 方位에 있다'고 하겠으며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朱雀의 異이다. 비스듬이 가다가 龍처럼 꿈틀꿈틀 기어가고 허리에는 마치 왼쪽 팔의 묶인 끈을 풀고자 하는 모습과 같은 것은 靑龍의 勝이다. 꼬리를 끌고 行頭를 돌이키며 바른손으로 그의 무릅을 쓰다듬는 것과 같은 것

은 白虎의 美이다. 이는 땅의 이치가 갖추어진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宣祖 11년(1578) 2월에 漢拏山을 登攀했던 林悌의 『南溟小乘』에는,

「十日 (中略) 艱尋尊者庵 日將夕矣 衲子淸淳出迎 曾與相逢 (缺)陽之雪路者也」

라 하여, "간신히 尊者庵을 찾았으나 날은 이미 저물어갔다. 僧 淸淳이 나와서 맞이했는데, 전에 눈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尊者庵의 규모에 그 위치에 대해서는 『南槎錄』에,

「尊者庵舍九間 盖與壁皆以板代瓦土 問之僧輩 山中土脈 無粘液且多沙石 不宜塗墜 瓦則貿於陸地 故力所難致也 中間屢經興廢 癸巳年間 有康津居僧 代父入防 防罷仍化財重修云」

이라 하여, 尊者庵의 庵舍는 아홉칸인데, 지붕과 벽은 기와와 흙 대신에 板子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또 그 까닭을 僧들에게 물었더니, "山中의 土脈은 粘液이 없고 또 모래와 돌이 많아서 벽을 바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와는 반드시 육지에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財力이 그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일으켜 세웠다 폐했다 하다가 癸巳年(宣祖 26, 1593)에 康津에 사는 僧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防護를 서기 위해 濟州에 들어왔다가(湖南援兵인 듯하다) 임무를 마치자 곧 재물을 내어 重修하였습니다." 하고 답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南槎錄』에는 계속하여,

「到尊者庵少憩 (中略) 自山根至尊者庵 可三十餘里 自尊者庵至靈谷 亦三十餘里 (中略) 又過修行窟 窟中可容二十餘人 古有高僧休粮 入棲之處也」

라 하여, 尊者庵에 도착하여 조금 쉬었는데, 산밑에서 尊者庵까지 30여 리가 되고, 존자암에서 靈谷까지 역시 30여 리이다. 또 修行窟을 지났는데, 굴 속에는 넉넉히 20여 명은 들어갈 만하며, 옛적에는 高僧 休粮이 들어가 살던 곳이라고 하였다. 산 밑에서 존자암까지의 거리 및 수행동의 규모까지 기록해 두고 있다.

또 光海君 초기에 濟州 判官을 지낸 金綴의 〈遊漢拏山記〉에 의하면,

「踰獐嶽入三長洞 由三長越浦涯嶽 逦邐而南到一精舍 高在烟霞 下壓滄溟 卽尊者庵也 板屋八九間 盖以草茅 不侈不陋 有一胡僧 出拜於門外 迎入禪堂 問其名則修淨也 (中略) 使修淨前導 重罔複嶺 路甚危險 或騎或步 互相先後 度密穿深 漸入佳境 行六七里 抵瀛室洞府頗寬敞 此亦古尊者庵基也 仟尋蒼壁 環擁如屛 上有怪石 狀如羅漢자 五百有餘 (中略) 洞之東南 山腰有一石窟 名曰修行 昔有道僧棲於其中 廢堄至今猶在」

라 하여, "獐岳을 거쳐서 三長洞에 이르고 三長에서 浦涯嶽을 넘어 멀리 남쪽으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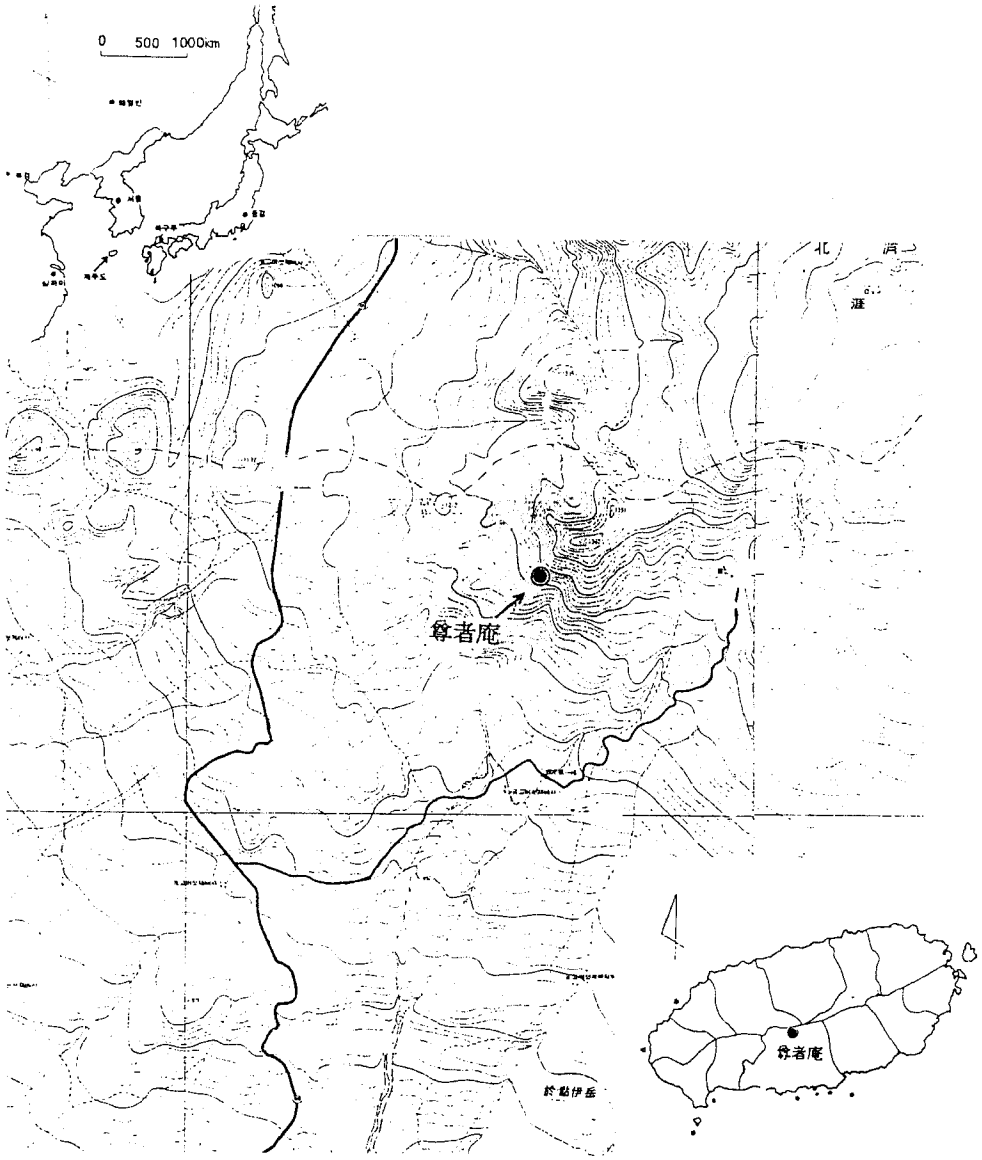
精舍[6]에 이르렀는데, 높이 구름 속에 있어 푸른 바다를 누르고 있으니, 이것이 곧 尊者庵이다. 판자집은 8·9칸으로 띠로 지붕을 덮었는데 사치스럽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았다. 한 늙은 스님이 문 밖에 나와 절하며 맞이하여 禪堂으로 안내하기에 그 이름을 물으니, 修淨이라고 하였다.··· 날이 밝자 修淨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니, 겹친 언덕과 포개진 산등성이에 길이 매우 위험하였다.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숲이 빽빽한 곳을 지나 깊숙히 들어가니 경치가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6·7리를 가서 瀛室에 다다르니 골짜기가 자못 넓고 앞이 확 트였다. 여기가 바로 옛날 尊者庵터다. 천길 푸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으며 위에는 이상스럽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모양이 羅漢과 같은 것이 5백 개가 넘었다.··· 골짜기 동남쪽 산허리에 한 石窟이 있는데 이름을 修行이라고 하였다. 옛날 어느 道僧이 그 속에서 살았었다고 하는데 무너져 내린 굴뚝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존자암은 그 규모가 판자집 8·9칸 정도, 수행 동굴은 20명을 수용할 만한 크기였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곳에서 국성재를 올렸던 것으로 되어 있다. 즉『南槎錄』에,

「又云 首夏之月 卜得吉日 差三邑遨頭中一員 齋浴行祀於是庵 謂之國聖齋 今其廢也 纔八九年 〈竝出冲庵記〉」

이라 하여, "4월에 점을 쳐서 좋은 날을 택하고 三邑의 遨頭[守令] 중 한 사람을 보내어 목욕재계하고 이 庵子에서 祭祀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를 國聖齋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폐한지 8·9년이 된다."고 하였다. 金尙憲이 제주에 按撫御史로 온 것이 宣祖 34년(1601)이므로, 그로부터 8·9년 전이라면 바로 壬辰倭亂이 宣祖 25(1592)이거나 그 이듬해가 된다. 결국 國聖齋가 壬辰亂으로 해서 중단된 셈이 되는 것이다.

6) 精舍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다. 儒家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書齋의 의미로, 道家에서는 道士가 거처하는 곳으로, 그리고 佛家에서는 寺院의 의미와 智德을 精練하는 行者가 거처하는 곳을 말하였다.『慧苑音義』上에는「藝文類聚曰 精舍者 非以舍之精妙名爲精舍 由其精練行者之所居 故謂之精舍也」라 하였다.



圖面 1 유적위치도

제3장 조사내용

제1절 발굴전현상 및 발굴방법

1.발굴전 현상(圖版2)

발굴구역은 漢拏山國立公園 구역내에 자리하고 있고 海拔高度 1200m인 高地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울창한 밀림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며 인적 또한 드물어 자연이 원상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처음 지표조사 당시 부도지와 석종형부도의 탑신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보고서에서의 건물지(1)의 추춧돌과 석재, 그리고 남북트렌치(1)에서 조사된 주공초석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미 노출된 유구 주변으로 상당량의 잡목과 풀이 자라나 있었고 부도의 하대석은 이미 중간부분에 큰나무가 자라나 유구의 원상을 크게 훼손한 상태였다.

유적중앙부인 제2단 석축대지 상면에는 최근의 돌담과 잡석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이 잡석무더기는 대지상면을 완전히 덮고 있었고 잡석무더기 틈새로 제주도 방언으로 '새죽'이라 불리는 잡풀이 많이 자라고 있었다. 대나무와 뿌리내림이 비슷한 것으로 번식력과 생명력이 질기며 습지에 잘 자라는 식물이다. 발굴과정에서, 이 잡풀을 제거하는 작업은 예상보다 상당히 힘든 작업중 하나였다.

유구내 제1단석축대지 상단은 흙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와 심하게 퇴적되어 있는 상태였다. 특히 동편은 그 퇴적량이 심하여 노면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발굴 당시 이러한 퇴적상황은 트렌치조사와 테스트핏트조사를 통해 약 70cm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적의 바로 동편으로 흐르는 소천은 개울폭이 2.5~3.5m정도이고 볼래오름 어귀에서 솟아나 계속해서 흐르는 용천수의 일종이다. 이 물은 유적동남편을 감아돌아 500m쯤 내려간 지점에서 갑자기 지하로 스며든다. 제1단 석축대지의 동편부분에 이 소천의 물줄기가 떨어지는 곳도 있다. 이 小川의 낙수는 완형숫기와를 사용해서 한곳으로 흐르게 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물을 받아 마시기에 용이하도록 시설되어 있다.

이 유적은 깊은 산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 왔다. 이곳이 산신제사, 민간신앙차원의 불공을 올리는 장소로 널리 이용되어져 왔음을 비각지가 발견된 제4단 석축대지의 제단이라든가 건물지(1) 상면에 남아있는 부석시설과 제

단에서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제1단 석축대지의 서편에는 1950~60년대 집터가 남아 있다. 유적에 대한 답사도 다소간 진행되어 왔다. 신주들과 불공자, 그리고 답사자들이 현장의 도자기편과 기와편을 모아 건물지(1)의 주춧돌무리 위에 모아둔 것이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2. 발굴방법(圖面2, 圖版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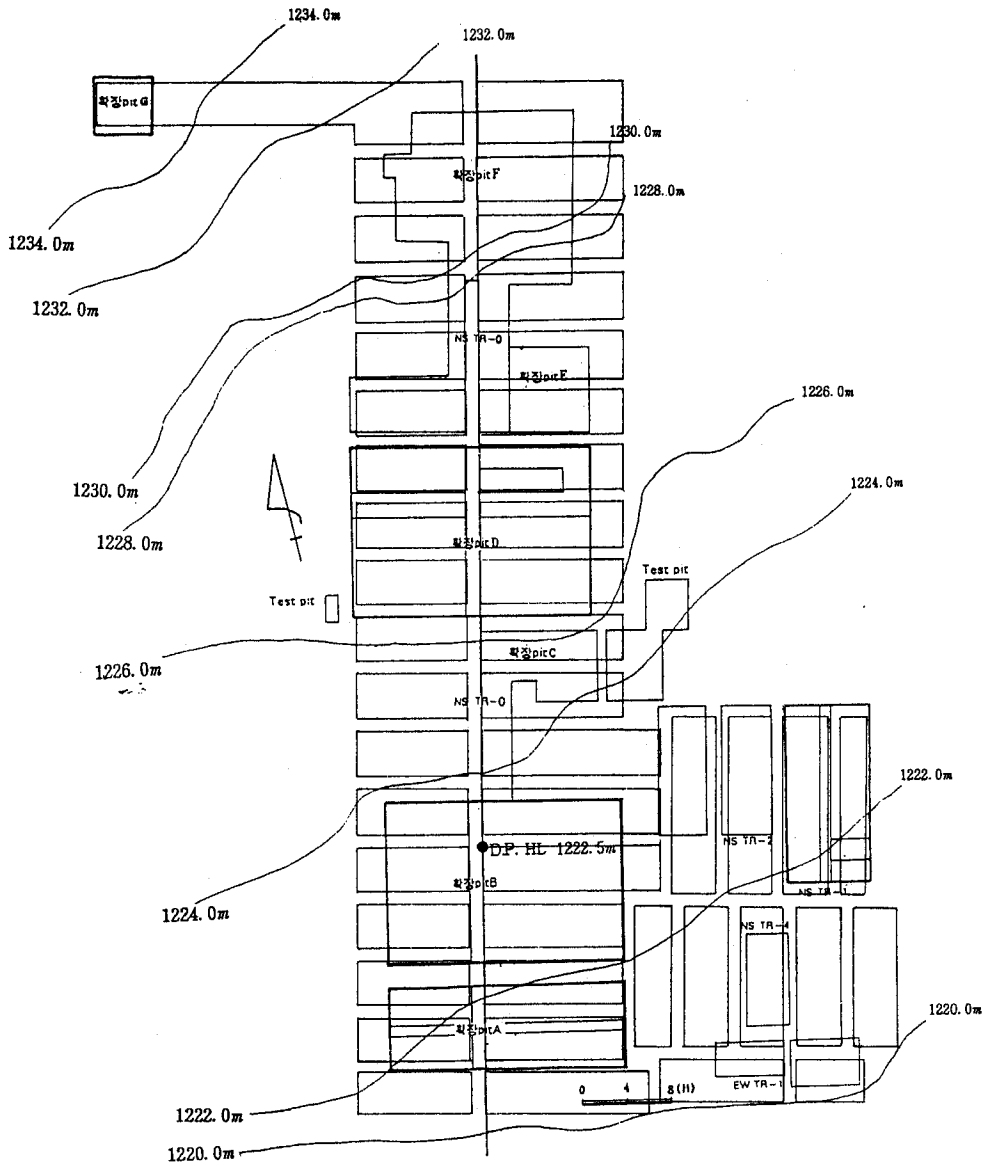
발굴방법은 트렌치발굴방법(Trench Excavation Mathod)를 전제로 하고 유구 노출부분은 확장핏트(Extended Pit)를 두어 조사에 임했다. 또한 유구내부 토층조사와 일부 부분적인 문화층조사는 시험발굴구덩이(Test Pit)에 의존했다.

1) 잡풀과 산목을 제거한 결과, 이 유적이 자리한 지형은 북에서 부터 남으로 내려오면서 경사진 지형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부도지에서 제1단 석축기단석렬까지 4개의 평탄한 대지가 계단상으로 크거나 작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지는 북에서 동으로 약 20도 가량 기울어져 연결되었다. 이 대지는 인위적으로 석축하여 만든 것으로 감안, 중심트렌치의 방향도 유적의 중심을 지나는 N20E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점(D.P.)은 제1단 석축시설 대지에 위치한 건물지(1) 내부에 두었다(圖面2).

2) 기준트렌치를 N-STr.(0)로 명칭을 부여하고 난후 좌우 동서트렌치를 (EW Trench) 구획하였다. 각 트렌치 사이에는 1m폭의 Baulk를 두었으나 지면이 고르지 못하고 곳곳에 나무가 있으며, 특히 단시설이 급격히 경사져 내려와 각단의 평탄면에 중심으로 일단 일률적으로 구획하였다. 각 트렌치에 명명된 번호는 다음의 구획도를 참조해 볼 수 있다.

3) 다시, 유구가 걸린 지점에 한해 기본이 되는 남북 Baulk를 남기고 확장핏트(Extended Pit)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지점을 <圖面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에서 북으로 일련번호를 주었다. 각 확장핏트(Exteneded Pit)별 발굴방법은 다음과 같다.

Extended Pit名	發掘 方法	調査 유구
확장핏트(Extended Pit)-A	Test Pit 조사	제1단 석축시설
확장핏트(Extended Pit)-B	Test Pit 조사	건물지(1)
확장핏트(Extended Pit)-C	Trench 및 Test Pit 조사	제2단석축시설
확장핏트(Extended Pit)-D	Test Pit 조사	건물지(2)
	Trench 조사	건물지(3),(4)
		敷石遺構
확장핏트(Extended Pit)-E	Trench 조사	제3단석축시설
확장핏트(Extended Pit)-F	Test Pit 조사	건물지(5),담장지
확장핏트(Extended Pit)-G	Test Pit조사	浮屠址
	토층절단Trench 조사	



圖面 2 발굴구역내 지형도·발굴구획도

제4장 遺 構

발굴조사된 면적은 동서 40m, 남북 80m이다. 이 범위에서 확인된 유구는 건물지, 비각지, 석축시설, 계단지, 浮層와 浮層址, 탑지추정지, 배수로, 적석유구 등이다.

제1절 건물지

건물지는 모두 5개소가 확인되었다.[7] 유적의 자리한 지형은 원래 심하게 경사진 능선지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건물지 및 기타 부속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능선을 평면 삭토하고, 평삭된 지형에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석축시설이 확인되었다. 건물지가 시설된 부분은 건물지보다 넓게 대지를 평면으로 정리하였다. 제1단석축시설과 제2단석축시설은 제3, 4단석축시설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건물지도 이 석축시설내부에서만 확인되었다. 또한 유적의 중앙지점인 제2단석축시설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중요건물이 들어 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석축대지내에서 건물지군이 밀집되어 확인되었다.

1. 건물지(1)(圖面3~5, 圖版 6~12)

이 건물지는 앞서 제1단 석축 대지내 북편에 위치한다. 건물지의 시설방향은 정남에서 약 15~20° 가량 동향으로 치우쳐 있다. 지표에는 기단과 주춧돌등이 비교적 원상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 건물지의 테두리는 제1단 대지의 석렬이 방형꼴로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데, 원래 경사진 지형을 인공적으로 깎아 이 부분에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건물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시설로 판단된다. 이 건물지는 석축시설 안쪽 북편에 자리하고 있어, 건물지 전면에 약 30여평정도의 평평한 마당시설이 있겠끔 되어 있다.

내부 층위는 크게 4개의 층위, 두께 47~52㎝로, 표토층-점토층-적석층-생토암반층

7) * 본 보고서의 건물지에 대한 서술은 편의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술하였고 건물지 관련 용어도 가급적 한글로 사용하였다.

으로 연결된다. 표토층은 동사찰이 廢棄된 이후에 형성된 흑갈색부식토층으로, 잔디와 고산식물이 두께 10~15cm가량 덮혀 있었다. 이 표토층 밑으로 점토층이 연결되는데 주춧돌과 기단석렬은 점토층과 지표층에서 걸쳐 있었다. 이 층위는 건물지 주성토층으로 판단되며 두께는 20-22cm이고 건물지 내부에 균일하게 깔려있다. 다만, 이 성토층은 건물지 동편내부에 가서 매우 얕게 깔리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적석층은 황색점토와 적석 그리고 기와, 도자기편 등이 혼합된 매립층의 성격을 띤다. 이 적석무더기층은 건물지 築造時, 원래 지반이 남고북저 형태이고 동쪽이 서쪽보다 높은 지형을 동일한 높이로 만들기 위해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

기단석렬의 맞물림 상태는 모두 정연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축조되었으며 건물지 외곽으로 돌아가며 모든 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레벨이 높은 북쪽과 낮은 남쪽부분은 길이 50cm이상되는 대형의 자연석을 가지런히 잇대어 축조하였다. 때문에 이 기단석렬은 건물 외곽 테두리를 두르는 기능보다 성토흙이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강하다. 동편기단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남쪽기단부의 동쪽부분도 확인되지 않는다. 주춧돌군과 기단석렬로 확인되는 이 건물지의 규모는 장방형꼴로, 동서 11.6m, 남북 4.0m이상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춧돌의 방향은 남북으로 2개의 초석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북편의 주춧돌열은 총5열이 노출되어 정면 4칸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의 주춧돌간 남북 폭은 120cm이고 주춧돌간의 간격은 240-320cm인데, 동쪽에서부터 礎石間隔은 제1칸 320cm, 제2칸 240cm, 제3칸 260cm, 제4칸 240cm이다.

이와 같이 정면에서 동편부분인 第1間이 제2,3,4間에 비해 넓게 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춧돌의 상면 시설높이가 제2칸 동편 주춧돌보다 30cm가량 내려와 있으며 남쪽의 2열초석은 이 부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건물지의 성토층(점토층)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건물지의 동편부분은 추가로 덧붙여 지거나 혹은 방의 용도가 아닌 부엌 등의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

건물지 뒷편의 2열 초석렬과 대칭되는 아래쪽의 2열 柱礎石은 모두 5개가 노출되었다. 주춧돌간 남북 幅은 120-125cm이다. 주초간의 간격은 240-260cm인데 제2칸 240cm.제3칸 260cm, 제4칸 240cm이다.

이들 주춧돌은 모두 현무암제로 말각방형에 가깝게 치석하여 사용하였다. 적심석 없이 막바로 점토층 상면에 놓여 있고 초석주변으로 잡석이 둥글게 돌아간다.

이러한 주춧돌의 배치상태 및 기단석렬의 축조상태로 보아, 이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1칸 건물의 하부로 판단되며[8] 정면3칸, 측면1칸의 건물에다 동편에 정면 1칸, 측면1칸 시설을 덧붙여 연결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또한 2열의 남북 대칭 柱礎列은 툇마루 시설이라기 보다 외곽 초석렬은 외벽, 내부 초석렬은 내벽이 올라간 형태[9]일

8) 존자암 복원보고서에 의하면, 2층 누각건물로 설계되어 있다.

9) 바람이 많고 추운 겨울이면 1m이상의 눈이 장기적으로 쌓여 있는 1200m의 高地帶이기 때문에 二重 담벽을 둘 가능성이 짙다. 제주의 초가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가능성도 있다.

내부시설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건물지 서편에 일련의 내부 적석렬이 확인되며 서편기단렬이 뚜렷하지 않은 대신 배수로가 확인되며 동편에서는 자잘한 잡석이 집중되어 깔려 있다.

2. 건물지(2)(圖面3,6 圖版20~25)

이 건물지는 앞서 건물지(1)의 정북편 15.2m에서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의 내부에는 여러 시기에 걸쳐 건물지 및 기타시설물이 중복되어 나타났다. 이 건물지는 황색점토 상층인 흑갈색부식토층 위에 시설되어 있으며 기단석렬 하단부 레벨과 제2단 석축의 하단부의 레벨차는 2.0m이고 황색점토 상면에 축조된 건물지(3),(4)의 기단석렬보다 80cm이상 올라와 있어, 前代에 이미 만들어진 석축시설 위에 지면을 정리하여 건물을 만든 것으로 보아진다.

이 부분의 내부 층위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핏트조사와 第2壇石築 부분 층위조사에서 지표층-흑갈색부식토층-황갈색점토층-적석층-생토암반층이 확인되었다. 동 건물지와 관련된 성토층은 흑갈색부식토층과 황갈색점토층이다. 다만, 황갈색점토층은 이미 전대의 건물지인 건물지(3)을 시설하면서 다져진 점토층을 재 이용하거나 시설된 위로 잡석을 혼합한 흑갈색부식토를 채워 기단석렬과 일부 내부 적석을 맞추거나 채운 것으로 판단된다. 황갈색점토층 밑으로는 생토암반층위에 築臺施設을 만들면서 불규칙하게 채운 적석층이 연결된다.

이 건물지의 전체 추정규모는 동서 15.2m, 남북 5.8m정도이고 이 건물지의 축조방법이 앞서 제1단장방형 석축시설과 유사하여 혹, 건물지 용도가 아니라 건물지(3)의 마당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축조된 시설물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시설물 앞에 석축시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계단시설 등이 이 시설물과 연결되며 건물지의 성토층, 적석층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건물지일 가능성이 더 높다.

기단은 제1단석축시설의 남쪽 석렬의 축조방식과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기단은 직경 60cm이상의 대형 割石과 塊石을 사용하여 기단렬을 만들고 기단석렬 안으로 잡석을 사용하여 幅 1m이상의 범위를 꽉 채워 놓았다. 채워 다진 잡석군 일부중 원형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확인되는데 적심석일 가능성도 있다. 비교적 앞부분의 기단석렬은 잘 남아있는 편이며 동쪽 부분의 기단석렬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단계이고 동북편의 기단과 뒷편(북편)기단석렬은 後代에 만들어진 시설물에 의해 거의 파괴되었다.

건물지내부 주춧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건물지에서 주춧돌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조사 당시, 건물지 상부에 제주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묘제 양식중 봉토주

위를 사각으로 돌리는 여장 즉, 묘담(산담)[10]이 자리하고 있어(圖版19) 이 담을 만들면서 건물지의 주춧돌과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는 현 지표를 걷어내자 마자 동 건물지의 기단석렬 등이 나타났을 정도로 지표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 건물지보다 후대의(1960년대) 시설물이 건물지 내부 상면에 자리하고 있어 동 건물지의 석재가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이 건물지의 내부시설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외부시설로 동편에서 확인된 수로시설과 각 계단시설 3개소가 확인되었다. 수로시설은 산능선의 완만한 경사부분을 다듬어 그위에 만든 건물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밑으로 쉽게 흘려 보내기 위한 처리시설로 판단된다. 건물지 주변의 계단시설은 건물지 남서편과 정면중앙부분, 후면중앙부분에서 확인된다.

3. 건물지(3)(圖面6, 圖版26-42)

이 건물지는 앞서 건물지(2)의 내부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 사찰 건물지 중 뚜렷한 판석으로 이중의 기단을 둔 형식으로 동사지의 건물지중에서는 빠른 시기(제1차시기)의 건물지로 판단된다.

건물지의 성토층은 황갈색 점토층으로 기와와 자기편 그리고 자잘한 잡석을 섞어 다진 층으로 그 두께는 3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터운 황갈색점토층은 불규칙하게 형성된 생토층위로 고르게 깔려 있는데,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원래 생토면이 불규칙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圖版29). 이 토층 상면은 고운 입자의 명갈색점토층을 10㎝정도 깐 후 잘 다듬은 판석을 서로 맞게 배치하여 석렬을 만든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하여 기단석렬의 상면을 거의 수평으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수평이 되지않는 석렬 상면은 얇은 점판암제 판석을 사용하여 동일높이로 만들었다.

건물지의 규모는 현재 남아있는 기단석렬로 추정하면 동서 15.2m, 남북 11.0m정도이다.

남아있는 기단석렬은 이 건물지의 정면부분으로 그 길이는 15.2m로, 판석과 할석이 서로 맞물려 1단 혹은 2~3중으로 겹쳐 축조 되어있다(圖版36). 뒷편 제3단 석축시설과 맞물려 축조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남아있는 기단석렬은 없다.

정면부분의 동남쪽모서리가 정확하게 꺾여 확인되었다. 이 부분의 기단석렬 맞물림상태는 정교하게 판석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 특히 상면의 판석은 치석이 잘 된 장방형판석을 이용하고 있다(圖版35).

---

10) 산담 주변에는 상당량의 석재가 흩어져 있었고, 남아있는 산담은 그 높이가 1m, 한변이 길이가 4m정도이고 방형꼴로 돌려져 있었다. 가운데 묘자리는 찾을수 없었다.

상면 토층위에서 확인되는 주춧돌은 단 1기도 남아있지 않으나, 적심석군이 일부 확인된다. 정면부분의 남아있는 적심석의 간격은 2.2-2.4m이고 이 적심석은 모두 할석을 여러개 사용하여 둥글게 돌아가는 원형적심석 형태를 취하고 있다(圖版40).

건물지동편 중앙부분에서 아궁이시설이 확인되었다(圖版38). 이 아궁이 시설은 돈 건물지의 온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나,층위가 불분명하고 유구가 매우 중복·교란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건물지와 관련하여 동편기단석렬 밖으로 일련의 적석렬이 확인되었다. 이 적석렬은 30-45cm폭으로 길이 2.3-2.5m가량 2열로 맞대어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데, 언뜻 보기에 배수로 성격으로 파악되었으나 수로형태의 석렬벽 상면에 4매의 얇은 점판암제 판석조 덮개돌이 잇대어 덮혀 있는 상태였다.덮개돌을 제거하고 난후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은 재가 바닥부분에 깔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아마도 외부에서 불을 땐 후 온기를 안으로 밀어 넣는 온돌시설 일부로 판단된다.

이 건물지는 동서장축의 남향건물로, 남아있는 적심석의 배치상태와 전체추정규모로 보아 正面5間,側面3間 건물로 여겨진다.

4. 건물지(4)(圖面3,6, 圖版29~33)

건물지(3)의 정면기단석렬에서 북편으로 1.8m 떨어져 기단석렬이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의 기단석렬은 건물지(3)의 하단기단석렬보다 밑으로 내려간 층에서 확인되고, 석렬이 나아가는 방향도 건물지(3)의 기단석렬보다 동편으로 연장되고 있어 적어도 건물지(3)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11].

기단석렬의 축조방식을 보면 하단석렬은 두께 10~20cm정도의 얇은 판석을 정교하게 맞물려 석렬을 만들었고 그 상단은 할석을 이용하여 2,3중으로 쌓아올려 축조하였다. 하단기단석렬이 상단기단석렬보다는 5~10cm가량 밖으로 나와 있어 2중기단(계단식기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기단의 전체높이는 90-105cm이고, 남아있는 석렬의 길이는 9.6m이다. 이 건물지의 성토층은 입자가 고운 황갈색점토층이며 점토층 내부에 기와소편과 목탄(燒土)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내부초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적심석도 일부 확인되나 교란이 심하다.

이 건물지의 규모는 앞서 건물지(3)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되는 건물지

11) 본고에서는 건물지(3)과 (4)의 관계를 별개의 건물로 해석하였다. 이들 건물지를 동일건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발굴된 건물지(3)의 성토층이 건물지(4)의 상면을 완전히 덮고 있고 양 유구간의 중복상태로 보아 동일시기·동일건물로 보기에는 어렵다.

는 정면 5칸, 측면 3칸 정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건물지는 후대에 연속하여 동일장소에 건물군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파괴되어 그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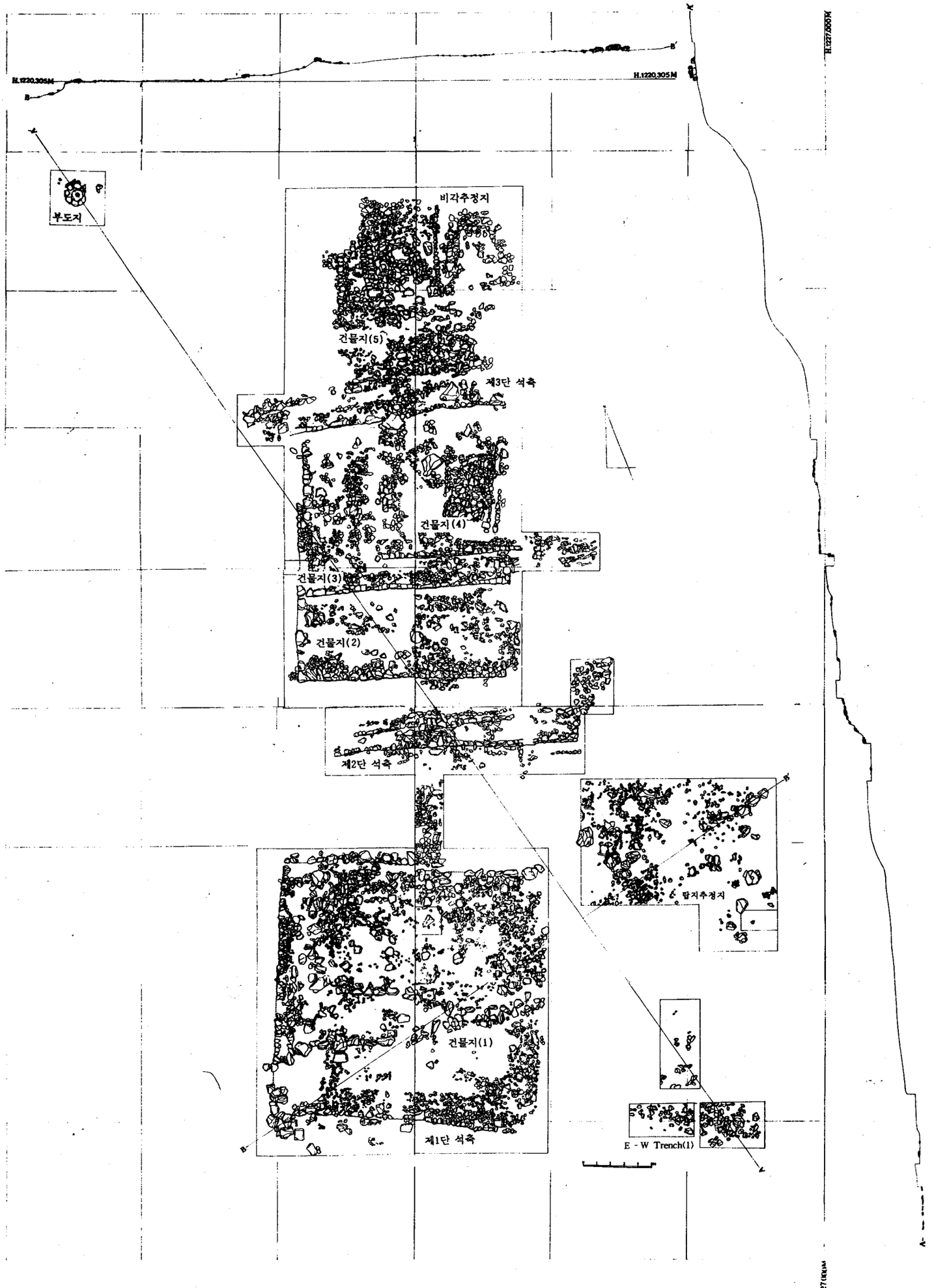
5. 건물지(5)와 碑閣推定址(圖面7~8, 圖版44~51)

제3단석축시설내에서 조사된 건물지(5) 구역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유구가 노출되었다. 1차발굴 당시 지표에는 비석상면에 얹는 옥개석 즉, 가첨석과 지대석이 놓여 있었고, 돌담과 제단이 남아 있어서 최근까지도 산제를 지내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圖版44).

지표상에 남아있던 최근의 돌담은 동쪽을 제외한 남,북,서에 돌려져 있었고 돌담의 직경은 4.5m, 폭 3.2m, 높이 0.8m이고 제단은 남북이 긴 방형으로 동서 2.2m, 남북 3.2m, 높이 0.5m의 규모였다.

남아 있는 돌담과 제단을 제거하고 표토제거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30㎝가량의 잡석매립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잡석들은 이 구역내에 시설됐던 시설물(건물지)과 관련된 석재들인 것으로 보인다. 잡석층과 흑갈색부식토층을 완전히 제거한 지표하 27~32㎝지점에서 판석조 부석시설이 노출되었다. 판석조 부석시설은 동서길이 4.6m, 남북길이 3.0m로 동서장축의 장방형으로 축조되었다. 얇은 판석을 동일 높이로 깔아 놓았고 부석시설의 북단 중앙에는 장방형의 공간이 확인되었다. 장방형 곽의 공간은 동서길이 80㎝, 폭 72㎝이다. 이 곽 내부에는 18~21㎝가량의 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었고 부식토층 밑으로 점토층으로 단단하게 다져 놓은 바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장방형의 공간에 비를 세우기 위해 점토를 다져 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장방형 부석시설과 잇대어 북쪽으로는 기와가 밀집되어 깔려있고 그 뒷쪽으로는 자연석이 깔려 있었다. 판석조 부석시설의 남쪽 끝으로 주초석 3개가 노출되었는데 주초석은 현무암을 치석하여 만든 것으로 대부분이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앞의 초석군과 연결되는 동 시기의 초석군이 북쪽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초석군은 방형, 혹은 장타원형의 초석으로 판석조 부석시설 밑에서 노출되었다. 이 건물지(5)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로 초석간의 간격은 남쪽의 중앙초석간의 간격은 256㎝이고 서쪽 초석간은 200㎝, 동쪽초석간의 간격은 200㎝로서 중앙칸의 간격은 넓고 양쪽칸의 간격은 일정하게 축조한 비교적 균형잡힌 건물지로 여겨진다. 또한 측면은 1칸으로 서쪽칸은 324㎝, 동쪽칸은 322㎝로 측면도 비교적 안정되게 축조된 건물지임을 알 수 있다('建物址復元圖' 參照)

판석조 敷石施設과 맞물려서 동,서쪽으로 2열로 축조된 담장열이 확인되었다. 이 담장지는 건물지(5)와 관련시켜 볼 때 건물지(5)의 방향과 다르게 축조되어있고 판석조 부석시설과 잇대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석조 부석시설과 관련된 유구일 가능성이



圖面 3 발굴 유구 전체 실측도

높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서쪽의 담장지 밖으로 1.6m의 간격을 두고 일렬의 석렬이 지나가는데 기와가 깔려있는 층 위에 축조되어 있어서 석렬도 건물지(5)가 소실된 후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12].

제2절 부속시설지

1. 浮屠와 浮屠址(圖面9~10 圖版52~56)

이 부도지는 제4단 석축시설 위에 만들어져 있다. 지표조사시 이미 부도지의 하대석과 중대석이 노출된 상태였다. 표토층의 두께는 30~35cm가량에 이르고 표토 밑으로 문화층 없이 막바로 생토층이 연결되었다. 생토면에 지대석 없이 높이 47cm의 하대석을 축조하였다.

下臺石은 모두 8개의 크고 작은 현무암제 할석을 접합하여 八角형태로 만들었다. 하대석의 복원직경은 144cm이다. 하대석 하단은 주위를 돌아가면서 직경 20cm미만의 할석을 고이거나 겹쳐 세워 하대석의 접합된 부분의 이탈을 방지하게 되어 있다. 하대석이 접합된 중앙에 나무가 자라면서 현재는 접합된 부분이 와해된 상태이다.

下臺石 상면으로 中臺石이 올려져 있다. 중대석은 제주현무암제를 齒石한, 직경 134cm, 높이 47cm의 크기로 둥근 원형이다. 원래는 하대석의 중앙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무가 자라면서 이탈되어 있다. 중대석의 중앙에는 원형의 돌출부가 만들어져 있다. 사리공의 일부로 생각되는 이 턱은 직경 18cm, 깊이 13cm로 패인 구멍은 둥글게 'U'字形을 그린다.

中臺石 상면에 얹은 塔身部는 이탈된 채 제2단 대지에 세워져 있었다. 건물지(3)의 남서편 기단석렬 모서리에서 서쪽으로 3.0m지점에 굴러 내려와 탑신 상하면이 뒤집힌 채 屋蓋石이 얹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浮屠의 塔身의 모양은 鍾形이며 높이 92cm, 최대폭 74cm, 최저폭 38cm이다. 최대폭을 중간에 두고 최저폭은 하단에 둔 형태이다. 제주도 현무암제를 정으로 정교하게 치석하여 면을 잘 다듬어 놓았다. 塔身의 밑부분 중앙에는 중대석의 상단 돌출턱에 끼울 수 있도록 홈이 패여 있다. 원형홈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은 직경 21cm, 깊이15cm이다. 결국, 이 홈은 아래 중대석 돌출턱과 凹凸形態로 접합하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 공간의 크기는 직경 17.5cm, 높이 12.5cm정

12)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주변토층에서 확인된다.층위조사과정에서 이 부분의 층위는 크게 흑갈색 부식토-황갈색점토층-기와층-황색점토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판석조 비각시설물과 담장지는 황갈색점토층에 속해 있었고, 건물지(5)의 석렬은 기와층과 황색점토층에 시설되고 있다.

도이다. 이 공간에 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凹凸형태로 맞물린 것은 아마도 浮屠身의 이탈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발상으로 판단된다.

2. 塔址推定址(圖面13, 圖版57~59)

이 부분은 原狀의 중심 柱孔石이 1기 자리하고 있고 남쪽으로 배치된 2기의 주춧돌군이 확인되며 적석시설의 일부도 확인된다. 토층조사 결과 이곳은 최근까지 교란흔적이 뚜렷하며 소토층이 다량으로 포함된 구덩이들이 여기저기 확인된다. 이 구덩이에서 사슴뼈들이 확인되어 이들 구덩이는 산에서 짐승을 잡아 먹었던 행위 장소로 판단된다.

柱孔石은 수평을 맞추기 위해 주변을 돌아가면서 積心石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주공석과 관련한 유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어떤 성격의 유구인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또한 주춧돌군이 확인되는 곳은 주변 적석시설과 관련한 유구로 판단되는 데, 정형성이 없어 유구 자체가 불확실하다.

제3절 기타시설지

1. 第1段 石築施設(圖面4, 圖版4~6)

유적의 입구에 해당하는 맨 첫단의 축대시설, 석축이 시설된 방향은 N35E 방향이다. 석축의 축조범위는 남쪽부분 설렬이 최소한 30m이상 될것으로 짐작되며, 전술한 건물지(1)의 서편으로 16m이상의 석렬이 앞서 남쪽석렬과 직각으로 맞물려 있어 동서장축의 장방형꼴로 나타난다. 유구의 맨 남쪽부분인 남쪽 석렬 부분으로 20m이상 확인되었고, 석렬은 직경 40cm이상의 부정형 할석과 괴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석축석렬 안쪽은 정면석렬를 보강하기 위해 잡석을 사용하여 폭 1m이상 채워 다졌다. 남쪽기단부의 중앙에 다공질현무암을 다듬어 만든 길이 80cm, 폭 50cm의 판석이 가로로 놓여 있다. 아마도 축대시설로 들어서는 계단석으로 판단된다. 이 축대시설의 석렬 잡석틈새에서 16세기-17세기경의 백자항아리편과 기와 등이 확인된다. 특히 서쪽 석렬 틈새에서 청동제 사천왕부조편이 출토되었다.

석축시설의 중앙부분에 1m×1m의 테스트핏트 조사에서, 토층은 크게 두개의 층위로 확인되었다. 하층은 자연석과 기와 등이 섞인 흑갈색점토층으로 그 두께가 30~37cm에 이르고 그 상층은 10~15cm가량의 황갈색점토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석축의 서편은 1950년대 이후에 임시 막사가 지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심하게 교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第2段 石築施設(圖面6,11 圖版13~18)

이 시설은 사찰 초축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사져 내려오는 자연적인 산능선에 막바로 건물 시설을 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지면정리 작업을 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높은 북쪽의 흙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남쪽으로 이동된 흙을 북쪽 지면과 동일레벨로 만들기 위해 축대를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출된 석축석렬의 길이는 18.08m이고 예상되는 규모는 남쪽부분의 동서길이가 25m이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동·서편의 축대부분은 모서리부분을 차츰 남에서 북으로 경사지게 올라가면서 원래 지면을 약간 깍아서 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축의 築造方法은 생토암반층위에 황색점토를 10~20cm가량 수평으로 깔아 놓은 후 상면을 고르게 치석한 할석과 판석을 남쪽 방향으로 맞춰 下段石列을 구축하였다. 다시 맨 下段石列 위로 40×30×30cm 이상의 자연석과 할석을 밑 석렬보다 15~17cm 정도 안으로 들어와 남쪽방향으로 맞춰 동서로 길게 배치하였다. 이 석렬의 상면을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 맨 하단석렬은 크고작은 돌로 받쳐 있다. 다시 이 석렬위로 잡석이 채워지고 맨 상단(생토암반에서 1.5m 위)에 자연석을 불규칙하게 동서로 배치하였다.

이 석축시설은 단위 대지에 시설된 건물의 기단석렬하단과 수평으로 만들어 졌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하단석렬과 그 위의 석렬은 건물지(3), (4)를 시설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고려말-조선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단의 불규칙한 마지막 석렬을 만든 시기는 건물지(2)와 관련된 조선중기로 판단된다. 이 석축시설 중앙부와 동편끝부분에서 2개의 계단시설이 확인되었다.

그 중 하나는 석축의 정 중앙부분 즉, 건물지(2)의 남쪽면 기단석렬 중앙에서 발견된 계단시설이다(圖面11, 圖版15). 이 계단시설은 기단석렬 레벨과 계단의 맨상층 段 레벨이 동일 높이로 이어지며 30cm 높이차로 各段이 내려간다. 제1단 앞에 길이 100cm, 폭 40cm, 두께 20cm 크기의 디딤돌이 놓여 있다. 이 디딤돌은 얇은 판석으로 황갈색점토에 수평으로 놓여 있다. 제1단은 현무암제 大型板石(80×44cm)이 동서로 놓여 있으며 앞 디딤돌과의 높이차는 20cm이다. 이 계단석동편에 직각방으로 판석이 남북으로 놓여 있다. 이 판석은 이 계단시설의 동쪽 부분 마감석으로 판단된다. 제3단은 제1단의 계단석과 동일한 크기의 판석(80×44cm)이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다. 제1단과 제3단사이에는 잡석을 채워 또 하나의 段을 만들었다. 각 段의 높이차는 30cm이다. 전체적으로 이 계단은 적어도 3단이상의 계단시설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1)와 이 계단시설물 사이에 남북 중심트렌치를 넣어 지표를 제거한 결과 동서로 이어지는 굴광선들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堀壙線의 간격은 45cm정도이다. 이 굴광선은 유구의 노출상태로 볼때, 적어도 건물지(1)과 건물지(2)를 연결하는 길이

7m이상의 중요계단시설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고,후대에 와서 자연적인 경사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하나의 계단시설은 건물지(2)의 동남편 모서리에서 확인된 계단시설이다(圖面 11,圖版18). 제2단 석축시설의 남서편 직각모서리로 부터 2m가량 북편지점에서 확인된다. 길이 280cm, 폭 160cm의 대형판석을 윗단에 넣고 30cm가량 아래에 할석렬을 만들어 계단으로 이용한 2단의 계단시설이다.

3. 第3段 石築施設(圖面 7,12 圖版43)

이 석축시설은 건물지(5)와 비각지추정지가 자리한 제3단 석축대지를 구축한 시설물이다. 축조방법은 제2단 석축시설과 동일하다. 다만, 비교적 큰 할석과 자연석을 이용하여 1단 석렬을 안정되게 만들고 있으나 그 석렬간의 맞춤방법이 2단 석축시설보다 정교하지 못하다. 상부석축도 교란이 심하여 원상에서 이동된 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노출된 하단(1단) 석렬의 길이는 24.3m이다.

이 석축시설의 중앙부분에서 계단시설이 확인되었다. 건물지(3)의 북편에 만들어진 이 계단시설물은 碑閣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데, 아마도 건물지(3)과 동일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물지의 뒷편에 자리했던 건물지(5), 비각지로 往來했던 연결계단지로 판단된다. 이 계단지는 현재 파괴가 심하여 원래 축조시 상태를 정확히 기술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5단 이상의 계단지로 판단되며 각단의 간격은 45cm, 폭은 1m정도이고 총길이는 2.5m정도로 여겨진다. 이 계단지 아래로 얇은 점판암제 판석을 敷石한 보도형식의 유구가 확인된다.

4. 排水施設(圖面3,6 圖版37)

지형상, 존자암사지는 크게 경사진 지형을 삭토하여 석축을 만들고 그위에 건물지 등을 시설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건물 지붕에서 흘러내린 물을 일정한 배수시설을 통해 아래로 내려보내야 했을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排水施設은 건물지(3)의 서, 동편과 건물지(1), (2)의 서편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5. 敷石·積石施設(圖面4,6,14 圖版 4~6,13~16,38)

① 敷石施設(圖面14, 圖版38)

건물지(4)의 上層에서 확인되었다. 흑갈색부식토층내에 敷石되어 있다. 그 아래로

황갈색점토층(건물지 성토층)이 이어진다. 부석시설의 방향은 남북방향으로 동서로 짧고 남북이 긴 장방형꼴이다. 부석된 범위는 남북 4.4m, 동서 3.0m이다. 얇은 판석을 동일한 높이로 깔아 놓았으며 부석틈새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백자편과 복합문 숫기와편들이다. 부석시설이 놓인 방향, 비각지의 부석축조상태, 출토유물상황을 비교해 볼 때 제3단 석축시설내 비각추정건물과 관련하여 만든 시설물일 가능성이 짙다.

② 積石施設(圖面4,6 圖版4~6,13~16)

적석시설은 각 석축시설의 동서편에 나타난다. 각단의 적석시설을 정교하게 만들고 나서 양옆을 보완하기 위해 불규칙하게 쌓아 놓은 시설로 판단된다.

제4절 周邊遺構·Trench 地表調査

1. Trench 調査(圖面15, 圖版60)

① N-S Trench(1)-(3)과 확장 Pit

이 부분은 原狀의 柱孔石이 자리하고 있고 남쪽으로 배치된 2기의 주춧돌군이 확인되며 적석시설의 일부도 확인된다. 토층조사시 이곳은 최근까지 교란 흔적이 뚜렷하며 소토층이 다량으로 포함된 구덩이들이 여기저기 확인된다. 이 구덩이에서 사슴뼈들이 확인되어 이들 구덩이는 산에서 짐승을 잡아 먹었던 행위 장소로 판단된다.

② N-S Trench(4)(圖版60-3)

토층을 조사하기 위한 소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30~40cm가량의 흑갈색부식토가 퇴적되어 있고 그 밑으로 50cm이상의 황갈색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이 황갈색점토층 상면에는 불규칙하게 敷石된 부분이 확인되었다.

③ E-W Trench(1)(圖面15, 圖版60-2)

제1단 석축과 관련된 동편의 적석군이 확인된다. 아마도 이 사지의 맨 아래쪽의 석축시설로 판단되는데, 맨 앞쪽의 석렬은 60cm이상의 대형현무암제 자연석을 사용하여 마감하고 있다. 그안으로 30~40cm 크기의 자잘한 할석과 괴석을 섞어 일정한 규칙없이 쌓아 놓았다.

2. 周邊遺構 地表調査(圖版60)

① 少川(圖版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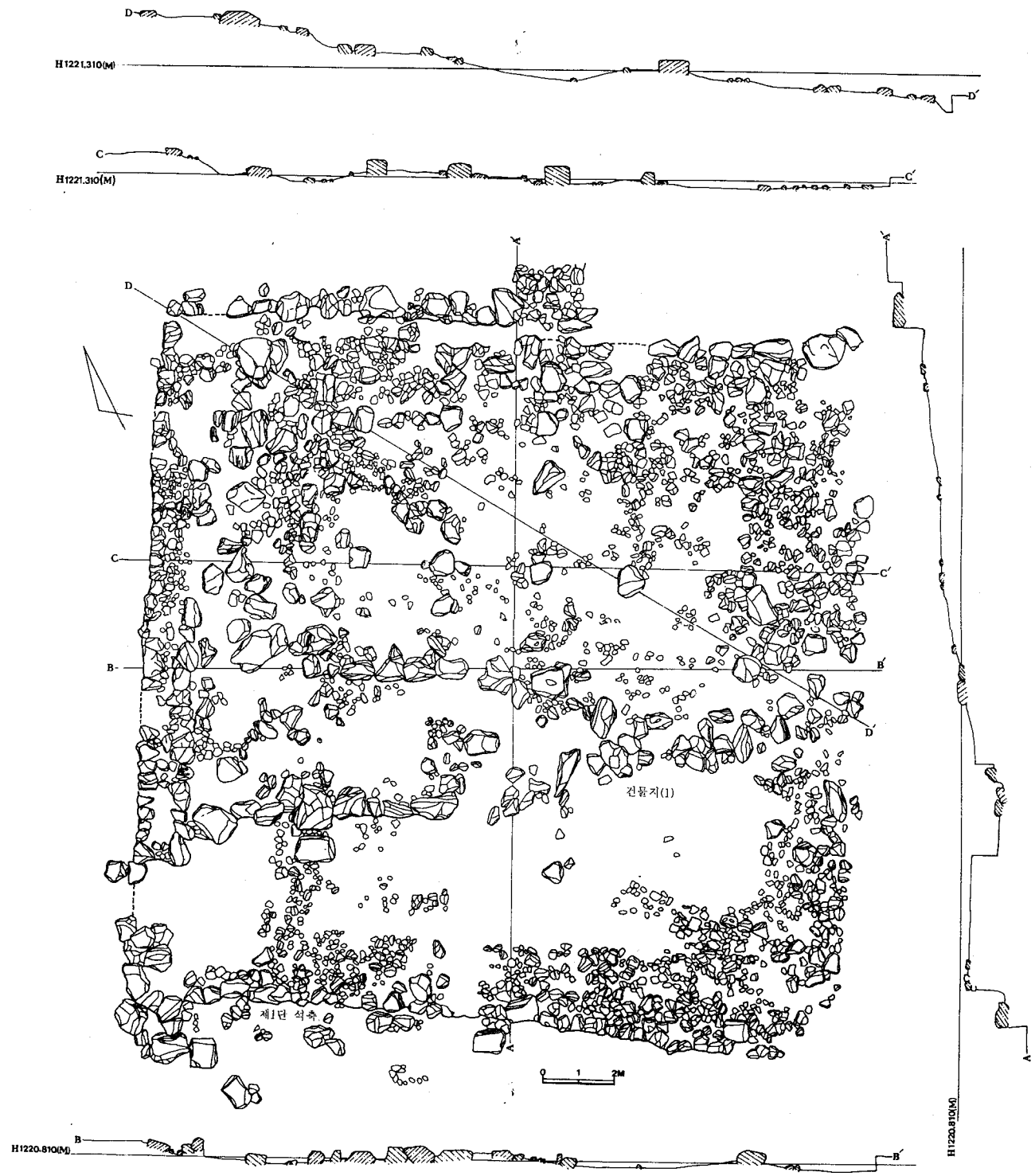
유적의 동편으로 굽이쳐 흐르는 小川이 형성되어 있다. 이 소천은 유적지 위편 불래오름 근처에서 勇川(發源)하여 유적 동편을 지나 남으로 500m지점까지 흐르다 지하로 스며들어 흔적을 감춘다. 이 용천수는 절간의 가장 중요한 식수원으로 활용되어졌을 것이고, 이러한 높고 깊은 산중에 절이 자리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② 貯水施設(圖版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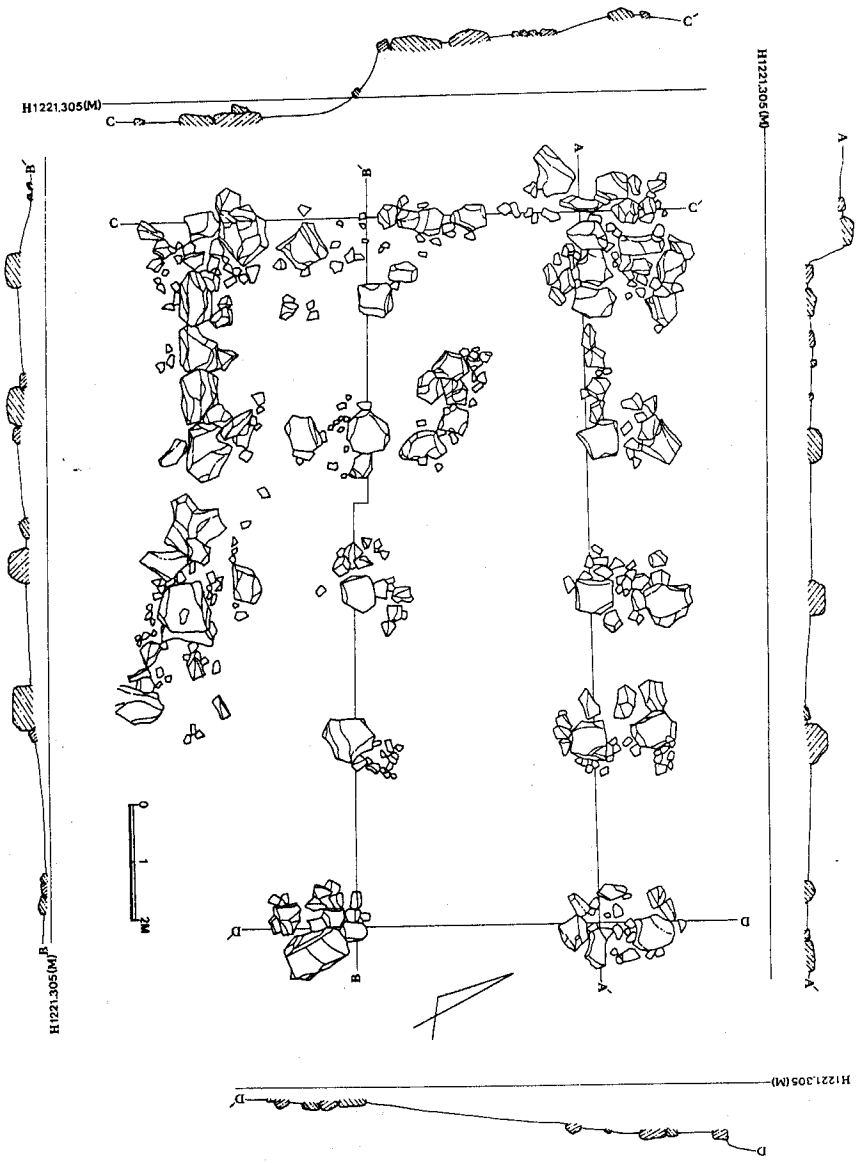
물이 떨어지는 작은 계곡과 현 진입로 중간에 저수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제주도 현무암 자연석과 할석을 쌓아 흐르는 물을 막기위해 석벽을 쌓은 시설이 남쪽부분에서 확인된다. 벽은 4단이상 확인되었다.

③ 進入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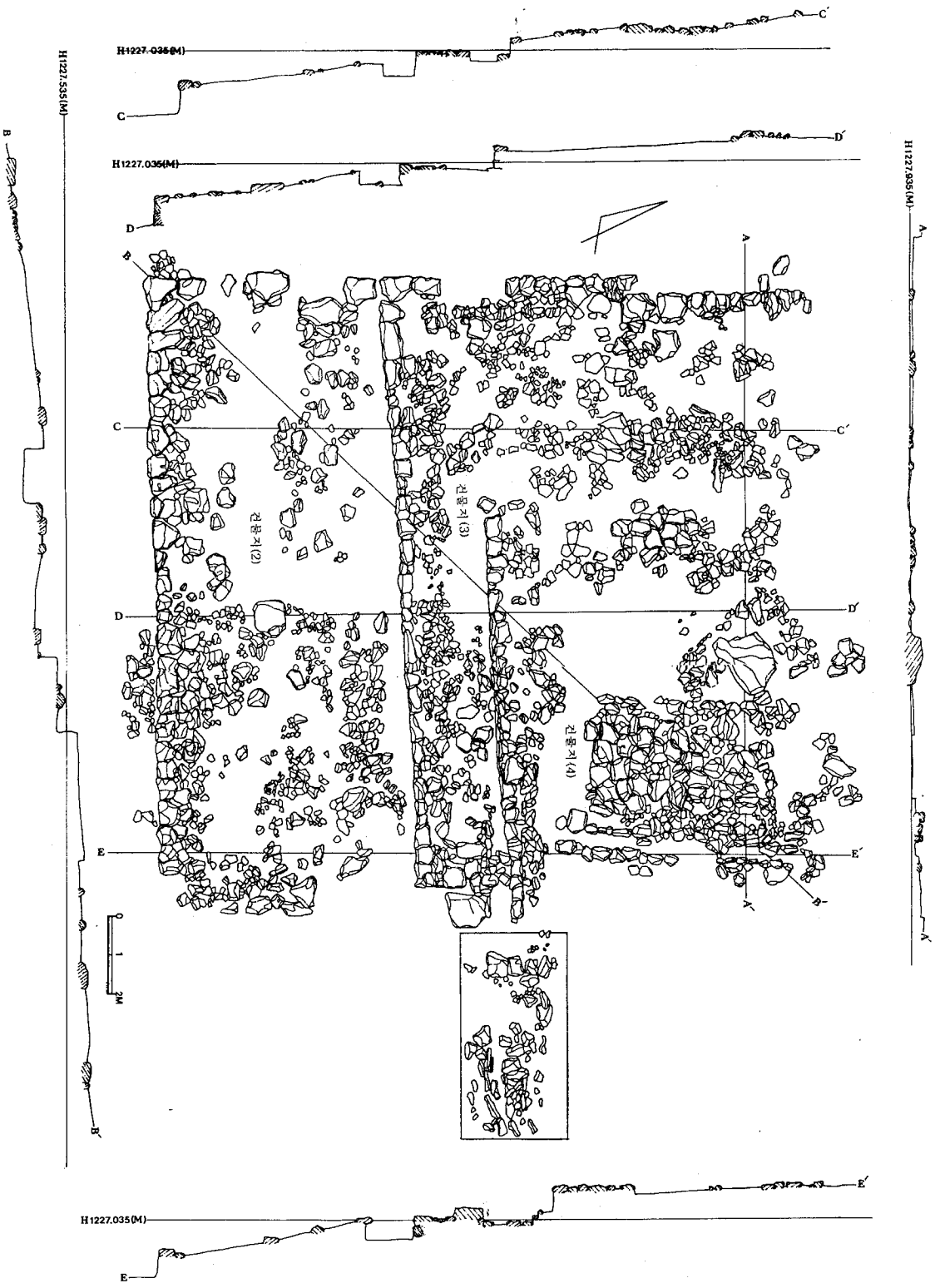
유적의 진입로가 소로 형식으로 만들어 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천을 건너야 만이 이 절에 들어 올 수 있는 까닭에, 유적 지형상 현재 이용중인 소로진입로가 당시의 진입로로 판단된다.



圖面 4 제1단 석축시설내 유구실측도



圖面 5 건물지(1)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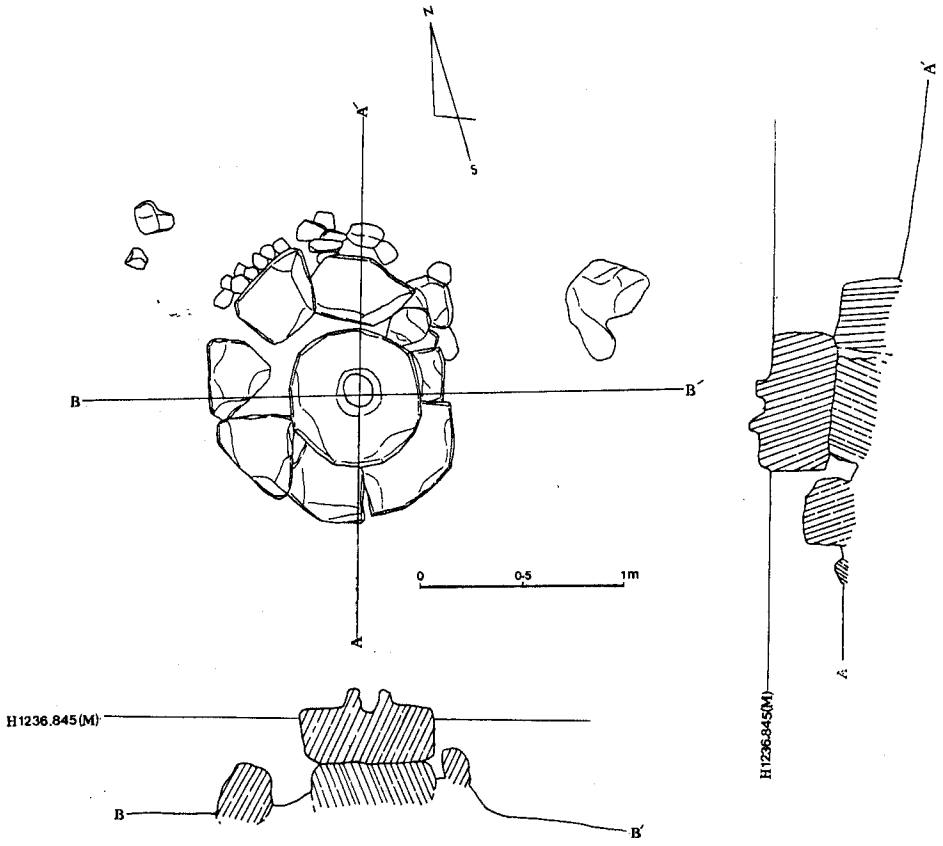


圖面 6 제2단 석축시설내 건물지(2),(3),(4)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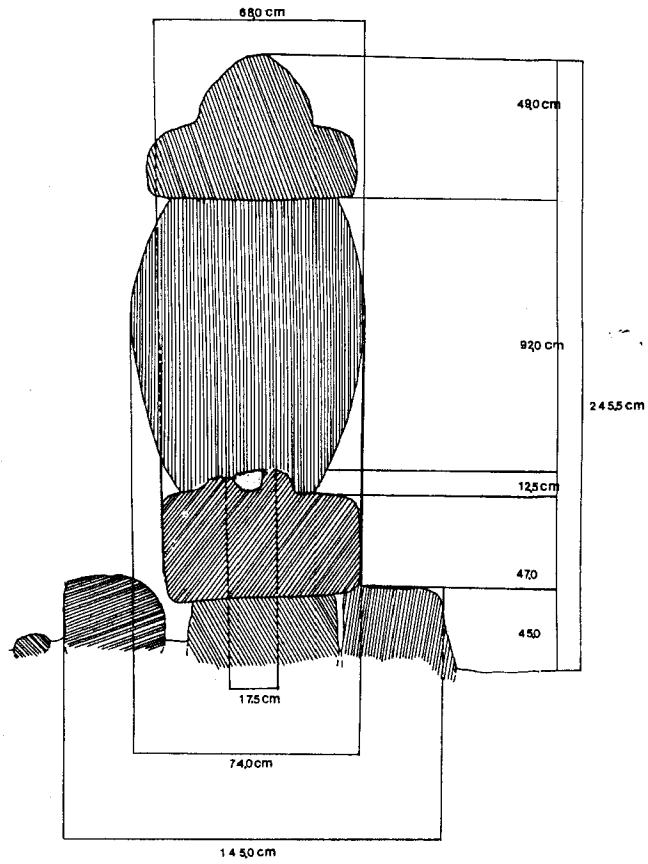


圖面 7 제3단 석축시설내 유구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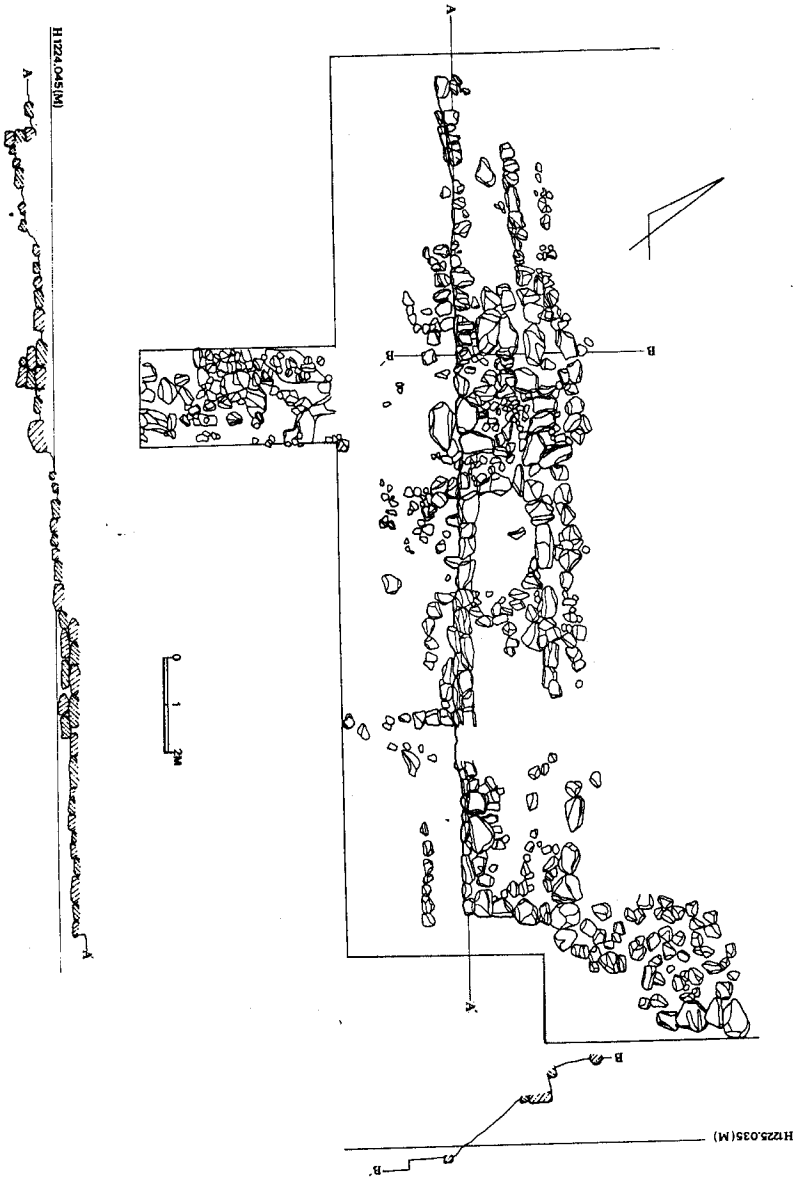
圖面 8 건물지(5) 실측도



圖面 9 제4단 석축시설내 부도지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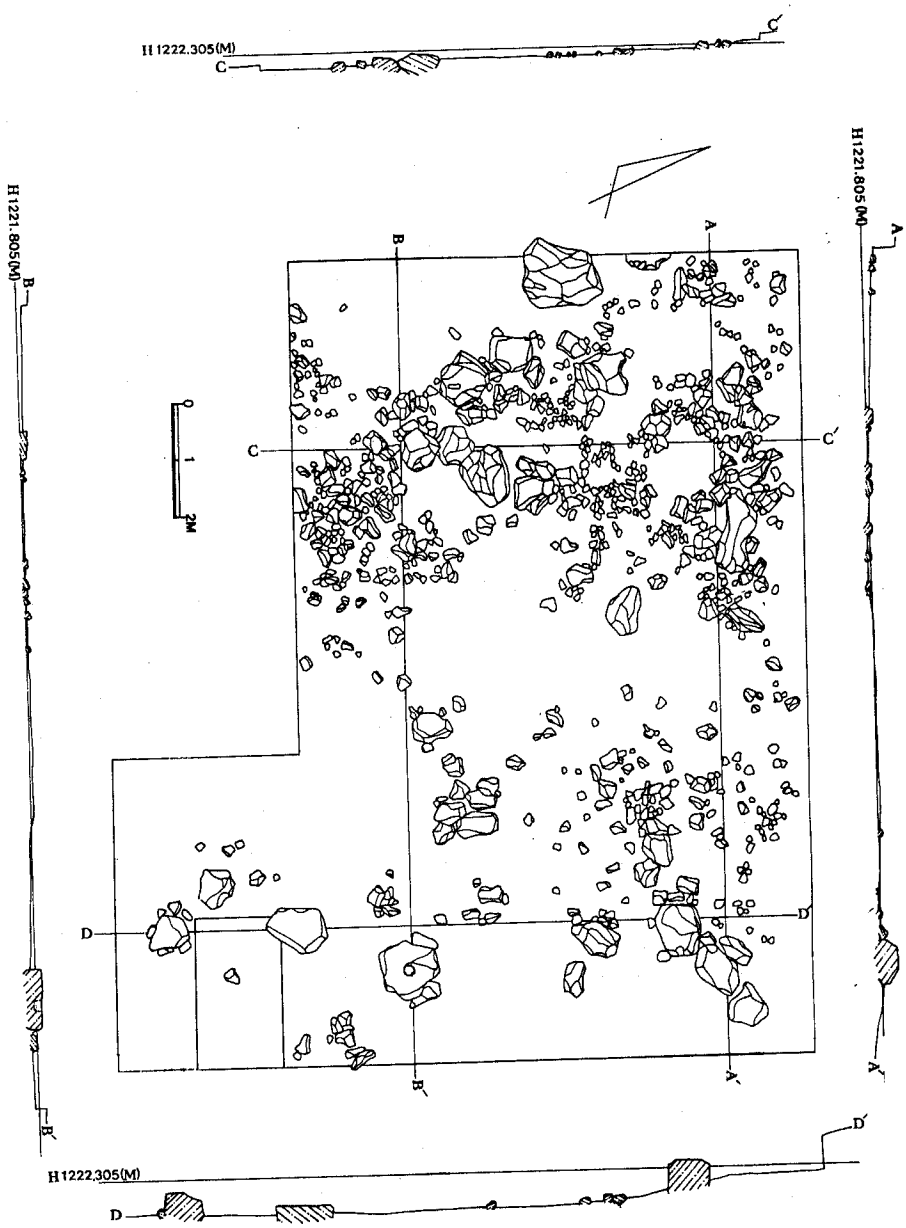
圖面 10 부도 복원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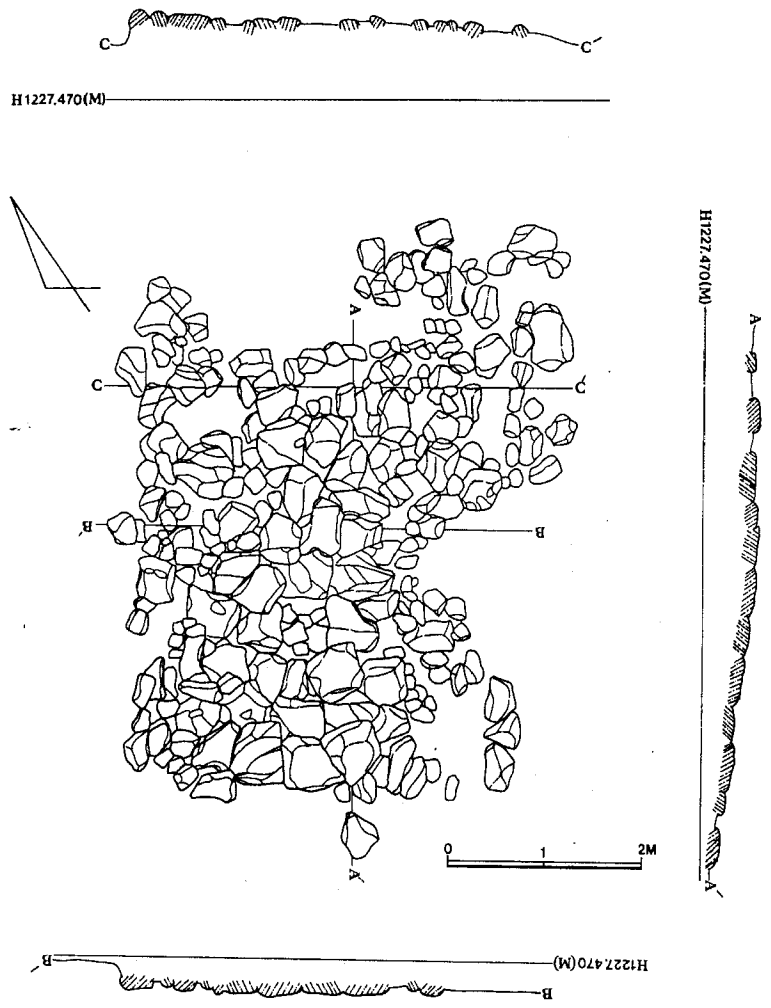
圖面 11 제2단 석축과 계단지(1)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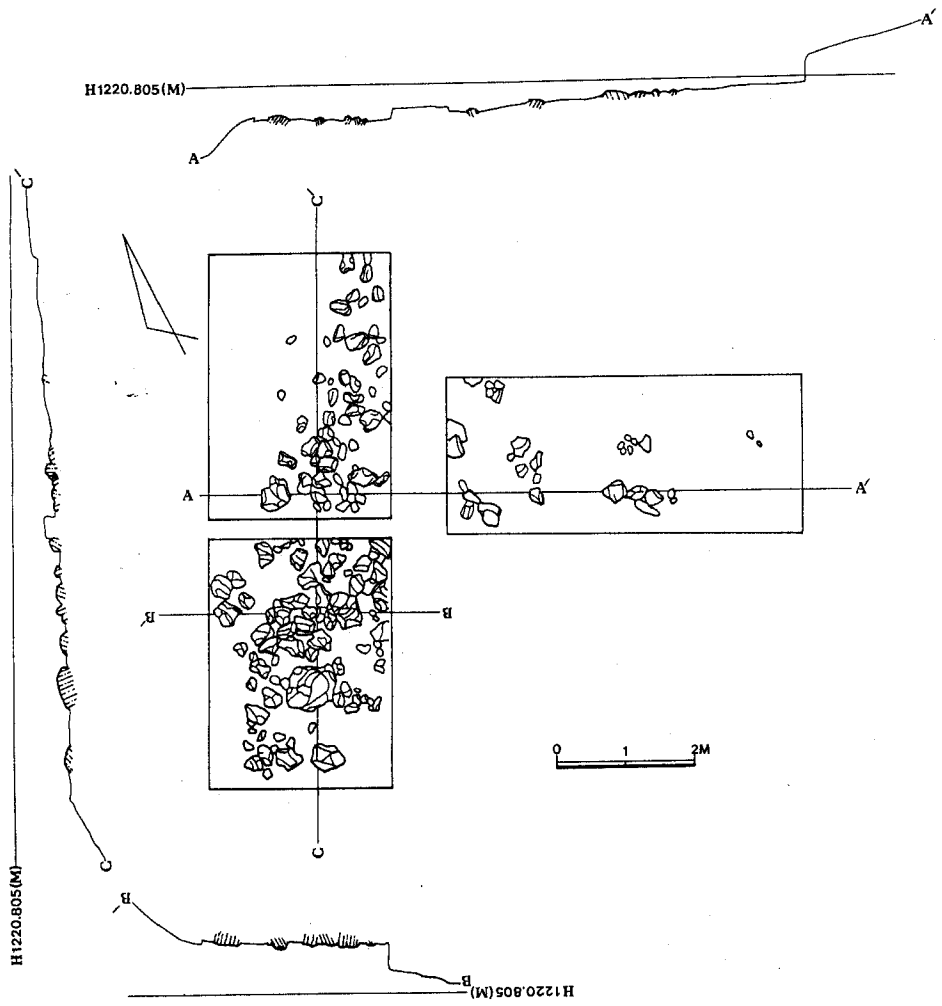
圖面 12 제3단 석축과 계단지(3) 실측도



圖面 13 탑지추정지 실측도



圖面 14 敷石시설 실측도



圖面 15 E - W Trench(1)내 적석 시설물 실측도

제5장 遺　物

제1절 기와류

존자암지에서 출토되는 기와류는 모두 암·수 평기와편들로 막새기와나 기타 다른 용도의 기와는 출토되지 않았다. 부도지를 제외한 발굴구역 전역에서 출토된 기와는 몇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파손된 형태로 출토되었다. 보고서에는 출토된 천여편의 기와중에서 기와 등문양이 다른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명문기와는 전체명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가급적으로 많은 수를 정리하였다.

1. 명문기와류

① "万戶兼牧使" 銘瓦

존자암에서 출토된 명문와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와이다. 기와 전면에 걸쳐 명문만을 시문한 기와로 암기와에서만 확인되었다. 전체 명문은 「??二月修正禪師大夫金沖光, 万戶兼牧使奉?」으로 두께 약 0.1㎝의 세선을 사용하여 정교한 서체로 시문되었다. 명문은 右書로 陽刻되었다. 명문 주위로는 너비 1.3㎝의 명문외곽 테두리를 구획하고 내부에는 사찰기와에서 흔히 보이는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	출토위치
16-1	61-1	암기와. 회청색. 전면 상부의 물손질 수법.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1.8	탑지추정지
16-2	61-2	암기와. 회청색. 전면 상부의 짓눌림 흔적.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2.2	탑지추정지
16-3	61-3	암기와. 회청색. 전면 부분적인 균열. 측면 일부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횡방향의 주름. 연질.	1.9	탑지추정지
17-1	62-1	암기와. 회색. 전면 심한 마모. 후면 미세포흔. 연질.	1.7	탑지추정지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	출토위치
17-2	62-2	암기와. 회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일부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연질.	2.0	탑지추정지
17-3	62-3	암기와. 회색+회청색. 전면 중앙부를 경계로 색조 변화.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횡방향의 주름. 경질. 소성도 높음.	2.2	탑지추정지
18-1	63-1	암기와. 회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횡방향의 주름. 경질. 소성도 높음.	2.0	탑지추정지
18-2	63-2	암기와. 회청색. 전면 중앙부의 빗질 흔적.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2.0	탑지추정지
18-3	63-3	암기와. 회청색. 전면 하부의 물손질 수법. 후면 미세포흔. 횡방향의 주름. 경질. 소성도 높음.	2.0	탑지추정지
19-1	64-1	암기와. 회갈색. 후면 미세포흔. 연질.	1.8	탑지추정지

② "千戶夫承碩" 銘瓦

기와 전면에 걸쳐 명문만을 시문한 기와이며 숫기와에서만 확인되었다. 전체 명문은 「千戶夫承碩瓦, 近無閑媳師呂介丁字」로 몇자가 더 시문되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명문은 두께 약 0.1㎝의 세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시문되었다. 또한 명문은 위에서 아래로 일렬로 시문되어서 한 문장을 이루며, 右書로 陽刻되었다. 명문 주위를 돌아가는 외곽테두리선 내부에는 과대문이 시문되었으나 간혹 제선문으로 시문된 것도 확인되었다. 명문부의 규격은 가로가 3.2㎝이며 세로방향의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동일 명문기와는 전반적으로 회청색 색조를 띠나 소성도 면에서는 차이가 심한 편이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19-2	64-2	숫기와. 흑회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단흔 마모.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연질.	1.6	탑지추정지
19-3	64-3	숫기와.회청색.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2.0	탑지추정지
19-4	64-4	숫기와. 회갈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손톱누름흔적. 연질.	1.8	지 표
20-1	65-1	숫기와. 갈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굵은 포흔. 종방향의 주름. 연질.	2.1	건물지(1)

③ "壬申造"銘瓦

숫기와에서만 확인되는 기와이다. 명문은 좌서로 양각되었다. 「申」자가 비스듬히 옆으로 시문되어서 다른 글자로 혼동되기 쉽다. 명문을 표현한 선의 두께는 0.4cm내외로 비교적 두껍게 시문되었다. 명문 하부의 문양은 선조문이 시문된 것과 정격자문이 시문된 것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壬申造」 명와류는 동일 명문와중에서 소성도와 태토면에서 각각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20-2	65-2	숫기와. 회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포흔 사라짐. 연질. 소성도 매우 낮음.	2.4	건물지(5)
20-3	65-3	숫기와. 회흑색+회청색. 전면 부분적인 색조 변화.	1.8	건물지(5)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21-1	66-1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경질. 소성도 높음. 숫기와. 회청색. 전면 일부 짓눌림 흔적.	2.0	건물지(5)
21-2	66-2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물손질 수법. 경질. 소성도 높음. 숫기와. 회청색. 전면 부분적인 균열.	2.0	건물지(5)
22-1	67-1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부분적인 균열. 경질. 소성도 높음. 숫기와. 회청색. 전면 일부 물손질 수법.	2.2	건물지(5)
22-2	67-2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일부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경질. 소성도 높음. 숫기와. 회청색. 전면 심한 마모.	2.3	건물지(5)
22-3	67-3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주름. 연질. 숫기와. 흑색. 전면 흑색의 자연유 시유.	1.7	건물지(5)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④ "天丑開啓" 銘瓦

「天丑開啓」銘文瓦는 완형인 상태로 단 1점 만이 출토되었다. 언강이 부착된 유단식기와로 언강부의 길이 3.5cm, 기와몸체의 길이는 30cm이다. 명문부의 외곽테두리선은 기와상부 5.7cm에서부터 기와하부 11.5cm지점까지 구획되었고 그 내부에 명문이 시문되었다. 명문은 위에서 아래로 일렬에 걸쳐 右書로 陽刻되었다. 또한 명문은 기와몸체를 따라 띠를 두르듯 반복시문되었다. 명문은 0.1~0.4cm 두께의 불규칙한 선으로 시문되

었다. 또한 명문과 명문은 0.2~0.4㎝의 양각돌출선으로 구분되었다. 명문부 밑으로는 제선문과 격자문이 중복되어 시문되었으나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모되어 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	출토위치
23-1	68-1	숫기와. 회청색. 전면 기와 상부의 와도 절단흔.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1.8	건물지(5)

⑤ "高" 銘文瓦

숫기와에서 단 1점이 확인되었다. 언강이 부착된 상태이다. 선조문이 횡방향으로 시문된 기와의 중앙부에 조잡한 서체로 명문을 시문하였다. 명문이 시문된 선의 두께는 0.2㎝이다. 명문은 右書로 陽刻되었으며, 기와가 굽은 면을 따라 띠를 두르듯 시문되었다. 명문상단과 하단에도 다른 명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가 심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기와 등에는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빗질한 수법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	출토위치
24-1	69-1	숫기와. 회청색. 전면 심한 마모. 일부 파열·균열.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종방향의 불규칙한 와도흔·예세흔. 경질. 소성도 높음.	2.2	건물지(3)

⑥ "尊" 銘瓦

수지문이 시문된 암기와의 중앙부에 3조의 테두리선이 둘러있고 그 내부에 명문이 시문된 기와이다. '尊'자는 기와가 굽은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시문되었다. 명문은 두께 0.2㎝의 세선으로 표현하였고 우서로 양각되었다. 기와는 전체적으로 마모된 정도가 심하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	출토위치
24-2	69-2	암기와. 회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마포흔이 사라짐. 경질. 소성도 높음.	2.8	건물지(3)

⑦ "支" 銘瓦

수지문이 시문된 기와의 중앙부에 길게 테두리를 두르고 그 내부에 명문이 시문되었다. 명문은 우서로 양각되었다. 확인되는 명문은 '支'자 한자뿐이며 선의 굵기는 0.2cm의 세선으로 처리되었다. 기와는 전면에 걸쳐 균열이 있고 마모된 정도도 심하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25-1	70-1	숫기와. 회청색. 전면 기와 전면에 균열.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2조의 모골흔. 경질. 소성도 높음.	2.1	건물지(3)

⑧ "土回" 銘瓦

숫기와에서 확인되는 명문와이다. 명문은 옆으로 보았을때 1字로도 보인다. 수지문이 시문된 기와에 장방형의 테두리를 두르고 내부에 기와등이 휜 방향을 따라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명문이 자리하고 있다. 수지문 선의 굵기는 0.1cm내외이고 선간은 0.2cm이다. 중심가지 사이의 간격은 2.5cm내외이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25-2	70-2	숫기와. 회청색. 전면 일부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예세흔. 경질. 소성도 높음.	2.4	건물지(3)

2. 평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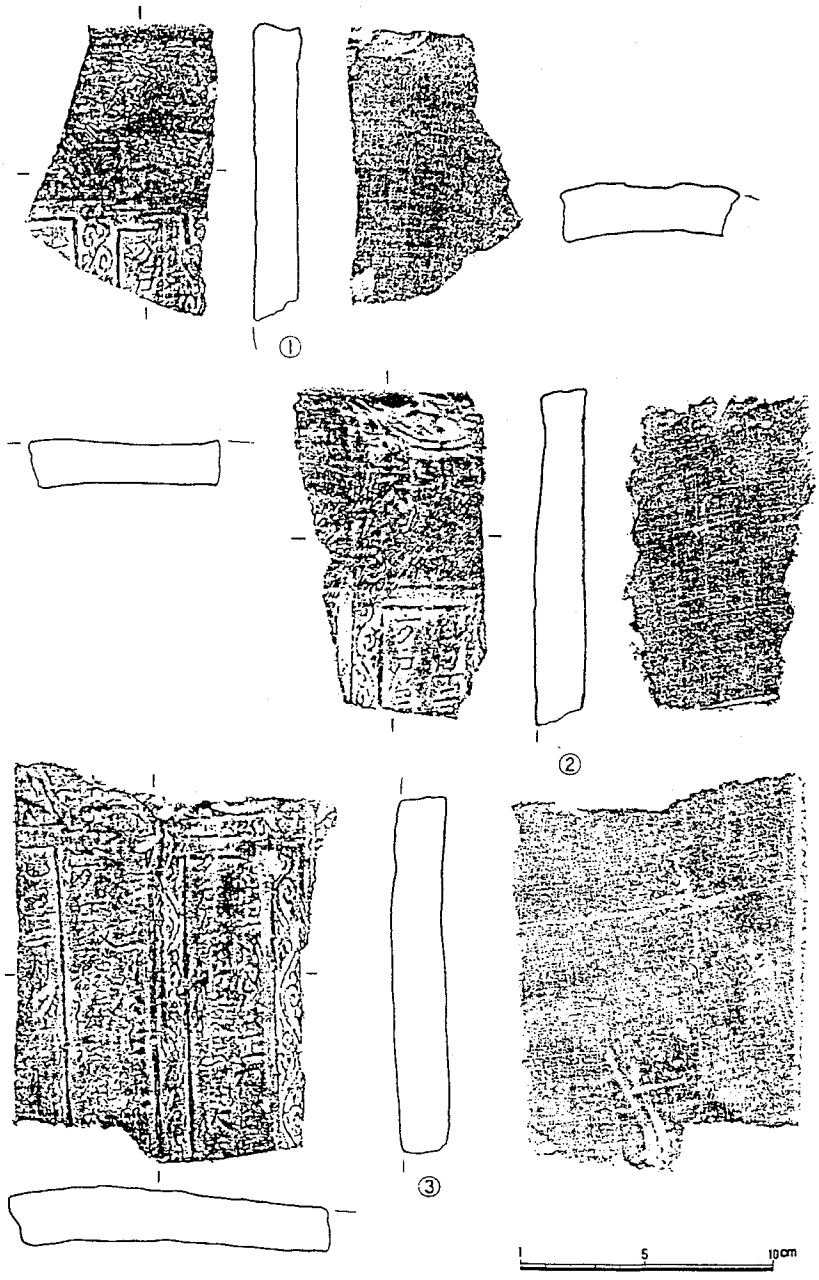
존자암에서 많은 양의 기와가 출토되었으나 보고서에는 크기가 비교적 크고 완형에 가까운 것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문양이 차이를 보이는 기와는 개별기술을 하였다.

1) 암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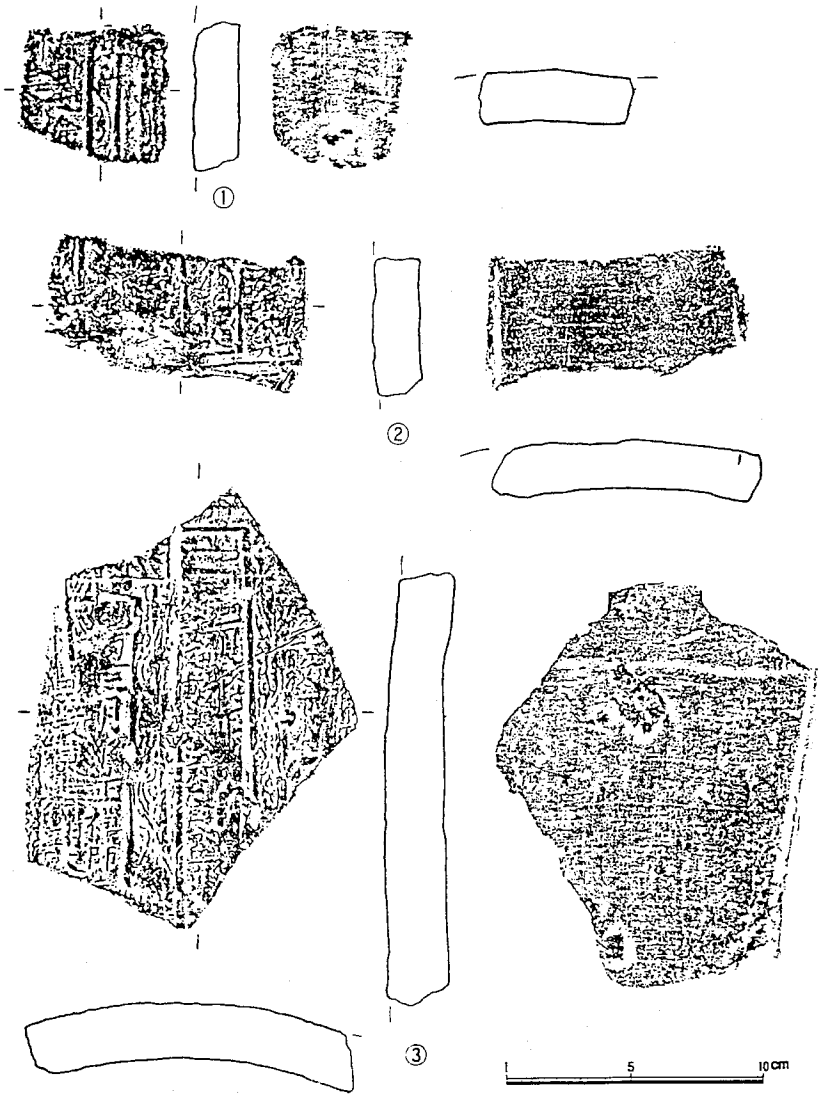
암기와류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기와는 수지문에 다른 문양이 복합적으로 시문된 기와이고, 선조문, 파상문, 무문순이다.

① 수지문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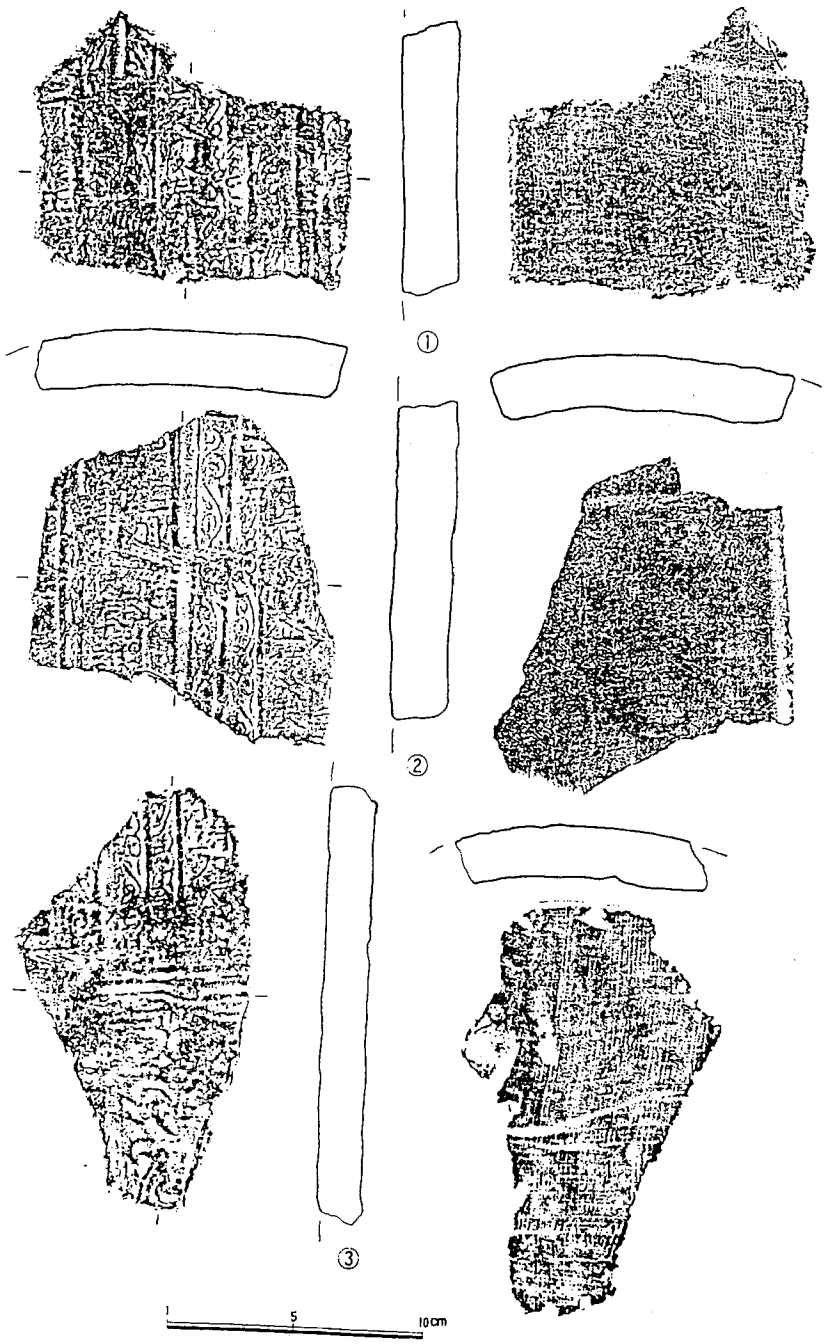
기와 상부가 결실된 상태로 하부만 남아있다. 수지문 선의 굵기는 0.2~0.3cm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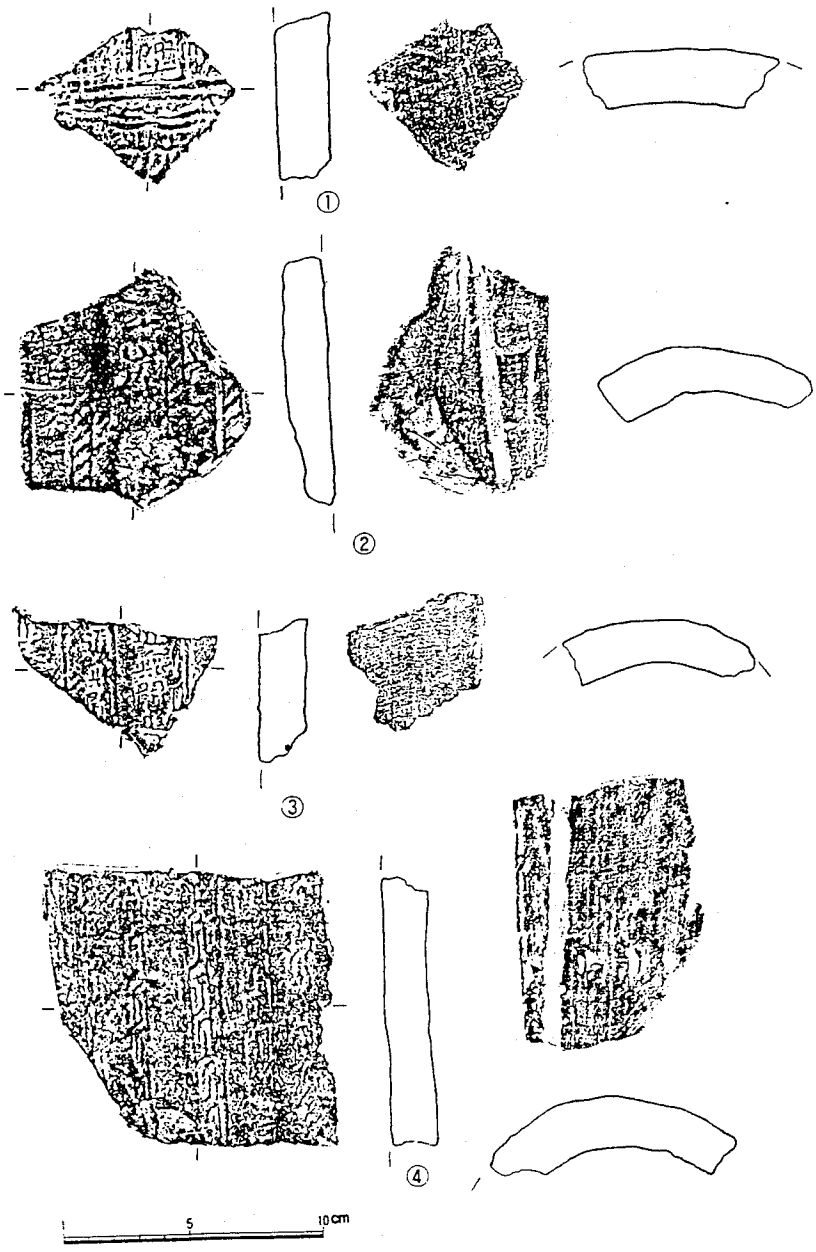
圖面 16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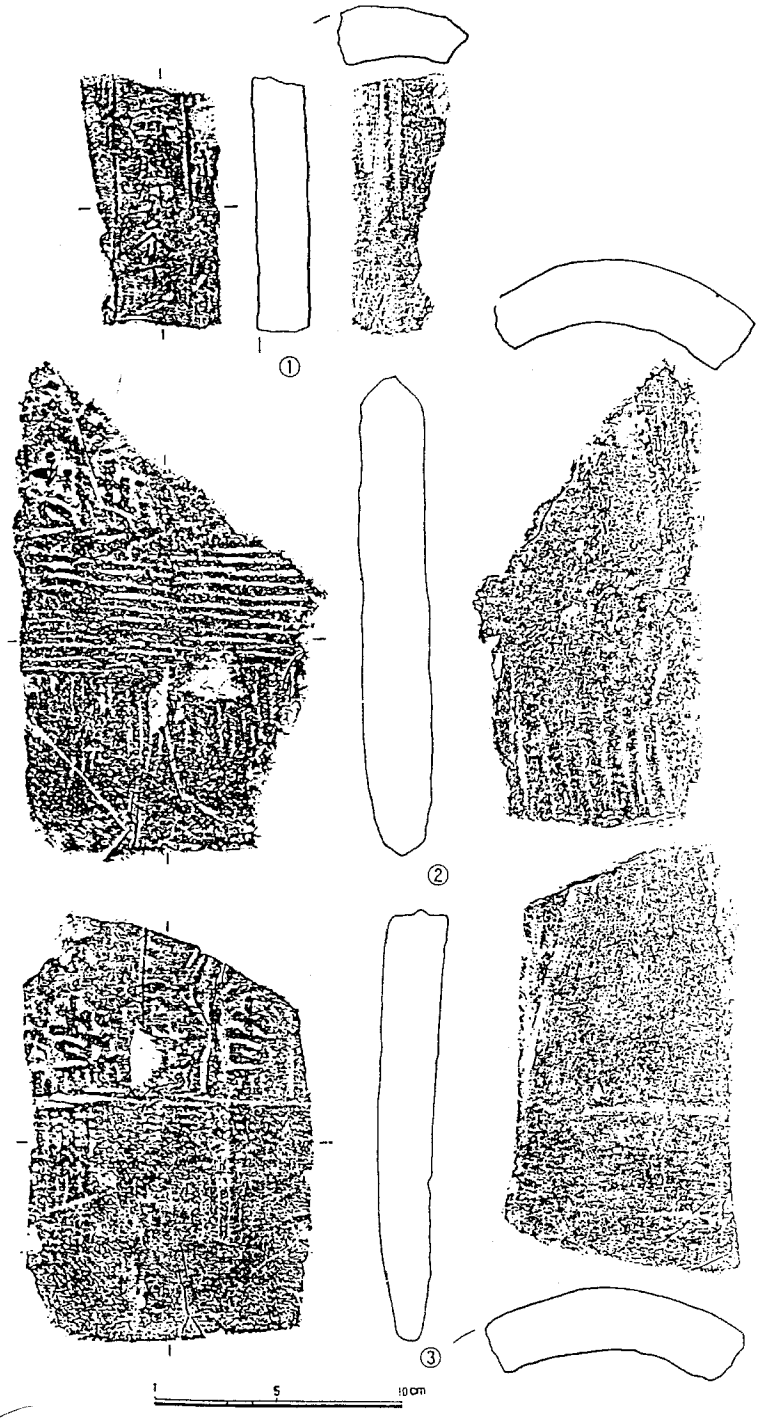
圖面 17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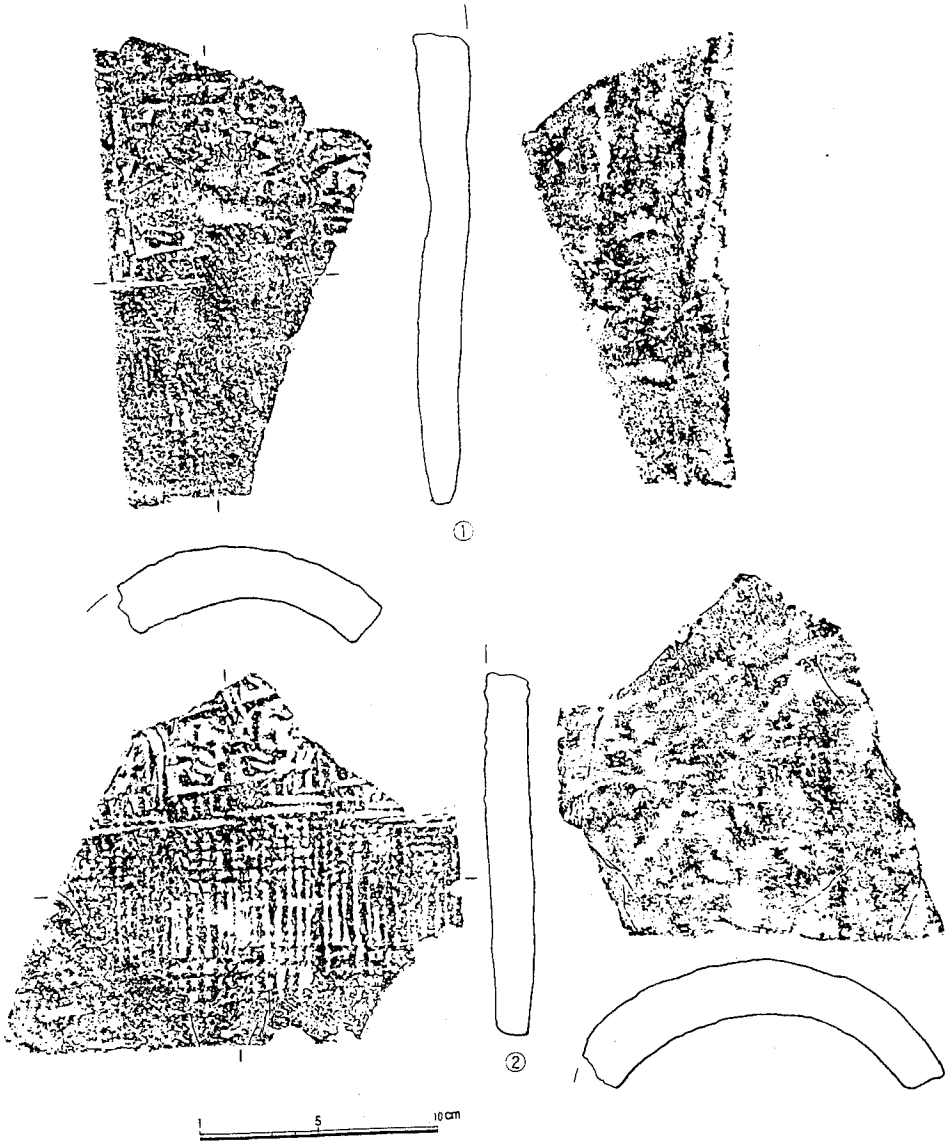
圖面 18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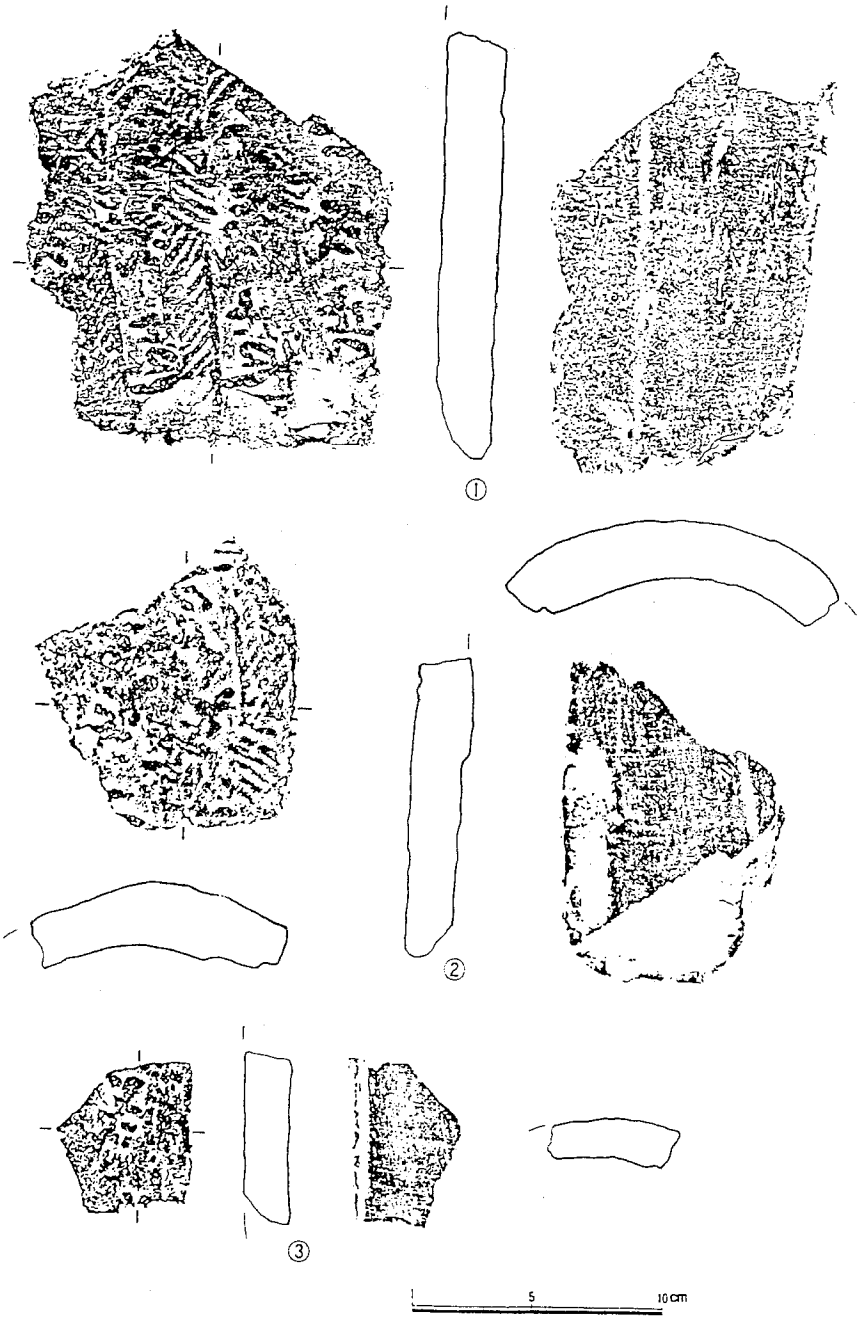
圖面 19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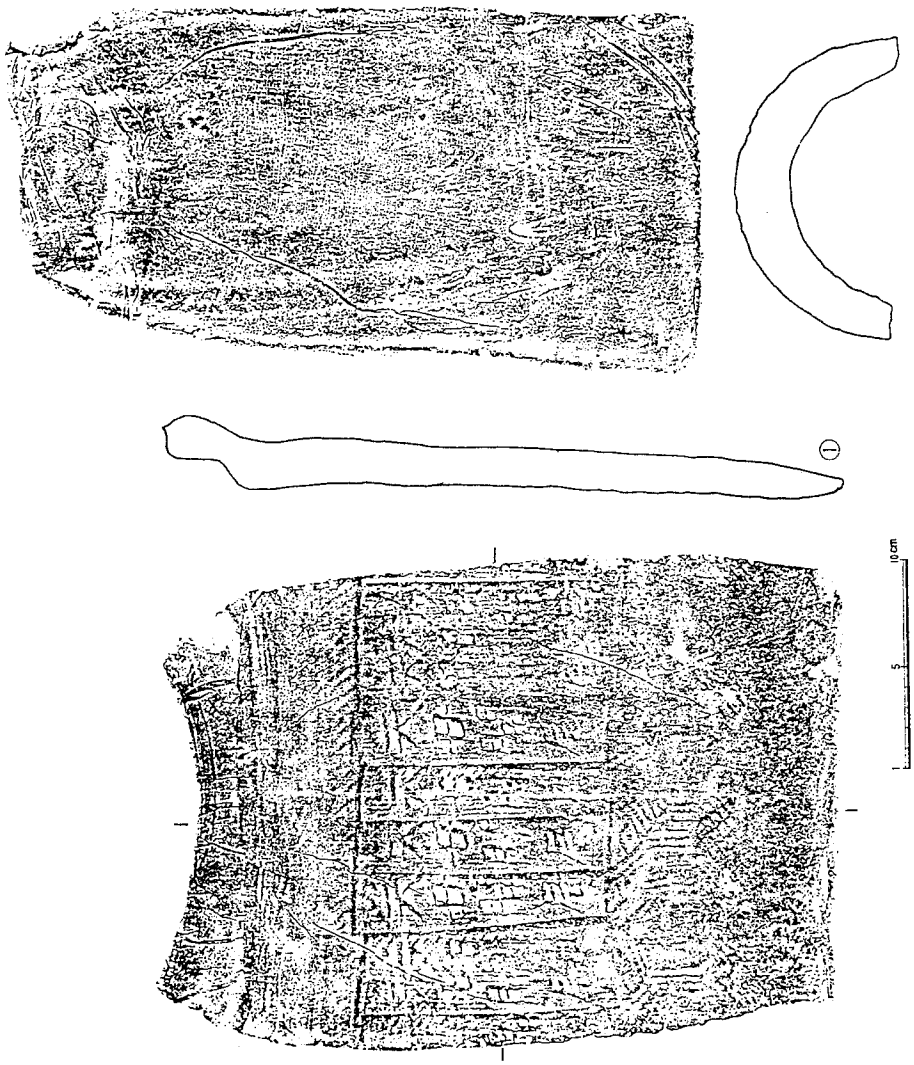
圖面 20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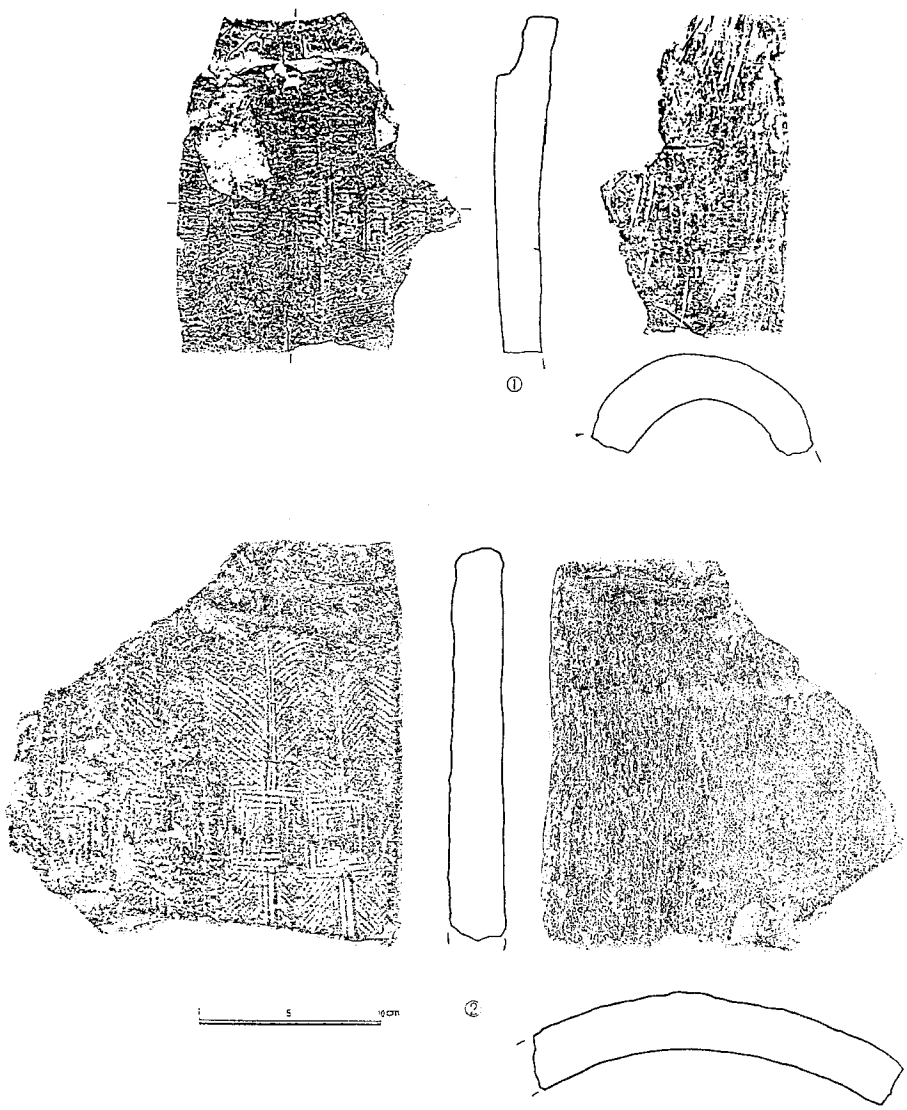
圖面 21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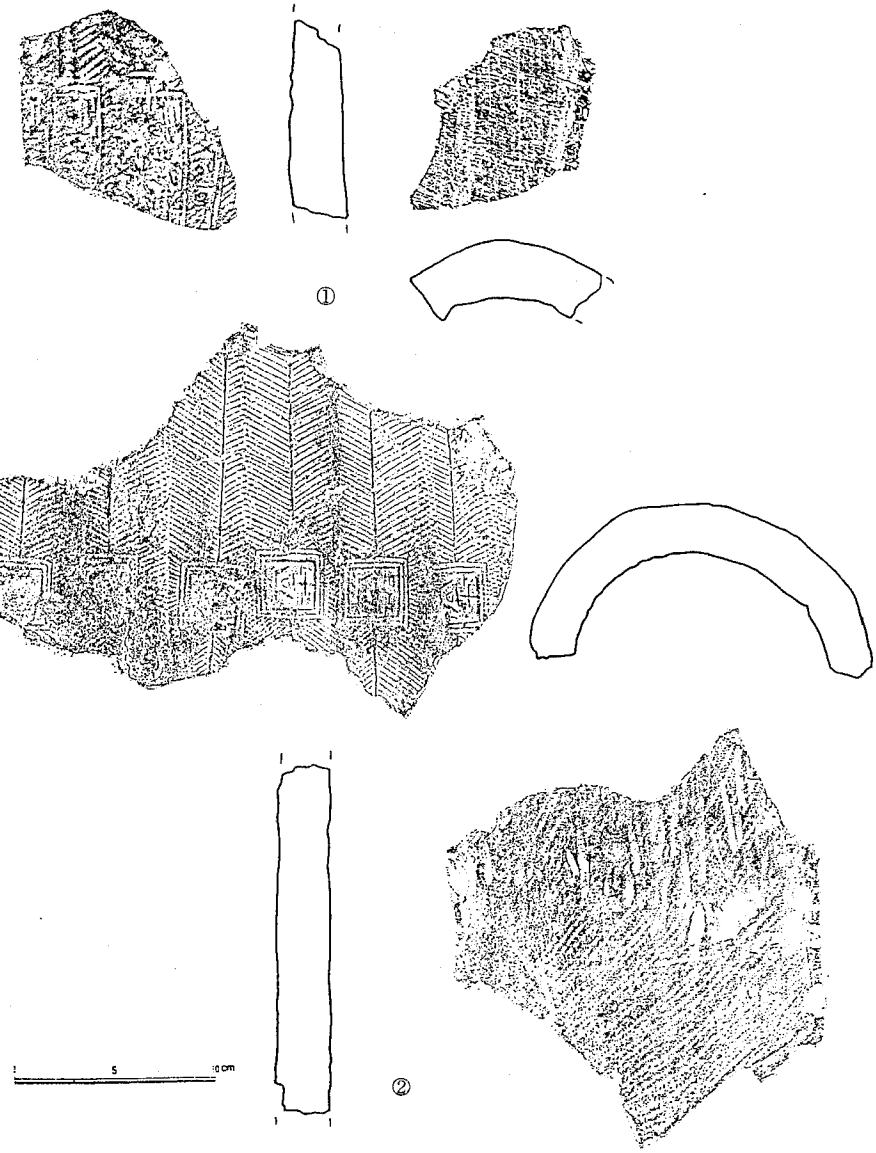
圖面 22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7)



圖面 23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8)



圖面 24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9)



圖面 25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10)

중심선의 굵기는 0.3cm이다. 중심선 사이의 간격은 3~4cm이다. 남아있는 기와의 중앙부는 타날흔적과 함께 손누름흔적으로 심하게 훼손되었다. 기와 하단부는 기와가 굽은 면을 따라 예세로 처리한 흔적이 길게 남아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26-1	71-1	암기와. 회색. 기와상부 결실.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굵은포흔·타날흔·연체흔·모골흔·빗질흔. 연질. 소성도 낮음.	2.5	건물지(1)

② 수지문기와

수지문 중심선의 표현되어있고 가지가 상하로 교차하듯이 시문된 기와이다. 선의 굵기는 0.3~0.4cm이고 중심선의 굵기는 0.3cm이다. 중심선 사이의 간격은 3.2cm이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26-2	71-2	암기와. 황갈색. 측면 일부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타날흔·예세흔 연질. 소성도 낮음.	2.4	건물지(1)

③ 무문기와

별다른 문양이 시문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기와 표면의 처리수법만이 확인되었다. 기와전면에 걸쳐 예세처리된 흔적이 뚜렷하고, 종방향의 솔질흔적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회성분이 많이 혼입되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유물
27-1	72-1	암기와. 흑청색. 전면 일부의 빗질흔. 일정방향의 예세흔.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일정방향의 예세흔. 일부 와도흔. 경질. 소성도 높음.	1.6	제1단석축

④ 무문기와

원래의 문양인 파상문이 일부에서 확인되나 일부러 문양을 지운 예세흔이 빗질하듯 전면에 걸쳐 남아있는 기와이다. 기와 곳곳에 소성시부터 생긴 균열이 보인다. 기와

상면으로는 기와굽은 면을 따라 기와접합을 쉽게하기위해 만든것으로 보이는 1조의 음각띠가 둘러져 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유물
27-2	72-2	암기와. 회청색. 전면 일부의 예세흔.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마포흔·일부 예세흔. 경질. 소성도 높음.	2.5	건물지(1)

⑤ 파상문기와

기와 상부 약 4.0cm지점에서 부터 파상문이 전면에 시문되었다. 기와의 상부에는 손으로 눌러서 돌린 너비 1.0cm의 음각띠가 2줄 있다. 파상문 선의 굵기는 0.2~0.3cm이고 선사이의 간격은 0.2cm이다. 기와중앙에는 기와를 종방향으로 관통하여 파상문 문양을 자르는 폭 0.4cm의 음각선이 한 줄 시문되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28-1	73-1	암기와. 회갈색. 전면 상부 2줄의 함몰띠. 후면 굵은 포흔. 횡방향의 주름. 연질. 소성도 낮음.	1.7	건물지(1)

⑥ 선조문기와

기와 상부 약 4.0cm지점에서 부터 0.4~0.6cm 두께의 굵은 태선을 사용하여 기와 등 전면에 걸쳐 기하학적인 문양을 시문한 기와이다. 선사이의 간격은 0.2~0.3cm이다. 동일기와류는 대부분 마모정도가 심하고 연질임이 특징적이었는데 기와의 태토에 모래와 석회성분의 혼입은 거의 없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28-2	73-2	암기와. 황갈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포흔 사라짐. 불규칙한 주름. 연질. 소성도 낮음.	2.3	碑閣址
28-3	73-3	암기와. 갈색. 후면 포흔 사라짐. 연질. 소성도 낮음.	2.3	碑閣址

29-1	74-1	암기와. 흑청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연질. 소성도 낮음.	2.2	碑閣址

⑦ 원문기와

원문과 간혹 파상문으로도 보이는 문양이 겹쳐서 시문된 기와이다. 선의 굵기는 0.3~0.5cm이다. 원문이 겹으로 시문된 기와는 중앙부를 ×자로 관통하는 교차선이 시문되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29-2	74-2	암기와. 회청색. 측면 일부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2.1	건물지(1)

⑧ 복합문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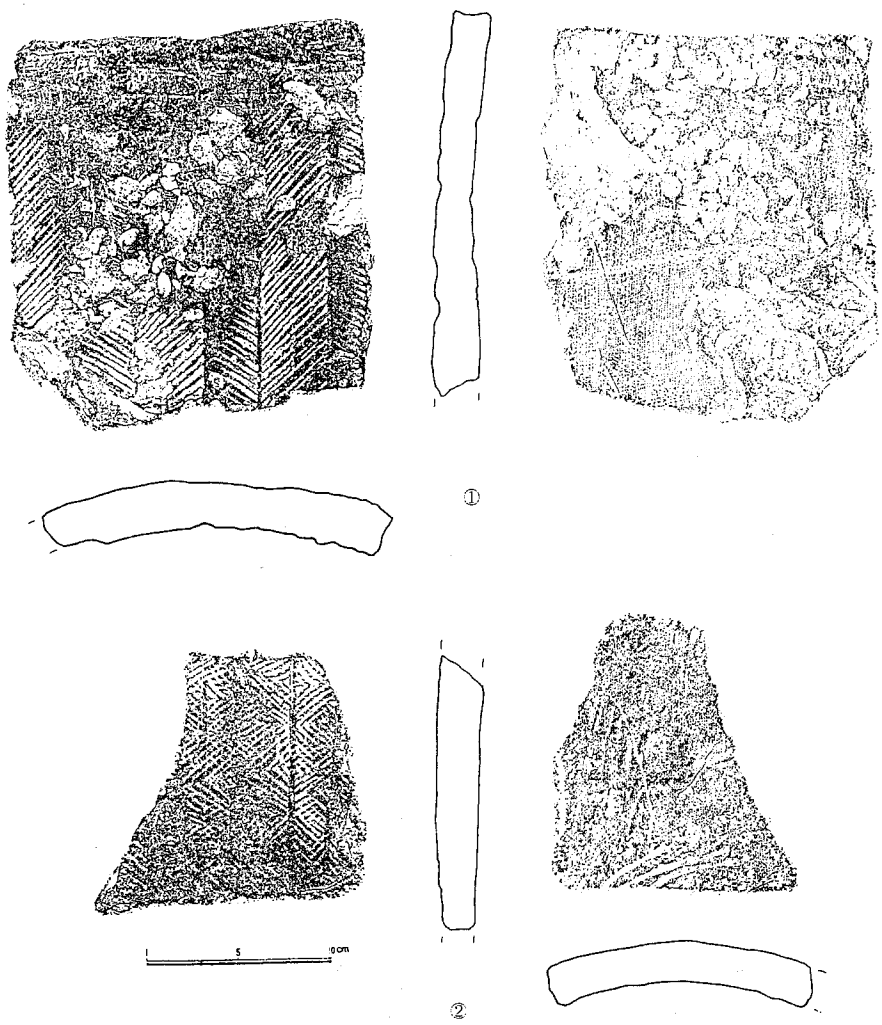
수지문이 시문된 기와의 중앙부에 사슬처럼 얽인 선조문이 연속적으로 시문된 기와이다. 선의 굵기는 0.2cm 내외이고 선간은 0.2~0.3cm이다. 중심선 사이의 간격은 4.5cm내외이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29-3	74-3	암기와. 회색. 측면 일부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연체흔. 경질. 소성도 높음.	1.8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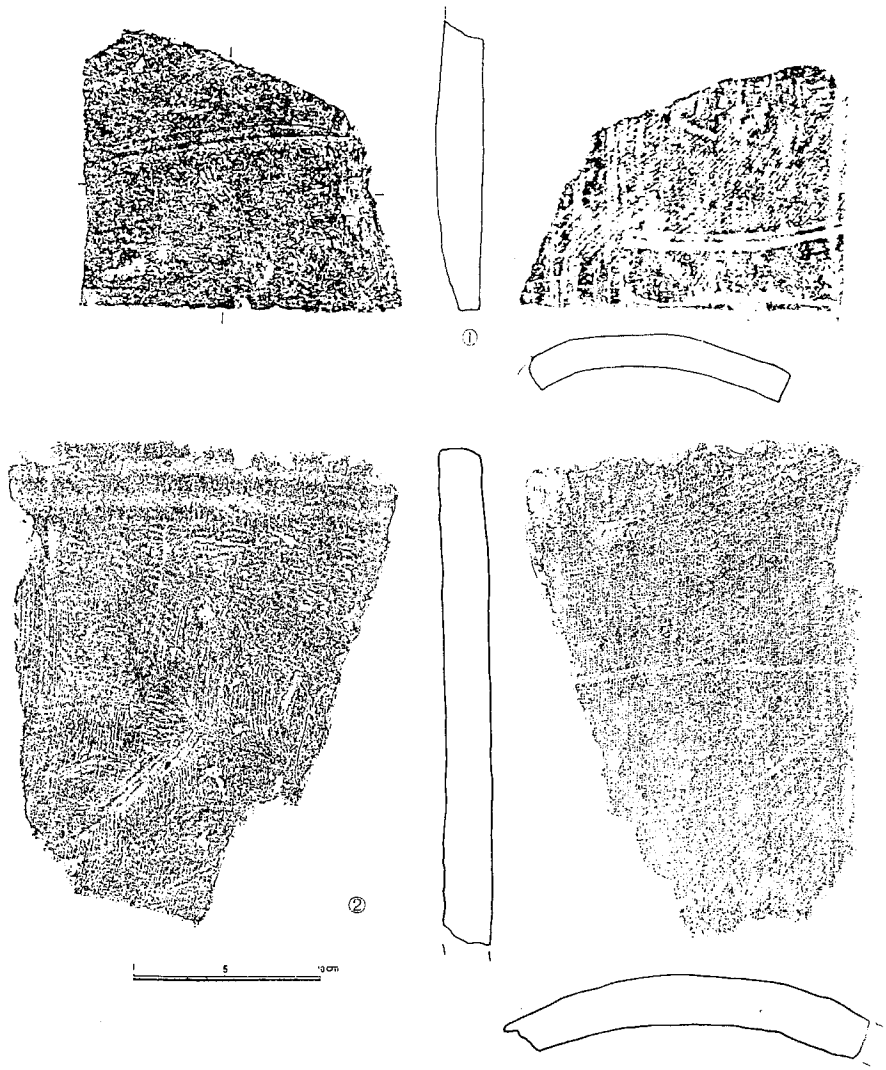
⑨ 복합문기와

수지문이 시문된 기와의 중앙부에 2조의 방격문테두리가 시문되고 그 내부에 기하학적인 문양이 시문된 기와이다. 기와상부로부터 약 7cm까지는 수지문이 지워져 있다. 수지문 선의 굵기는 0.2~0.4cm이고, 중심선의 굵기는 0.3cm이다. 중심선 사이의 간격은 5.5cm내외로 비교적 두껍게 시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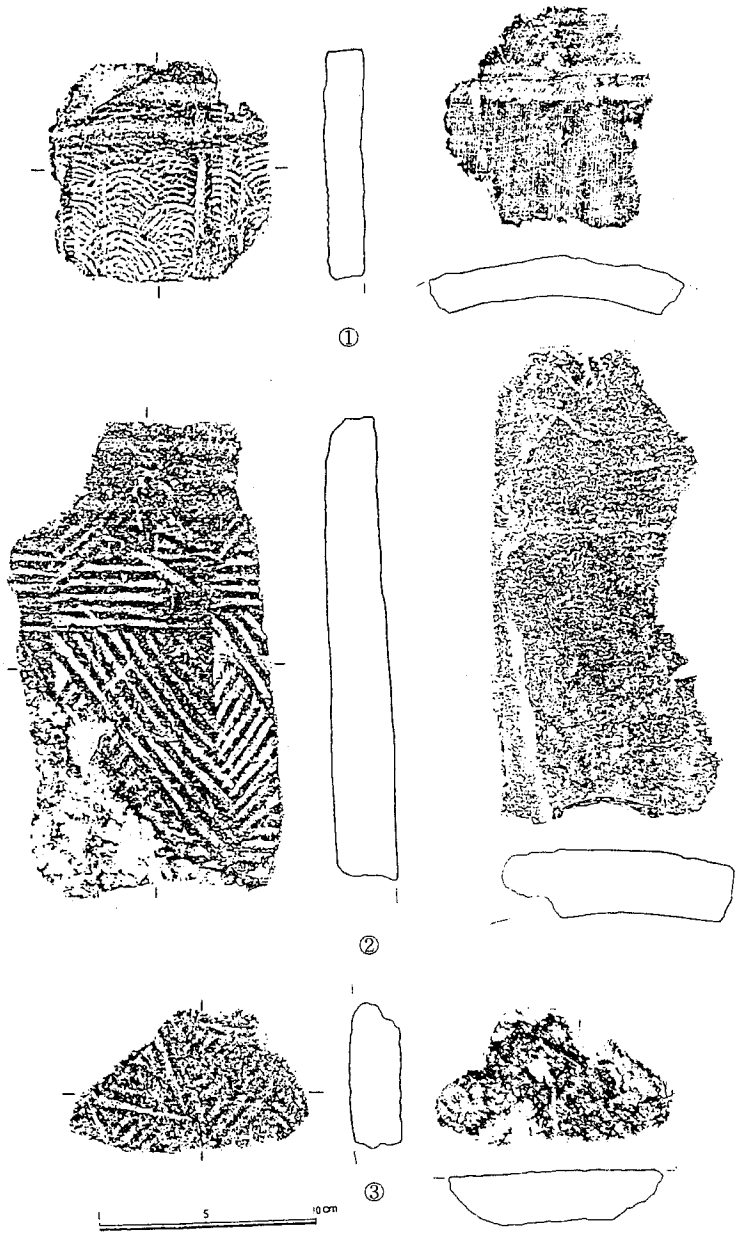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0-1	75-1	암기와. 갈색. 측면 2번에 걸친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예세흔·문손질흔. 경질. 소성도 높음.	2.3	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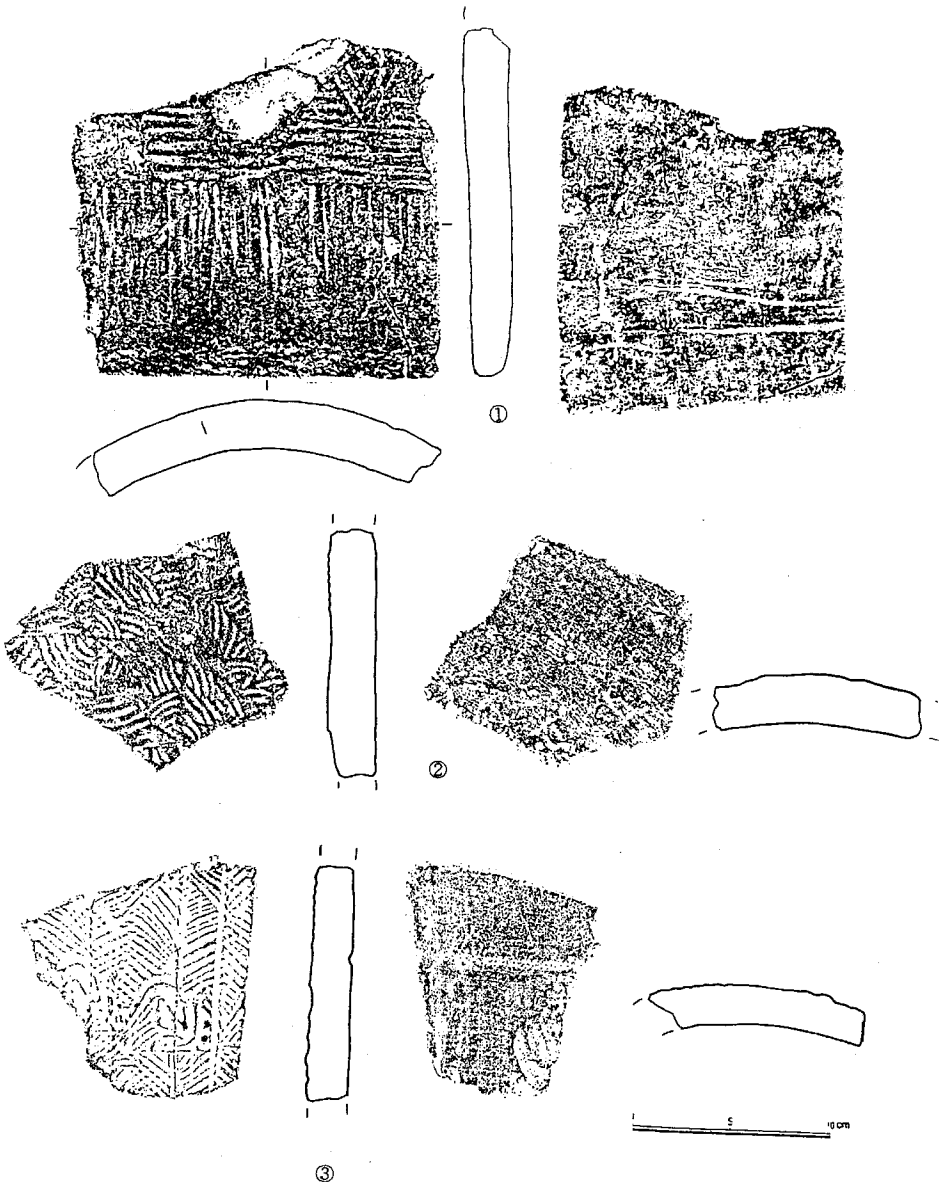
圖面 26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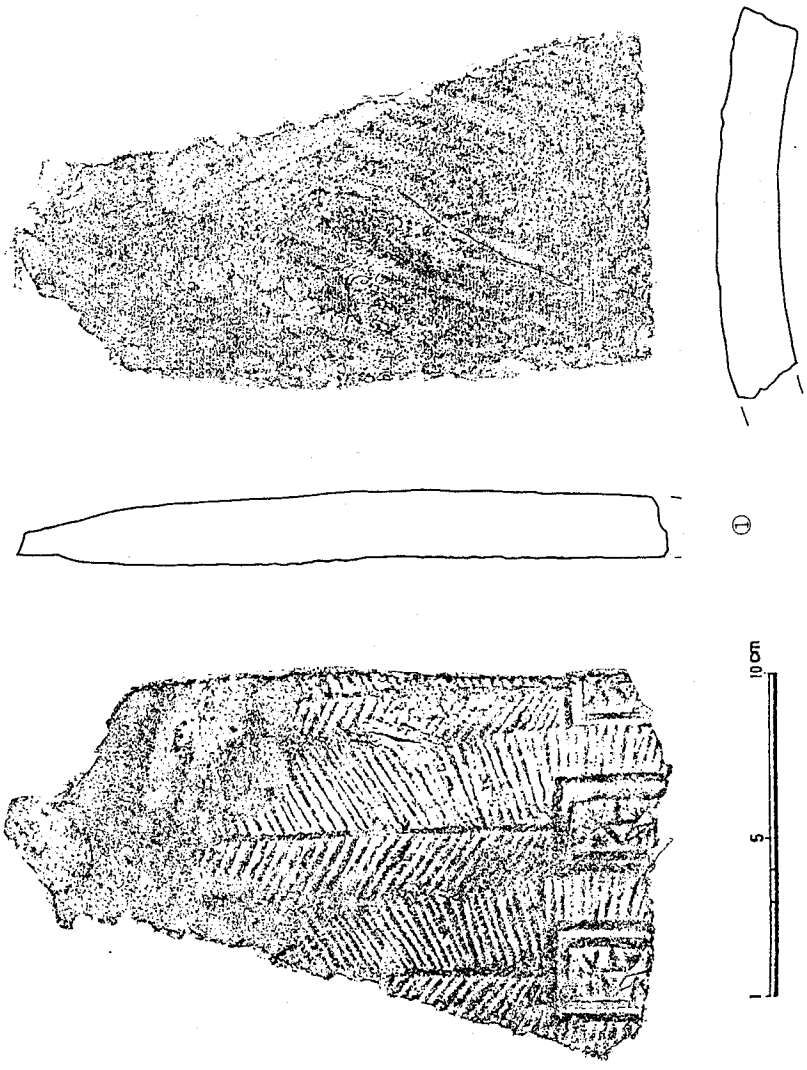
圖面 27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2)



圖面 28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3)



圖面 29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4)



圖面 30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5)

2) 숫기와

숫기와는 완형으로 출토된 예가 가장 많았던 복합문숫기와가 압도적인 출토량을 보이며 수지문계열과 무문계열이 그 다음으로 많은 출토량을 보인다.

① 무문기와

유단식 숫기와이며 미구가 달린 상태이다. 미구의 길이는 2.0cm이다. 타 숫기와에 비해 규격이 작은 소형기와이다. 건물의 개와와는 다른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와의 전체 길이는 24cm이다. 기와 하단부는 세로로 길게 홈이 패어 있는 상태이다. 기와의 측면은 다른 기와가 보통 절단면이 남아있고 기와 중앙부와 비슷한 두께는 가지는 데 비해 이 기와는 기와의 양 측면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마감질되어 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1-1	76-1	암기와. 갈색. 후면 미세포흔·모골흔·예세흔. 경질. 소성도 높음.	3.0	건물지(2)

② 수지문기와

언강이 달린 유단식 숫기와이다. 기와 상부 5.4cm지점서부터 굵은 태선으로 수지문이 시문되었다. 수지문 선의 굵기는 0.4cm이고, 선사이의 간격은 0.2cm이다. 기와 상부의 문양이 시문되지 못한 부분에는 횡방향의 세장한 주름이 여러 줄 존재한다. 수지문 가지가 유선형으로 휘어지는 것으로 보아 수지문이 파상문이 변화하는 단계에 있는 퇴화형 수지문으로 여겨진다. 이 기와는 소성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기와등에 균열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2-1	77-1	숫기와. 회청색. 전면 상부 손누름. 물손질 흔적. 부분적인 균열.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부분적인 균열. 경질. 소성도 높음.	2.4	건물지(2)

③ 수지문기와

기와상부는 약 6.5cm까지는 문양이 지워져 있다. 수지문 선의 굵기는 0.1cm내외이며 중심선도 비슷한 굵기를 가진다. 중심선간의 간격은 1.2~1.8cm로 불규칙하다. 기와 중앙부에는 4조의 돌출선이 기와굽은 면을 따라 시문되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3-1	78-1	숫기와. 회청색. 측면 일부 전단흔. 후면 미세포흔·모골흔. 경질. 소성도 높음.	2.1	건물지(2)

④ 선조문기와

유단식 숫기와로 미구가 부착된 상태이다. 미구의 길이는 2.0cm이다. 언강부에는 기와 굽은면을 따라 3~4조의 음각띠가 둘러져 있으며 이 부위는 물손질처리가 되어 있다. 선문이 시문된 중앙부 일부에는 예세로 길게 늘어뜨린 흔적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3-2	78-2	숫기와. 회색.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모골흔. 경질. 소성도 높음.	2.0	제1단석축

⑤ 선조문기와

유단식 숫기와이며 미구가 달린 상태의 완형이다. 0.4~0.6cm의 굵은 태선으로 표현하였다. 미구의 길이는 2.3cm이다. 기와의 전장은 38.2cm이다. 미구와 언강부는 일시에 제작되었다. 기와 상부로부터 종·횡·사선의 순으로 선문이 반복 시문되었다. 선의 굵기는 0.4~0.6cm로 비교적 태선이며 마모가 심하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4-1	79-1	숫기와. 회청색. 측면 절반의 전단흔.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2.3	건물지(5)

⑥ 복합문기와

수지문과 함께 거미줄과 같은 문양의 장방형문이 복합시문된 기와이다. 선의 굵기는 0.1~0.2cm의 세선으로 포현되었고 일부는 0.4cm의 태선도 사용되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5-1	80-1	숫기와. 회청색. 후면 세장한 마포흔·균열. 경질. 소성도 높음.	2.3	건물지(1)

⑦ 복합문기와

수지문 기와의 중앙부에 나뭇잎과 닮은 문양이 겹쳐서 시문된 기와이다. 선의 굵기는 0.1cm내외의 세선으로 표현되었고 전면은 균열흔이 심하게 나타나 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5-2	80-2	숫기와. 회청색. 전면 심한 균열. 후면 문손질흔·균열. 경질. 소성도 높음.	2.3	건물지(2)

⑧ 복합문기와

언강이 달린 유단식 숫기와이다. 同種의 기와에서는 언강과 숫기와와의 접합이 따로 이루어진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기와의 등에는 횡방향과 사선방향으로의 불규칙한 방향성을 갖는 선문이 조밀하게 시문되었다. 선의 두께는 0.1~0.2cm의 세선으로 되었고, 선사이의 간격은 0.2~0.3cm이다. 同種 기와의 또 다른 특징은 기와제작 당시부터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균열흔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태토의성분과 소성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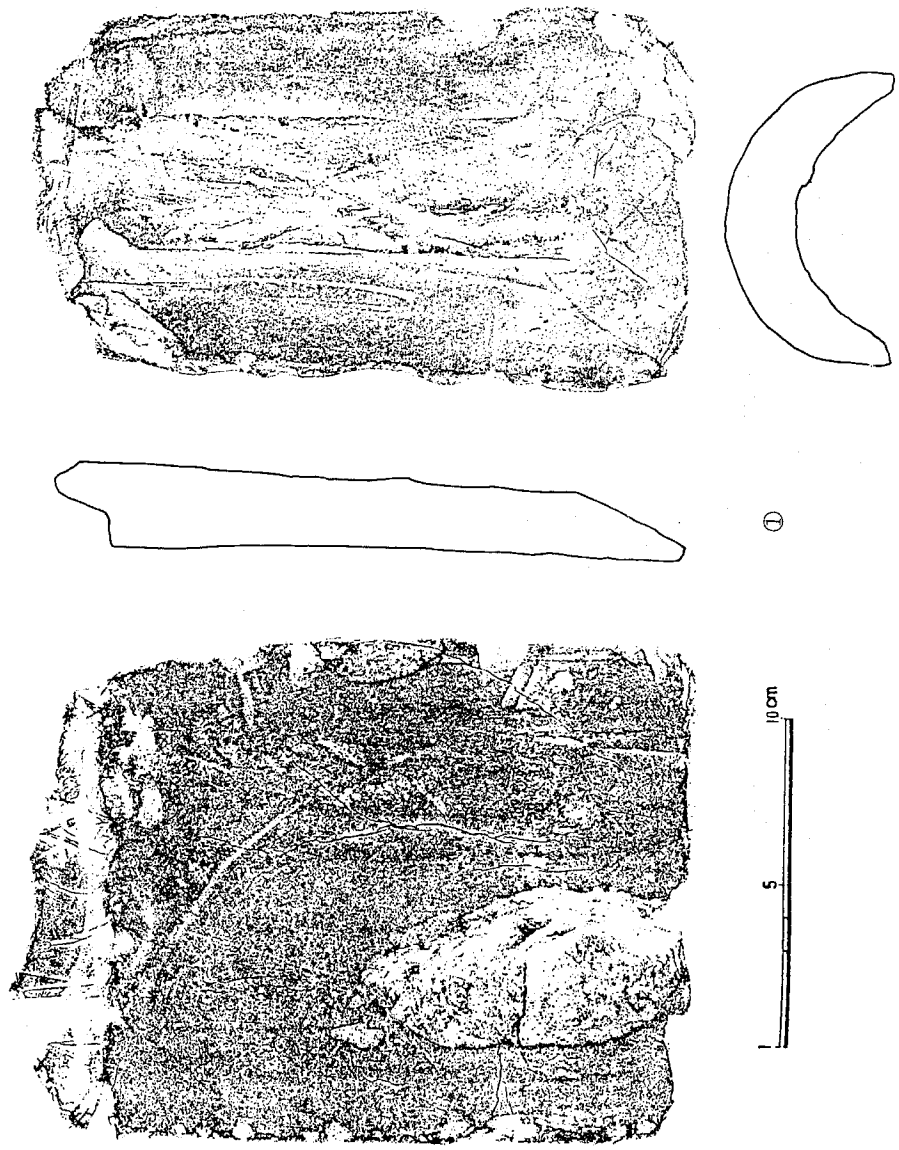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6-1	81-1	숫기와. 흑청색. 전면 흑색의 자연유 시유.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포흔 사라짐. 종방향의 와도흔. 경질. 소성도 높음.	2.7	건물지(5)
36-2	81-2	숫기와. 적갈색. 전면 심한 마모. 부분적인 균열.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부분적인 균열. 경질. 소성도 낮음.	2.8	건물지(5)
37-1	82-1	숫기와. 갈색. 전면 일부 마모. 짓눌림 흔적.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2.7	건물지(5)
37-2	82-2	숫기와. 적갈색. 전면 심한 마모. 부분적인 균열.	3.2	건물지(5)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8-1	83-1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경질이나 소성도는 낮음. 숫기와. 적갈색. 전면 일부 회청색. 부분적인 균열.	3.2	건물지(5)
38-2	83-2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굵은 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균열. 숫기와. 적갈색 전면 일부의 균열. 후면 포흔 사라짐. 부분적인 균열. 경질이나 소성도는 낮음.	2.9	건물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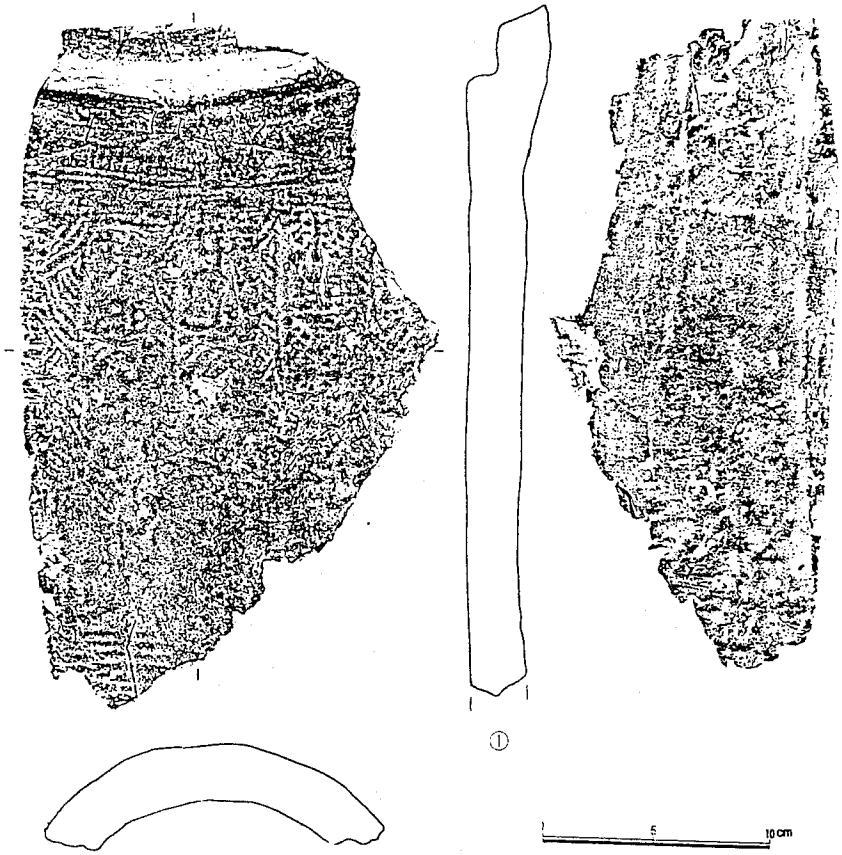
⑨ 복합문기와

수지문이 시문된 기와의 중앙부에 방형의 테두리를 두르고 그 내부에 *모양의 문양이 시문된 기와이다. 수지문 선의 굵기는 0.1~0.2cm 내외이고 중심선 또한 비슷한 굵기이다. 중심선 사이의 간격은 3.0~4.3cm이다. 수지문이 표현된 중앙부 밑으로 *문양이 기와가 굽은 면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반복 시문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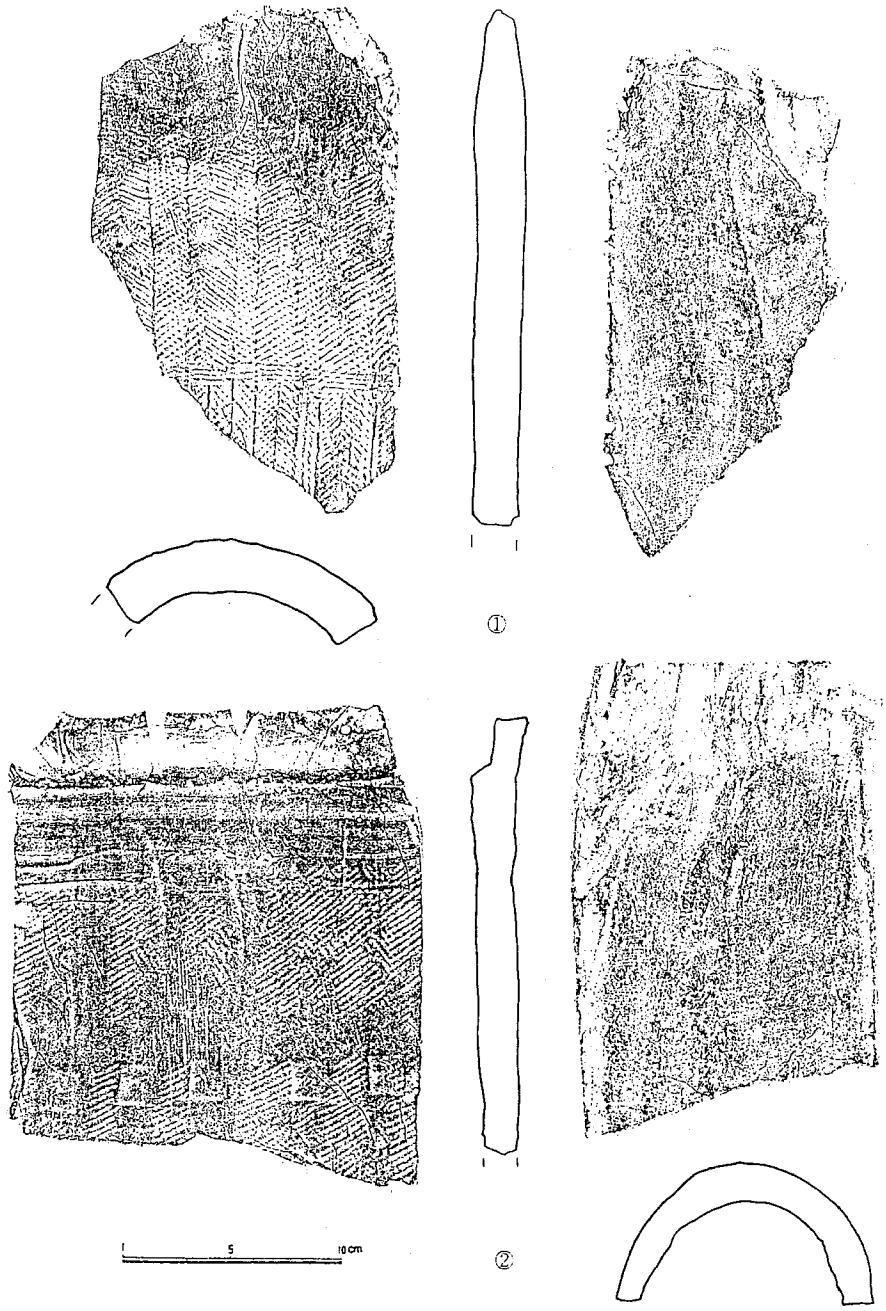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 격(cm)	출토위치
39-1	84-1	숫기와. 회청색.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세장한 마포흔·균열. 경질. 소성도 높음.	2.0	건물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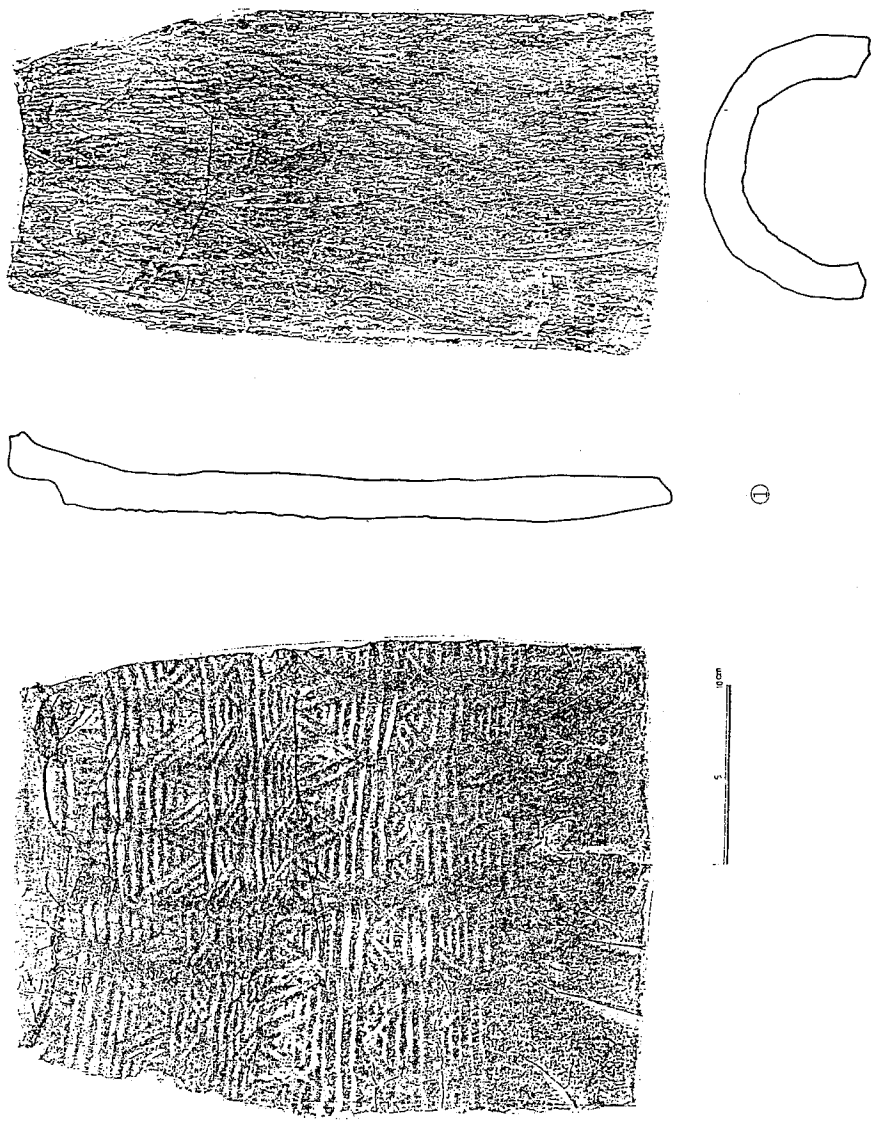
圖面 31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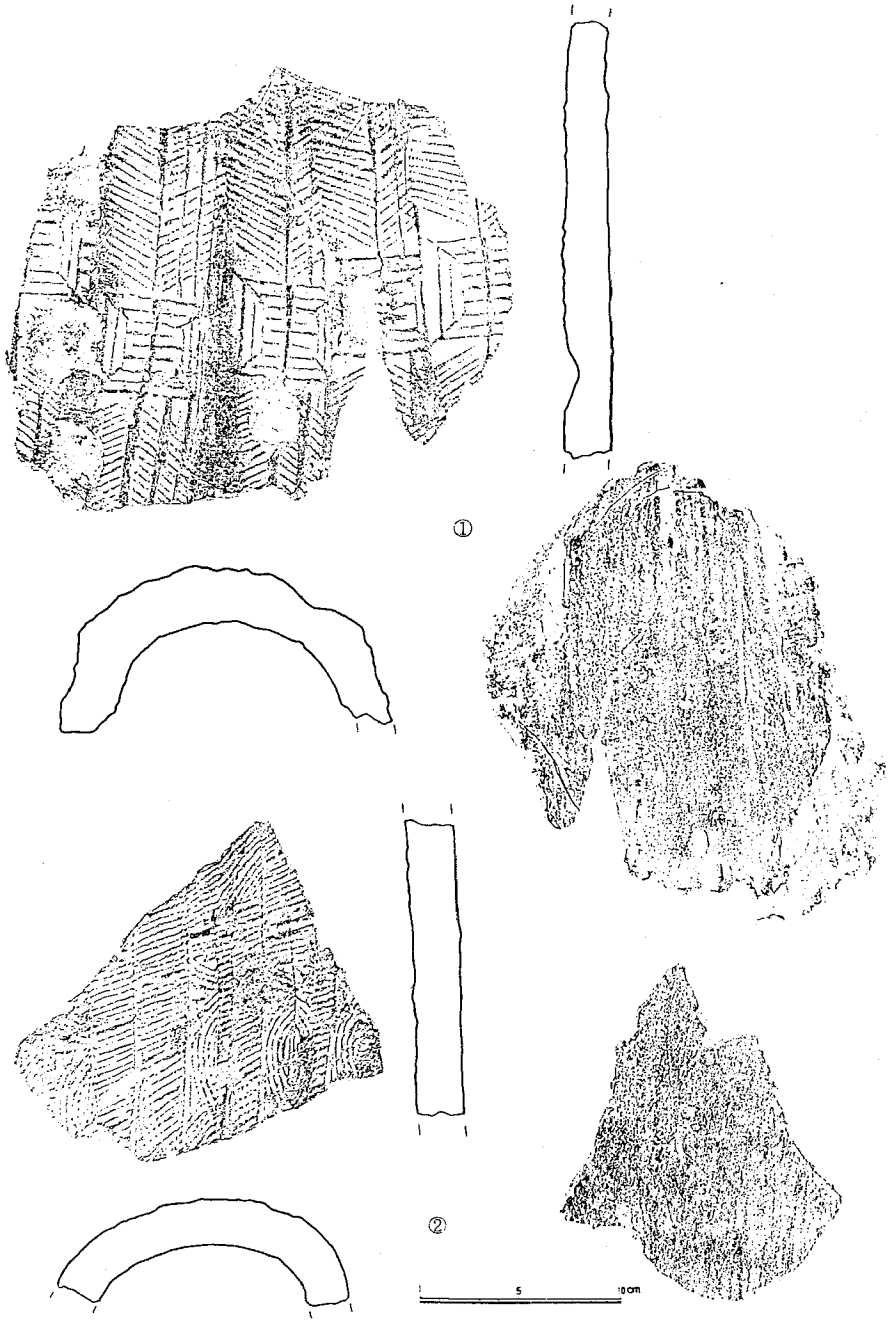
圖面 32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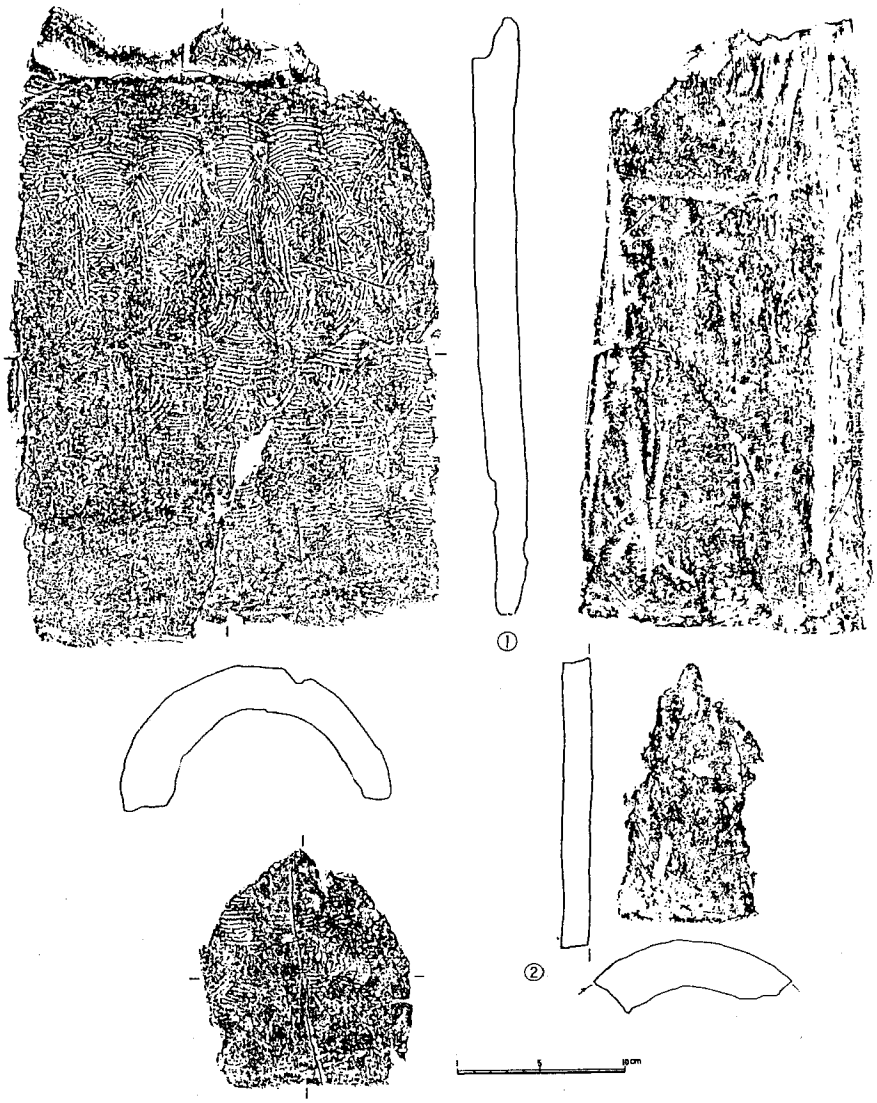
圖面 33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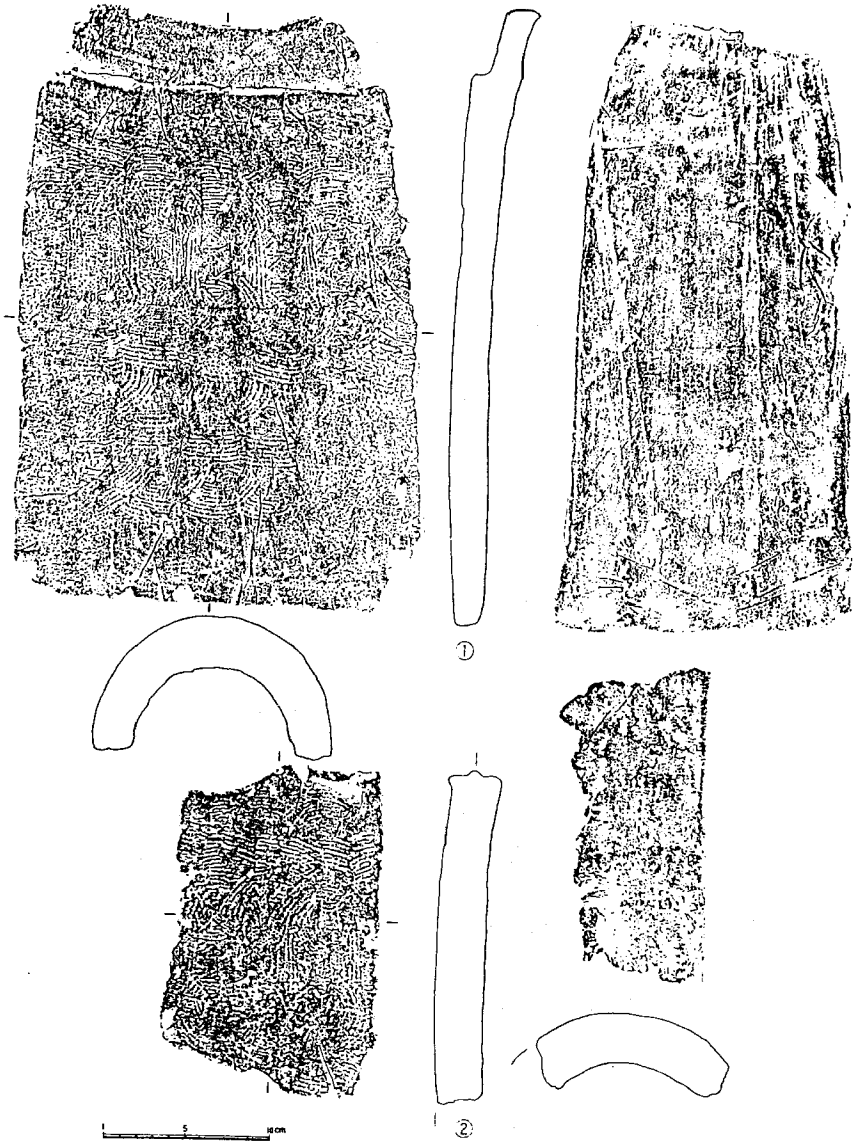
圖面 34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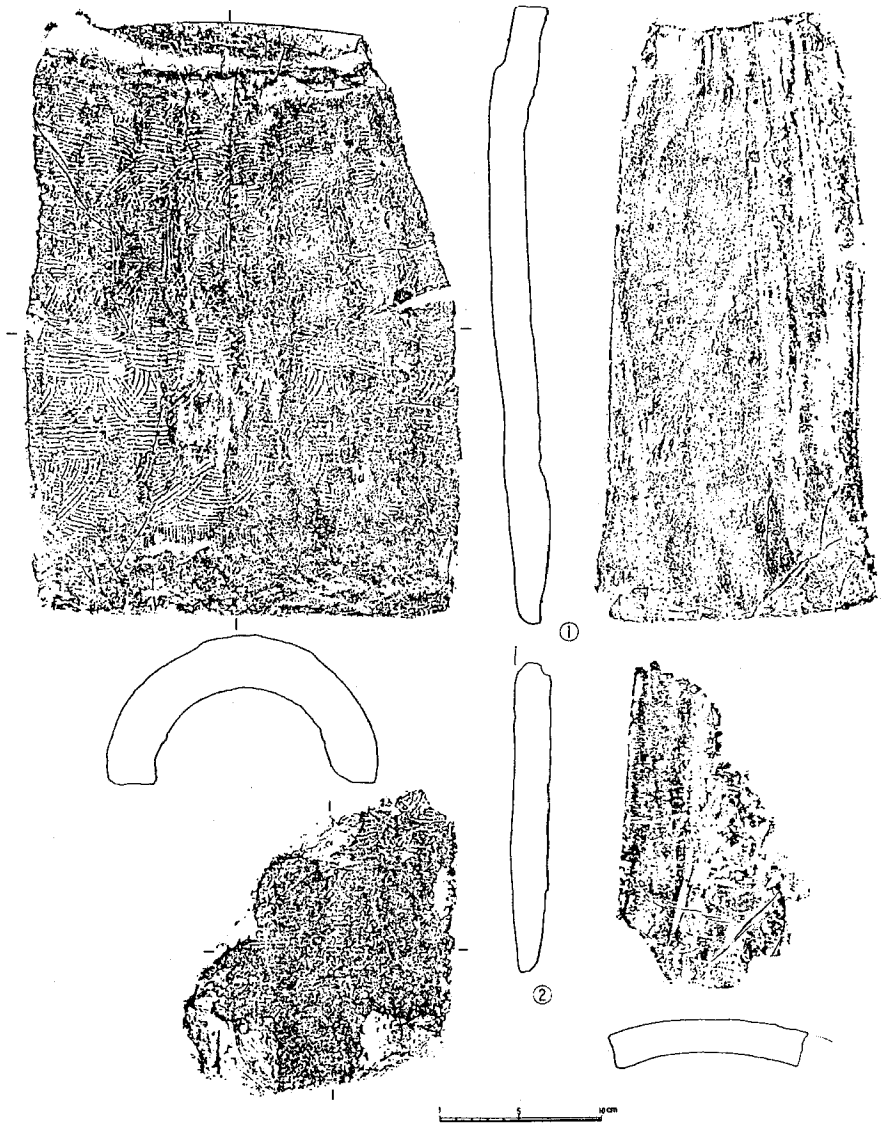
圖面 35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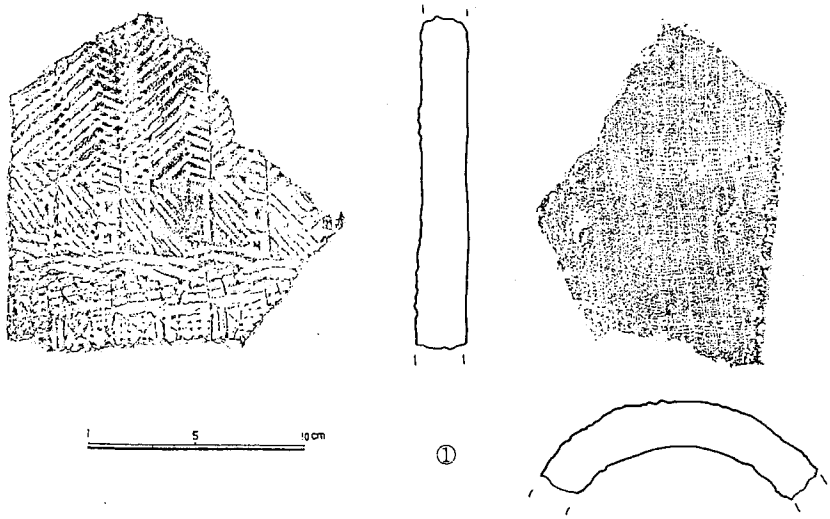
圖面 36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6)



圖面 37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7)



圖面 38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8)



圖面 39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9)

제2절 도자기류

1. 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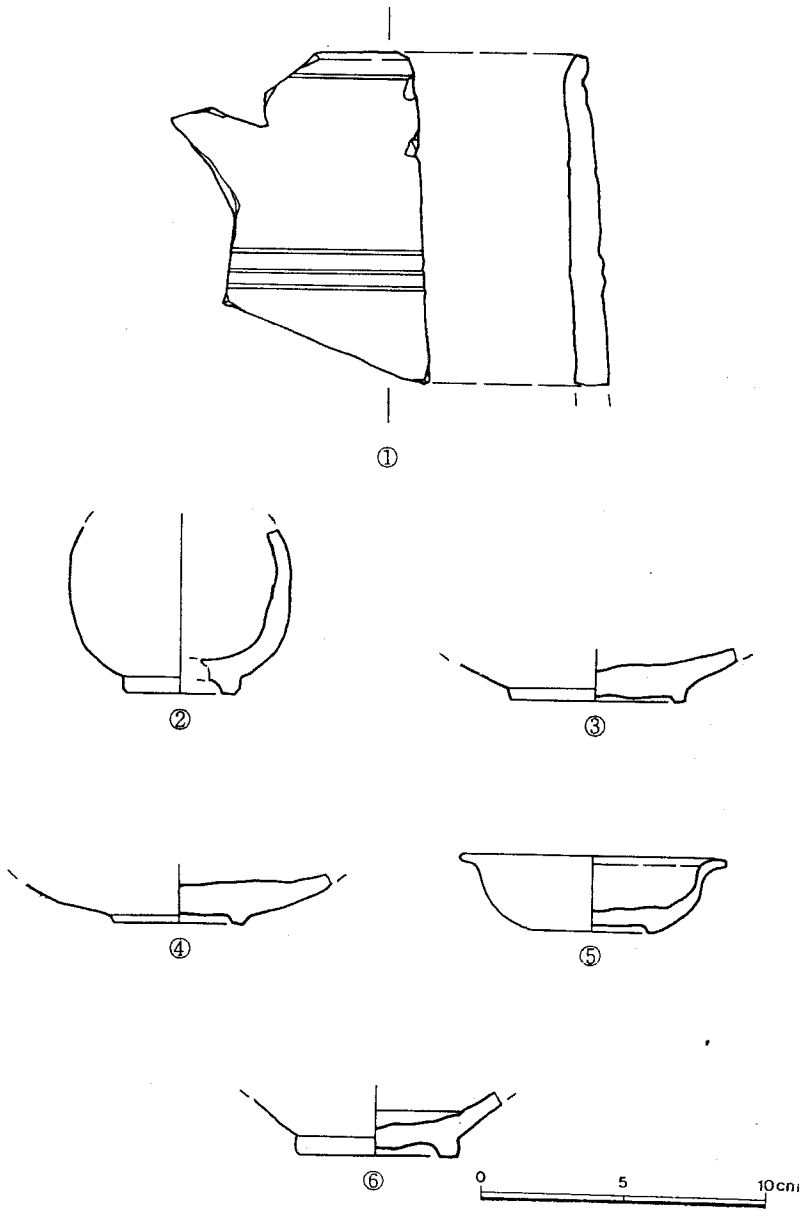
소량이 출토되었다. 정확한 출토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거의 지표채집을 통해 수습된 것들이다. 대부분 순청자편이며 상감청자편도 일부 있으나 무늬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었다. 태토에는 기공이 생겼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며 표면의 색조도 대체로 어두운 편이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40-1	85-1	청자상감화분. 암녹색. 구연부의 작은파편. 무늬가 흑백상감됨. 표면에 빙렬. 백토감입상태 양호.	현고:11.3	지 표
40-2	85-2	청자상감병. 내면에 시유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병의 저부편으로 보임. 굽에 모래받침흔적.	현고:6.5 저경:4.6 굽고:0.7	건물지(1)내부 남동편
40-3	85-3	청자대접. 연녹색.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내면에 태토비짐받침흔적. 태토에 기포형성.	현고:2.7 저경:5.0 굽고:0.6	지 표
40-4	85-4	청자대접. 암녹색. 내면은 황색을 띰. 표면에 가는 빙렬. 비교적 낮은 굽으로 접지면이 고름. 굽안에 지저분하게 모래가 붙음.	현고:1.6 저경:5.4 굽고:0.3	지 표
40-5	85-5	청자화형전접시. 표면은 암녹색을 띰. 내면바닥 중앙에 1조의 옴각원. 표면에 기공. 잘 다듬어지지 않은 화형전의 달림.	기고:2.6 구경:9.2 저경:4.5	지 표
40-6	85-6	청자대접. 표면 탈유되어 황색을 띰. 태토에 가는 모래받침 흔적. 표면에 기포형성. 굽둘레 정도의 내저원각.	현고:2.2 저경:6.6 굽고:0.8	지 표

2. 분청사기

인화, 철화, 귀얄, 덤벙분장분청 등이 출토되었다. 인화분청과 덤벙분장분청이 많으며, 철화와 귀얄분청은 소량이 출토되었다. 인화분청편은 우점문이 시문된 것이 많은 데 대개 백토의 감입이 깨끗하지 못하며, 덤벙분장분청편은 분장된 백토가 벗겨진 것들이 많다.

출토된 분청사기편 중에 시문된 후 백토를 감입하지 않거나 그릇을 성형한 후 그대로 유약을 입혀 번조한, 흔히 회청사기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는데 유약의 색조나 질이 분청사기와 차이가 없으므로 크게 분청사기의 종류로 묶어 기술하였다.



圖面 40 존자암지 출토 청자

도면	도판	특 징	규격(㎝)	출토위치
41-1	86-1	분청인화문대접. 내면 바닥에 시문한 듯한 흔적이 있으나 백토가 감입되지 않음. 가는 빙렬. 굽은 정리가 잘된 죽절굽.	현고:2.3 저경:5.6 굽고:0.7	지 표
41-2	86-2	분청인화문접시. 암회색. 내면에만 시문됨. 시유상태 양호. 내면에 번조시 잡티 붙음. 굽정리·태토 양호.	현고:1.9 저경:4.4 굽고:0.5	NS트렌치(1) 동편
41-3	86-3	분청인화문접시. 중앙에 국화문, 그 주위에 몇줄의 선문, 그리고 다시 국화문이 시문. 내면과 굽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 태토는 회청색으로 비교적 양질.	현고:1.6 저경:5.3 굽고:1.2	지 표
41-4	86-4	분청인화문대접. 내면에만 성글게 시문. 표면 황백색. 내면에 희미한 번조받침 흔적. 죽절굽.	현고:3.0 저경:5.0 굽고:1.0	NS트렌치(1)
41-5	86-5	분청인화문접시. 표면은 회녹색. 내면에 와선문과 여의두문이 인화시문됨. 태토는 회청색 양질. 죽절굽.	현고:2.2 저경:5.4 굽고:0.7	제2단석축 상면
41-6	86-6	분청인화문대접. 회백색.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표면에 물레자국. 가는 빙렬.	현고:1.5 저경:2.0 굽고:0.6	NS트렌치(1)
41-7	86-7	분청인화국화문접시. 외면에만 시문됨. 백토감입상태 양호. 외면에 물레자국. 죽절굽.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현고:1.7 저경:5.0 굽고:0.8	지 표
41-8	86-8	분청인화문소형접시. 내면에만 시문됨. 내면 바닥에서 동체부로 약간 급하게 꺾인형태. 구연 약간 외반. 내면에 물레자국. 표면에 기포형성.	기고:3.8 구경:10.4 저경:4.0 굽고:0.8	지 표
41-9	86-9	분청인화문종지. 내면에만 시문됨. 태토에 기포형성. 굽속의 유약을 닦고 번조.	현고:2.5 저경:5.6 굽고:0.6	NS트렌치(1) 동편
41-10	86-10	분청인화문접시. 내면에 몇줄의 선문을 경계로 국화문이 인화시문됨. 사립이 섞인 회청색 태토. 굽은 죽절굽.	현고:1.6 저경:4.8 굽고:0.4	제2단석축 상면
42-1	87-1	분청인화문접시. 회백색. 내면에만 시문됨. 태토양호.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무늬는 도식화되어 압인.	현고:1.0 저경:6.2 굽고:1.1	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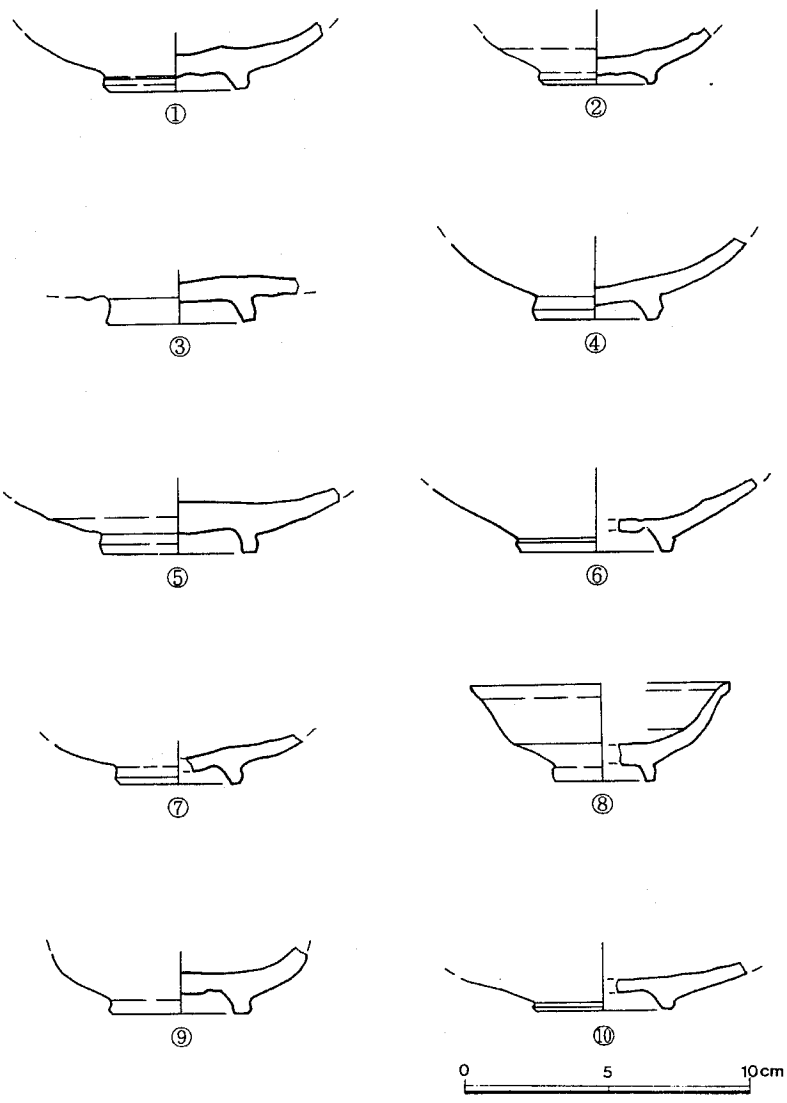
도면	도판	특 징	규격(㎝)	출토위치
42-2	87-2	분청인화문대접. 내면에만 시문됨. 태토 비교적 양호. 죽절굽. 표면 암회색. 백토감입상태 양호.	현고:4.2 저경:5.6 굽고:0.7	지 표
42-3	87-3	분청인화문대접 내면에만 시문됨. 표면은 회색을 띠며 빙렬 없음. 굽다리부분에 손자국이 보임.	현고:2.4 저경:6.0 굽고:0.8	지 표
42-4	87-4	분청인화문대접 내면에만 빽빽하게 시문됨. 백토감입상태 양호.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표면 회백색. 접지면 고름. 태토양호.	현고:2.2 저경:6.4 굽고:0.7	NS트렌치(1)
42-5	87-5	분청인화문접시. 표면 암회색. 가는 빙렬.내면에만 시문됨. 굽 속은 유약을 닦아냄. 굽은 비교적 낮은 굽.	현고:1.8 저경:4.6 굽고:0.3	지 표
42-6	87-6	분청인화국화문접시. 회백색. 내면에만 시문됨. 시문이 얕게 되어서 백토감입 불량.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	현고:1.2 저경:5.0 굽고:0.8	NS트렌치(1)
42-7	87-7	분청인화문접시. 내면중앙에 큰 국화문을 두고 3중원을 그린 후 주변에 작은 국화문을 압인. 외면에 물레자국 뚜렷. 전면이 거의 탈유되었고,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2.0 저경:5.2 굽고:0.5	제2단석축 계단지 (1)
42-8	87-8	분청인화문대접. 내면에만 국화문이 시문됨. 전면이 심하게 탈유되어 감입된 백토가 탈락되거나 그대로 드러남.	현고:1.9 저경:5.0 굽고:0.8	지 표
42-9	87-9	분청인화문접시. 내면에만 시문됨. 무늬가 얕게 압인되어 뚜렷하지 않음. 표면 회색. 가는 빙렬. 접지면이 고르지 못함.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현고:2.0 저경:5.0 굽고:0.6	동편외곽지 A피트 상층
42-10	87-10	분청인화우점문대접. 내면 동체부에만 시문됨.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가는 빙렬.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에 불순물 섞임.	현고:3.3 저경:6.3 굽고:0.8	NS트렌치(1)
43-1	88-1	분청인화우점문접시. 내면에만 시문됨. 표면은 회색을 띠며 거의 탈유되어 표면이 거침.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죽절굽. 구연부 약간 외반. 내면 중앙에 번조받침흔적.	구경:14.2 저경:5.6 굽고:0.6	건물지(2) 서북편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43-2	88-2	분청인화문접시. 회청색. 구연 약간 외반됨. 구연부쪽으로 국화문이 압인됨. 표면에 빙렬.	현고:1.9 구경:12.4	NS트렌치(1)
43-3	88-3	분청인화우점문접시. 내면중앙에 큰 국화무늬를 중심에 두고 그 둘레에 우점문 시문. 표면은 황색을 띠며 가는 빙렬. 내면에 네군데의 번조받침흔적. 백토감입상태 비교적 양호.	현고:1.9 저경:5.2 굽고:0.6	제2단석축 계단지(1)
43-4	88-4	분청인화우점문접시. 내면에만 시문됨. 표면에 기포형성. 태토는 붉은빛을 띰. 죽절굽.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현고:2.8 저경:5.8 굽고:1.0	제2단석축 계단지(1)
43-5	88-5	분청인화우점문접시. 내면의 큰 국화무늬를 중심으로 우점문이 시문됨.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1.1 저경:6.0 굽고:0.5	NS트렌치(1)
43-6	88-6	분청인화우점문접시. 회청색. 내면에만 시문. 표면에 기포형성.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현고:2.0 저경:5.0 굽고:0.5	NS트렌치(1) 서편
43-7	88-7	분청인화문. 전면이 심하게 탈유됨. 표면에 기포형성. 태토불량. 굽에 번조받침흔적.	현고:2.4 저경:5.2 굽고:0.5	지 표
43-8	88-8	분청인화우점문접시. 내면중앙에 큰 국화문이 있고 그 주위에 우점문을 시문함. 희미한 빙렬. 태토 비교적 양호.	굽고:0.7	지 표
43-9	88-9	분청인화우점문접시. 내면에만 시문됨. 태토에 모래알갱이가 섞여있으며 기포형성됨.	현고:2.0 저경:5.0 굽고:0.5	NS트렌치(1) 서편
43-10	88-10	분청인화문. 내외면의 주 무늬대에 각각 국화문·우점문이 시문됨. 백토감입 양호. 빙렬보임. 표면 회색.	현고:2.3 저경:6.4 굽고:0.7	NS트렌치(1) 동편
44-1	89-1	분청인화문접시. 전면에 시문되었으나 시문깊이가 얕아 백토감입이 적고 무늬가 뚜렷하지 않음. 태토양호. 접지면 넓음.	현고:2.3 저경:6.6 굽고:1.0	지 표
44-2	89-2	분청인화국화문접시. 내외면에 정교하게 시문됨. 백토감입양호. 태토양호. 표면 회색.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기고:3.3 구경:15.6 저경:5.0	제2단석축 계단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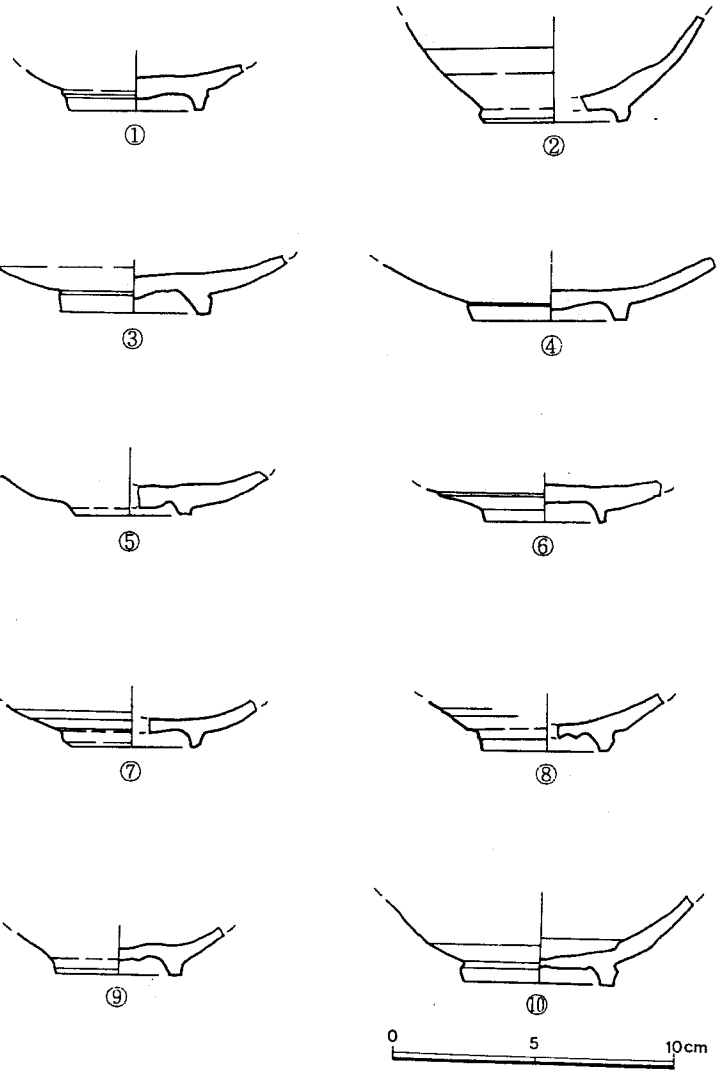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44-3	89-3	분청인화문병. 목의 일부분만 남음. 연판문과 그 아래 화문이 인화시문됨. 태토는 암회색으로 약간의 기공이 있으나 비교적 양질.	현고:9.5	건물지(2) 내부표토
44-4	89-4	분청인화문병. 동체의 일부. 상단에 파상문, 하단에 승렴문이 시문됨. 태토는 비교적 양질.	장:14.7	건물지(5) 하부
44-5	89-5	분청인화문대접. 외면에 귀얄칠 되고 내면에 승렴문이 인화된 후 백토를 대충 씌움. 태토는 암회색으로 비교적 양질. 구연은 직립.	현고:5.6 구경:16.7	지 표
44-6	89-6	분청인화우점문접시. 내면에만 가는 와선문이 시문됨. 표면이 산화되어 드문드문 황백색을 띠고, 기포형성. 내면에 네군데의 번조받침흔적.	현고:2.0 저경:5.8 굽고:0.6	지 표
44-7	89-7	분청인화문대접. 내면에 와선문이 시문됨. 표면은 탈유되어 황백색을 띰.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양호.	현고:2.5 저경:4.6 굽고:0.3	건물지(2)
44-8	89-8	분청인화문대접. 회색. 내면 동체부에 와선문 시문. 유약이 얇아서 물레자국 뚜렷. 태토양호.	현고:3.2 저경:7.4 굽고:0.9	지 표
44-9	89-9	분청조화문항아리. 구연이 수평으로 외반된 항아리. 견부에 연판문, 그 아래 당초문이 조화시문됨. 양질의 항아리. 전면에 빙렬. 태토에 사립이 다소 섞임.	현고:8.5 구경:11.2	제3단석축 하부
45-1	90-1	분청귀얄문접시. 내외면에 얇게 귀얄칠 됨. 표면은 황백색을 띰. 굽과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기고:2.8 구경:11.6 저경:4.6 굽고:0.7	NS트렌치(1) 서편
45-2	90-2	분청귀얄접시. 내외면에 귀얄자국 뚜렷. 굽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에 굵은모래알갱이 섞임. 빙렬 보임.	기고:3.0 구경:13.3 저경:6.2 굽고:0.6	제1단석축 내부
45-3	90-3	분청귀얄문대접. 굽은 직립굽으로 시유되지 않음. 내면에 귀얄칠 됨. 태토는 치밀질로 비교적 양질. 내면에 태토비짐흔적.	현고:3.1 저경:5.2 굽고:0.7	제2단석축 상면
45-4	90-4	분청귀얄대형접시. 굽언저리에서 크게 단을 지어 올라가는 형태. 내면에 귀얄시문. 태토에 사립섞임. 굽속을 굽보다 깊게 성형.	현고:4.3 저경:11.3 굽고:1.3	건물지(2) 서북표토
45-5	90-5	분청귀얄문대접. 태토위에 암녹색의 투명유가 시유됨. 가는 빙렬. 외반구연. 내면 동부에 희미하게 귀얄칠 됨.	현고:3.6 구경:19.6	지 표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45-6	90-6	분청덤벙분장대접. 구연부의 파편. 외면 동체부의 중간까지 두껍게 백토분장됨. 구연외반.	구경:18.6 현고:6.6	건물지(2) 동편
46-1	91-1	분청덤벙분장접시. 내면과 외면동체부까지 백토분장됨. 내면 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구연은 거의 직립에 가까움. 시유상태 양호.	기고:3.2 구경:15.0 저경:5.3 굽고:0.8	건물지(2) 동편
46-2	91-2	분청덤벙분장대접. 구연부편. 외면에는 군데군데 백토가 박락됨. 태토에 비교적 사립이 많이 섞임. 직립구연.	현고:3.2 구경:19.0	서편 제2단석축 중간층
46-3	91-3	분청덤벙분장대접. 내면과 굽언저리까지 분장됨. 내면바닥에 5군데의 번조받침흔적. 부분부분 백토가 벗겨짐. 성긴 빙렬. 태토는 붉은색을 띰.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2.4 저경:5.4 굽고:0.8	건물지(2) 앞
46-4	91-4	분청덤벙분장대접. 내면에 백토분장됨. 내외면에 각각 7군데의 번조받침흔적. 가는 빙렬. 분장된 백토가 벗겨짐	현고:1.5 저경:6.6 굽고:0.8	지 표
46-5	91-5	분청덤벙분장대접. 내면에 백토분장됨. 내면 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태토 비교적 양호.	현고:2.0 저경:5.3 굽고:0.7	건물지(2) 동편
46-6	91-6	분청덤벙분장대접. 내면에 백토분장됨. 굽둘레보다 약간 넓은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1.8 저경:7.3 굽고:0.7	제1단석축 내부
46-7	91-7	분청덤벙분장대접. 내면에 백토분장됨.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1.8 저경:4.9 굽고:0.8	건물지(2) 서쪽
46-8	91-8	분청덤벙분장대접. 내면에 백토분장됨.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가는 빙렬. 태토양호.	현고:2.5 저경:4.7 굽고:1.0	NS트렌치(1)
47-1	92-1	분청덤벙분장대접. 내면에 백토분장됨. 태토는 붉은색을 띰. 내외면이 심하게 탈유됨.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현고:1.7 저경:6.4 굽고:0.8	NS트렌치(1)
47-2	92-2	분청덤벙분장대접. 분장된 백토가 거의 벗겨져 내면에 약간 남음. 물레자국 뚜렷. 태토는 붉은색을 띰.	현고:2.5 저경:5.0 굽고:0.7	지 표
47-3	92-3	분청덤벙분장대접. 내외면에 두껍게 굽속까지 분장됨. 내면바닥과 굽에 7군데 이상의 번조받침흔적. 전면에 빙렬.	현고:2.4 저경:6.0 굽고:0.8	지 표
47-4	92-4	분청덤벙분장병. 백토가 얇게 씌워짐. 병 하부 군데군데 백토 박락. 태토는 황갈색을 띠며 기공형성. 구연은 부드럽게 외반.	현고:27.2 구경:5.6	건물지(5)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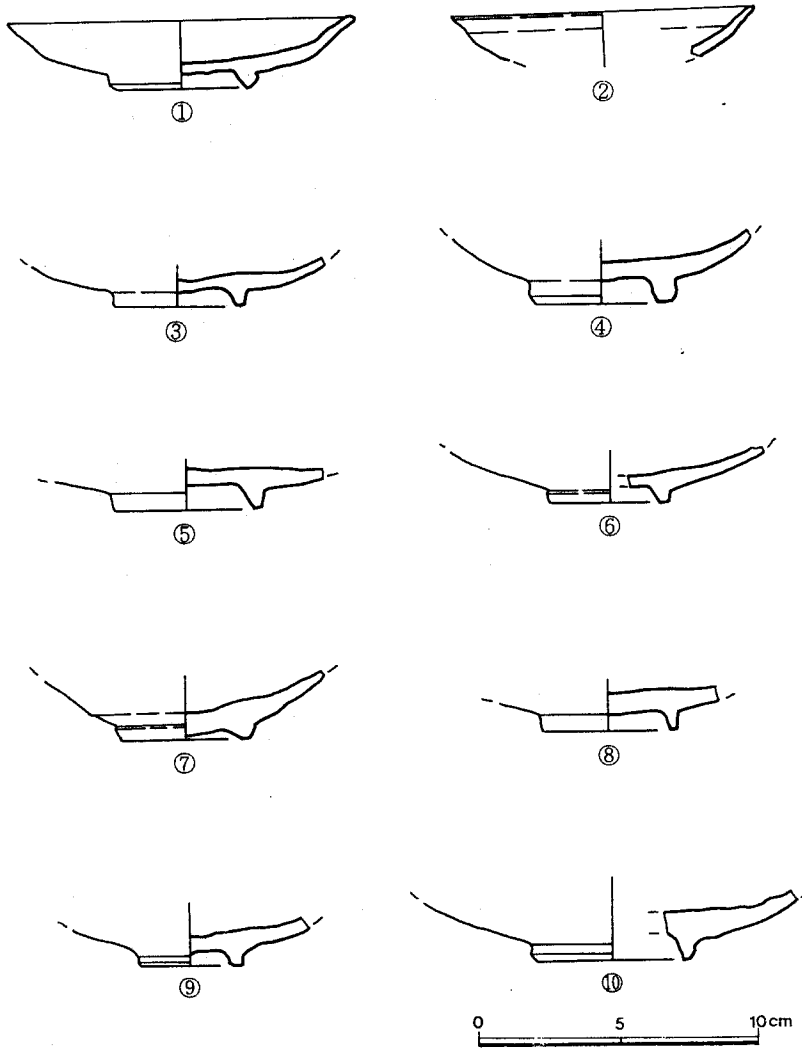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48-1	93-1	분청덤벙분장항아리. 구연이 둥글게 말아져 외반된 형태. 전면에 빙렬. 구연 접지면에 내화토와 가는 모래를 섞어 빚은 받침을 받쳐 번조. 태토에 사립 섞임.	현고:7.2 구경:10.6	제3단석축 표토층
48-2	93-2	분청덤벙분장병. 외면에만 분장되었고 내면은 시유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병의 저부편으로 보임. 굽에 번조받침흔적.	현고:2.1 저경:7.4 굽고:0.8	지 표
48-3	93-3	분청철화당초문장군. 전면에 귀얄칠 된 후, 철 안료를 사용하여 당초문을 시문함. 황색을 띠는 투명유를 시유.		건물지(2) 서편
48-4	93-4	분청대접. 표면은 암회색. 뚜렷한 내저원. 내면바닥에 태토비짐흔적. 태토는 비교적 양호. 외면은 드문드문 탈유됨.	현고:5.0 저경:7.0	NS트렌치 동편
48-5	93-5	분청대접. 표면은 회색. 뚜렷한 내저원.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에 기포형성. 유약이 엉킴.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4.8 저경:6.4	건물지(2)
48-6	93-6	분청대접. 표면은 암회색.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에 약간의 기포형성. 가는 빙렬.	현고:4.1 저경:6.6 굽고:0.7	건물지(3)
49-1	94-1	분청대접. 표면에 기포형성. 내면바닥에 태토비짐형성. 굽둘레정도의 내저원각. 표면은 암회색.	현고:3.5 저경:7.0 굽고:0.8	지 표
49-2	94-2	분청대접. 전면에 시유됨.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 굽정리 잘됨. 태토양호.	현고:2.3 저경:5.4 굽고:1.1	지 표
49-3	94-3	분청대접. 표면은 회백색. 희미한 내저원각.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3.8 저경:5.7 굽고:1.1	지 표
49-4	94-4	분청대접. 암회색. 전면에 시유됨. 내면바닥 4군데에 번조받침흔적. 가는 빙렬.	현고:2.9 저경:5.0 굽고:1.0	지 표
49-5	94-5	분청대접. 회청색을 띰. 굽둘레 정도의 내저원각.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못함. 태토는 붉은색을 띰.	현고:2.3 저경:7.2 굽고:0.8	지 표
49-6	94-6	분청대접. 청녹색의 반투명질 유가 두껍게 시유. 직립굽.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 내면에 번조시 잡티가 붙음.	현고:5.3 저경:6.2 굽고:0.8	건물지(1)
49-7	94-7	분청대접. 표면은 암녹색을 띠나 심하게 탈유됨.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내저원각.	현고:4.0 저경:6.5 굽고:0.5	NS트렌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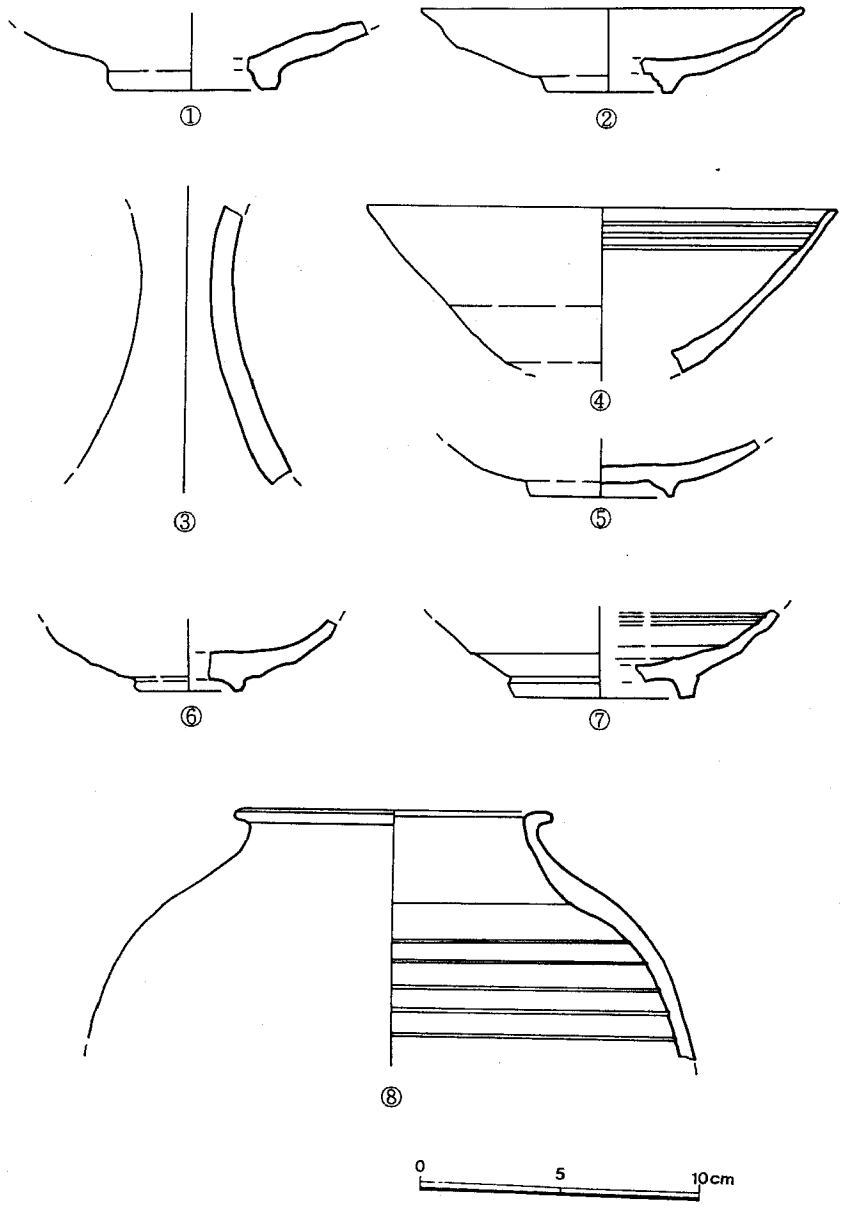
圖面 41 존자암지 출토 분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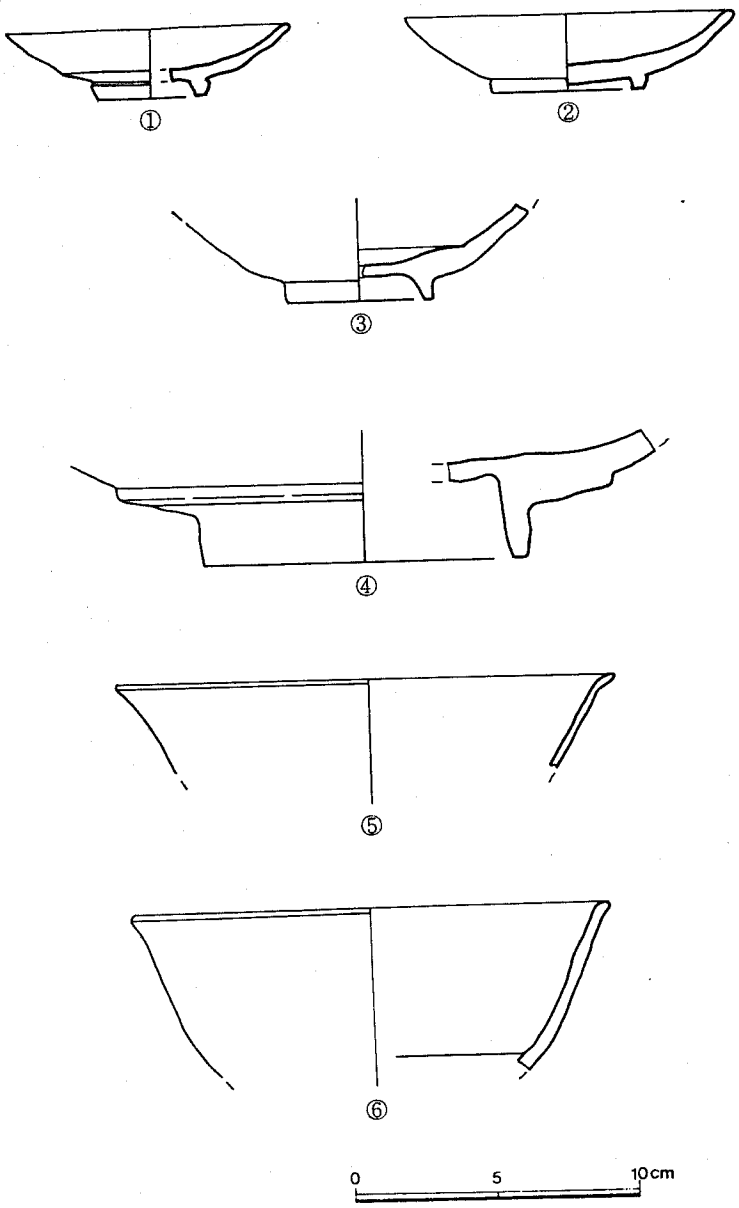
圖面 42 존자암지 출토 분청(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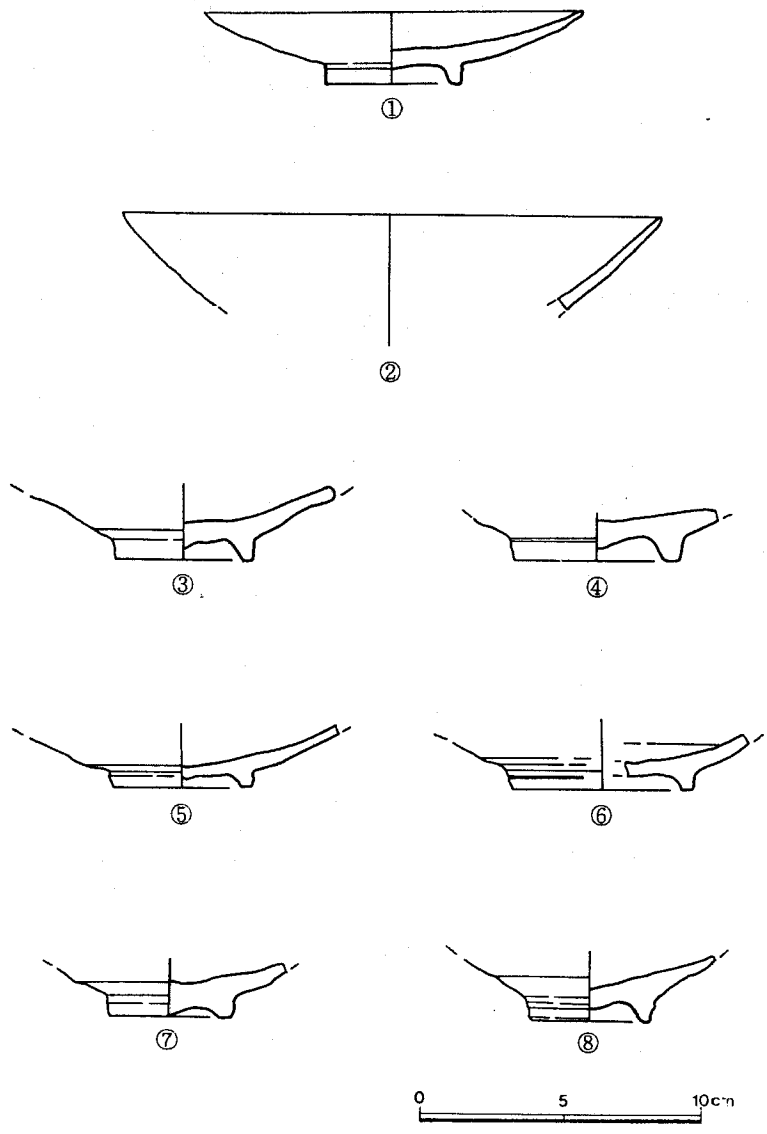
圖面 43 존자암지 출토 분청(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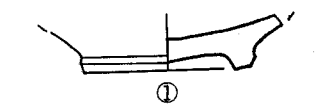
圖面 44 존자암지 출토 분청(4)



圖面 45 존자암지 출토 분청(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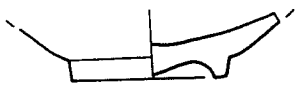
圖面 46 존자암지 출토 분청(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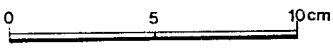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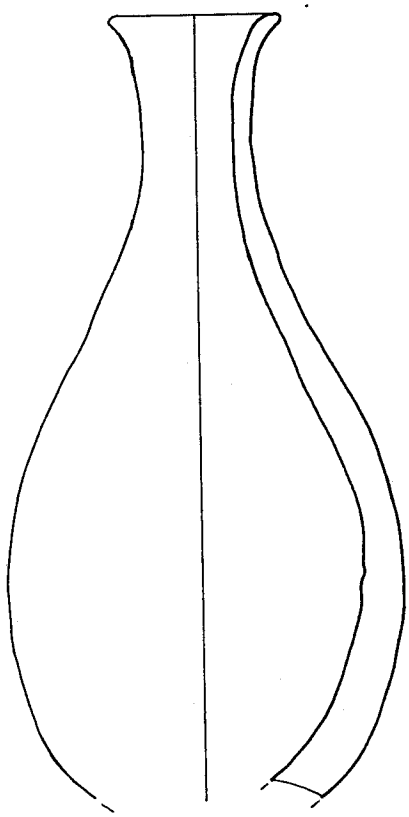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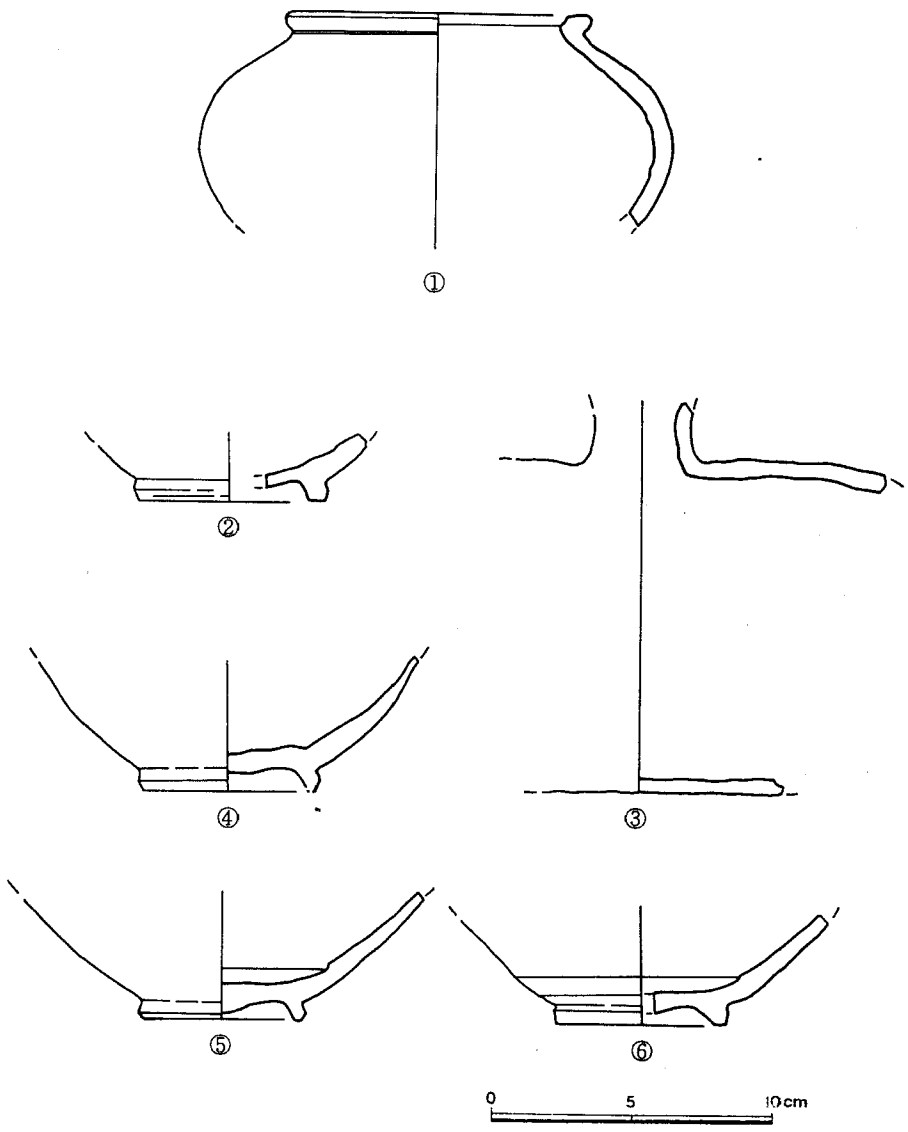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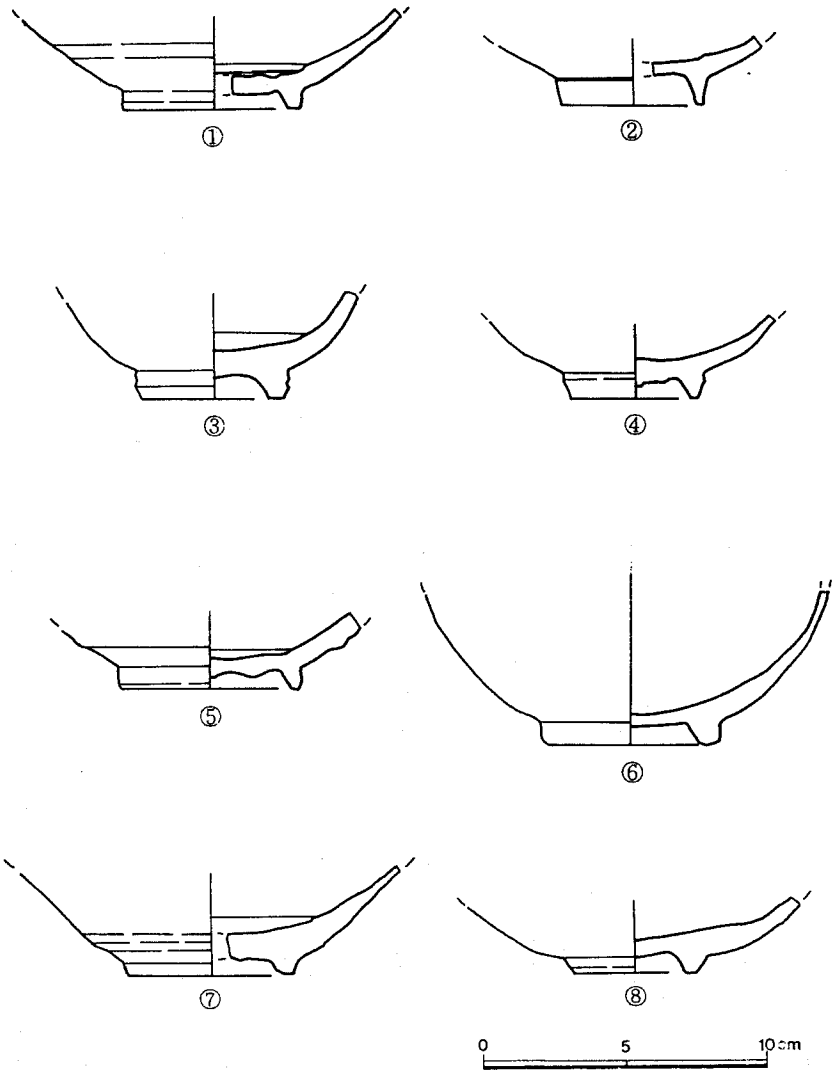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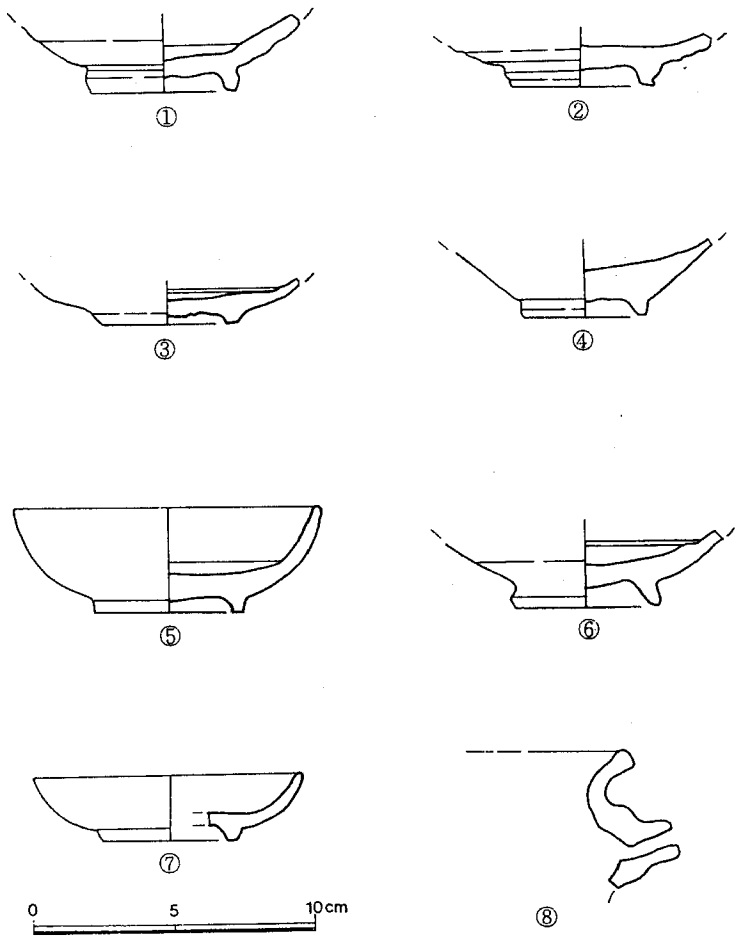
圖面 47 존자암지 출토 분청(7)



圖面 48 존자암지 출토 분청(8)



圖面 49 존자암지 출토 분청(9)



圖面 50 존자암지 출토 분청(10)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49-8	94-8	분청대접. 녹색을 띠는 유약이 고르게 시유됨. 태토에 약간의 기포형성. 굽안에는 시유되지 않음. 내면에 빙렬.	현고:2.0 저경:5.0 굽고:0.7	지 표
50-1	95-1	분청대접. 내면바닥에 5군데의 번조받침흔적.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표면은 암녹색.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현고:2.6 저경:6.0 굽고:1.0	건물지(2)
50-2	95-2	분청대접. 가는 빙렬.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표면에 불순물. 접지면이 고르지 못함. 표면은 암회색.	현고:1.6 저경:5.6 굽고:0.8	건물지(2)
50-3	95-3	분청대접. 표면은 청색. 전면시유. 가는 빙렬.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내저원각.	현고:1.4 저경:5.4 굽고:0.2	NS트렌치(1)
50-4	95-4	분청대접. 표면은 연녹색.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내면에 태토비짐흔적. 태토에 기포형성.	현고:2.7 저경:5.0 굽고:0.6	지 표
50-5	95-5	분청접시. 넓은 내저원각. 구연은 내경. 굽은 직립한 낮은굽. 표면은 회갈색을 띠며 전면에 빙렬.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이 섞이고 기공형성.	기고:3.7 구경:10.6 저경:5.2 굽고:0.5	탑지추정지
50-6	95-6	분청대접. 회청색. 내면바닥에 추상화된 구름무늬가 음각됨.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과 희미한 음각원.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2.5 저경:5.9 굽고:5.9	지 표
50-7	95-7	분청접시. 표면은 회청색. 구연은 약간 내만된 듯 한 형태. 내면바닥에 음각원. 약간의 빙렬.	기고:2.6 구경:10.6 저경:5.3 굽고:0.5	지 표
50-8	95-8	분청주자. 구연과 수구부분이 남아있는 파편. 남아있는 구연으로 보아 구경이 아주 좁은 것으로 보임. 구연 외반.	현고:5.2 구경:12.0	제2단석축

3. 백자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태토가 백색의 치밀이며, 시유상태가 좋고 기형의 정리가 잘된 백자편도 일부 보인다. 출토된 백자의 기형으로는 접시류와 대접류의 저부편들이 많으며 구연부가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구연이 외반된 형태를 하고 있다.

출토된 백자의 번조 양상을 볼 때 단독으로 갑발에 넣어 번조한 것은 출토예가 극히 드물며 대부분 내면 바닥에 번조 받침흔적이 있어 여러개를 포개어서 번조한 것들이다.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51-1	96-1	백자접시. 회백색. 외반구연. 외면에는 유약이 두께가 고르지 않음. 넓은 내저원. 태토양호. 외면에 물레자국.	구경:17.0 현고:3.6	제2단석축
51-2	96-2	백자접시. 넓은 내저원각. 기공이 있으나 비교적 양질인 회백색태토. 굽은 다소 외반하여 단정. 표면의 유가 산화되어 광택을 이룸.	현고:3.6 저경:7.0 굽고:1.1	지표
51-3	96-3	백자접시. 굽둘레정도의 내저원각. 내면과 굽접지면에 각 4군데의 태토비짐흔적. 구연은 직립하다가 끝이 말린 형태. 회백색의 양질태토.	고:4.1 구경:16.2 저경:6.4 굽고:0.8	제3단석축
51-4	96-4	백자접시. 회백색.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에 4군데의 번조받침흔적. 전면시유. 외면에 물레자국. 태토양호.	현고:2.0 저경:4.9 굽고:0.9	NS트렌치(1) 서편
51-5	96-5	백자접시. 회색과 황색을 띰. 넓은 내저원각. 외반구연. 내면에 5군데의 번조받침흔적. 미세한 빙렬. 기형이 깨끗하게 정리됨.	고:3.8 구경:15.8 저경:5.2 굽고:0.5	건물지(1)
51-6	96-6	백자접시. 황색빛이 도는 회색. 내면에 2줄의 음각원.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시유상태 양호. 미세한 빙렬. 태토양호.	현고:2.1 저경:5.8 굽고:0.3	건물지(2)
51-7	96-7	백자접시. 암회색. 뚜렷한 내저원각. 굽과 동체가 뚜렷한 구분없이 부드럽게 이어짐. 태토양호.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현고:1.9 저경:5.0	NS트렌치(1)
51-8	96-8	백자접시. 회색. 성긴 빙렬.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 6군데에 번조받침흔적. 굽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짐.	현고:3.0 저경:6.0 굽고:1.1	지표
51-9	96-9	백자접시. 표면은 황갈색. 뚜려한 빙렬.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6군데의 번조받침흔적. 태토는 황색을 띰. 낮은 굽.	현고:2.3 저경:5.8 굽고:0.3	NS트렌치(1)
51-10	96-10	백자접시. 표면은 황색을 띠며 기포형성. 태토는 황갈색으로 불순물이 섞임.	현고:2.3 저경:5.4 굽고:0.5	NS트렌치(1)
52-1	97-1	백자접시. 암회색. 외반구연.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굵은 모래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양호.	기고:4.0 구경:17.6 저경:5.4 굽고:1.0	건물지(1)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52-2	97-2	백자접시. 낮은굽에서 부드럽게 올라가다 구연언저리에서 꺾여 다소 외반하는 구연형태. 표면은 암회색. 태토는 암회색으로 양질. 내저원각. 내면과 굽에 굵은모래를 받쳐 번조.	기고:3.7 구경:16.0 저경:4.6	건물지(1)
52-3	97-3	백자접시. 회색. 넓고 희미한 내저원. 내면바다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표면에 물레자국. 외면의 시유상태 불량. 태토양호.	현고:2.2 저경:6.2 굽고:0.6	제1단 석축 상면
52-4	97-4	백자접시. 넓은 내저원각. 내면과 굽에 굵은 모래받침흔적. 회백색 치밀질 태토.	현고:2.8 저경:5.2 굽고:0.8	건물지(1)
52-5	97-5	백자접시. 다소 낮은 굽언저리에서 한번 꺾여 외반되 구연으로 이어진 형태. 넓고 희미한 내저원각. 내면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기고:2.7 구경:15.2 저경:6.0 굽고:0.7	제2단석축 지표
52-6	97-6	백자접시. 암회색.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 태토에 기포가 생겨 내면바닥이 부풀어 오름.	현고:1.6 저경:4.7 굽고:0.4	NS트렌치(1) 서편
52-7	97-7	백자접시. 태토는 회갈색으로 양질. 굽둘레보다 넓은 내저원각. 굽은 약간 변형된 죽절굽.	현고:2.9 저경:6.0 굽고:1.0	제1단 석축 표토
52-8	97-8	백자접시. 암회색. 전면시유.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태토 양호. 내면바닥에 기포형성.	현고:2.0 저경:5.2 굽고:0.5	지표
52-9	97-9	백자접시. 녹회색. 뚜렷한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굽안까지 시유됨. 태토는 비교적 양호.	현고:1.3 저경:5.5 굽고:0.1	NS트렌치(1) 지표
53-1	98-1	백자접시. 회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에 기포형성.	현고:1.1 저경:5.7 굽고:0.7	제1단석축
53-2	98-2	백자접시. 전면이 심하게 탈유됨. 넓은 내저원각. 뚜렷한 물레자국. 굽에 번조받침 흔적.	현고:2.7 저경:6.0 굽고:0.6	
53-3	98-3	백자접시. 황백색. 심하게 탈유되었고 표면에 기포형성.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굽과 동체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태토는 붉은색을 띰.	현고:2.0 저경:6.5	건물지(2)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53-4	98-4	백자접시. 탈유심함. 표면에 불순물. 태토는 붉은색을 띰. 굽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현고:1.6 저경:6.5	지표
53-5	98-5	백자접시. 죽절굽에서 동부로 부드럽게 이어지다 외반된 구연으로 연결. 넓은 내저원각. 표면은 산화되어 광택없음. 내면과 굽에 굵은모래와 진흙을 섞어 빚은 받침흔적.	기고:3.4 구경:16.3 저경:5.4 굽고:0.7	건물지(1)
53-6	98-6	백자접시. 청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태토양호. 굽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현고:1.8 저경:5.7	NS트렌치(1)
53-7	98-7	백자접시.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 내면과 굽에 굵은모래와 진흙을 섞어 빚은 받침흔적.	현고:3.1 저경:6.3 굽고:0.9	제3단석축
53-8	98-8	백자접시. 구연은 다소외반. 넓고 희미한 내저원각. 내면과 굽에 굵은 모래받침. 시유두께가 고르지 않음.	기고:3.3 구경:15.0 저경:4.0 굽고:0.6	건물지(1)
53-9	98-9	백자접시. 청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5군데의 굵고 거친 모래받침흔적. 태토 양호. 시유상태 양호.	현고:2/5 저경:5.6 굽고:0.5	제2단석축계단지
53-10	98-10	백자접시. 회색. 구연 약간외반. 유약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내외면에 모래받침흔적. 태토양호. 굽둘레 정도의 희미한 내저원각.	구경:14.8 저경:6.0 굽고:0.4	지표
54-1	99-1	백자접시. 태토는 황백색의 석고질. 내면에 태토비짐흔적. 전면에 빙렬. 굽은 죽절굽.	기고:4.1 구경:15.5 저경:5.8 굽고:0.8	건물지(1)
54-2	99-2	백자접시. 태토는 황갈색 석고질. 죽절굽. 구연은 다소외반하는 형태. 내면과 굽에 가는모래와 내화토를 섞어 빚은 받침흔적.	기고:4.1 구경:16.0 저경:5.2 굽고:0.9	건물지(1)
54-3	99-3	백자접시. 죽절굽. 구연은 외반하는 형태. 내면과 굽에 내화토와 가는모래를 섞어 빚은 받침흔적. 표면은 산화되어 광택이 없고 표면에 기공형성.	기고:3.6 구경:15.4 저경:5.6 굽고:0.7	EW트렌치 확장피트
54-4	99-4	백자접시. 황색빛이 도는 백색. 직립구연. 내면동체부에 음각원.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시유상태양호. 태토양호.	기고:3.9 구경:17.2 저경:7.8 굽고:0.6	지표
54-5	99-5	백자접시. 회백색. 내면바닥에 6군데의 번조받침흔적. 굽언저리에 기포형성.	현고:2.4 저경:5.4 굽고:0.8	건물지(1)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54-6	99-6	백자접시. 회백색.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에 기포형성.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못함.	현고:2.0 저경:5.2 굽고:0.7	NS트렌치(1) 서편
54-7	99-7	백자접시. 푸른빛이 약간 도는 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2.4 저경:5.6 굽고:1.1	지표
54-8	99-8	백자접시. 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각각 5군데의 번조받침흔적. 표면에 물레자국.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않음.	현고:1.3 저경:5.3 굽고:0.5	지표
54-9	99-9	백자접시. 직립구연.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이 섞임.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넓고 희미한 내저원각. 내면에 태토비짐흔적.	기고:4.1 구경:13.5 저경:5.2 굽고:1.0	제2단석축 지표
54-10	99-10	백자접시. 회청색. 태토에 기포형성.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1.9 저경:5.3 굽고:0.8	건물지(2)
55-1	100-1	백자접시. 회청색.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양호.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1.6 저경:5.6 굽고:1.0	NS트렌치(1)
55-2	100-2	백자접시. 암회색. 내면바닥에 희미한 음각원과 번조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외면에 물레자국.	현고:3.1 저경:5.0 굽고:0.5	NS트렌치(1)
55-3	100-3	백자접시. 내면과 굽접지면에 번조받침흔적. 표면은 암회색을 띰. 죽절굽.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1.9 저경:5.0 굽고:0.6	지표
55-4	100-4	백자접시. 회색. 넓은 음각원. 외면에 물레자국뚜렷. 태토에 작은 기포형성. 직립구연.	기고:3.1 구경:13.6 저경:5.8 굽고:0.7	지표
55-5	100-5	백자접시. 회청색.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않음. 넓고 희미한 음각원. 표면에 기포형성. 내면에 4군데의 번조받침흔적.	현고:2.3 저경:5.3 굽고:0.8	NS트렌치(1) 동편
55-6	100-6	백자접시. 청회색. 넓은 음각원. 내면바닥에 4군데의 번조받침흔적. 시유가 고르지 못함. 외면은 부분적으로 탈유됨.	현고:2.4 저경:5.6 굽고:0.9	제1단석축 지표
55-7	100-7	백자접시. 회색. 내면바닥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물레자국보임.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에 기포형성.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2.4 저경:5.7 굽고:0.5	NS트렌치(1) 서편
55-8	100-8	백자접시. 회백색. 넓은 내저원각. 굽언저리에 기포형성. 내면바닥에 5군데의 번조받침흔적. 태토양호.	현고:3.1 저경:4.6 굽고:0.8	제1단석축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55-9	100-9	백자접시. 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성긴 빙렬.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1.5 저경:4.9 굽고:0.6	지표
55-10	100-10	백자접시. 표면은 암회색. 내면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투명한 유가 얇게 시유.	현고:2.2 저경:4.6 굽고:0.6	탑지서편
56-1	101-1	백자접시. 회색. 뚜렷한 내저원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양호.	현고:2.1 저경:5.2 굽고:0.8	지표
56-2	101-2	백자접시. 회청색. 가는 빙렬.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2.2 저경:5.4 굽고:0.9	지표
56-3	101-3	백자접시. 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않음.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양호.	현고:1.4 저경:6.3 굽고:0.7	NS트렌치(1) 서편
56-4	101-4	백자접시. 회백색. 내면바닥에 뚜렷한 번조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2.0 저경:5.4	지표
56-5	101-5	백자접시. 내면과 굽에 태토비짐흔적. 투명유가 얇게 시유됨. 표면에 물레자국.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굽은 외반.	현고:2.2 저경:4.8 굽고:0.7	지표
56-6	101-6	백자접시. 녹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물레자국.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2.4 저경:6.2 굽고:0.7	NS트렌치(1)
56-7	101-7	백자접시. 회색. 부분부분 붉은색을 띰.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희미한 내저원각. 내면바닥이 고르지 못함.	현고:2.2 저경:6.4 굽고:1.1	지표
56-8	101-8	백자접시. 회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전면시유. 접지면이 고름.	현고:1.6 저경:5.8 굽고:0.6	지표
56-9	101-9	백자접시. 굽은 낮은 죽절굽.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에 사립섞임.	현고:1.8 저경:5.1 굽고:0.6	지표
56-10	101-10	백자접시. 저부만 남아있음. 내면과 굽에 태토비짐흔적. 표면이 산화됨.	현고:1.4 저경:5.6 굽고:0.9	탑지
57-1	102-1	백자접시. 표면은 암회색.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투명유를 전면에 얇게 시유. 죽절굽.	현고:2.7 저경:5.4 굽고:0.8	탑지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57-2	102-2	백자접시. 황갈색. 전면시유. 가는 빙렬. 뚜렷한 내저원각.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접지면이 일정하고 굽정리가 잘됨. 태토는 황색을 띰.	현고:2.1 저경:6.3 굽고:0.9	건물지(2)
57-3	102-3	백자접시. 황색.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미세한 빙렬. 접지면 일정. 태토에 기포형성.	현고:2.6 저경:7.0 굽고:0.8	지표
57-4	102-4	백자접시. 내면과 굽접지면에 각각 5군데의 번조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죽절굽.	현고:1.8 저경:4.9 굽고:0.9	건물지(1)
57-5	102-5	백자접시. 표면은 황색. 가는 빙렬. 희미한 음각원.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죽절굽. 태토는 황색을 띰.	현고:2.3 저경:6.6 굽고:0.9	NS트렌치(1)
57-6	102-6	백자접시. 표면은 광택이 없는 회색.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굽은 다소 외반하는 형태.	현고:1.6 저경:5.0 굽고:0.8	건물지(2)
57-7	102-7	백자접시. 어두운 황색빛이 도는 회색. 굽둘레보다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죽절굽.	현고:1.7 저경:5.1 굽고:0.6	건물지(2) 서편
57-8	102-8	백자접시. 녹회색. 전면시유.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가는 빙렬. 굽언저리에 기포형성.	현고:2.7 저경:6.3 굽고:0.8	건물지(2) 동편
57-9	102-9	백자접시. 표면은 암회색. 전면시유. 굽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양호. 굽정리잘됨.	현고:1.9 저경:4.0 굽고:0.7	건물지(2) 남쪽
57-10	102-10	백자접시. 회백색. 외면에 뚜렷한 물레자국. 외반구연. 태토양호.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형성.	현고:2.7 구경:14.4	지표
57-11	102-11	백자접시. 표면은 회백색. 외반구연. 태토양호. 유약이 고르게 시유됨.	현고:3.0 구경:15.0	NS트렌치(1)
58-1	103-1	백자대접. 굽둘레정도의 내저원각. 굽은 다소 내경하는 단정한 굽. 표면은 암회색을 띠며 미세한 빙렬. 양질의 회청색 태토. 굽접지면에 세사를 받쳐 번조.	현고:5.6 저경:7.3 굽고:1.6	건물지(2) 지표
58-2	103-2	백자대접. 내저원각. 단정한 굽. 표면은 암회색. 회색의 양질태토. 굽에 세사를 받쳐 번조.	현고:7.7 저경:6.8 굽고:1.4	건물지(2)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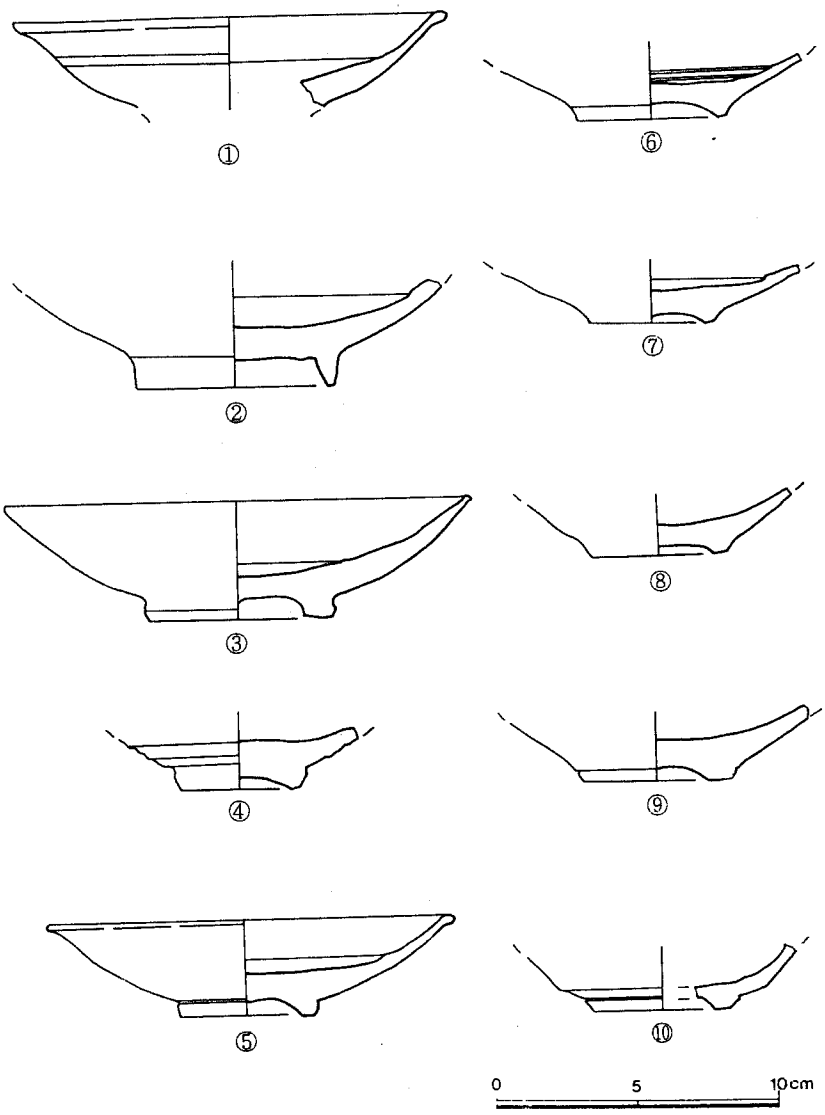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58-3	103-3	백자대접. 청색빛이 도는 회색.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못함. 표면에 기포형성. 굽둘레정도의 내저원각.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현고:4.0 저경:6.6 굽고:1.0	건물지(2)
58-4	103-4	백자대접. 굽둘레정도의 뚜렷한 내저원각. 다소 높고 외반하는 굽. 굽에 가는모래를 받쳐 번조.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	현고:2.9 저경:6.0 굽고:1.6	건물지(2) 지표
58-5	103-5	백자대접. 회백색. 전면에 시유됨. 시유상태양호. 굴둘레정도의 내저원각. 높은굽으로 굽다리의 하단부에 1조의 선이 음각됨. 굽에 번조받침흔적.	현고:3.4 저경:8.0 굽고:1.6	지표
58-6	103-6	백자대접. 표면은 청백색. 굽에 가는모래받침흔적. 뚜렷한 내저원각.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	현고:4.5 저경:6.0 굽고:1.4	제2단석축 상면
58-7	103-7	백자대접. 회백색. 전면에 시유됨. 굽둘레정도의 내저원각. 비교적 높은굽으로 정리가 잘됨.	현고:3.4 저경:8.0 굽고:1.6	건물지(2)
58-8	103-8	백자대접. 회백색. 전면에 시유됨. 성긴 빙렬. 희미한 내저원각. 굽에 번조받침흔적. 높은굽.	현고:3.7 저경:8.3 굽고:1.5	제1단석축 상면
58-9	103-9	백자대접. 표면은 암회색. 굽은 단정하지 못한 죽절굽. 내저원각. 회색의 양질태토. 굽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	현고:5.8 저경:5.8 굽고:1.1	건물지(2) 지표
58-10	103-10	백자대접. 암녹색. 전면시유. 굽에 모래받침흔적. 굽둘레정도의 내저원각. 태토양호.	현고:2.7 저경:5.6 굽고:1.0	건물지(2)
59-1	104-1	백자종지. 표면은 암회색. 전면시유. 시유상태 양호. 굽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양호.	현고:3.2 저경:6.8 굽고:0.6	NS트렌치(1) 동편
59-2	104-2	백자종지. 회색. 전면시유. 시유상태 양호. 태토양호. 접지면이 좁음.	현고:2.5 저경:4.4 굽고:0.9	NS트렌치(1) 서편
59-3	104-3	백자종지. 녹색빛이 약간 도는 백색. 성긴 빙렬. 태토에 기포형성. 접지면이 고름.	현고:2.5 저경:4.4 굽고:0.9	NS트렌치(1) 서편
59-4	104-4	백자대접. 죽절굽에서 동부로 부드럽게 올라가다 구연이 크게 외반하는 형태. 뚜렷한 내저원각. 내면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	기고:7.4 구경:15.4 저경:5.4 굽고:1.0	제3단석축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59-5	104-5	백자대접. 암회색. 부분적으로 붉은색을 띰. 외면에 뚜렷한 물레자국.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죽절굽. 내저원각.	현고:5.1 저경:6.1 굽고:1.1	지표
59-6	104-6	백자대접. 표면은 암회색. 유약이 얇고 소성시의 온도에 의해 내면바닥과 굽언저리에는 붉은색을 띰. 가는 물레자국.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굽둘레보다 약간 넓은 내저원각.	현고:6.9 저경:6.8 굽고:1.3	제2단석축 상면
59-7	104-7	백자대접.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비교적 높은굽. 태토는 황갈색을 띰. 가는 빙렬.	현고:2.1 저경:6.0 굽고:1.3	지표
59-8	104-8	백자대접. 암회색. 내면에 기포형성.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외반구연. 외면에 물레자국. 굽은 약간 밖으로 퍼진 형태.	기고:8.2 구경:16.9: 저경:5.5 굽고:0.7	지표
59-9	104-9	백자대접. 푸른빛이 약간 도는 회색.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태토양호.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5.0 저경:6.4 굽고:1.0	NS트렌치(1)
60-1	105-1	백자대접. 청백색. 굽둘레보다 넓은 내저원각. 표면이 탈유되었고 기포형성. 내면바닥에 굵은모래받침흔적.	현고:4.5 저경:6.2	지표
60-2	105-2	백자대접. 표면이 산화되어 얼룩달룩함. 내면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내저원각. 양질의 회색태토.	현고:3.2 저경:6.0 굽고:1.0	제3단석축 하단
60-3	105-3	백자대접. 회색. 뚜렷한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태토양호.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2.6 저경:5.2 굽고:1.1	지표
60-4	105-4	백자대접. 표면은 회색. 부분적으로 붉은색을 띰. 희미한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2.6 저경:6.5 굽고:1.2	NS트렌치(1)
60-5	105-5	백자대접. 암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희미한 내저원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3.9 저경:6.0	지표
60-6	105-6	백자대접. 전면시유. 굽언저리와 굽속에는 균열됨.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내저원각. 태토는 황색을 띰.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2.6 저경:6.4 굽고:0.7	제1단석축 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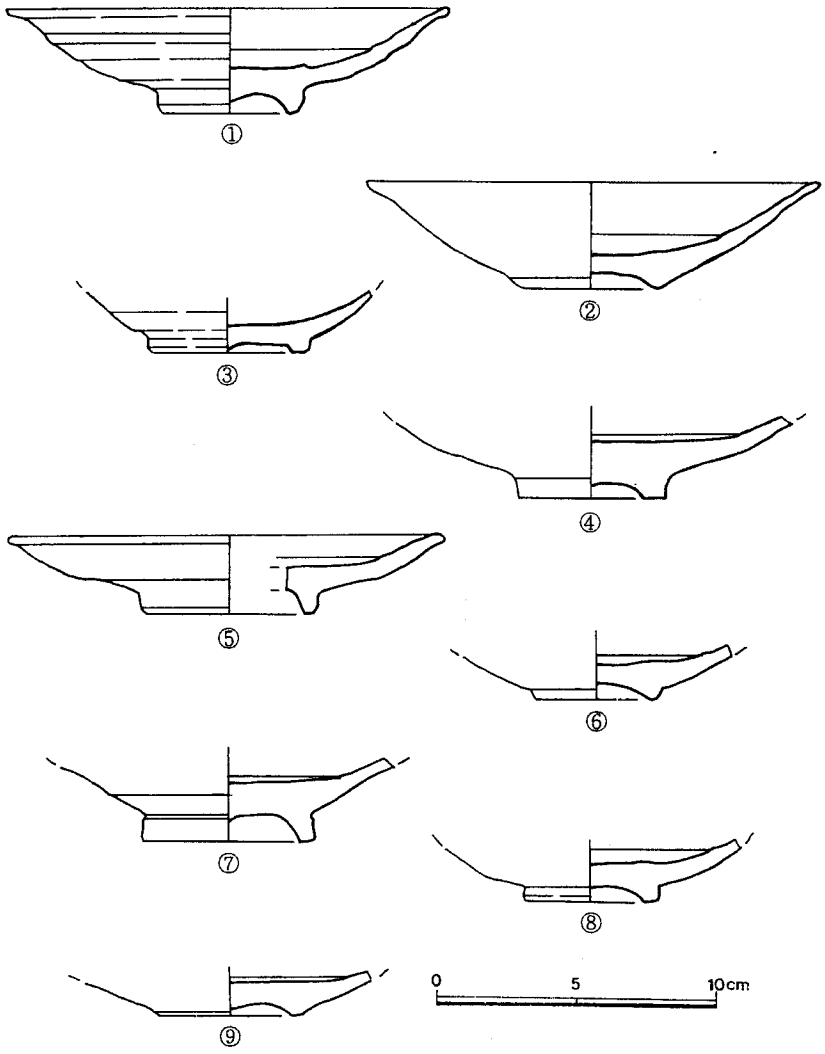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60-7	105-7	백자종지. 회백색.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내저원각.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3.2 저경:5.0 굽고:0.8	NS트렌치(1)
60-8	105-8	백자대접. 암회색. 탈유됨.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희미한 내저원각.	현고:2.9 저경:6.8 굽고:1.0	건물지(2)
60-9	105-9	백자대접. 암회색. 좁은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굵은 모래받침흔적.	현고:3.3 저경:6.2 굽고:1.0	지표
60-10	105-10	백자대접. 갈색을 띠는 회색. 전면시유. 좁은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굵은모래받침흔적.	현고:3.2 저경:6.2 굽고:0.8	건물지(2)
61-1	106-1	백자대접. 굽은 다소 외반. 희미한 내저원각. 표면은 녹회색으로 전면에 미세한 빙렬. 회갈색태토에 사립섞임. 내면과 굽에 모래비짐을 받친 흔적.	기고:7.8 구경:17.4 저경:7.6 굽고:0.8	지표
61-2	106-2	백자대접. 녹회색. 굽둘레보다 약간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7군데의 번조받침흔적. 태토양호.	현고:2.6 저경:6.2 굽고:0.8	지표
61-3	106-3	백자대접. 표면은 청백색. 희미한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5군데의 태토비짐흔적. 태토양호.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5.0 저경:6.5 굽고:1.0	제2단석축 상면
61-4	106-4	백자대접. 뚜렷한 내저원각. 내면과 굽에 태토비짐흔적. 표면에 물레자국. 양질의 회백색태토.	현고:3.8 저경:5.6 굽고:0.9	건물지(2) 지표
61-5	106-5	백자대접. 황색빛이 도는 회색. 가는 빙렬.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내저원각.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양호.	현고:3.4 저경:5.8 굽고:0.8	제2단석축 상면
61-6	106-6	백자대접. 회백색. 시유상태양호. 희미한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양호.	현고:2.6 저경:6.2 굽고:1.0	NS트렌치(1)
61-7	106-7	백자대접. 표면은 회청색. 내면에 태토비짐, 굽에 모래를 받쳐번조. 전면에 가는 빙렬.	현고:4.5 저경:6.8 굽고:1.1	건물지(2)
61-8	106-8	백자대접. 암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4군데의 번조받침흔적. 희미한 내저원각. 시유상태양호.	현고:3.9 저경:6.0 굽고:1.0	제1단석축 상면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61-9	106-9	백자대접. 표면은 황청색.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내저원각.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죽절굽.	현고:3.7 저경:5.6 굽고:0.7	NS트렌치(1)
62-1	107-1	백자대접. 회색. 전면에 시유됨. 시유상태양호. 굽둘레정도의 내저원각. 내면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양호.	현고:3.0 저경:6.8 굽고:1.1	건물지(2)
62-2	107-2	백자대접. 시유상태양호. 희미하고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성긴 빙렬.	현고:3.0 저경:2.2 굽고:1.0	건물지(2)
62-3	107-3	백자대접. 회색. 부분적으로 붉은색을 띰.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가는 빙렬.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3.0 저경:6.0 굽고:1.1	건물지(2)
62-4	107-4	백자대접. 황색빛이 도는 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넓은 내저원각. 태토에 약간의 기포형성. 시유상태양호.	현고:3.7 저경:7.2 굽고:0.9	제2단석축 상면
62-5	107-5	백자대접. 황백색.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태토는 황색을 띠며 기포형성.	현고:3.0 저경:8.0 굽고:0.9	제2단석축 상면
62-6	107-6	백자대접. 청색빛이 도는 백색. 굽둘레정도의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양호. 전면시유. 성긴 빙렬.	현고:2.2 저경:8.2 굽고:1.0	지표
62-7	107-7	백자대접. 회청색. 외반구연. 내면바닥의 음각원에서 꺾여 동체부로 올라감.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성긴 빙렬.	기고:5.6 구경:14.1 저경:6.6 굽고:0.8	제2단석축 상면
62-8	107-8	백자대접. 태토는 황갈색으로 석고질. 구연이 다소 외반하고 동부로 부드럽게 이어지다 직립하는 굽으로 연결됨. 뚜렷한 내저원각. 내면과 굽접지면에 태토비짐흔적.	기고:8.7 구경:19.1 저경:7.6 굽고:1.4	건물지(1)
62-9	107-9	백자대접. 태토는 황갈색 석고질. 뚜렷한 내저원각. 내면에 태토비짐흔적. 표면은 산화되어 광택이 없음. 굽은 죽절굽.	현고:3.4 저경:5.6 굽고:0.6	지표
63-1	108-1	백자대접. 황백색. 내면에 희미한 음각원과 번조받침흔적. 굽언저리에 기포형성.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는 황색을 띰.	현고:2.5 저경:7.0 굽고:0.9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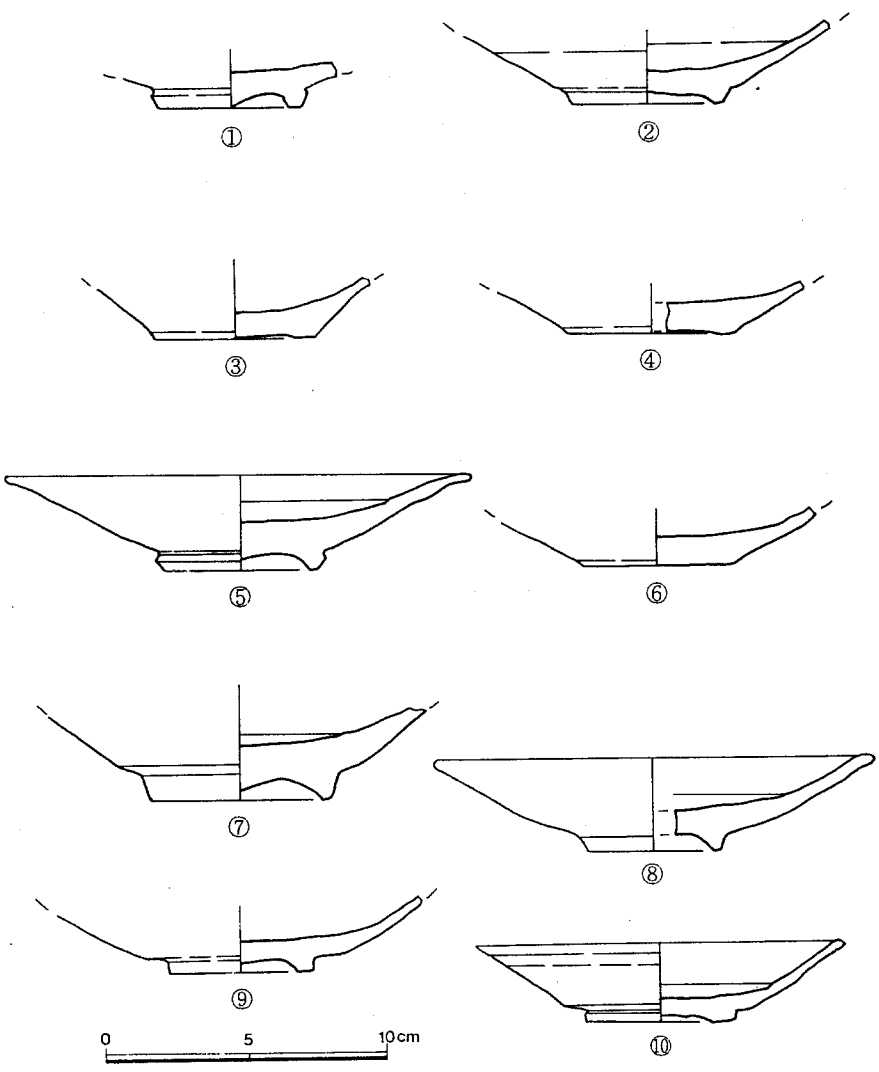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63-2	108-2	백자대접. 표면에 기포형성. 태토는 붉은색을 띰. 내면에 형식적인 음각원. 내면바닥에 번조받침흔적.	현고:2.5 저경:7.0 굽고:1.3	건물지(2)
63-3	108-3	백자대접. 암회색. 부분적으로 황색을 띰. 시유상태양호. 태토양호. 외반구연. 기형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됨.	현고:8.3 구경:18.0	지표
63-4	108-4	백자대접. 회색. 외반구연. 시유상태양호. 태토양호. 기벽이 얇고 정리가 잘됨.	현고:5.0 구경:16.1	건물지(2)
63-5	108-5	백자대접. 외반된 구연과 동부의 일부가 남아있는 파편. 표면은 암회색.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	현고:7.0 구경:16.6	제2단석축 상면
63-6	108-6	백자대접. 구연이 크게 외반됨. 표면은 회청색. 표면에 물레자국.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	현고:5.5 구경:16.2	비각지
63-7	108-7	백자대접. 표면은 암회색. 구연은 다소외반. 태토는 회색으로 비교적 양질.	현고:5.3 구경:14.0	비각지
63-8	108-8	백자대접. 암회색. 외반구연. 태토양호. 기형이 매끄럽게 정리가 잘됨.	현고:5.2 구경:17.2	건물지(2)
64-1	109-1	백자대접. 구연이 다소 심하게 외반된 형태. 표면 암회색. 물레자국.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	현고:5.1 구경:16.2	비각지
64-2	109-2	백자대접. 암회색을 띠는 대접의 구연부편. 구연이 외반된 형태. 태토는 회색으로 비교적 양질.	현고:5.9 구경:15.8	지표
64-3	109-3	백자대접. 회백색. 내면구연부쪽에 가는 음각원. 외면에 물레자국. 외반구연. 태토양호.	현고:7.0 구경:14.4	지표
64-4	109-4	백자대접. 청백색. 성긴 빙렬. 외반구연. 시유상태양호.	현고:3.9 구경:16.6	NS트렌치(1) 서편
64-5	109-5	백자대접. 회백색. 표면에 부분부분 기포형성. 외반구연. 태토양호. 외면에 물레자국.	현고:5.9 구경:15.2	지표
64-6	109-6	백자대접.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형성. 구연은 약간 외반됨. 태토에 기포형성. 동체부의 하부는 탈유되어 황백색을 띰.	현고:6.2 구경:19.3	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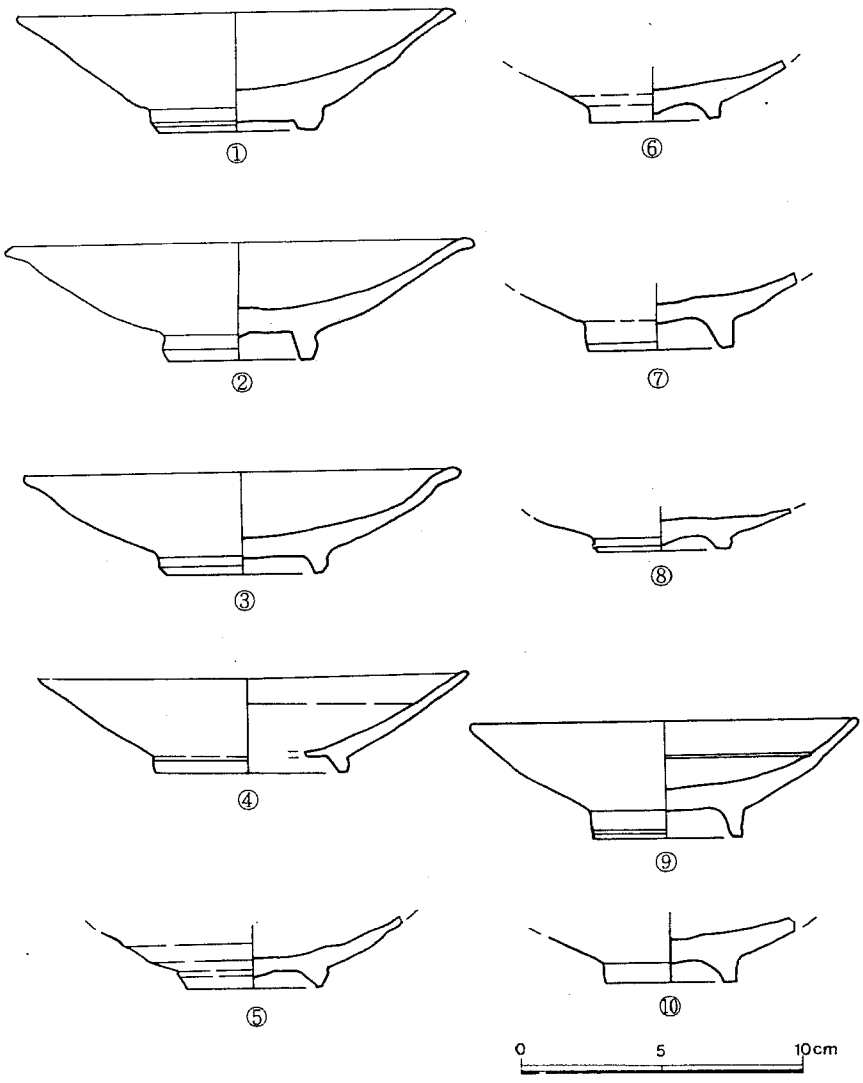
圖面 51 존자암지 출토 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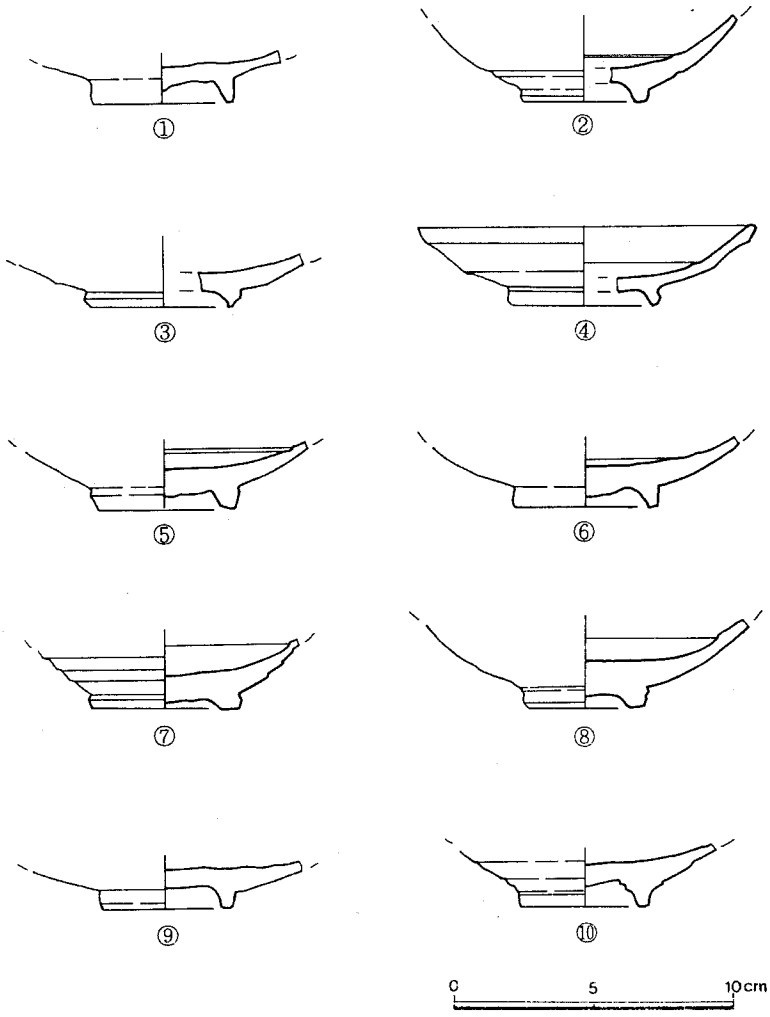
圖面 52 존자암지 출토 백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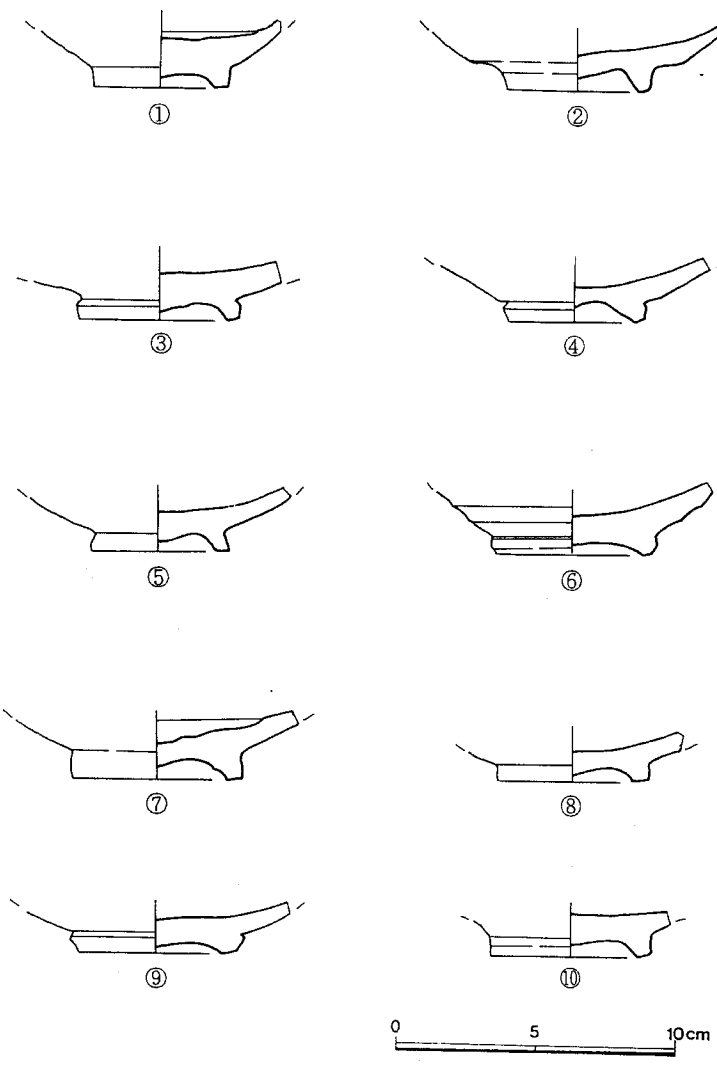
圖面 53 존자암지 출토 백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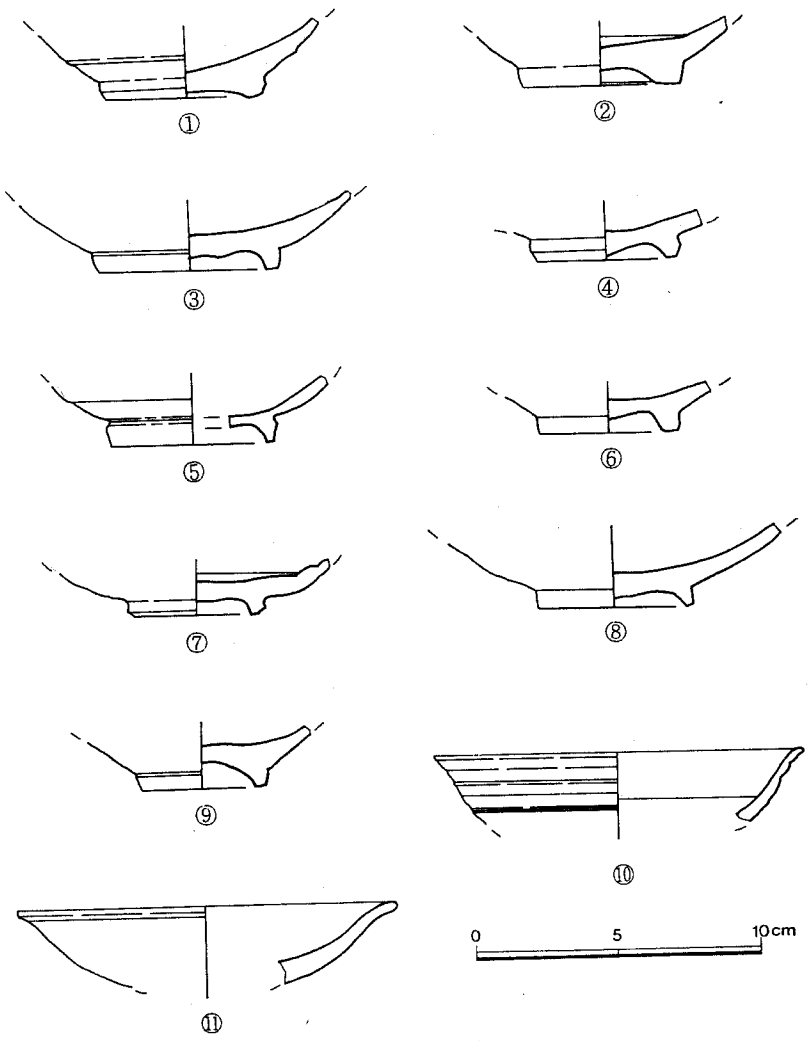
圖面 54 존자암지 출토 백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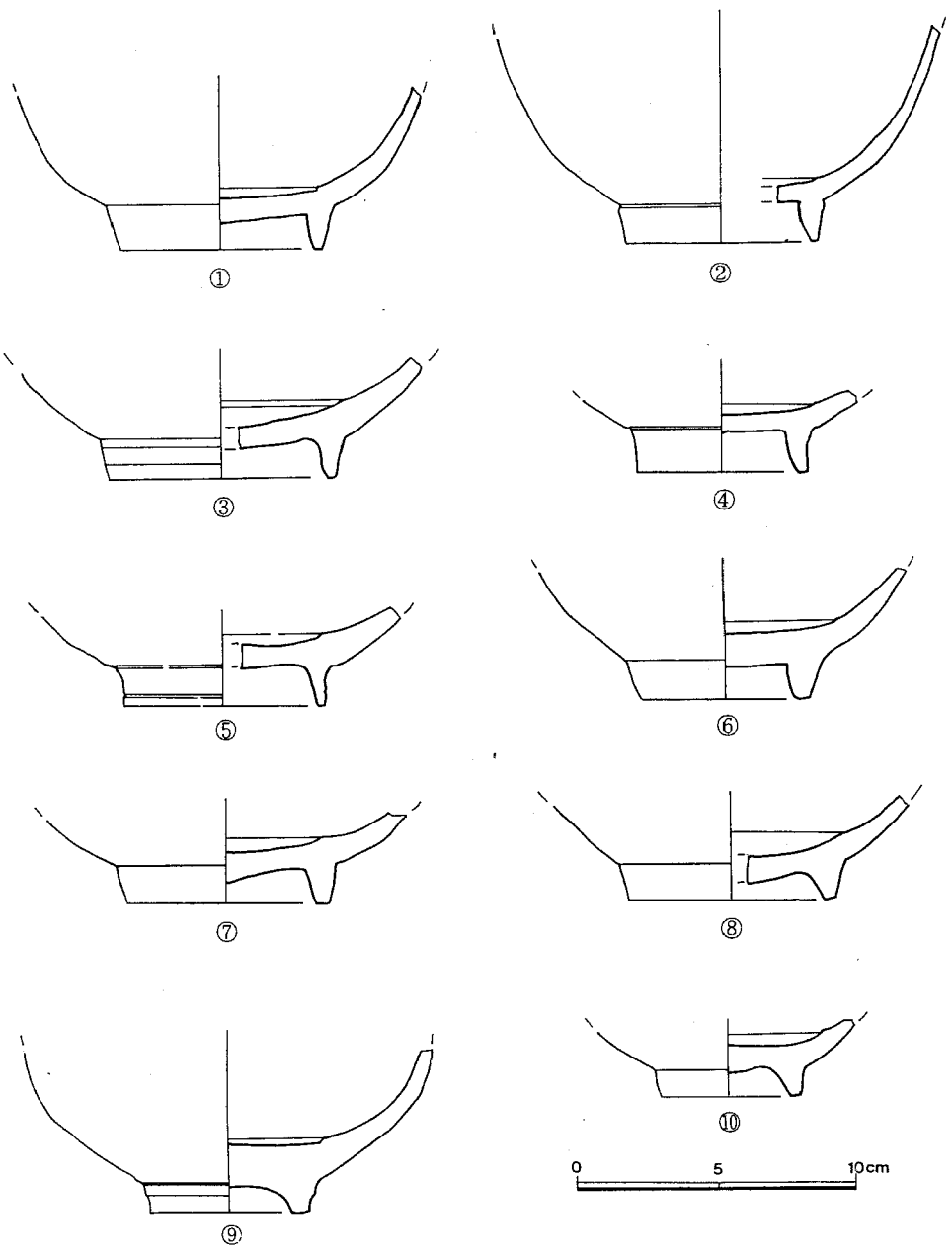
圖面 55 존자암지 출토 백자(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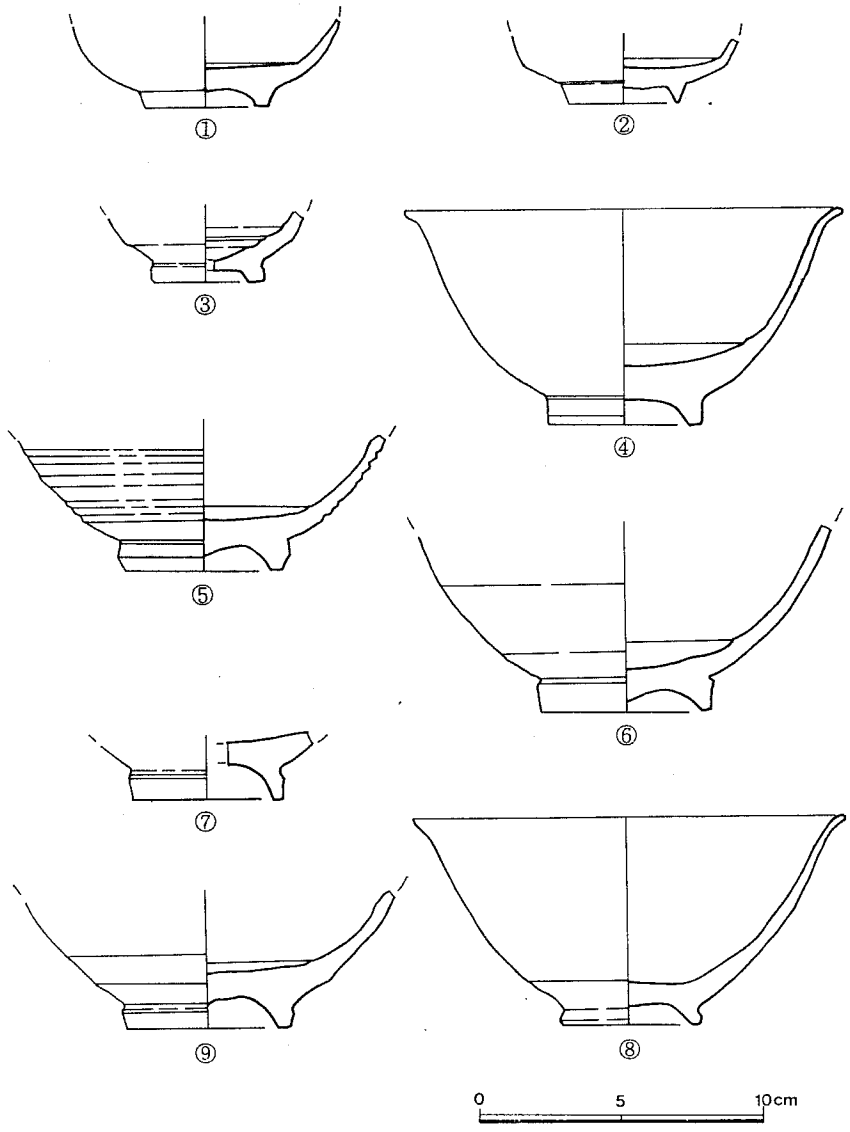
圖面 56 존자암지 출토 백자(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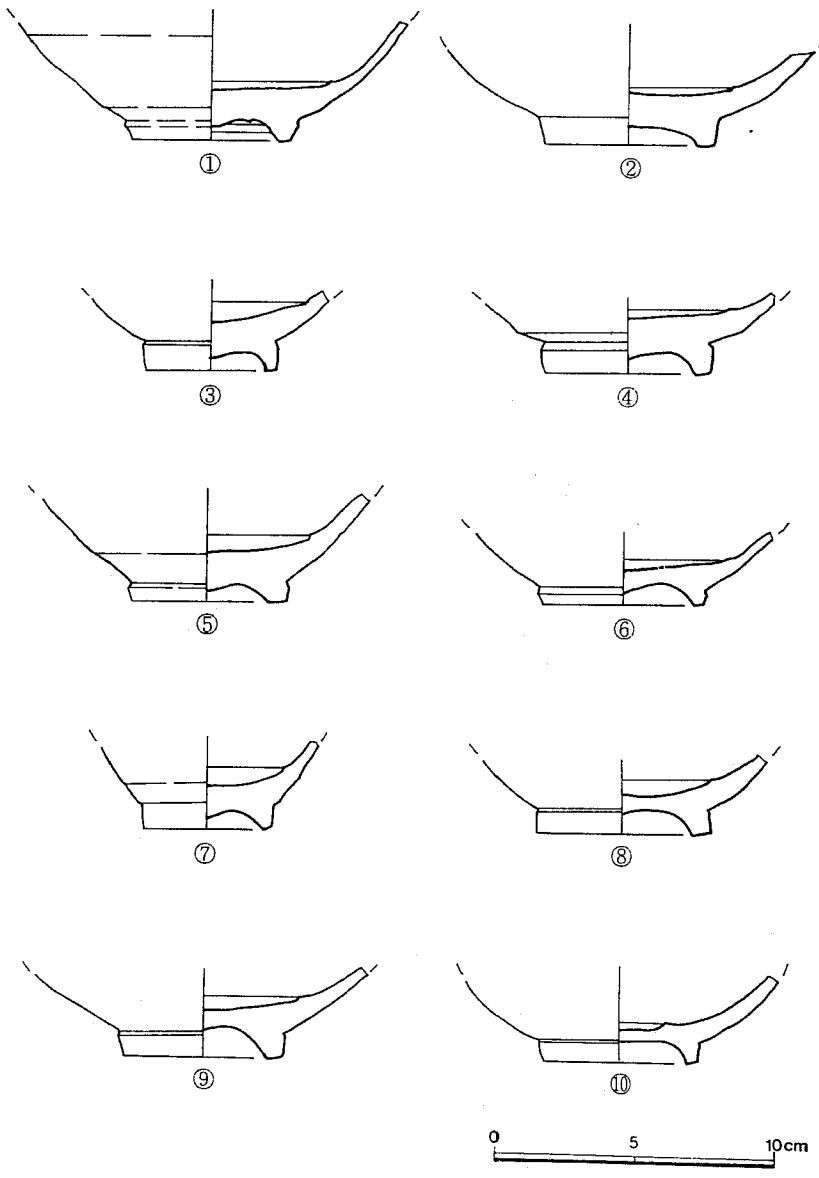
圖面 57 존자암지 출토 백자(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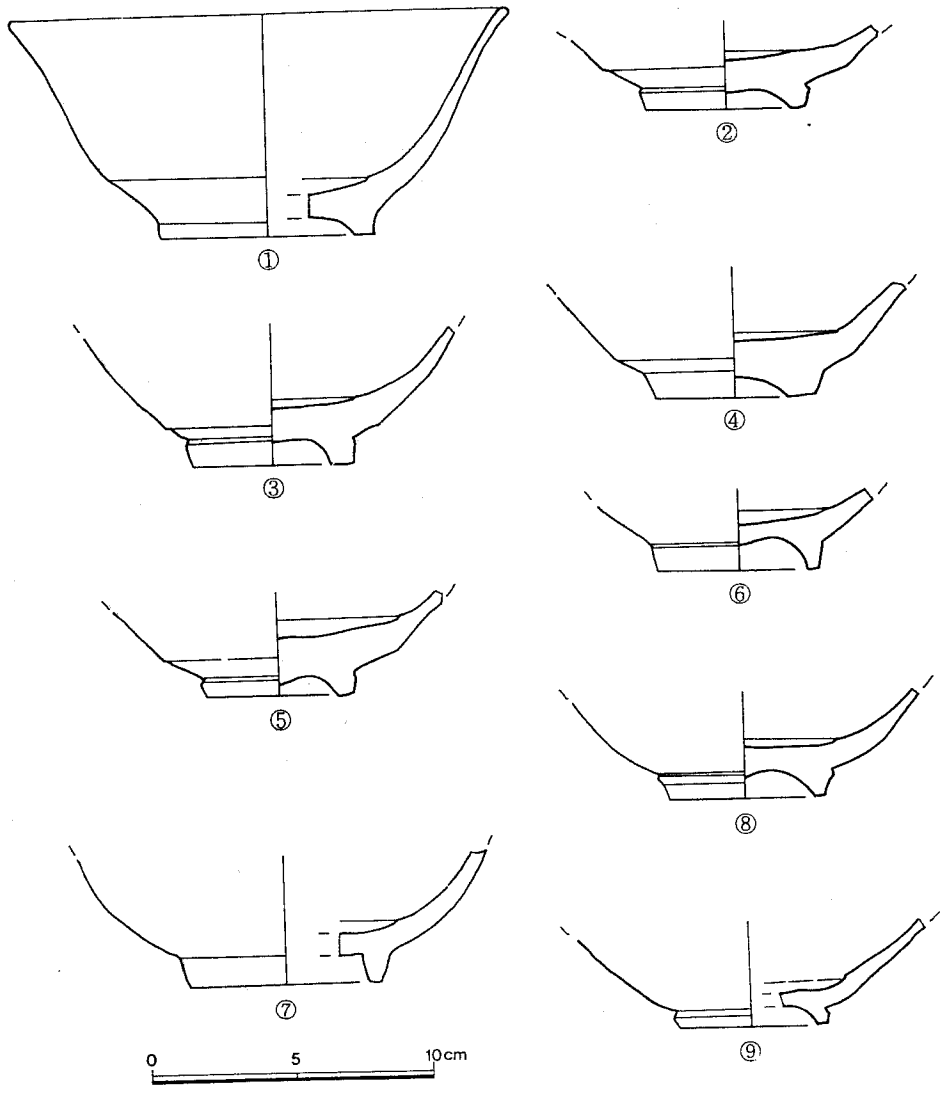
圖面 58 존자암지 출토 백자(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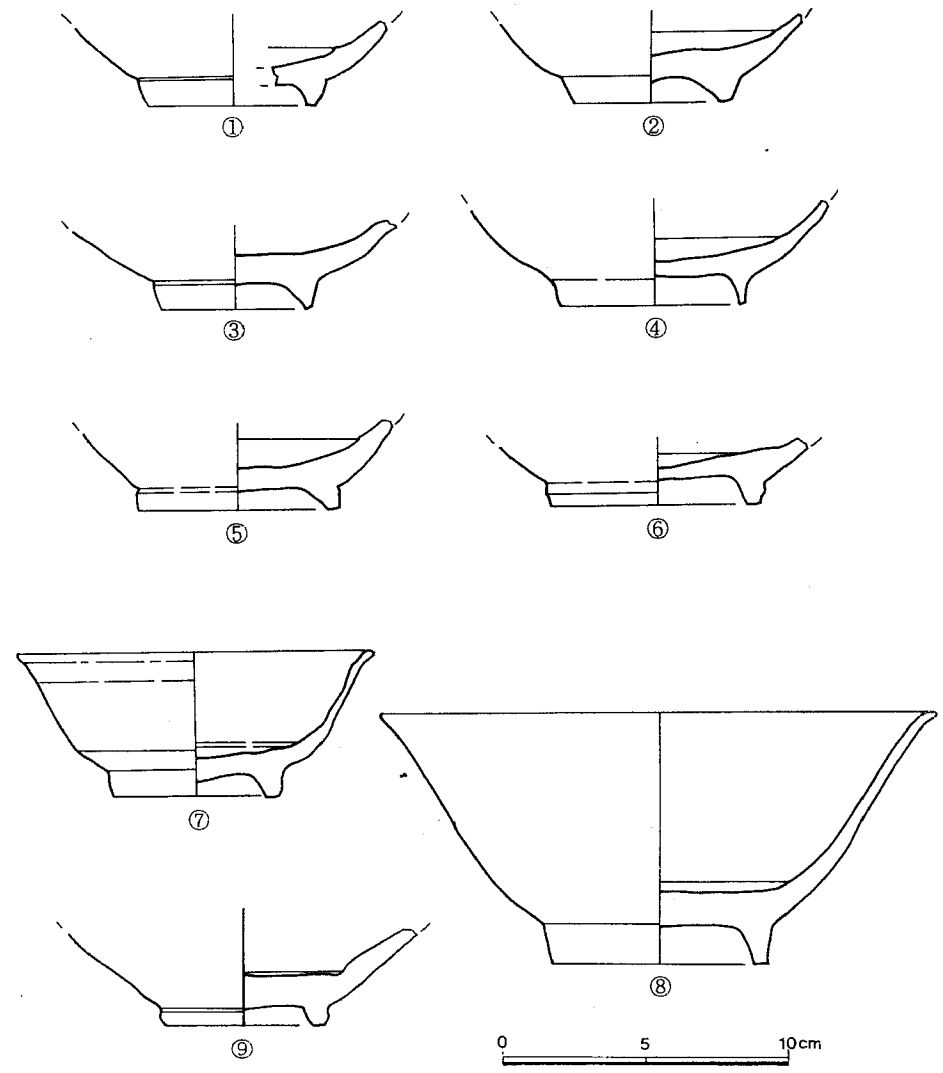
圖面 59 존자암지 출토 백자(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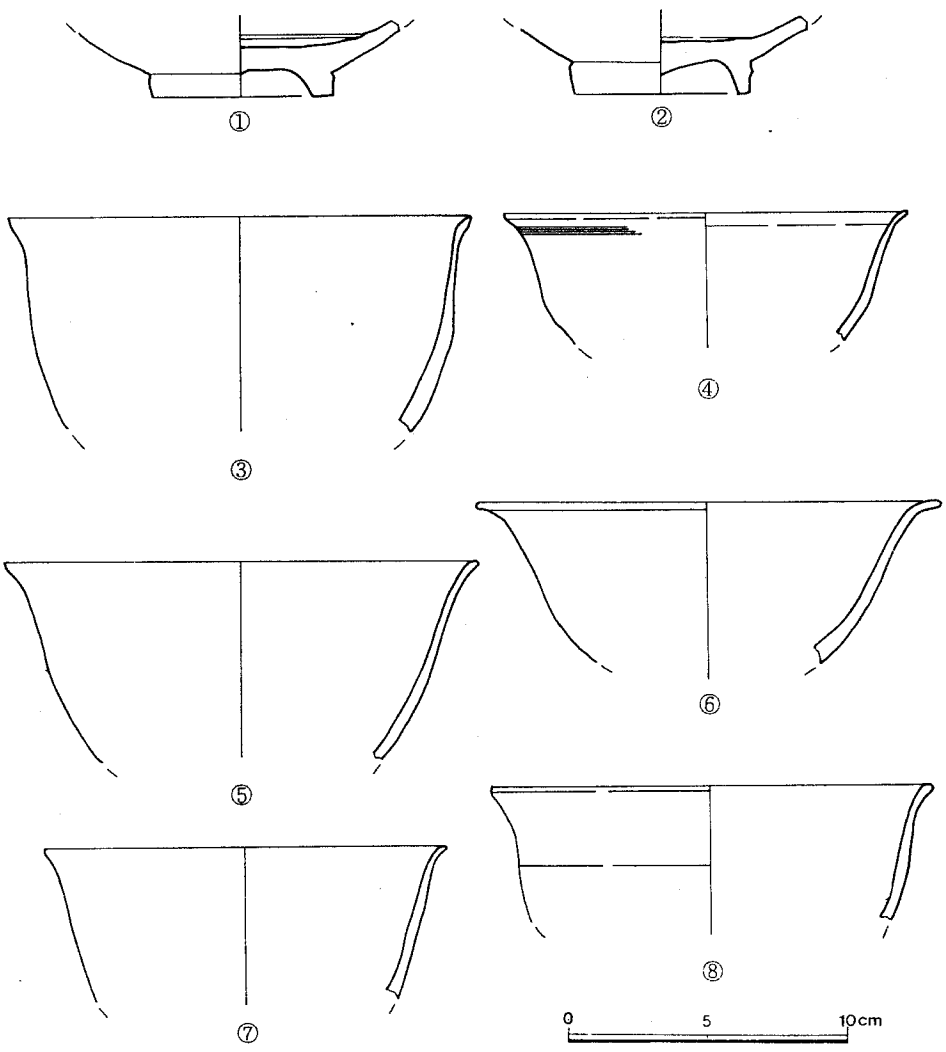
圖面 60 존자암지 출토 백자(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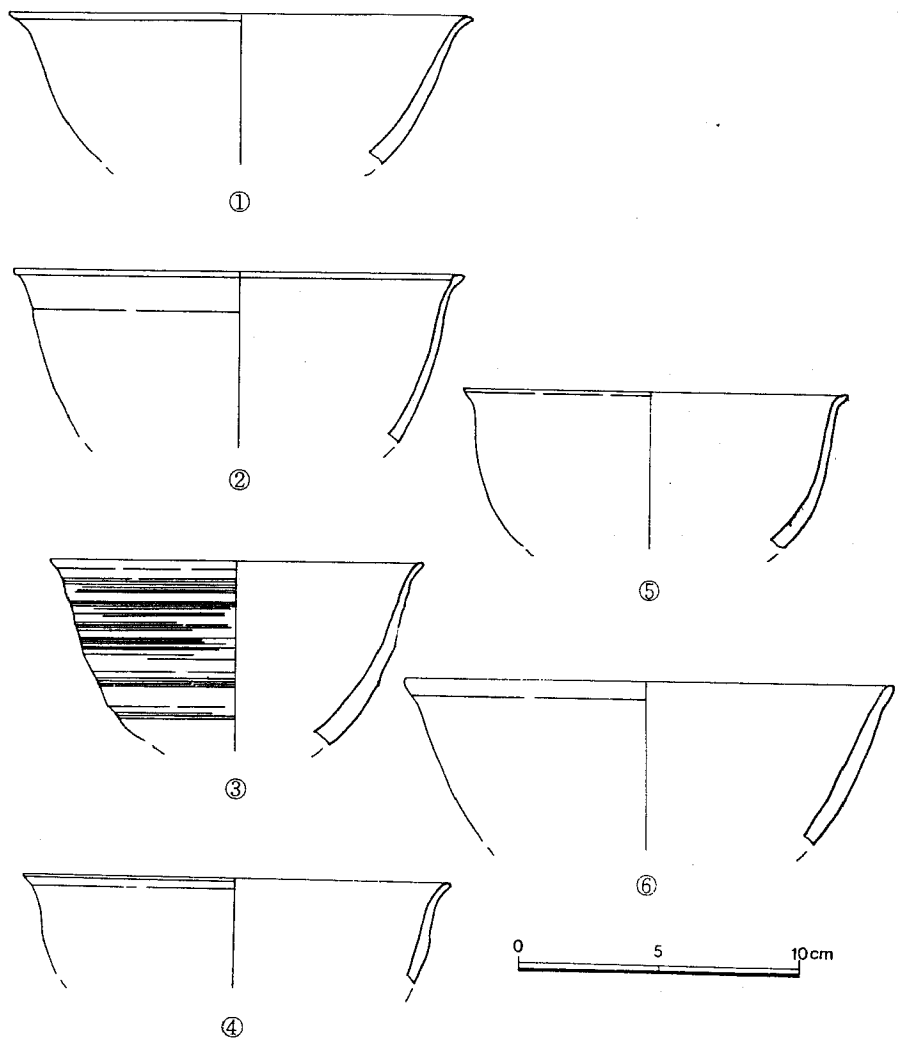
圖面 61 존자암지 출토 백자(11)



圖面 62 존자암지 출토 백자(12)



圖面 63 존자암지 출토 백자(13)



圖面 64 존자암지 출토 백자(14)

4. 명문 백자

두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송곳같은 도구로 쪼아서 새긴 것들이다. 「大靜」, 「和順」 명 등 지방명이 보이며, 「大」 「林」 「田?」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명문 그리고 새김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글씨가 뚜렷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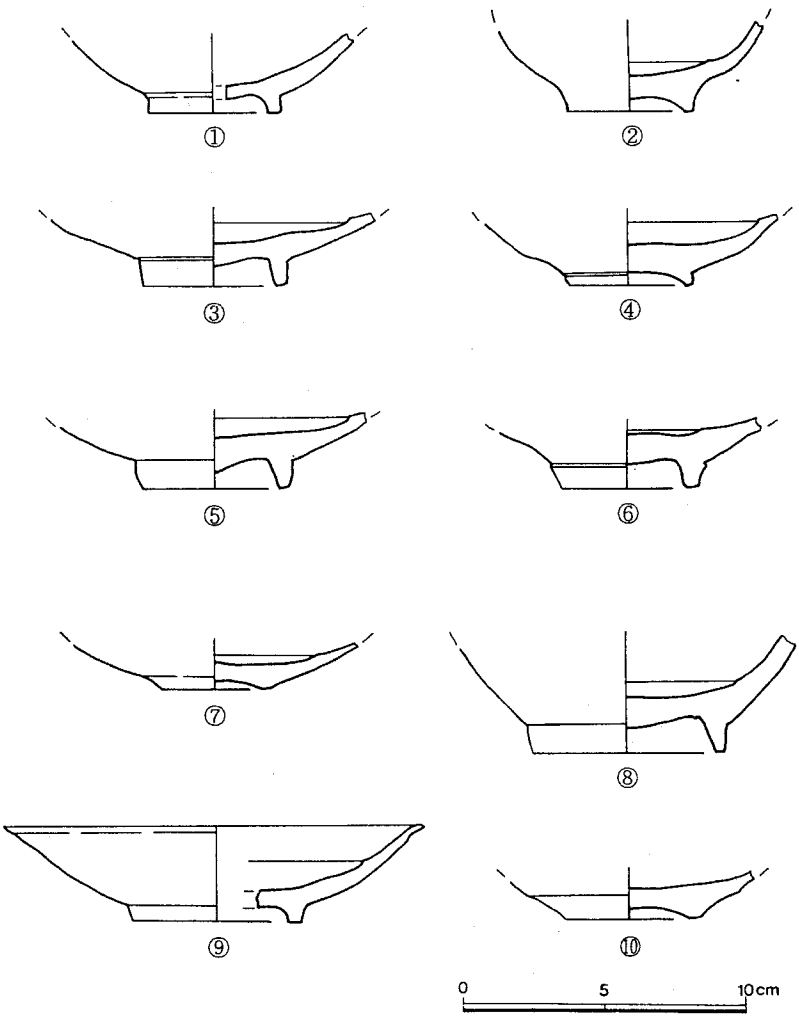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 토 위 치
65-1	110-1	「果」銘 백자. 내면 동체부에 「果」銘이 정교하게 음각됨. 표면은 녹회색. 가는 빙렬. 굽은 잘 깎여지고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양호..	현고:2.8 저경:5.2 굽고:0.7	NS트렌치(1)
65-2	110-2	「大靜」銘 백자. 외면 동체부에 「大靜」銘이 송곳같은 도구로 쪼아서 새겨짐. 표면은 유백색. 선명한 빙렬. 전면시유. 희미한 내저원각.	현고:3.3 저경:5.0 굽고:0.5	NS트렌치(1)
65-3	110-3	「和順」銘 백자. 내면 바닥에 「和順」銘이 쪼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각. 전면시유. 굽에 모래받침흔적. 태토양호.	현고:2.4 저경:5.8 굽고:1.1	NS트렌치(1)
65-4	110-4	「大」銘 백자. 내면바닥에 「大」銘이 쪼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각. 전면시유.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5군데의 번조받침흔적.	현고:2.4 저경:5.8 굽고:1.1	NS트렌치(1)
65-5	110-5	「毛老園」銘 백자. 내면바닥에 「毛老園」이 쪼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각. 가는 빙렬. 태토양호.	현고:2.4 저경:5.8 굽고:1.1	NS트렌치(1)
65-6	110-6	「弟」銘 백자. 내면바닥에 「弟」가 쪼아서 새겨짐. 굽둘레정도의 내저원각. 내면바닥 4군데에 번조받침흔적. 전면시유. 표면은 회백색.	현고:2.2 저경:5.4 굽고:1.0	제2단석축
65-7	110-7	「二」銘 백자. 내면중앙에 「二」가 쪼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각. 미세한 빙렬.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낮은 굽.	현고:1.7 저경:4.1 굽고:0.1	제2단석축
65-8	110-8	「?」「O」銘 백자. 내면중앙에 알 수 없는 문자를 외면 굽언저리에 「O」銘을 쪼아서 새김. 희미한 내저원각. 굽에 가는모래를 발쳐번조. 태토는 회백색 양질.	현고:4.0 저경:6.8 굽고:1.0	제1단석축
65-9	110-9	명문백자. 내면바닥에 알 수 없는 문자가 쪼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각. 외반구연. 굽언저리에 기포형성. 전면시유.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태토양호.	기고:3.6 구경:16.6 저경:6.6 굽고:0.5	비각추정지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65-10	110-10	명문백자. 내면바닥에 알 수 없는 문자가 조아서 새겨짐. 표면은 회색. 전면시유. 동체와 굽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희미한 내저원각.	현고:1.4 저경:5.3	탑지추정지
66-1	111-1	「禾卜」銘 백자. 내면바닥에 「禾卜」이 조아서 새겨짐. 전면시유. 부분적으로 기포형성. 굽정리가 잘 됨.	현고:2.3 저경:6.0 굽고:1.1	제2단석축
66-2	111-2	「林」銘 백자. 소형종지. 내면에 「林」銘이 조아짐. 회색태토로 약간의 사립섞임.	현고:2.5 저경:5.0 굽고:0.9	탑지추정지
66-3	111-3	명문백자. 내면바닥에 알 수 없는 문자가 조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굽언저리 유약의 두께가 일정치 않음.	현고:1.9 저경:6.4 굽고:0.4	지표
66-4	111-4	「右」銘 백자. 굽안에 「右」銘이 음각되었고 내면바닥에 알 수 없는 문자가 조아서 새겨짐. 표면은 회색. 전면시유. 넓은 내저원각. 굽에 가는모래받침흔적. 태토양호.	현고:1.2 저경:9.0 굽고:0.8	건물지(2)
66-5	111-5	명문백자. 내면바닥에 알 수 없는 문자가 조아서 새겨짐. 넓고 뚜렷한 내저원각.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흔적. 전면시유. 시유상태양호.	현고:2.3 저경:5.2 굽고:0.5	지표
66-6	111-6	명문백자. 굽속에 알 수 없는 문자가 조아서 새겨짐. 내면바닥에 4군데의 번조받침흔적. 시유상태양호. 굽속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2.7 저경:5.4 굽고:0.9	NS트렌치(1) 서편
66-7	111-7	「仁守」銘 백자. 넓은 내저원각. 내면에 「仁守」銘이 조아서 새겨짐. 굽은 단정한 직립굽.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 굽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	현고:2.9 저경:5.6 굽고:1.2	제1단석축
66-8	111-8	「林」「正」銘 백자. 내면에 「林」, 굽속에 「正」銘이 조아짐. 넓은 내저원각. 치밀질 백색태토. 굽에 세사를 받쳐 번조.	현고:3.2 저경:7.4 굽고:1.1	건물지(2)
66-9	111-9	「千?」銘 백자.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 내면에 「千?」이 조아짐. 굽에 가는모래를 받쳐 번조. 태토는 회색으로 비교적 양질.	기고:3.4 구경:15.9 저경:5.0 굽고:1.1	건물지(1)
67-1	112-1	「田?」銘 백자. 표면은 백색. 내면과 굽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 넓은 내저원각.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 내면에 「田」銘이 조아서 새겨짐.	현고:3.6 저경:6.6 굽고:0.6	제3단석축 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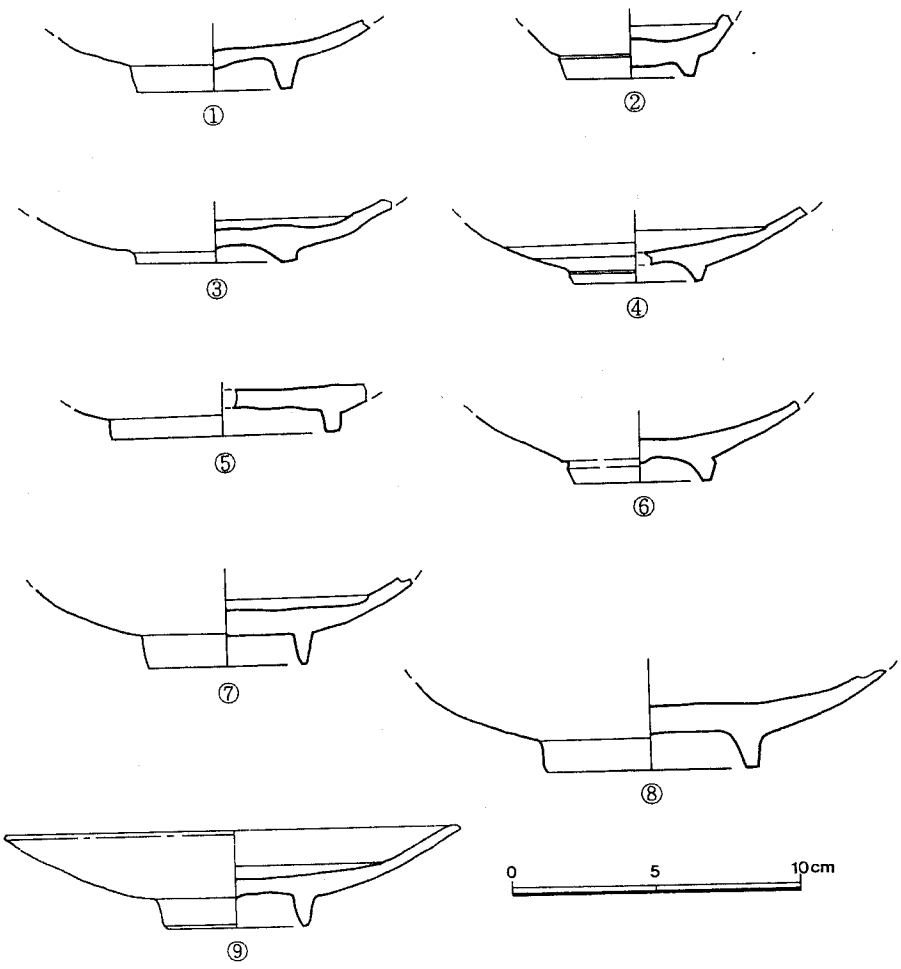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67-2	112-2	「大」銘 백자. 소형종지. 표면은 암회갈색. 내면에 「大」銘이 쪼아짐. 굽은 높고 다소외반. 굽에 태토비짐을 받쳐서 번조.	현고:3.9 저경:3.4 굽고:1.0	제1단석축
67-3	112-3	「?」銘 백자. 굽언저리에 파악하기 힘든 문자가 쪼아짐. 내저원각. 굽에 5군데의 태토비짐흔적.	현고:3.0 저경:5.2 굽고:1.0	건물지(2)

5. 기타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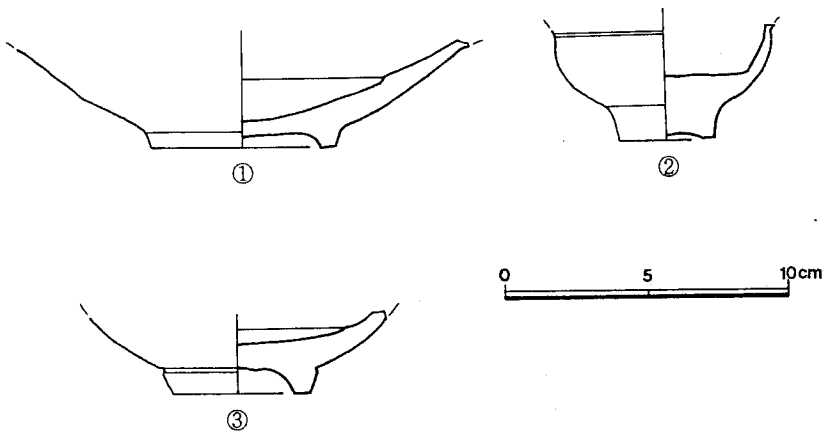
도면	도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68-1	113-1	靑銅蓋. 원형의 주연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름 0.7㎜의 구멍을 뚫어 일부분의 盒과 고정되도록 하였고 구멍 안으로 주상부를 3㎝가량 돌출시켰다. 전체적인 형태는 상모형태이다.	지름:13.2	탑지추정지와 NS트렌치 사이
68-2	113-2	벼루. 직사각형의 틀 안에 장타원형의 墨池를 두었다. 현재 반파상태이다. 복원길이 12.0㎝.	두께:1.2 길이:8.0	건물지(2)
	113-3	청동제 지국천왕상. 부조의 모습은 왼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손을 허리춤에 짚고 있는 상태다. 도포의 가슴선과 다리 도포선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안쪽면은 표현되지 않고 다리부분은 결실된 상태다.	장:5.2	제1단 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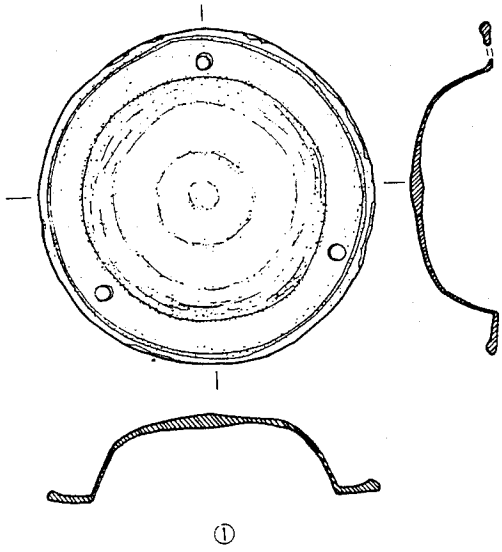
圖面 65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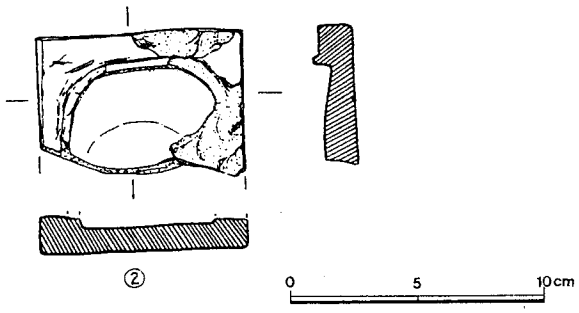


圖面 66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2)



圖面 67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3)





圖面 68 존자암지 출토 청동개·벼루

제6장 綜合考察

제1절 遺 構

1 尊者庵址는 크게 4단의 석축대지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밀집되어 모든 시설물이 들어섰던 것으로 판단된다. 각 석축대지에 배치된 시설물은 그 축조수법과 중복관계, 층위분석을 통해 시기적으로 두번에 걸쳐 존속했던 건물지와 부속시설지 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조선시대전기와 그 이전의 경우는 판석을 위주로 한 건물지가 확인되며, 이들 유구에서 발견되는 유물도 인화분청과 일부의 청자편, 명문기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중기에 만들어진 건물지 및 시설물은 자연석을 대충 치석한 할석을 위주로 쓰여졌으며 백자와 무문기와편이 주변에서 출토된다.

3. 이러한 건물지의 중복관계, 유구별 출토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각 석축대지에 배치된 시설물의 내용과 시기별 건물지와 부속시설물군을'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시기구분	소속시기	제1단석축대지	제2단석축대지	제3단석축대지	제4단석축대지
1次時期 建物址	高麗末-朝鮮初 (14~15世紀)	제1단石築施設 N-S Tr.(1)-(3)내부 積石施設 塔址推定址	건물지(3) 건물지(4)	건물지(5)	浮屠址
2次時期 建物址	朝鮮 中期 (16~17世紀)	건물지(1)	건물지(2) 敷石施設	碑閣址 (祭壇址)	

제2절 遺 物

1. 기와류

존자암에서는 약 천여편 정도의 瓦片이 출토되었다. 극소수의 완형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훼손이 심한 상태에서 출토되었다. 기와는 출토지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로 출토되기 때문에 건물지의 소속시기를 유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명문기와중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萬戶兼牧使'銘瓦는 명문와 중에서도 가장 제작시기가 빠른 것으로 이 기와와 비슷한 제작연대를 가지는 기와는 '千戶夫承碩'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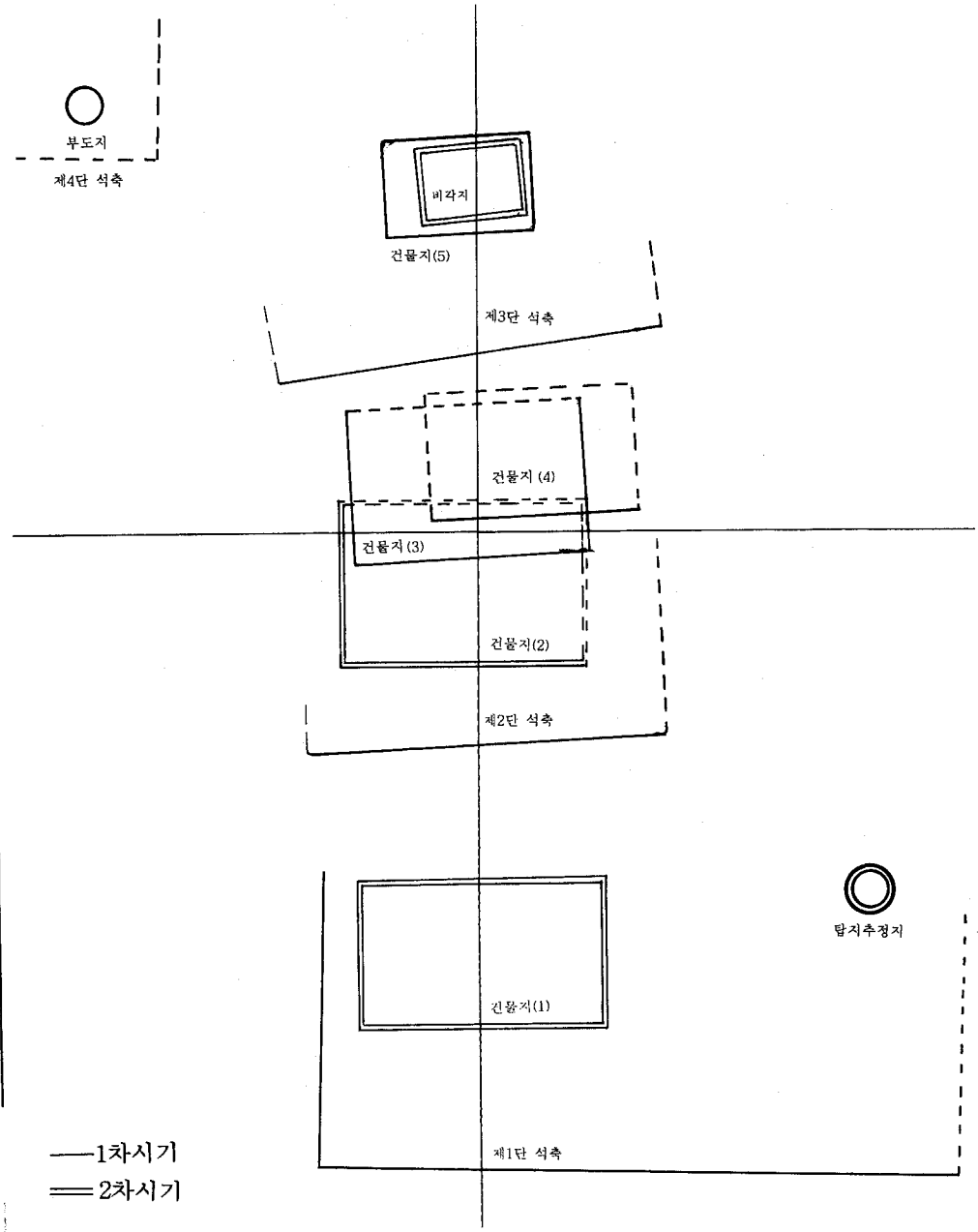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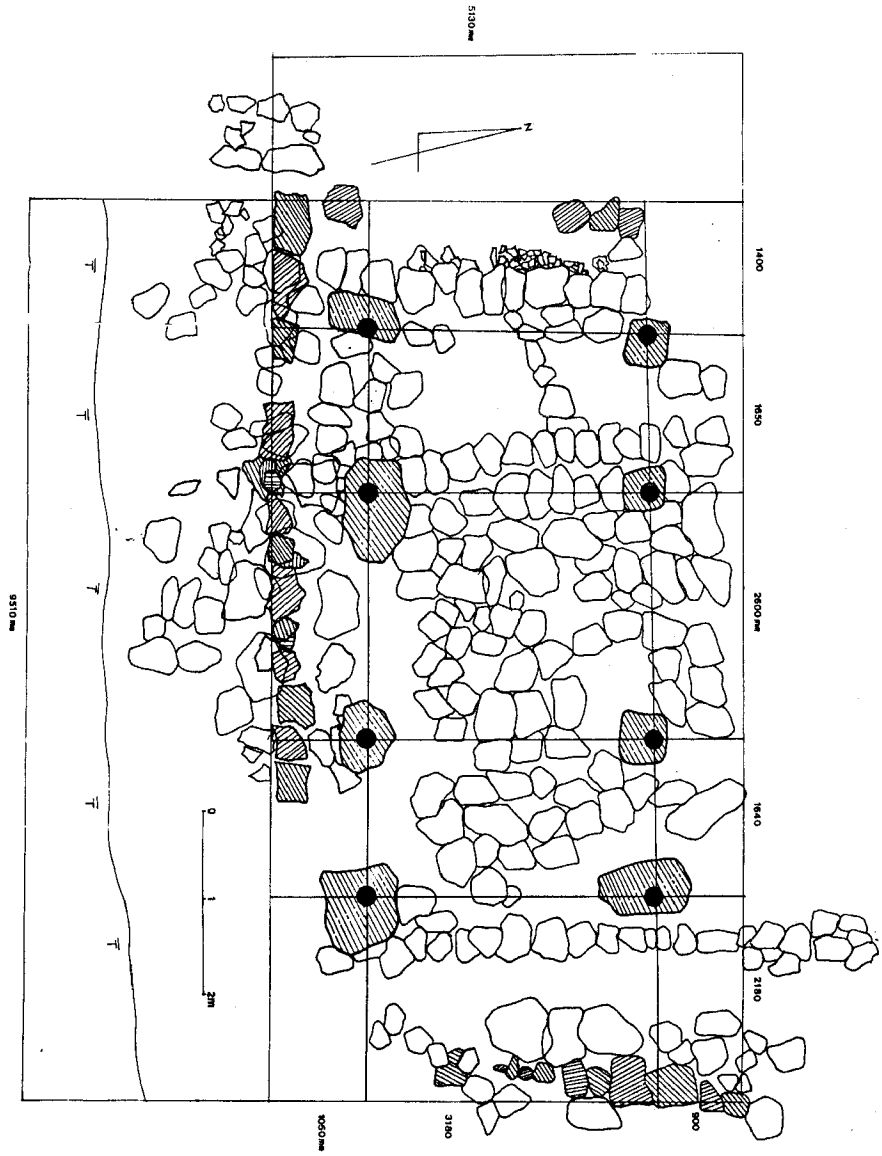


插圖1 尊者庵址 가람의 變遷


5150mm
N
1400
1650
2600mm
1640
2180
900
3190
10250mm
9510mm
0
1
2m

挿圖2 建物址(5) 復元圖

瓦를 들 수 있다. 이 두 명문와는 명문부를 장식하는 테두리선이 당초문대로 동일한 형태이다. 이들 명문와는 존자암지의 탑지추정지와 그 부근에서만 출토되었다. 또한 이들 명문와는 도내의 濟州牧官衙址의 와적담장지상에서와 제주시 외도동의 수정사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가 있다.

'壬申造'銘瓦와 '川丑開啓'銘瓦는 모두가 비각지에서 출토되었다. 이 두 명문와는 기와의 태토와 소성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두 명문와는 동일한 지점에서 출토되었으나 '壬申造'銘瓦는 많은 수가 출토된 반면에 '天丑開啓'銘瓦가 단 1점밖에 출토되지 않아서 이들 두 명문와를 비교하여 제작시기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무리라고 여겨진다. 다만 '壬申造'라고 干支銘이 시문된 기와가 濟州牧官衙址에서도 상당량이 출토되어서 존자암지 출토의 동 명문와와 속성분석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동일한 기와들의 제작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土回'銘瓦 역시 제주목관아지의 건물지 내부에서 소수가 출토된 적이 있다. '高'銘瓦와 '支'銘瓦는 각기 1편씩이 출토되었는데 상,하부가 결실된 상태고 명문 또한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한편 암기와의 등에 '尊'銘이 시문된 기와가 1점 출토되었다. 이 기와의 존재로 이번에 발굴한 寺址가 문헌에 전하는 존자암지임을 알 수 있었다.

평기와는 고려말에서 조선후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수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발굴구역 전역에서 수습된 기와는 몇 점을 제외하고는 명문기와에 비해 출토지가 일정하지가 않았다. 출토지가 가장 확실한 기와는 선조문 암·수기와로 비각지에서만이 유일하게 출토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들 두 기와는 서로 암·수를 이루어 조합을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합을 이루었던 기와는 파상문 암·수기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복합문숫기와 ⑦로 분류한 기와는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의 法華寺址에서도 1점이 출토된 바가 있다.

2. 도자기류

존자암지에서 출토된 도자기류는 청자, 백자, 분청, 백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청자는 말기의 것으로 보이는 편들이 아주 소량 출토되었고 약간의 분청사기편과 대부분이 백자편들이다. 서술대상은 구연부와 저부가 남아있어 각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편들을 기본으로 하고 분청사기의 경우 비록 동체부일지라도 그 무늬로 확실히 그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포함시켰다. 청자와 분청은 시문수법에 따라 분류하였고 백자의 경우는 순백자와 명문백자로 분류한 후 순백자는 다시 번조받침의 종류와 굽깎이 수법에 따라 세분하였다.

<청자>

청자는 아주 소량 출토되었다. 유약의 색깔은 대부분 어두운 계열이며 태토 또한 양질의 것은 아니다. 출토된 청자편이 적어서 그 양상을 전체적으로 알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 말기의 것으로 파악된다.

<분청>

출토된 분청사기의 기종은 접시류와 대접류가 대부분이며 약간의 종지류, 소형접시류, 병류, 항아리류가 보인다. 출토된 분청사기를 수법별로 나누어보면 상감, 인화, 조화, 철화, 귀얄, 덤벙분장 등의 수법이 보인다.

상감수법으로 시문된 분청으로 분류한 것은 대부분 몇줄의 선으로만 상감된 아주 간략한 형태로 바로 인화시문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인화시문된 분청편은 그 시문 범위에 따라 내면시문과 전면(全面)시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내면에만 시문되어 있다. 내면시문된 분청사기의 무늬구성을 보면 중앙에 단독국화문을 두고 그 둘레에 일렬의 국화문을 두른 것과 2열이상의 국화문을 두른것, 그리고 우점문을 시문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에 여의두문, 접문 등이 시문된 편들이 보인다. 내외면 시문된 분청사기는 내면에는 집단적인 소국화문과 연판문으로 가득 메우고 외면은 우점문, 국화문대 등을 두르고 있는 형태이다. 종속문이라고 할만한 무늬는 보이지 않는다.

인화시문된 분청사기병은 연판문과 일렬의 국화문이 시문된 경부와 승렴문으로 장식된 동부의 일부가 출토되었다. 인화분청의 종류로 포함시키기에는 애매하지만 분청편중에 연속적인 선문을 음각한 후 백토를 감입시킨 편과 인화시문 후 귀얄로 백토를 바른 편이 있다.

조화시문된 분청은 구연부와 견부의 일부가 남아있는 항아리이다. 구연의 바로 밑으로 큰 연판문과 그아래 구름문이 시문되어 있다.

철화시문된 분청은 귀얄로 백토를 입힌 후 초문을 그린 장군의 동체부로 조화나 철화수법이 사용된 분청편은 존자암지에서 출토된 분청편 중 극히 드문 예이다.

귀얄수법이 사용된 편들도 소량으로 내외면에 귀얄시문 되어 있고 앞에서 설명했으나 내면에만 인화시문된 후에 내외면에 귀얄칠되어 있는 편도 있다.

덤벙분장되어 있는 분청편은 비교적 수가 많으며 내면과 외면의 구연부에까지 분장된 것과 굽을 포함한 전면에 분장된 대접, 접시류가 있으며 병과 항아리편이 보인다. 덤벙분장된 분청편들 중에 백토가 박락된 예가 많다. 출토된 분청사기편들 중에 위에 설명한 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태토도 그릇을 빚은 후 그위에 음각시문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분청유를 씌운 종류가 일부 있다.

출토된 분청사기편들의 태토를 보면 양질인 것은 극히 드물고 거의 사립이 섞여있거나 태토내에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 번조받침은 태토비짐과 내화토비짐 혹은 내화토와 가는 모래를 섞어 빚은 것이 대부분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공에 개어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유색은 대부분 투명하고 밝은 편이나 유의 광택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굽안은 대부분 시유하지 않은 편이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외에 외반된 굽, 직립굽, 죽절굽처럼 각이지게 깎지않고 둥글게 성형한 굽, 그리고 모양이 일정치 않은 부정형의 굽 등이 있다.

<백자-대접>

백자 대접편은 번조받침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저부가 남아있지 않아 번조받침을 확인할 수 없는 구연부편은 묶어서 기술하였다.

대접의 구연부편은 구연이 다소외반하며 구연하단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꺾이다가 부드럽게 팽창하는 형태를 하고있다. 태토는 치밀지의 양질이며 유약은 얕고 고르게 시유되어 있다. 한편만이 내저원각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내면 굽접지면

포개어 번조하지 않고 단독으로 구워내 대접편으로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은 없지만 번조시 달라붙은 잡물이 내면 여기저기에 붙어있다. 굽깎은 모양에 따라 세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접지면의 폭이 좁고 굽다리가 곧고 단정한 굽으로 접지면에 가는 모래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굽안까지 깨끗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지름 정도의 내저원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태토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양질의 것이다(53, 54, (4), (5), (33)).

둘째는 첫째의 굽형식과 유사하나 접지면의 폭이 보다 넓고 약간 뭉툭한 느낌이 든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고 굽안까지 시유되어 있다. 굽지름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으며 내면에 잡티가 달라붙어있다(58, 52, (3)).

셋째는 오목굽으로 접지면에 굵은 모래와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내면에 잡티가 붙어있다. 태토는 양질이다(86, (26)).

② 태토비짐

내면에 4~7개 정도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것으로 대부분 굽접지면에도 비슷한 수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으나 내화토비짐과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도 있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며 몇점은 황백색의 석고질로 되어있어 가볍다. 전부 굽지름보다 크거나 비슷한 크기의 내저원각이 있다. 굽다리는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지 않아서 모양이 일정치 않다. 굽속까지 시유된 것과 시유되지 않은 것이 거의 같은 수이다.

③ 내화토 비짐

내면에 내화토 비짐을 받치고 굽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이나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굽지름이 대체로 넓은 편이며 내저원각이 있다. 태토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④ 내화토 + 가는 모래비짐

내면과 굽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섞은 내화토 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굽지름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다. 유의 두께가 고르지 못하고 굽속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태토에 미세한 불순물이 섞여있고 석고질인 것도 있다. 굽은 대체로 외반하는 형태이다.



插圖3 尊者庵址 出土 분청의 文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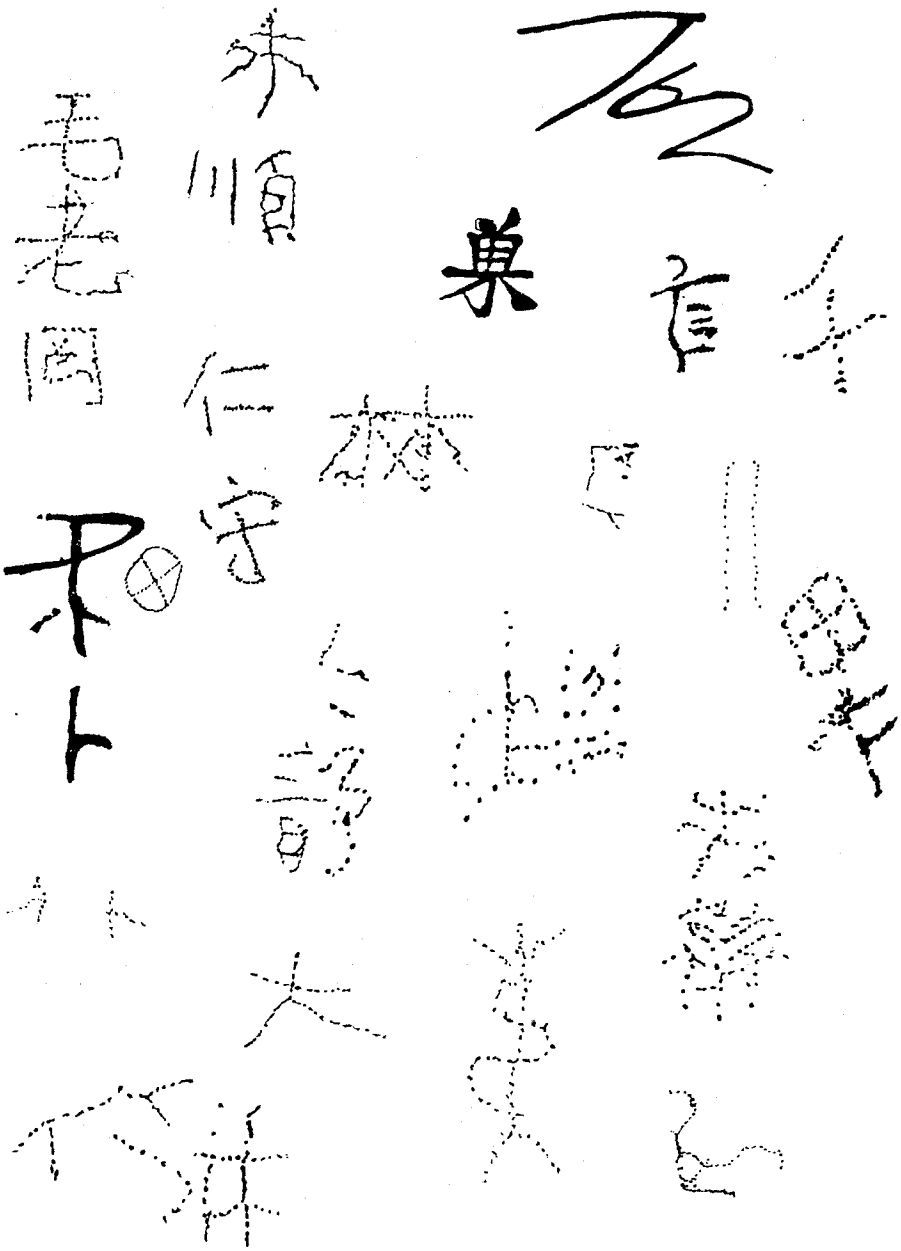


插圖4 尊者庵址 出土 백자의 銘名

⑤ 모래받침

내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어 번조하였으며 굽접지면에도 같은 종류의 번조받침을 사용하였다. 굽지름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으나 그다지 정교하지 못하다. 굽안에는 대부분 시유되지 않았다.

굽은 내경하거나 직립하는 굽과 죽절굽 등이 있으며 죽절굽의 경우 굽다리의 모양의 일정치 않아 다소 지저분하나 굽속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다. 구연이 남아있는 대접편의 기형을 보면 구연은 외반하고 동부에서 다시 팽만하는 기형이다.

태토는 치밀질로 양질인 편이다. 간혹 검은 불순물이 섞여있다.

⑥ 모래비짐

내면과 굽접지면에 굵은 모래로 빚은 받침을 받쳐 포개어 번조하였다. 굽지름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유의 두께가 고르지 못하고 불투명하거나 분투명의 유이다((30), 32).

〈백자-접시〉

출토된 백자, 접시편을 굽에만 받쳐서 번조한 것과 포개어서 번조한 것으로 나눌수 있는데 대부분 포개서 번조한 편들이다. 포개어 번조한 편들의 번조받침을 보면 태토비짐, 내화토와 가는 모래를 섞은 비짐, 모래받침, 내화토받침, 그리고 내면의 받침과 굽의 받침을 하나는 태토비짐 또 다른 하나는 모래와 내화토받침을 하는 등 서로 다르게 한 것이 있다.

①태토비짐(내외면)

내면에 4~6개 정도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접시편을 대부분 굽접지면에도 내면과 같거나 비슷한 수의 태토비짐을 받쳤고 몇점만 굽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태토는 양질로 회청색을 띠거나 회백색을 띤다. 굽은 대체로 낮은 편으로 내경하며 오목굽이 많고 시유가 되어있다.

②내화토+가는모래비짐(내외면)

내면 바닥과 굽접지면에 4~6개 정도의 내화토와 가는 모래를 섞은 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양질의 것은 드물과 대부분 회청색태토에 사립이 섞여 있으며 석고질인 것도 있다. 내저원각은 없으며 한점만이 내면에 음각선이 있다. 유약은 반투명하며 빙렬은 없다. 굽은 거의 죽절굽이나 마디부분이 비교적 둥굴게 성형되어 있는 형태이며 굽속은 대부분 시유되어 있지 않다.

③모래비짐(내)굵은모래+진흙비짐(외)

내면에 6군데 이상의 모래비짐자국이 있으며 굽접지면에는 굵은 모래와 진흙을 섰은 비짐이 5~6군데 받쳐져 있다. 태토는 회청색과 회백색을 띠는 양질의 것으로 치밀하다. 유약은 반투명하여 두껍고 탁하며 몇에는 광택이 거의 사라져 표면이 거칠다. 내저원각이 없거나 넓은 내저원각이 희미하게 형성되어있다. 굽은 낮은 죽절굽으로 마디가 둥글게 성형되어 있고 굽속이 얕게 패여있다. 굽속은 거의 시유되어있지 않다.

④굵은모래받침(내외면)

내면과 굽 접지면에 굵은모래번조받침이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형식이다. 이 형식은 굽을 깎은 모양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다리굽으로 외반하거나 내경하며 넓은 내저원각이 있다. 태토에는 약간의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양질이다. 굽속에는 대부분 시유되지 않았다. 둘째는 아주 낮은 굽으로 굽속을 오목하게 깎은 오목굽 형식이다. 이들 역시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속까지 완전시유하였다. 유약은 불투명하여 탁하다. 태토는 암회색의 치밀질로 양질이다. 셋째는 동부에서 바로 굽으로 연결되는 통굽으로 접지면의 마무리손질이 잘 되어있지않으며 내저원각은 없다. 전면시유되었으나 굽부분은 지저분하다.

⑤태토비짐(내외면)

내면과 굽접지면에 4~6개 정도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형식으로 굽깎은 수법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은 다리굽으로 외반되거나 죽절굽이다. 유약은 얇게 시유되었으며 굽속과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태토에는 불순물이 섞여있고 표면에 기공이 있다. 내저원각이 희미하게 있다. 둘째는 단정한 오목굽으로 동부와 굽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있다. 굽속까지 시유되었다. 태토는 치밀질로 양호하며 내저원각이 있다. 셋째는 낮고 내경하는 굽으로 접지면의 폭이 대체로 넓고 일정하다. 태토는 모두 석고질로 가볍다. 표면에 빙렬이 있으며 희미한 내저원각이 있다.

제7장 맺음말*

1. 존자암사지 건물지 및 부속시설은 모두 크게 4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석축평탄대지위에 자리하고 있다. 모든 단은 존자암의 1차시기(14~15세기) 건물지 및 부속시설물 신축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중 창건 혹은 중창불사와 관련된 스님의 사리가 제4단의 부도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2차시기(16~17세기)에는 전대의 존속된 시설물 터전 위에 다른 시설물을 중건하였는데 대략 건물지 제1단과 2단 중앙에 각 1동의 건물과 제3단에 비각형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노출된 상층의 건물지중, 제1단 석축은 건물지(1)의 주변을 사각으로 돌려 보축하고 있으며 주춧돌, 혹은 심초석이 확인되지 않아, 건물지(1)의 외부 공간중 앞마당일 가능성이 있다. 건물지(1)은 현가람의 가장 낮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지 내부의 주춧돌의 배치상태로 보아 앞과 뒤로 툇마루를 둔 선방지(法堂址)일 가능성이 있다. 건물지(2)(3)은 가람의 중심에 있고 높게 쌓아 올린 석축시설 위에 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자암터의 중앙부에 가장 안정된 위치에 있으며 같은 지점에 연속하여 중창된 사실로 보아 金堂址일 가능성도 있다. 건물지(5)의 높은 북쪽단에서 확인된 建物址는 가람의 끝에 있고 건물지의 축조방식과 규모로 보아 山神閣건물일 가능성이 짙으다. 또한 건물지(5)의 상면에서 확인된 장방형 부석시설에 담장지를 두르고 내부에 비석자리가 있는 시설물은 文獻에 전하는 國聖齋를 행하던 비각건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건물지 주변의 부속시설물은 탑지추정지와 부도지가 대표된다. 탑지추정지는 건물지(1)의 동편, 비교적 평탄한 공간에 자리잡고 있고 본문의 N-STrench(1),(2) 부분에서 목탑의 중심주초석이라 생각되는 주초석 1기가 확인되었으나, 주초석의 크기가 작고 주변 주초석이 확인되지 않아 목탑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浮屠는 대체로 형식상 고려말에서 올라가는 도내 유일의 부도로서, 팔각대석과 사리공시설이 보기드문 예이다.

4. 여하튼, 존자암지는 우리나라 최남단 最高에 위치하고 있고, 고대 탐라와 관련된 기록이 전하는 유적으로서, 부도와 탑 등을 포함한 가람시설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고려말-조선초 사찰유적으로서의 학술적·문화재적인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복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 금번 발굴을 마무리하면서 존자암지 발굴조사자의 의견과 1·2차 지도위원회 (1993.8.30·1994.8.5)에서 제시된 의견을 묶어 이 글을 정리하였다.

< 사후대책과 보존방안 >

1. 존자암지는 고대 탐라와 관련된 기록이 전하는 유적으로서, 제주도에서 예가 드문 가람시설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고려말-조선초 사찰유적지이다. 따라서 그 학술적·문화재적 중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구 원형의 보존과 함께 중요건물을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일정규모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고, 주초석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그 정형성을 잘 갖추고 있는 제1단의 건물지(1)은 보존 정비하여 유구시설 자체를 관람할 수 있게 한다. 부도는 원래의 위치에 옥신과 옥개석을 원형대로 갖추게 하고, 주변을 보강, 정비한다.

3. 유구 훼손이 비교적 심한 제2단에서는 1차 시기에 축조된 건물지(3), 제3단에서도 1차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5)를 복원대상으로 삼되, 그 건물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야 된다. 탑의 경우 발굴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역사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원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이 유적지의 학술적·문화재적 가치와 성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앞서 유적지 설명과 함께, 전체 가람배치와 복원 그림, 발굴도면과 사진, 출토유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건물이 마련되어야 한다.

附錄

1. 濟州島 出土 高麗後期 銘文瓦
2. 「修正禪師大夫金仲光」銘文瓦
3. 尊者庵 關係 古文獻

附錄1

濟州島 出土 高麗後期 銘文瓦

- 法華寺·水精寺 · 元堂寺·尊者庵 · 濟州牧官衙址 出土 銘文瓦 -

Ⅰ. 序

고려말에서 조선조에 이르는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내의 寺刹에 대한 연구는 몇몇 학자나 연구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실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존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의해 밝혀진 제주도내 사찰에서 출토된 銘文瓦에 대한 소개와 문양을 분석하였다. 명문와의 내용과 문양의 변천에 대한 연구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80년대에 들어서도 일부에 의해 꾸준히 계속되었다.[1] 이 글에 소개된 자료로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寺址 및 기타 유적지출토의 명문와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기와가 전래된 것은 漢四郡의 설치와 같이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2] 기와가 수입되었던 시기에는 일반에게까지 보급은 안되었다. 기와가 귀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와가 올려졌던 건물은 宮闕이나 寺刹 등에 국한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으로 삼국에서 공식적으로 불교가 승인됨에 따라 많은 수의 사찰이 창건되었다. 각국마다 고유한 문양의 기와가 제작되었으며 그 종류도 일반 평기와에부터 암·수막새, 벽돌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삼국통일후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기와제작수법을 흡수하여 더욱 섬세하고 다양한 문양의 기와를 제작하게 되었다. 고려는 건국초부터 불교를 장려하여 사찰은 더욱 많은 수가 세워졌다. 고려시대에 막새의 장식으로는 日暉文과 梵文, 일반 평기와의 문양으로는 樹支文(羽狀文·魚骨文)으로 대표되는 문양이 확립을 보게 되었다. 삼국

1) 서오선, 1985,「韓國 平瓦文樣의 時代的 變遷에 대한 硏究」, 忠南大學校大學院.
장경호·최맹식, 1985,「彌勒寺址出土 기와 등文樣에 對한 硏究調査」,
金誠龜, 1981,「雁鴨址出土古式瓦當의 形式的 考察」『美術資料』29호, 國立中央博物館..
金誠龜, 1984,「統一新羅時代의 瓦塼硏究」『考古美術』162,163 韓國美術史學會.
金誠龜, 1984,「統一新羅時代 서島文圓瓦當小考」『尹武炳博士 回甲紀念論叢』,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2) 서오선, 앞논문, pp18..

시대부터 기와의 등에 문양과 함께 글자를 시문하였고 백제시대에는 글자를 새긴 도장을 기왓등에 찍는 등 명문을 시문한 예가 간혹 있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기왓등에 명문을 시문한 것은 고려시대부터 였다. 삼국시대의 명문와는 寺刹名과 年號名을 시문한 예가 대부분이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사찰명이나 연호에 국한 되지않고 다양한 내용이 기와등에 시문되기 시작하였다.[3] 기와등에 사찰명, 地名, 또는 製作瓦窯 및 기타의 내용을 시문하는 것이 유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佛敎信仰의 儒學崇尙으로 바뀌는 조선초기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으나 조선중엽으로 접어들면 사찰의 피폐화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는 고려, 조선시대의 사찰이었다고 알려진 80여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조사되었으나 그 확실한 수는 아직 알 수 없다. 80여개의 사찰중에서 발굴조사나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던 사찰은 水精寺, 元堂寺, 法華寺, 尊者庵 등 4곳이다. 이들 유적은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유적을 중심으로 이 글을 정리하였고, 각 유적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文獻資料와 함께 정리하였다.

II. 文獻的 考察

朝鮮時代 孝宗 4年(1653)에 간행된 문헌인 李元鎭의 「耽羅志」에는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도내 20개소의 寺刹名[4]이 기재되어있으며, 그보다 이른 시기의 문헌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15개소의 寺刹名[5]이 기재되어있다. 이들 사찰들은 口傳相으로는 朝鮮 肅宗 28年(1702) 濟州牧使로 부임한 李衡祥에 의해 모두 毁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李衡祥牧使가 혁파한 것은 堂 129개소이며, 寺刹은 海輪寺와 萬壽寺 2개소 뿐이었다.[6] 孝宗朝까지 20여개에 달했던 도내의 사찰은 단지 50년이 지난 후인 이형상목사 도임 이전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당시가 抑佛崇儒의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헌기록상 孝宗朝까지 존재하였던 사찰이 20여개소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朝鮮王朝가 표면상으로는 儒學를 숭상하고 佛敎를 억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재임했던 역대 왕에 따라 불교정책에 많은 혼선이 있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며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조선시대 제주도내 사찰의 존재를 기술한 문헌기록은 오류가 없다고 하겠다.

---

3) 金誠龜, 앞 논문, pp48.

4) 水精寺,元堂寺,法華寺,尊者庵,成佛庵,普門寺,江臨寺,海輪寺,萬壽寺,逝川庵,窟庵,妙蓮寺,靈泉寺,安心寺,小林寺,郭支寺,月溪寺,觀音寺,文殊庵,頓水庵.

5) 尊者庵,月溪寺,水精寺,妙蓮寺,文殊庵,海輪寺,萬壽寺,江臨寺,普門寺,逝川庵,觀音寺,小林寺,靈泉寺,成佛庵,法華寺.

6) 「李衡祥의 行狀」
似此風習他邑所無…各自燒火三邑所在新堂一百二十九處及私家禱神之物路傍叢叢林之處巫覡輩神衣神鐵併燒燼

Ⅲ. 遺蹟別出土 銘文瓦 槪觀

1. 法華寺址[7]

法華寺址는 옛 大靜縣 지경에 있으며 현재는 西歸浦市 河原洞에 위치한다.

법화사에 관한 문헌자료를 보면, 고려시대의 문헌에는 전혀 법화사에 관한 언급은 없다. 최초의 기록은 『太宗實錄』 6年 4月 庚辰條에 보이며 법화사에 있는 彌陀三尊 佛像의 소유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元간의 내용이 실려있다. 太宗 8年의 기사는 법화사의 寺勢를 알려주는데, 당시 裨補寺刹로써 노비의 수가 280명이었고 水精寺가 130명인 것을 각각 30명으로 제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로써 법화사는 당시 도내 最大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까지는 그 명맥이 유지되었으나 孝宗 4年 편찬된 『耽羅志』에 보면 법화사는 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 4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금당지와 3동의 기타건물지, 계단, 기와보도, 담장지 등 다수의 유구가 발굴되었다. 가장 오래되고 중심건물이었다고 생각되는 금당지 주변과 기와보도에서는 한반도에서도 확인이 흔치않은 막새와(雲鳳文,雲龍文)가 발견되었고 본 논문의 자료가 되는 명문와는 기타 건물지와 계단유구에서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명문와를 속성별(명문-색조-소성도-배면처리수법-두께 順)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도면 1)

銘文瓦名	屬 性
'大'銘瓦	수지문 문양위에 마름모의 銘文部를 구획하고 내부에 양각으로 右書로 施文하였다. 회청색계열에 소성도가 높다. 기와배면에는 마포흔적과 대칼흔적이 있다. 두께 2.0-2.4㎝.
'順'銘瓦	'大'銘瓦와 동일한 수법으로 제작되었다. 회청색에 소성도가 높다. 배면은 마포흔적과 손으로 누른 흔적이 있다. 두께 2.6㎝.
'寅吉'銘瓦	'大'銘瓦와 동일한 수법으로 제작되었다. 회청색에 소성도가 높다. 배면은 마포흔적과 대칼흔적, 손으로 누른 흔적이 있다. 두께 2.1㎝.

7) 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2, 『法華寺址』, 濟州大學校博物館調査報告書, 第10輯

'高內'銘瓦	'大'銘瓦와 동일한 수법이나 기와의 옆방향으로 銘文이 施文되었다. 회청색계열에 소성도가 높다. 배면은 마포흔적과 대칼흔적, 손으로 누른 흔적이 있다. 두께 2.4-2.6cm.
'忠'銘瓦	수지문문양에 장방형의 테두리를 둘러 銘文部를 나타내었다. 銘文은 右書로 陽刻되었고 글자체가 정제되지 못하고 투박하며 크기도 비교적 크다. 갈색계열에 소성도가 낮다. 배면은 마포흔적과 대칼흔적, 물손질흔적 등이 있다. 두께 2.7-3.0cm.
'万戶'銘瓦	수지문문양에 字體가 비교적 크고 두껍게 施文되었다. 右書로 陽刻되었다. 銘文전체는 '万戶高□德, 奉□□□□'로 세로로 2열에 걸쳐 施文되었다. 회청색계열에 소성도가 높다 배면은 마포흔적과 대칼흔적이 있다. 두께 1.9-2.2cm.
'重創'銘瓦	무문기와에 직사각형의 銘文部를 두르고 내부에 銘文이 右書로 陽刻되었다. 字體가 가늘고 가로로 확대되었다. 전체銘文은 '□重創十六年己卯畢'이다. 회청색계열에 소성도가 높다. 배면은 마포흔적이 없다. 두께 2.1cm.

2. 水精寺址[8]

水精寺址는 濟州牧인 濟州市 外道洞 都近川邊에 위치하고 있다.

水精寺에 관한 기록은 법화사와 함께 노비수를 제한한 것이 그 최초이다.[9] 수정사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은 金尙憲의 『南槎錄』에서 金淨의 쓴 『沖庵記』 중 「濟州風土錄」(中宗 15年, 1520)을 인용하여 쓴 기사가 있다. 그 기사를 보면 수정사에는 元에서 만들어진 불상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沖庵 金淨의 「水精寺重修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충암의 유배 당시인 中宗 15-16年 사이에 수정사의 중수가 있었으며, 宣祖 35年(1602)에는 건물은 허물어졌으나 2座의 불상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수정사는 孝宗 4年의 李元鎭編「耽羅志」에 폐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 濟州大學校博物館, 1988, 「水精寺元堂寺 地表調査報告」, 濟州大學校遺蹟調査報告 第3輯.

9) 『朝鮮王朝實錄』 太宗 8年 2月丁未條,
…州境裨補二處修精寺見有奴婢一百三十口法華寺見有二百八十口…

水精寺는 발굴조사된 사찰이 아니라 정밀지표조사로 그 존재를 확인하였다. 지표조사에 의하면 건물지 3동, 기타 건물지에 쓰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주초석과 기단석, 등이 확인되었다. 논문의 자료가 되는 명문와는 지표에서 다소 수습되었는데 속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銘文瓦名	속 성
'萬戶兼牧使' 銘瓦	세로로 길게 늘어진 銘文部를 구획하고 그 외부로는 당초문을 施文하였다. 銘文은 字體가 정교하며 右書로 陽刻되었다. 전체 銘文은 '□二月修正禪師大夫金冲光,萬戶兼牧使奉□□□□'이다. 회청색계열에 소성도는 차이가 심하다. 배면은 미세한 마포흔적이 있다. 두께 1.7-2.0cm.
'施主萬戶' 銘瓦	과대문장식과 같은 문양의 세로로 길게 늘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銘文이 길게 늘어선 형태이다. 전체명문은 '施主萬戶李 同願此處官'이며 右書로 陽刻되었다. 회백색계열에 소성도가 낮다. 배면은 두꺼운 마포흔적이 있다. 두께 2.3-2,4cm.
'卍' 銘瓦	수지문문양대의 기와중심부에 불규적으로 陽刻하여 시문하였다. 회백색이며 소성도가 낮다. 배면은 마포흔적이 있다. 두께 2.3cm.

3)元堂寺址[10]

元堂寺址는 濟州牧 지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濟州市 三陽洞의 元堂峰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다. 원당사지에는 창건당시의 것으로 알려지는 五層石塔이 있다.

元堂寺는 水精寺, 法華寺와 함께 元에 의해서 창건된 사찰이라고 口傳되어 왔다. 구전 이외에 元堂寺에 관한 여타의 기록은 李元鎭의 쓴 「耽羅志」의 기록이 유일하다.[11] 水精寺와 法華寺와는 달리 元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구전되면서도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명문와로는 '大天' 銘瓦가 유일하게 수습되었다.(도면 3)

10) 제주대학교박물관,1988, 앞 보고서
11) 元堂寺 在州東二十里

'大天'銘瓦	수지문문양대의 기와중심부에 4組의 평행선을 위아래로 배치하고 銘文을 그 내부에 施文하였다. 銘文은 기와의 옆방향으로 左書로 陽刻되었다. 회백색계열에 소성도가 낮다. 배면은 마포흔적이 있다. 두께 1.7-2.4cm.

4)尊者庵址[12]

尊者庵址의 現 行政區域상의 위치는 西歸浦市 河原洞이며 한라산 영실서편의 속칭 볼래오름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尊者庵에 대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은 『東國與地勝覽』에 나와있는 濟州牧 佛宇條의 기록이다.[13] 또한 1577년(宣祖 10年) 林悌가 지은 『南溟小乘』에도 존자암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1601년(宣祖 34年) 金尙憲이 지은 『南槎錄』에는 1519년 제주로 유배되어 1521년 賜死된 金淨先生의 『沖庵記』를 인용한 기록[14]이 있어 존자암의 성립시기와 지형, 암자의 모습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 후의 기록으로는 李元鎭의 쓴 『耽羅志』[15]와 李衡祥의 쓴 『南宦博物』[16] 등이 있다.

존자암에 대한 발굴중간조사의 결과 존자암지는 크게 4개의 석축시설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밀집되어 건물이 들어섰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기적으로는 크게 두번에 걸쳐 중복되어 건물이 들어섰다고 조사되었다. 이들 유구중 조선전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판석을 위주로한 건물지와 조선전기 이후에 만들어진 할석위주의 건물에서 다량의 명문와가 출토지를 달리하면서 발견되었다.

각 遺構에서 확인된 銘文瓦를 속성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2) 濟州道·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尊者庵址-發掘調査中間報告』.

13) 尊者庵,在漢拏山西領 其洞有石 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14) 夫尊者之爲庵, 造於三姓初起之時 而久傳於三邑鼎之後, 又庵之面勢…(後略).

15) 尊者庵, 舊在漢拏山靈室, 其洞有石, 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 卽大靜境也

16) (前略) 一壑傍築古壇, 壇上植桃, 於叢竹之間獨, 南麓有樹, 非柏非杉非檀非,隱隱如憧. 盖傳以爲桂也. (中略) 上有修行洞, 洞有七星台, 坐禪奉云, 是古僧,八定之墟, 其曰尊者庵. 沖庵記曰, 尊者之爲庵, 肇造於三姓初起之時, 久傳於三 .....(後略)

'萬戶兼牧使' 銘瓦	水精寺址出土 銘文瓦와 同一한 銘文瓦이다.
'千戶夫承碩' 銘瓦	세로로 길게 늘어진 銘文部를 구획하고 그 외부로는 同문과 혹은 斜線文을 施文하였다. 銘文은 字體가 정교하며 右書로 陽刻되었다. 전체銘文은 '子監造千戶夫承碩瓦近無閑媳師呂介丁□'이다. 회청색과 회갈색이 반정도 섞여있고 소성도는 낮다. 배면은 미세한 마포흔적이 있다. 두께 1.6-2.0cm.
'施主萬戶'銘瓦	水精寺址出土 銘文土와 同一한 銘文瓦이다.
'天丑開啓'銘瓦	언강과 미구가 달린 유단식 수기와의 전면에 걸쳐 세로로 긴 銘文部를 두르고 내부에 세로로 길게 銘文을 施文하였다. 銘文은 右書로 陽刻되었으며 여러번에 걸쳐 타날되었다. 회청색계열에 소성도가 높다. 배면은 미세한 마포흔적이 있다. 두께 1.8cm.
'壬申造'銘瓦	선문과 격자문이 施文된 기와의 양끝단 바로 위에 銘文이 띠를 두르듯 施文되었다. 銘文은 左書로 陽刻되었으나 조잡하다. 회청색계열에 소성도가 높다. 배면은 미세한 마포흔적이 있다. 두께 1.8-2.4cm.
'高'銘瓦	언강과 미구가 달린 유단식 수기와의 전면에 선문과 함께 銘文이 施文되었다. 銘文은 기와방향으로 길게 施文되었으며 '高□□'으로 右書로 陽刻되었으나 字體가 조잡하다. 회청색에 소성도가 높다. 배면은 마포흔적과 함께 예리한 도구로 긁힌 흔적이 있다. 두께 2.2cm.

이들 사찰과는 별도로 濟州牧官衙址와 成邑客舍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된 바있다.

제주목 행정의 구심점이었던 제주목관아지의 문헌기록중에는 1435년(世宗 17年)에 제주목 관아건물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는 내용이 전해진다. 즉 高得宗의 『弘化閣記』에

「관아 건물에 불이나서 거처할 곳이 없게되자 머리깎은 죄수와 번을 서는 사람들만을 동원하여 무너진 절간에서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집을 짓고는 집마다 서로 닿지 않도록 하였다」

라고 쓰여있는 이 문헌 기록은 발굴조사에서 실제임이 밝혀졌다. 관아건물지는 여러번에 걸쳐 지어졌고, 처마와 처마가 맞닫지않도록 각각의 건물을 경계하는 기와로 쌓아올린 담장이 발굴구역 전역에서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담장지의 명문와가 당시 폐사되었던 사찰에 쓰였던 기와임이 분명하기에 담장지에 쓰인 명문와를 조사해본 결과 '千戶夫承碩'銘瓦, '施主萬戶李'銘瓦, '万戶兼牧使'銘瓦, '潤六月'銘瓦, '十右'銘瓦, 梵語文瓦 등이 확인되었다.

이미 다른 사찰지에서 출토한 바가 있는 명문와는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기술을 생략하고 출토한 바 없었던 기타 명문와의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면 5,6)

'潤六月'銘瓦	수지문문양이 施文된 기와의 상면에 날카로운 施文도구를 이용하여 右書로 깊게 陰刻하여 銘文을 施文하였다. 銘文의 전체는 '月女丸 金升龍 五下□ 潤六月'로 각 3자씩 위에서 아래로 4열게 걸쳐 施文되었다. 황갈색에 소성도가 낮다. 배면은 미세한 마포 흔적과 난잡한 대칼흔적이 있다. 두께 2.1cm.
'十右'銘瓦	세로로 銘文이 施文되었는데 '十'과 '右'사이에는 원형의 銘文部가 구획되고 그 내부에 梵語가 施文되었다. 전체銘文은 '□十, 右□'이며 右書로 陽刻되었다. 갈색에 소성도가 낮다. 배면은 미세한 마포 흔적이 있다. 두께 2.4cm.
梵語文瓦	수지문문양 기와의 중앙부에 2조의 원문을 구획하고 그 내부에 梵語文을 施文하였다. 회청색과 갈색색조를 띠며 소성도가 낮다. 배면은 미세한 포흔이 있다. 두께 2.0-2.3cm.

이외에도 1993년 11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진행되었던 표선면 성읍리 舊 旌義縣城內의 客舍址 발굴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문헌기록에도 보듯이 정의현성 내에 사찰이 없었던 관계로 사찰에 쓰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명문와는 없었다. 그러나 정의현성이 城山邑 水山里에서 지금의 表善面 成邑里로 옮겨진 확실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이상 명문와에 동반하여 시문된 기와의 문양에 주목하면 시대의 추이에 따른 기와 문양의 변천을 고찰하는 데는 더없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고 하겠다.

원래 이 글은 사찰에서 출토하는 명문기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들 두 곳의 유적을 언급한 것은 발굴조사로 인해 확인된 것과 문헌상의 기록이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기와의 문양변천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Ⅳ. 考 察

기와의 문양에 대한 연구는 보통 年號나 干支가 시문된 기와에 주목하여 자료로 삼는다. 연호나 간지가 시문된 기와는 기와의 제작년대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내에서 출토되는 명문기와는 法華寺址에서 출토한 '重創十六年'銘瓦와 濟州牧官衙址에서 출토한 '崇禎', '壬申造'銘瓦 등 연호나 간지가 시문된 예가 극히 드물다. 반면 '千戶', '萬戶'가 시문된 명문와가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때문에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는 '千戶', '萬戶'銘瓦에 주목하여 정리하였다.

千戶나 萬戶는 元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나타나는 지방의 土官職으로 고려의 변방지역인 咸慶道와 제주도 2곳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직책이었다. 萬戶의 직책은 元의 제주지배가 끝난 후에도 조선시대 成宗朝(1470)까지 사용되었다. 원래 萬戶는 하급무관직인데 고여 忠烈王代는 濟州牧使가 萬戶를 兼職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濟州牧使는 萬戶, 安撫使의 직책을 겸임하다가 世祖 12年에 兵馬水軍節制使 등의 직을 겸임하였다. 濟州牧使가 萬戶를 겸직한 것이 기록과 같다면 萬戶兼牧使가 시문된 기와는 忠烈王 27年(1301)에서 朝鮮初(1400)사이에 제작된 기와가 된다.

'□二月修正禪師大夫金冲光,萬戶兼牧使奉□□□□'가 시문된 기와는 尊者庵址와 水精寺址 및 濟州牧官衙址에서 다수가 확인되는데 金冲光은 太祖 元年(1401)에 濟州牧使로 부임했던 인물이며, 이 기와의 발견으로 인해 金仲光牧使가 당시 도내에 산재해있던 名刹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施主가 있었던 사실을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同 銘文瓦에서는 牧使였던 金冲光의 法名이 修正禪師라고 나타나는데 外道洞所在의 水精寺의 禪師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修正禪師라는 법명이 따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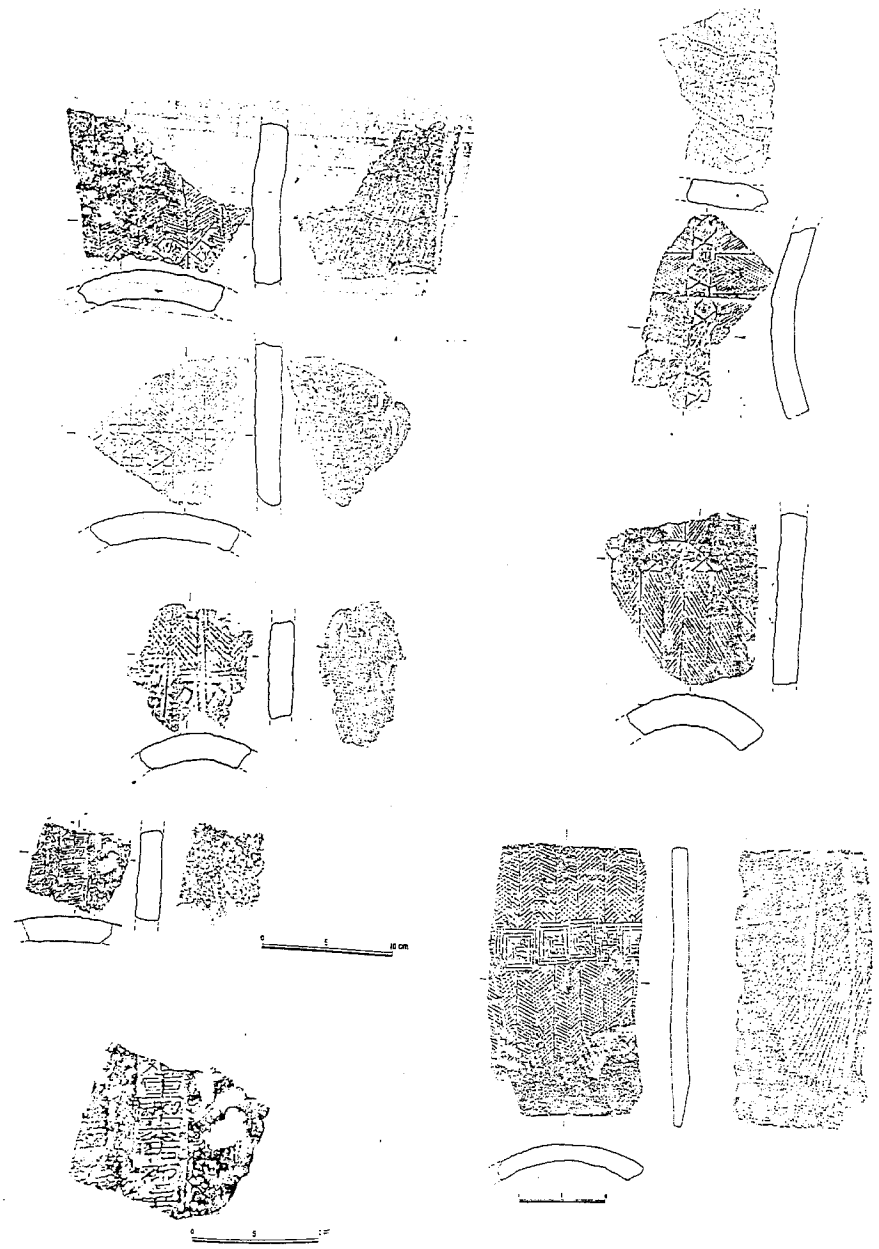
조선초에 太祖는 그를 도와 창업에 사력을 다한 사대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교를 포기하고 유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직 유학이 새로운 국가통치의 이념으로써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지는 못하였고 지방에는 아직도 전대의 통치원리인 불교에 기탁하는 모습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기와가 바로 '萬戶兼牧使'銘瓦이다.

육지부의 고려말 사찰기와에서 보이는 제작상의 특징은 장방형의 외곽을 두르고 그 내부에 명문을 시문하는 수법이다. 수지문이나 간혹 선문 등의 기본문양의 토대위에 음각 혹은 양각으로 시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아 확실한 절대지표인 '萬戶兼牧使'銘瓦를 근거로 기왓등문양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萬戶兼牧使'銘瓦는 고려시대 명문기와가 수지문문양대에 명문을 시문하는 것과는 달리 銘文部 외곽은 포도당초문과 비슷한 당초문줄기를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당초문은 삼국시대부터 꾸준히 기와에 시문되어온 전통을 가진 문양이나 주로 암막새나 벽돌의 시문양식으로 사용되어왔었다. 그러던 당초문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조선건국초에 그것도 일반 명문와의 기본문양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萬戶兼牧使'銘瓦는 새로운 형식의 아니라 고려말의 기본양식을 계승한 기와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말의 주된 명문의 기본문양이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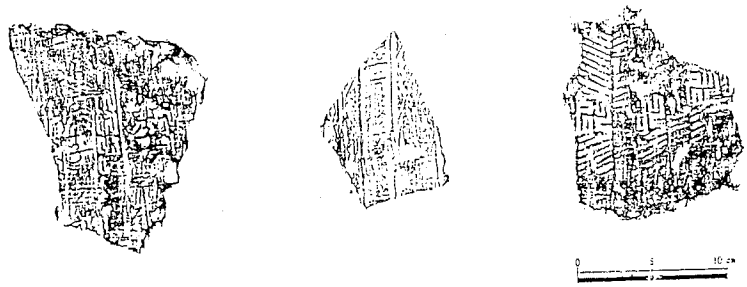
'千戶夫承碩', '萬戶李'銘瓦는 法華寺·水精寺·尊者庵·濟州牧官衙址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 기와들은 도내 각지의 사찰지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萬戶兼牧使'銘瓦와는 달리 '萬戶'銘瓦는 여타의 관직을 겸직한 내용의 시문되지 않은 기와이며 '千戶'銘瓦 또한 겸직사실이 전혀 시문되어있지 않다. '千戶'銘瓦의 전체명문은 '子監造千戶夫承碩瓦近無閑媚師呂介丁□'이다. '千戶'銘瓦에 보이는 千戶가 토관직임에 夫承碩은 인명을 나타내는 것임에 틀림없기에 인명을 추적해본 결과, 조선초까지의 족보에서는 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사실과 '千戶', '萬戶'銘文 주위의 문양이 과대문장식으로 서로 동일한 것으로보아 이 들 명문와는 다 같이 고려말에 제작된 기와로 보인다.

명문와에서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중의 하나는 고려말의 것으로 추측되는 도내 사찰출토 명문와의 등문양으로는 수지문이 가장 많으며 간혹 선문이 시문된 이외에는 기타의 문양이 시문된 예가 없다는 점이다. '潤六月'銘瓦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수지문기와에 날카로운 施文具를 사용하여 음각으로 명문을 시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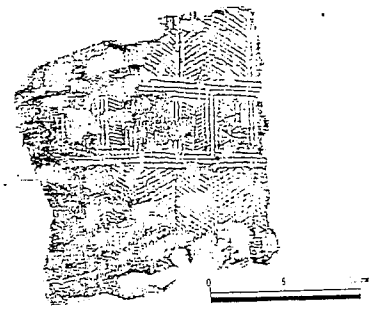
또한 濟州牧官衙址의 瓦積담장 위가 아닌 기타 다른 유구에서 출토되는 '郭支村', '高內朴', '大', '土回', '大□□', '□□金', '大門' '丸' '寅春' 등의 銘文瓦들 또한 수지문문양이 시문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제주도내에서 출토하는 명문와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寺刹의 銘文瓦의 전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銘文의 크기가 확대되고 조잡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제주목관아지에서 출토한 '崇禎'銘 암막새는 연호가 시문된 표식기와이다. 字體가 많이 확대되고 기와의 재질도 석회질성분이 많이 섞여있다. '崇禎'銘 다음 단계의 명문은 더욱 조잡해져서 '壬申造'銘瓦 단계에 오면 명문이 단순화되고 외자중심의 명문이 많아지게 된다. 이는 기와가 조선중기이후가 되면 대량생산에 의해 기와집이 보편화되고 일반서민들에게까지 기와가 보급되어 더이상 구복적인 내용을 시문하는 명문와의 제작필요성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한 점은 수지문일색의 고려기와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淸海波文(波狀文)으로 변형되어 제작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제주목관아지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건물지에서는 청해파문기와가 다량확인되었고, 존자암지의 碑閣址에서도 청해파문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반면에 가장 이른시기에 폐사된 것으로 여겨지는 법화사지에서는 이러한 청해파문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청해파문의 발생시기가 제주도에서는 조선전기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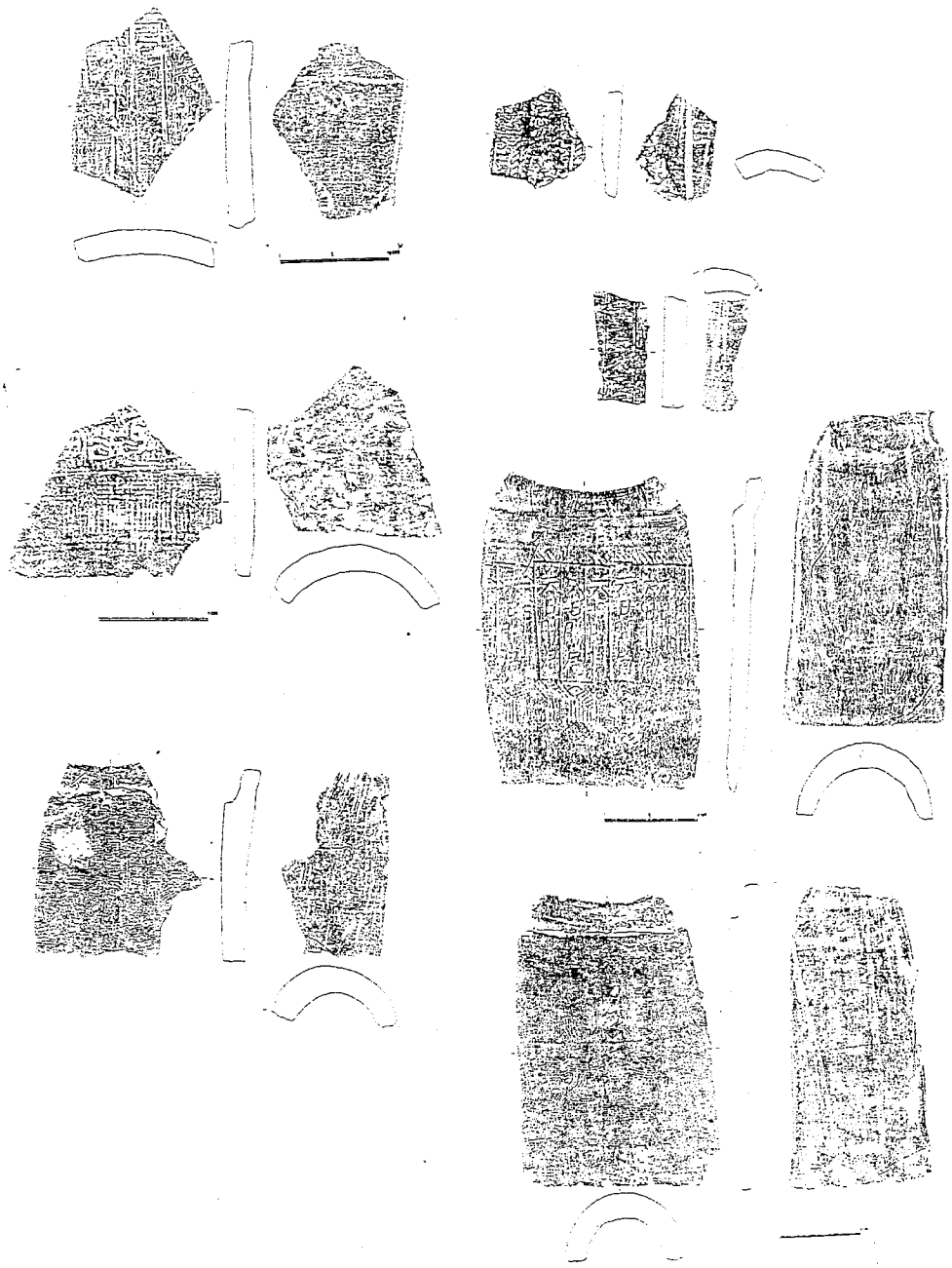
도면1 법화사지 출토 명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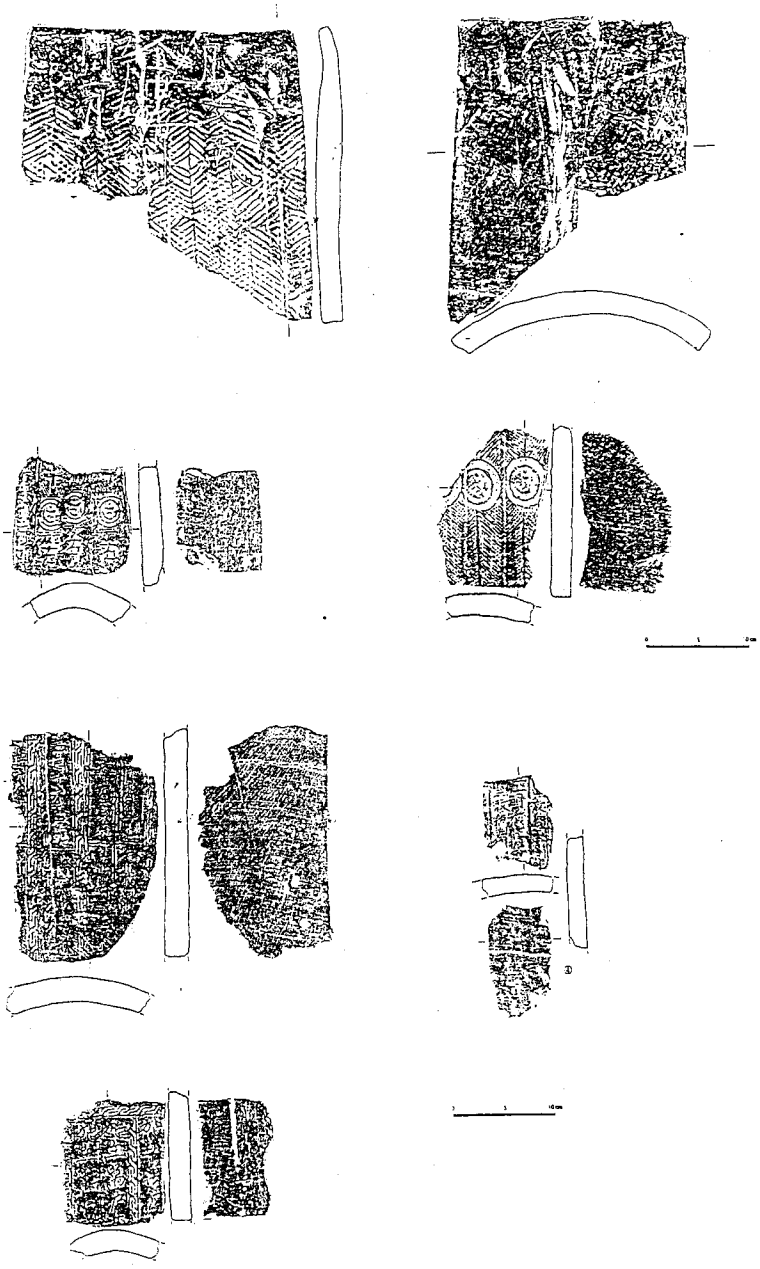
도면2 수정사지 출토 명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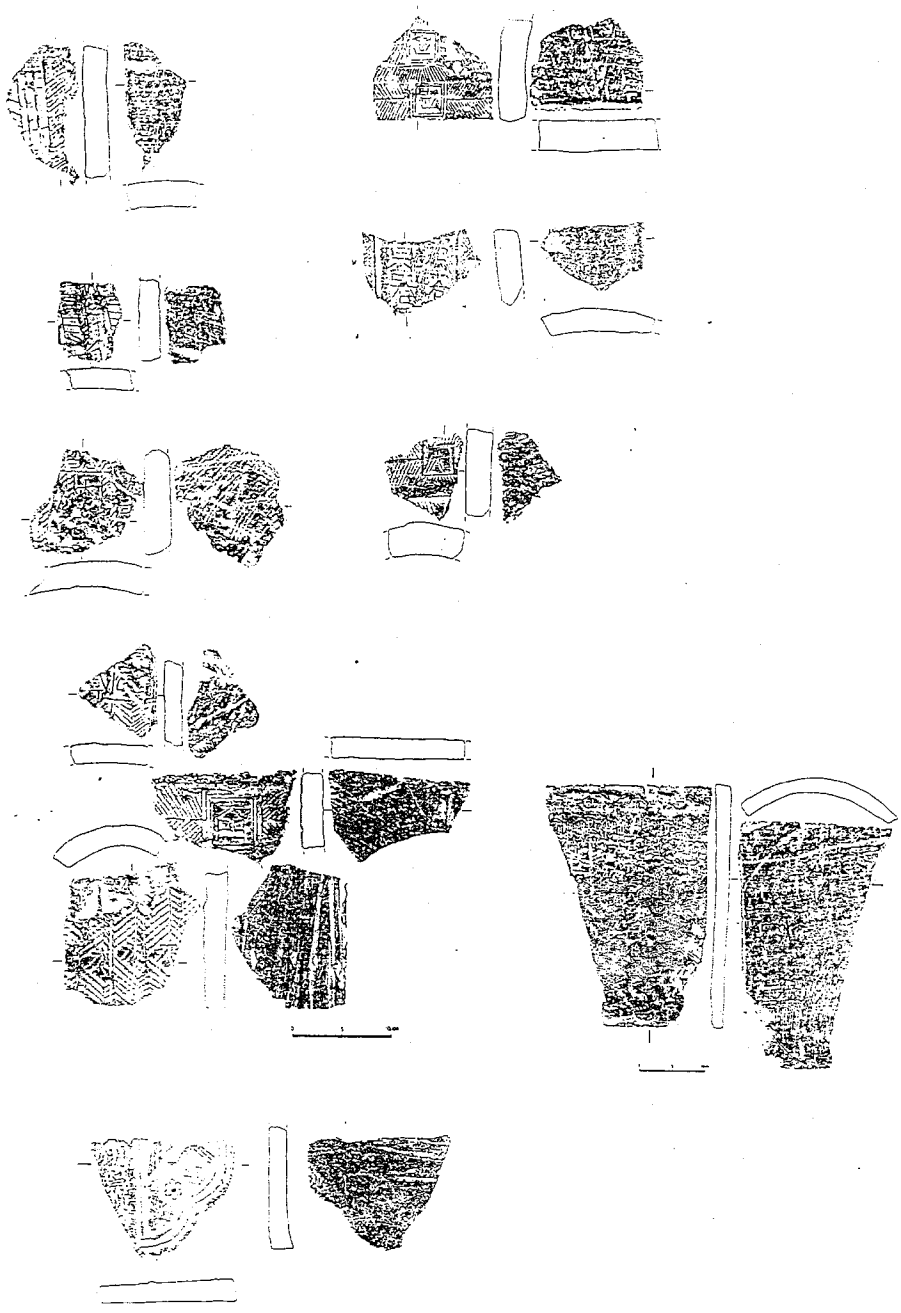
도면3 원당사지 출토 명문와



도면4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



도면5 제주목관아지 출토 명문와(1)



도면6 제주목관아지 출토 명문와(2)

附錄2 「修正禪師大夫金仲光」銘文瓦

존자암지의 제1차 가람 축조시기와 관련하여 년대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유물로 "??二月修正禪師大夫金冲光 / 万戶兼牧使奉?????"라 쓰여진 명문와가 다수 확인된다. 이 기와는 탑지추정지에서 집중 출토된 銘文瓦 중 하나이다.

이 기와의 내용을 해석하면, ① ??년 2월, 수정선사대부김충광, 만호겸목사는 ??를 바쳤다. ② ??년 2월, 수정선사대부김충광과 만호겸목사가 ??를 바쳤다.

金冲光이라는 인물이 修正禪師=大夫=万戶兼牧使관계로서 同一인물로 해석하는 방향과 個別인물로 해석하는 방향이다. 여기서는 前者의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本島 寺刹에서 출토·수습된 명문기와의 경우, 그간 발굴조사를 행한 법화사지[1]와 지표조사를 걸친 수정사지·원당사지는 고려말기 존속했던 사찰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 수집되는 기와에는 목사와 만호가 겸직된 표기로 나타나며 반드시 萬戶兼牧使 다음에 姓名이 표기되 있다. 또한 제주목관아지 발굴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선초기 와적담장지에 깔린 기와들이 모두 사찰기와였고 이들기와중 고려말기에 해당하는 명문기와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들 기와중 '千戶夫承碩'이라든지 萬戶兼牧使秦??'라 표기된 기와가 확인된다.[2] 이처럼 사찰에 시주했던 인물이거나 사찰과 관련되 노력했던 인물에 대해 거의 대부분은 職責밑으로 姓名이 들어가게 되있다.

따라서 동사지에 확인된"??二月修正禪師大夫金冲光 万戶兼牧使奉??"명 기와의 萬戶兼牧使밑으로 '奉'이라 쓰여있어 성이나 이름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전술한 바의 '大夫金冲光'이라는 人物名 前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증거로 동일인물이 아닐 경우, 같은 당초문테두리에 글자는 배열하지 않고 분리하여 각각 다른 당초문테두리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점으로 볼때 동일인물의 직책과 또다른 명칭들이 複合的으로 함께 쓰여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의 목사와 만호가 겸직하는 기간은 高麗忠烈王 27年 (1301년)부터 朝鮮 정종2년(1398년)까지로 보고 있다. 萬戶가 하급군관으로 전락하는 성종대에 와서 결국 분리되게 된다. 이처럼 '萬戶兼牧使'라는 銘文만으로도 이 기와는 고려말(1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기와의 소속년대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얘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二月修正禪師大夫金仲光 / 万戶兼牧使奉????"명문와를 가지고 修正禪師=大夫=万戶兼牧使관계로서 同一인물로 해석한다면, 濟州島 萬戶兼牧使의 겸직 기간 중 목사로 있었던 金仲光이라는 인물이 나타난다.[3] 金冲光牧使는 다른 목사와 다르게 十年사이에 두번에 걸쳐 제주도에 부임한 사실이 보이는 데, 初任은 1373부터 1376년까지 3년간 지냈고 再任은 1383년에서 1384년까지 2년간 부임했다.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해 보면 이 기와의 년대는 이 두번의 재임기간과 관련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동일 기와편중 우서 맨상단으로 二月字 上端으로 그가 本島에 부임했던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未', '癸亥', '甲子'字 중 하나로 나타날 가능성이 짙으며 干支銘의 나타난다면 정확한 年代推定이 가능해 진다.

1) 濟州大學校博物館,1992,『法華寺址』,濟州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第十輯, PP. 145-147.
2) 濟州大學校博物館,1993,『濟州牧官衙址』,濟州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12輯, PP.168- 203.
3) 精神文化硏究院,198?,「邑志」-濟州島扁, p.287.

獻文古 係關 庵者尊

橘 在咸德浦長一百一十步播北海岸壁立高峻

佛宇 尊者庵 在濆拏山西嶺其洞有石如僧行遁狀諺傳僧行洞 月溪寺 在都近川西岸○李齊賢觧歌詩都近川類劑水坊水精寺最亦淙

東南 水精寺 在都近川類劑水坊水精寺最亦淙 妙蓮寺 在州西二十五里○僧慧日詩南寺古亭妙蓮寺荒天氣喜頻陰夕新晴洗客心一夢人生榮與悴中秋月色古猶今迴臨渺渺烟汀闊斜影沉沉竹屋深賞到夜闌清入思不禁頭側動

徼文殊庵 在州西南二十七里 海輪寺 一名西貨福在州西獨浦口 萬壽寺 一名東貨福在工臨 在州東威德浦口 普門寺 在巨口里岳北○僧曇日詩寺僻依荒徼衆甘得夢中遠塲逢勝事佛隴嗣遺風草過霜仍綠扉因雪掩來

紅國通門自啓 近川庵 在朝貢川上○僧慧日詩遠鷹叫長空 遠濆拏高幾何絶頂峙神洲泳出北流去下為朝貢川鹽湯亂噴泳走若球環國貨滿激舟國作聲盘穿安流得數里澄淨涵青天遠人有宗海卓庵向川邊既從山水樂且寄有大緣悠然佳月夕拂石開茗延雪斬刷叢棘談古窮幽玄

思仲尼語顏憶小聖揮由斯無生理名以期避俸如能高著眼波波皆不遷 小林寺 在州東南十里 觀音寺 在朝天館浦

祠廟 杜稷壇 在州南 文廟 在鄉校 廣壤堂 在州南濆拏護國神祠諱傳濆拏山神之弟生有聖德歿為神高麗時宋胡宗朝來歷此土浮海而返神化為鶴飛上檣頭俄而北風大作擊碎宗朝之舟沒于西境飛揚為巖石間 朝庭褒其靈異賜之食邑封為廣壤王歲降香

為大村即今之州城州人謂城內為大村 高齡田 在州東一里諺傳唐州人謂城內為大村 松巢駐處今沽田者或掘得碁碡等寶物以為唐人所遺今觀濆拏山下巖瀕岩石皆有海水所嚙痕則疑上古盘為滄海今變為東平小峽 古記云濆拏山一名圓山即中邊田云 東平小峽 圓嶠山其東乃東平小峽神仙所居又其東止有瀛洲山故世稱耽羅為東瀛洲 古土城 在州西南三十六里周十五里三別抄所築今皆頹圮 古城 州城西北有古城遺址 古長城 沿海瀕築周三百餘里高麗元宗時三別抄叛據珍為王壇侍郎高伏林等子靴羅領兵一千以備之回築長城 缸

古跡 毛興穴 在州南二里諺傳高麗恭愍王時判事梁誠之生有聖德歿為神高麗時宋胡宗朝來歷此土浮海而返神化為鶴飛上檣頭俄而北風大作擊碎宗朝之舟沒于西境飛揚為巖石間 朝庭褒其靈異賜之食邑封為廣壤王歲降香

帶以祭本朝令本邑致祭○按胡宗朝來仕高麗官至起居舍人而卒則來歷漲舟之說恐不可信

遮歸祠 在州西三里 川外祠 在州南十六里濆拏山下 楚春祠 在州東七十里 瑞山 高麗毅宗五年六月有山湧海中山開四孔赤水湧出五日而止其水皆咸瓦石十年瑞山湧出海中遭大學博士四拱之往視之人言山之始出也雲霧晦冥地動如雷凡七晝夜始開霽山高可百餘丈周圍可四十餘里無草木煙氣冪其上望之如石硫黃人恐懼不敢近拱之 七星圍 在州城內石築有遺址三姓初出分占三徒徙址斗形築壘分據之因名七星圍 大村 合三姓居

章事葉鳴世著自高平章兆基而不至于高先生遷于在尹名鄒四兄皆立揚清顯其他三邑子孫在焉

州別勤於上佐八朝朋宿衛旌旗之習武事言長才遷於海內諸洲者宜候以期聞之

知者人皆藉藉列聖林建受方面之寄其揚名總戎其所立卓卓如此又今

是豈不可佳也歟庚寅三子也口氣海詩論巾卿扇間佳兵事作長城鎮下情於東行時

趾溯溟鯨擊戰捩處楚氛清千秋逝大霜初素葛效奇勳海浪聲早暮欲翔秉拓外今明西戎盟平。牧

使金陽哲詩聖代如今不用兵珍旌仁心結人情堂堂廉白已見江河勳曼清貴策爭者呂子敖

表雪濮思信已見江河勳曼清貴策爭者呂子敖

投壺仍驍雅歌聲輕裘破當鈴齋下坐見東溟鏡面平。牧使沈建添詩成青蕪千萬字書生不合鎮

遐情雅錦正欲民心洽宣化聊期海甸清日照千山翻大烈風傳盡南動龍聲酌來起立東南望千仞圓

杜眼區平。敦使李希雍詩丑閑今憂按重兵旅按飛得幽犀情按旗影裡軍容整鼓角音中海宇清自

喜聖恩推或化任者還圓溫欲聲高章瓦坐吾河事映取尖頭頌太平。牧使閔暉詩海國千年百萬

揭竪心西派寅植以為有事後始將宋非成誠之意而祠廟尸主大次經禮作碑刻書以安之每年正月初六日設祭事定式

佛宇

李衡祥脩並為按舊而深依舊錄之

尊者庵

旧在沃羅山濃密其間有石如僧行道狀諺傳修行澗今移西麓外十里許前大對境也

○李慶建詩尊者知名寺荒涼半旧塔千年在一室孤燈作伴客經過步壁院禮法珠秋宵松南

○李元鎮詩地近天連赤水遮野花香自紫海山三島勝風月九轉修眺閒心倘杜神清今

沉吟仍悟祝髮雖淹月溪寺在笼浦東南

水精寺

在朝貢川西岸○李齋賢解歌

詩却近寺頹制水防水精寺祖亦淡漠即此寺古事妙蓮寺在半西南二十里悅慧日詩南荒天氣喜頻陰此夕新晴洗客心一夜人生榮與悴中秋

月色古徑今迴陷澗竹洞科影沉沉屏風深

列夜閑淺人是不禁頭動徵今側

文殊庵

在炒西南二十七里

海輪寺

一名西資福在

而海輪寺各有佛像無常住寺亦皆自羅城東一人看守且有四
即今島中僧尼典剎撤里中之萬壽寺西有
日於化濟米之西南高內二月初五日等為開祭故燃其燈神之每年正月二時十八
商見聽又酷之堂甚之以僻丘佛息境名日相聚禮佛而已草余謂屋漸不可長無寺居即毀僧但移建上公廨大靜宿
人則於曰宗神遮日居陵像而惟一尊者菴只是百里幅員數漸不間亦道之寺尼剎
船呪神既祀禁歸乃淫之僧已舉尼亦無石念五佛者可謂今無元閭日至官上
敗酒疾俗鬼不堂罷月又鬥尼一島五百里幅員數漸不間亦道之寺尼剎
漂不病鄉男殺其謂者於旗木幟石檜俱鈸設神前祀導出每歲入閻元日至官上
沒敢甚而巫所之酒得二槎月朔形如日馬歸導出每歲入閻元日至官上
者駈畏癡甚謂食燃燈祭神是月禁頭德金寧以等閻日至官上
內四殺服野多遮祭神是月禁頭德金寧以等閻日至官上
體南藥撿嚇歸人者又地多乘者金寧以等閻日至官上
分搓謂而好災方音多乘者金寧以等閻日至官上
解錄鬼好災方音多乘者金寧以等閻日至官上
頭曰怒殺禍取甚蛇舡礙又於春秋若見男女群聚以迎神以祭
骨俗至凡死有財訛呼蛇舡礙又於春秋若見男女群聚以迎神以祭
以入死有財訛呼蛇舡礙又於春秋若見男女群聚以迎神以祭
二於不所如土蛇蚣若秋見男女群聚以迎神以祭
月濟悟祈土蛇蚣若秋見男女群聚以迎神以祭
之為俗穰朔鬼曰望七遮灰色群聚以迎神以祭
東燃甚疾尼七遮灰色群聚以迎神以祭
燈忌浮。歸色群聚以迎神以祭
等節蛇浮。歸色群聚以迎神以祭
浦諸奉喪殺風以為於廣壤歸
手傳而為福壯以錄遮廣壤歸
之大唐神一祭曰歸

尚潘祀

乃州於記山俗尚潘時宿
觀共擎神毅川潘祀
爭捐衣擎眼財蠶作祀
十二戲以迎娠神以祭至
馬十二戲以迎娠神以祭至
躍竿下巫以元以作本

貴者尤人賤大畜之義分觀三之則使殘之害天倫報者則責固父爲世大變五變習而覺妻不以子爲人名

如長扁圓岳重抱並起紅雲綠霞嘖嘖白日不遠在百步之外而踆步碧海青波接鹽堆雪紫鳳蒼鵬激空飛騰未近於一畫盡之內而三飡當其雨膺雲銷天如新鏡野馬風揸纖埃滅盡洞視万里天外海邦昭然如碁子之戴及夫風旨兩聾乾幕坤夕鴈二翼二雕二豚二鼈大塊混沌漾然如鷁亦在中於是塵寰之擾云去矣方外之寄云全矣若乃列子禦冦書圓嶠之山也東方曼倩記瀛洲之地也云是不無誇大張之言而趣味則盡矣今無居僧但有墳塋數間亦各有殊色如沙汀乃漂海錄所稱白海也以向裏之艱能脫過萬里之海程其亦幸也傍有先史嘗自安南漂還手持過海日記向余瞻行而前曰彼爲馬島也江户也玉球島也一岐島也女人國也琉球國也安南國也暹羅國也占城也滿剌加也寧波府也蘇杭州也揚州也山東也青州也日記中備載風土物產蓋倭人李芝峯問答畧同且曰留一安

有三瀑傾瀉一壑傍等古壇之上植桫欏獨立於叢竹之間南麓有樹非栢非杉非檜非檜隱之如幢蓋傳以為桂也又有蔓延着地羊蓑莖有細毛色類青苔隨節生根或如釵股或如絙絲味甘而香雖非桂芝然亦異矣上有修行洞之有七星臺坐禪巖云是古僧八岦之墟其曰尊者菴冲菴記曰尊者之為菴肇造於三姓初起之時久傳於三色昌時之後以言其基也則主峯磅礴而陡圓窣崒而斷悅若鸞鳳翱翔而下蹲愛視其雛者亏武之奇也寒泉源深而注澄綠育浏而瀦月德其方而不渴於瞑乾者朱雀之異而迭遷而恍惚腰如左臂之欲鮮其細者青龍之歸也拖尾而復行頭如古手之將按其膝者白虎之義也以言乎其境則奇巖也拄石也雕鶚鸞削而矗聳雛立凝立歌立糯立如諛語如偶語如相顧追隨而行是化工之殷勤而成之欤佳木馬異樹馬榮秀若乱起舞若爭長逐逐巡歸青慈而森密枝縮背縮橫縮偃縮若爭長若爭秀若乱起舞若遁逃逐逐巡巡揖而列是后媪之盡顯厲而植之欤神仙應真常若遁逃逐逐巡巡於其間牲龠奇獸四時翱翔于于其中此則景槩之真也至

尊者庵

夫尊者之爲庵肇造於三姓初起之時而父傳於三昆鼎峙之後又庵之面勢多與相如書以言其基也則主峯磅礴而陡圍岩巒森漸低怳若鸞鳳翱翔而下顧愛視其雛音容武之奇也寒泉源深而銷注澄渌而香例所謂月德其方而不竭於曠旱者乎庵之左也地誌云疏至百步潛入地中迤邐而坡陀如左臂之欲解其紐者青龍之勝也抱處而複行頭如右手之將按其膝者白虎之委也此地理之備也以言乎其境則奇巖怪石也雕鶚龍削而鸞聳雛立歛立翰立如鳴語如偶語如相顧追隨而行是化工之殷勤而成之歟

佳木爲異樹焉蔭翳青葱而森寒扶綰青結橫縮偃縮若爭長若爭秀若亂起舞撮而列是后媚之盡顛而植之歟神仙應真常若逍遥逶迤於其間怪禽奇獸四時翱翔子丁於其中此則景緊之具也至如長嶺圓岳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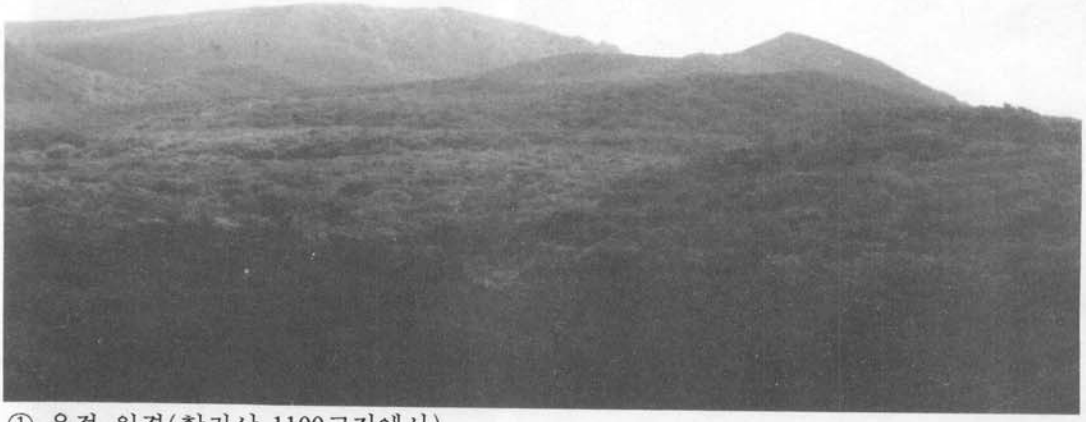
抱並起紅雲綠霧噴嘆白日不遠於百里之
外而陡步碧海素波按盤堆雪紫風蒼鵬鼓
空飛騰未近於一置之內而三飧當其兩霽
雲銷天如新鏡野馬風掃纖埃滅盡洞視萬
里天外海邦昭然如碁子之散及夫風盲雨
聾乾暮坤夕馮馮翼翼雖雖軒軒咫尺未辨
大塊混沌濛然如鵝卵之中於是塵寰之擾
擾去矣方外之玄玄全矣茲乃列子禦寇晉
圓嶠之山也東方曼倩記瀛洲之地也
又云首夏之月卜得吉日差三邑趙頭中一
員齋沐行祀於是庵謂之國聖齋今其舊也
繞八九年(丑出所庵記)
庵舍九間盡與聲皆以板代毛氈問之僧輩
山中土厥無粘液且多砂石不宜塗壁瓦則
必貿於陸地故力所難致也中間屢經興廢
癸巳年間有康津居僧代父入役於此改
財重修云

尊者庵址

圖　　版

圖版 1





① 유적 원경(한라산 1100고지에서)
② 유적 원경(남에서)







① 유적 근경(남에서-발굴전상태)　② 유적 전경(북에서)　③ 유적 전경(남에서)





① 유적 전경(남에서)　② 유적 전경(북에서)

圖版 4





① 제1단 석축시설 노출상태
② 제1단 석축시설 노출상태





① 제1단 석축시설 노출상태
② 제1단 석축시설 노출상태

圖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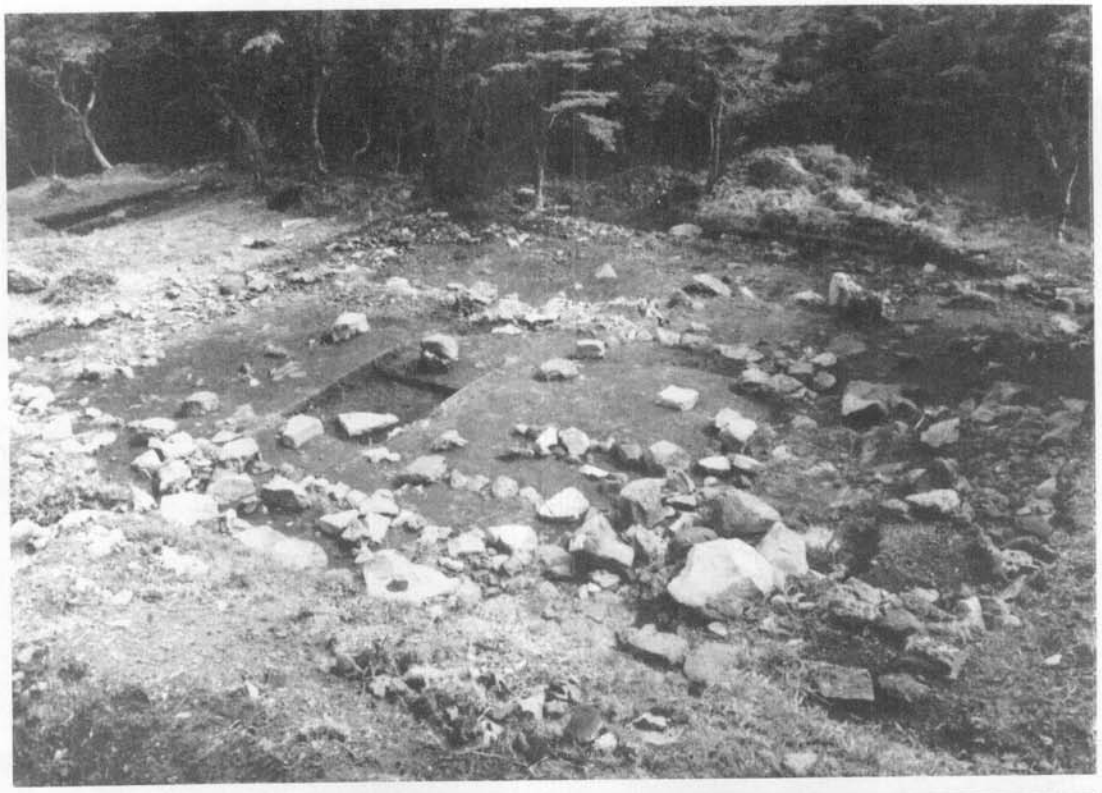


① 제1단 석축시설 노출상태(세부)　② 제1단 석축시설 축조상태(세부)



① 건물지(1) 발굴상태(남에서) ②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동에서)

圖版 8





① 건물지(1) 원경(북에서)　② 건물지(1) 근경(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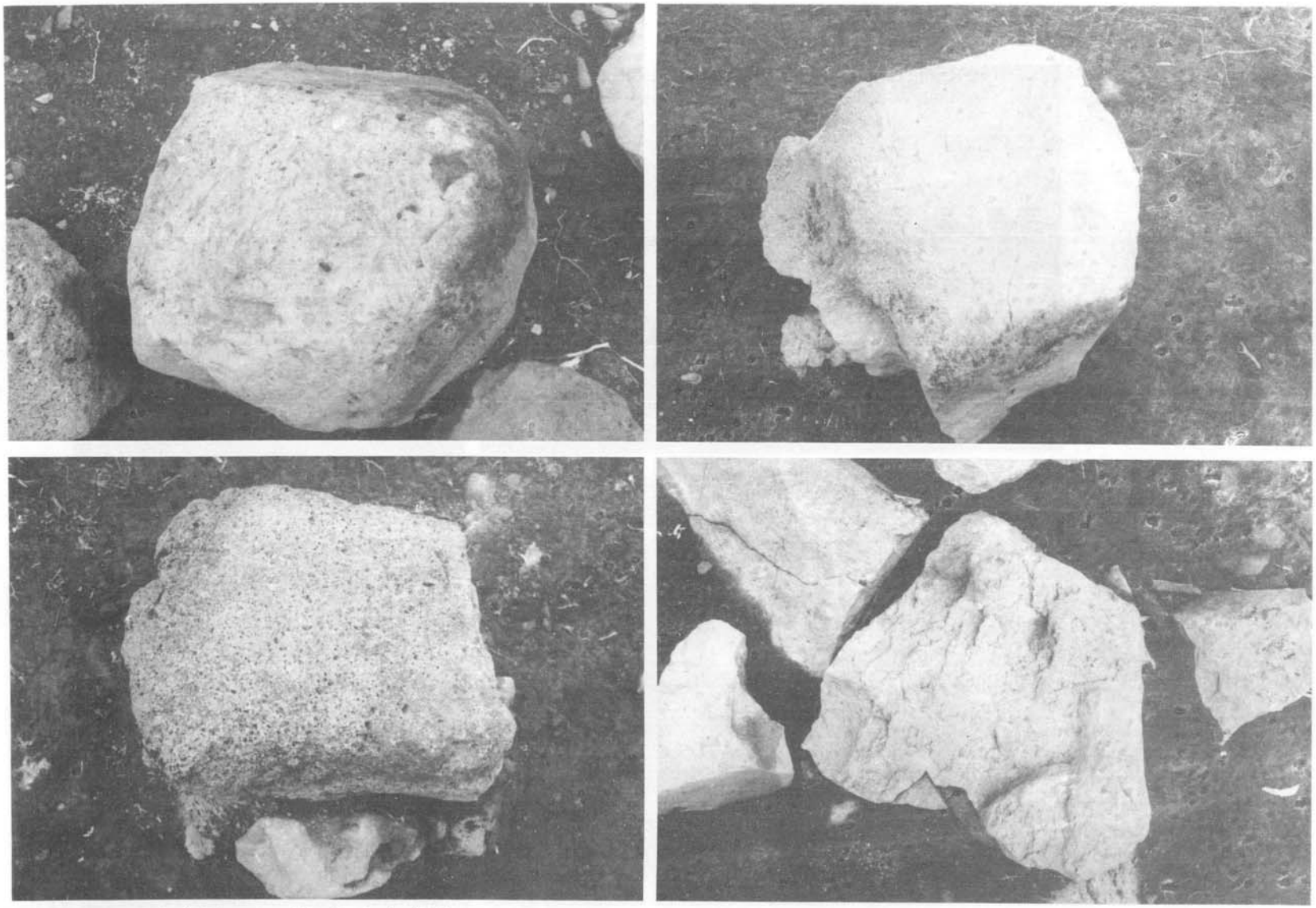
①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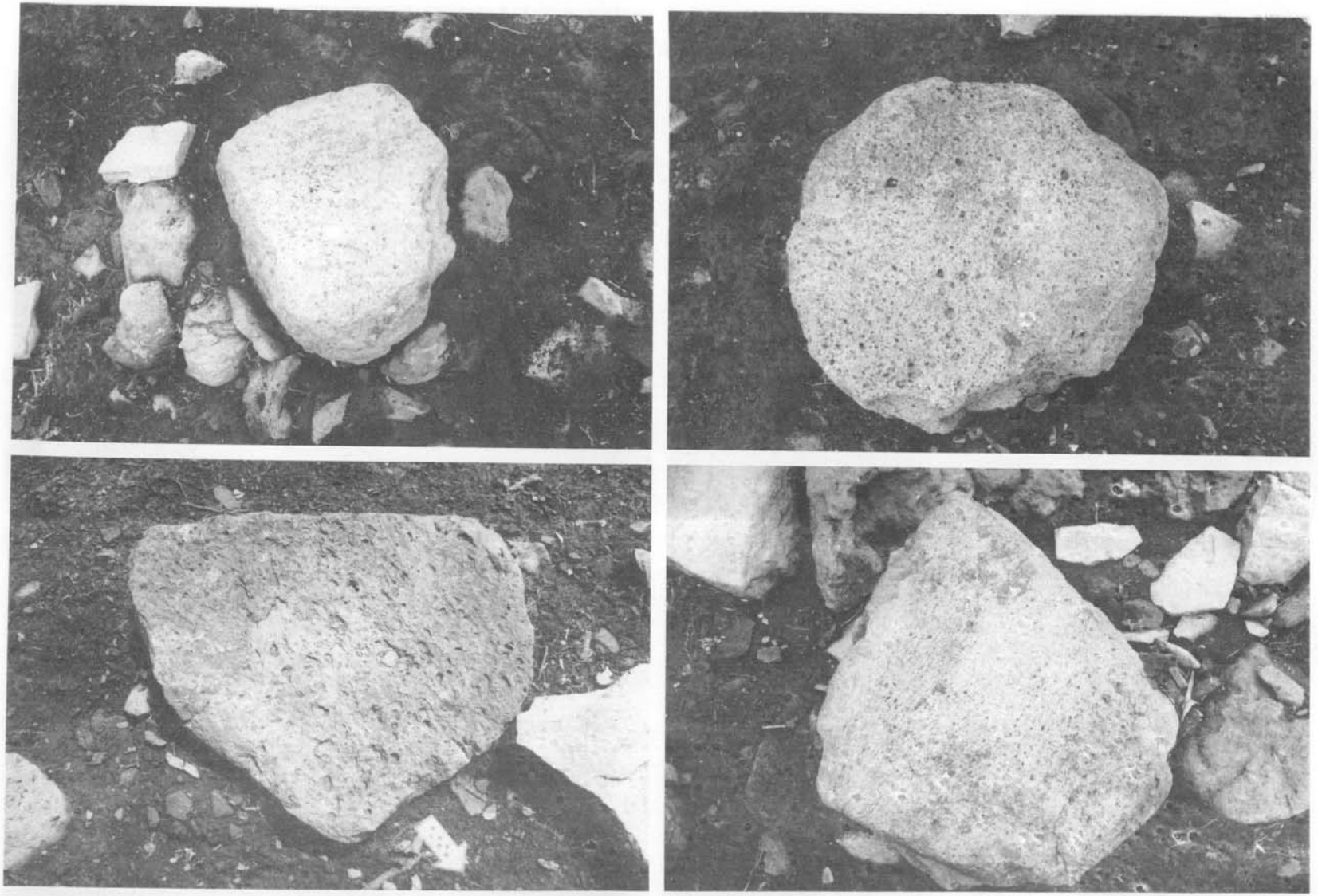
②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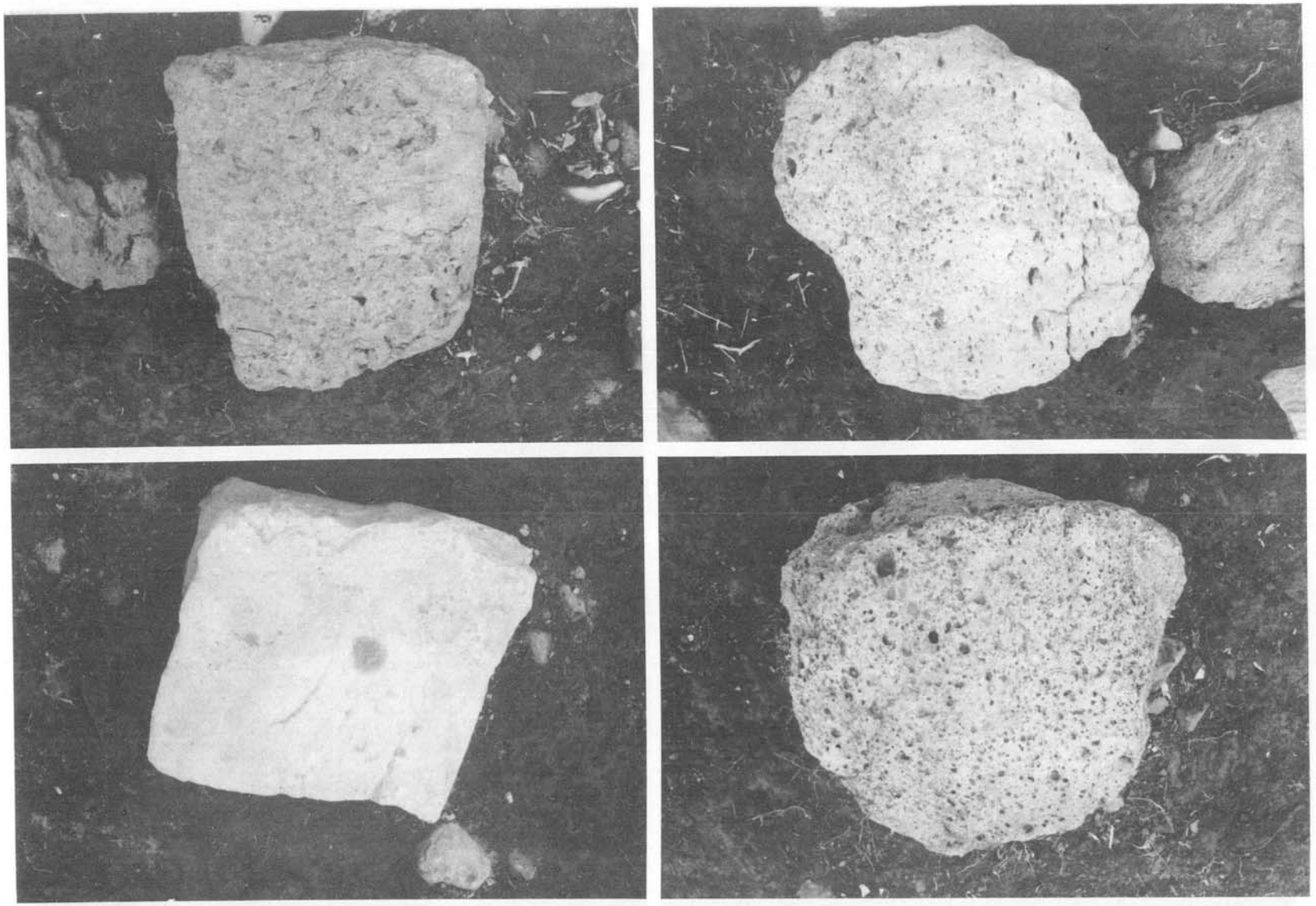
③ 건물지(1) 초석군 노출상태



① 건물지(1) 초석(1)　② 건물지(1) 초석(2)　③ 건물지(1) 초석(3)　④ 건물지(1) 초석(4)



① 건물지(1) 초석(5)　② 건물지(1) 초석(6)　③ 건물지(1) 초석(7)　④ 건물지(1) 초석(8)



① 건물지(1) 초석(9)　② 건물지(1) 초석(10)　③ 건물지(1) 초석(11)　④ 건물지(1) 초석(12)







① 제2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동에서)
② 제2단 석축시설 노출광경(북에서)
③ 제2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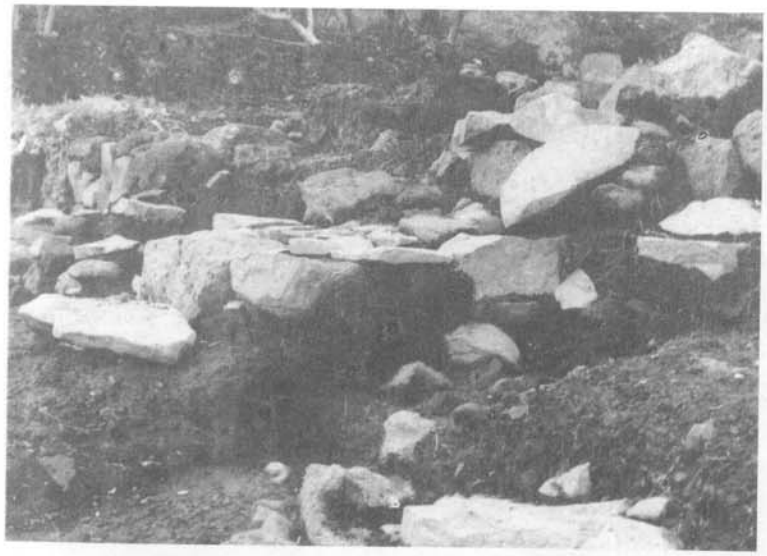
圖版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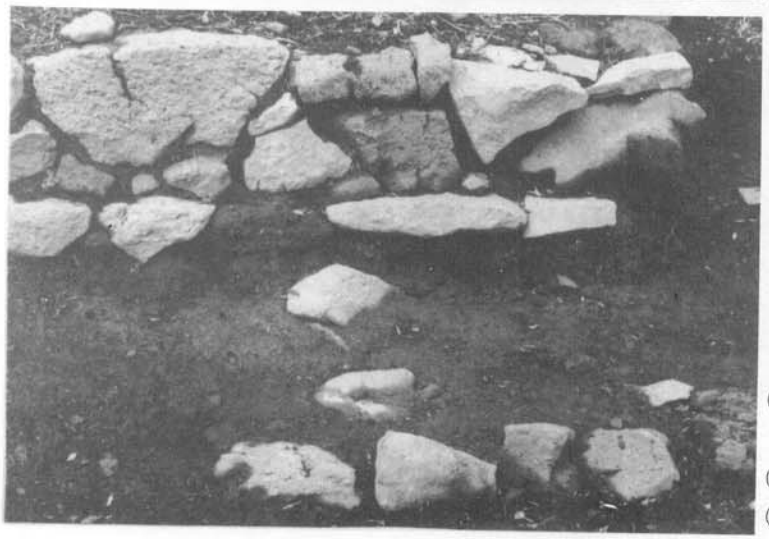




① 제2단 석축 및 계단 노출상태
② 제2단 석축시설 축조상태
③ 제2단 석축시설 동편 축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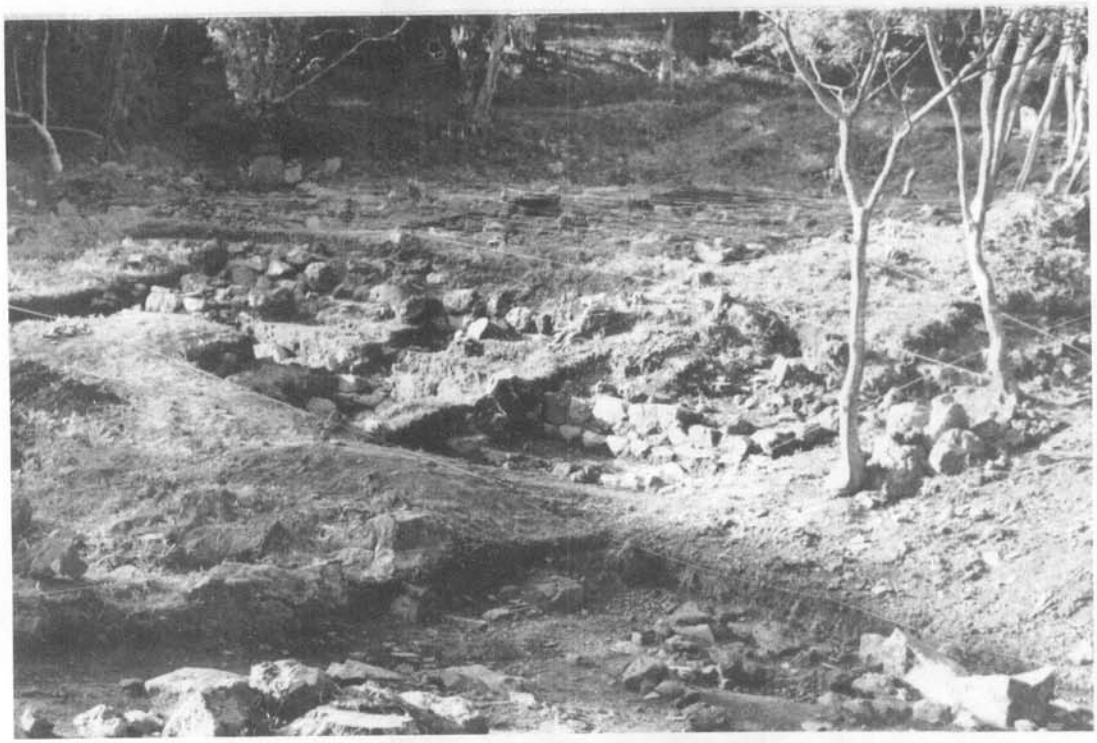






① 제2단 석축시설 중앙 계단 축조상태(남동에서)
② 제2단 석축시설 동편 축조상태
③ 제2단 석축시설 동편 축조상태

圖版 16





① 제2단 석축시설 원경(동에서)
② 제2단 석축시설 원경(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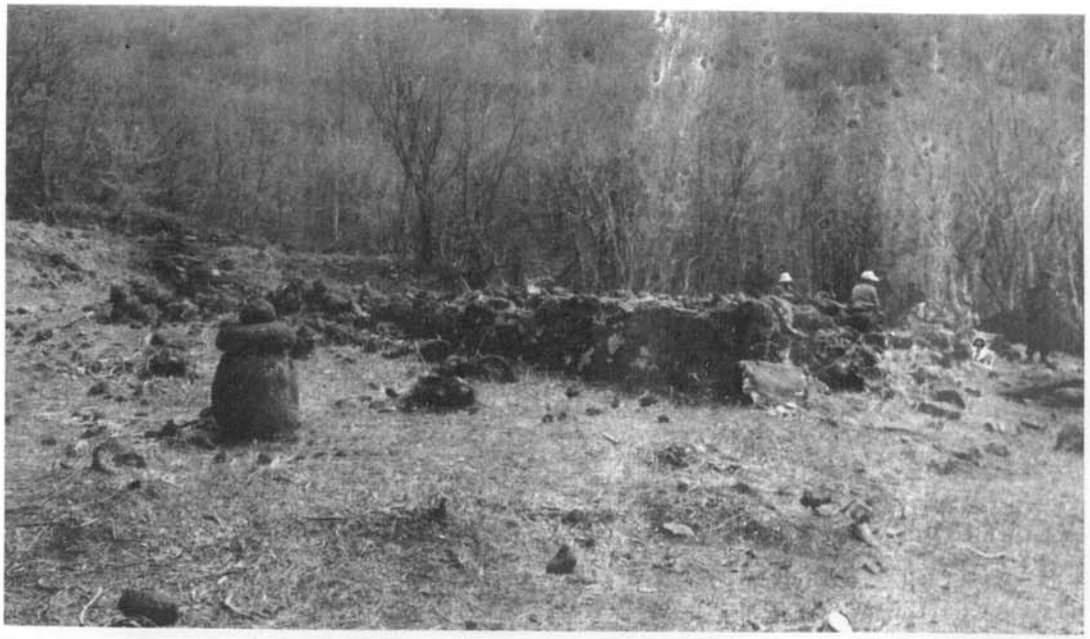
① 제2단 계단석 축조상태(세부)
② 제2단 계단지 노출상태(남에서)

圖版 18





① 제2단 석축시설 동편 노출상태(남에서)
② 제2단 석축시설 계단 노출상태(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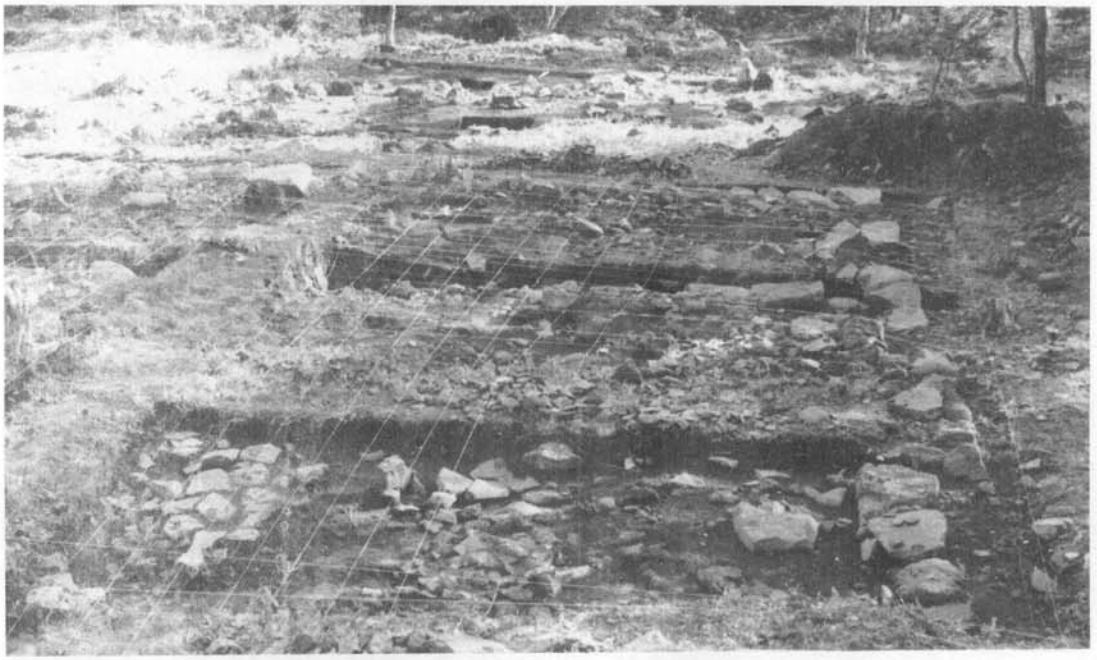




① 제2단 대지 발굴 전 상태(북서에서)
② 제2단 대지 발굴 전 상태(서에서)

圖版 20





① 건물지(2) 기단석렬 노출광경(서에서)
② 건물지(2) 노출상태(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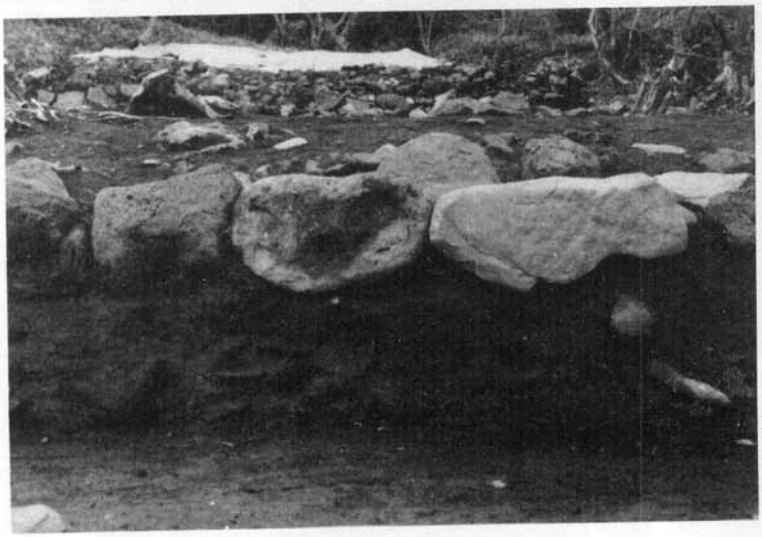


① 건물지(2)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2),(3)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2) 기단석렬 노출상태(북동에서)
④ 건물지(2) 기단석렬 노출상태(남에서)

圖版 22







① 건물지(2) 기단석렬 맞물림 상태
② 건물지(2) 기단석렬 축조상태
③ 건물지(2) 기단석렬 축조상태





① 건물지(2) 내부 부석시설(판석조) 노출상태(북에서)
② 건물지(2) 내부 부석시설 노출상태(서에서)

圖版 24







① 건물지(2) 내부 배수시설 및 Test Pit 노출상태(북에서)
② 건물지(2) 내부 배수시설(남에서)
③ 건물지(2) 내부 배수시설 및 덮개돌 노출상태(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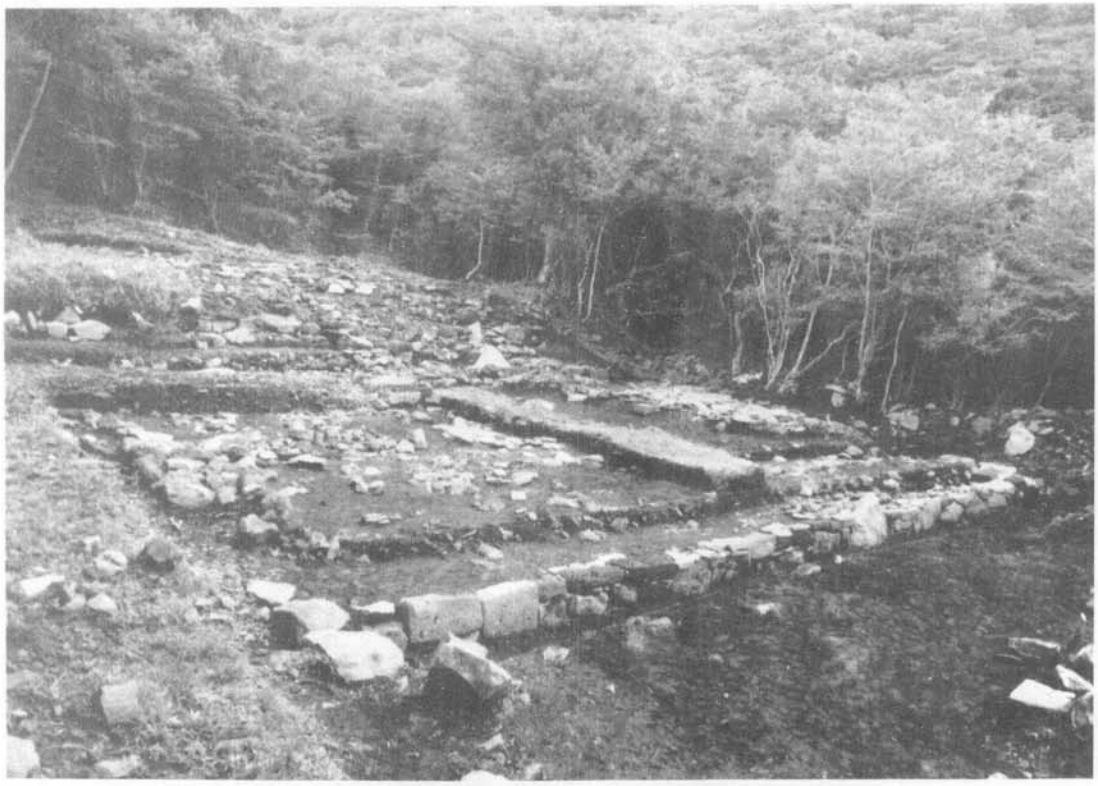






① 건물지(2) 내부 Test Pit
노출상태(동에서)
② 건물지(2) 내부 Test Pit 서벽
토층상태
③ 건물지(2) 내부 Test Pit내 초석
노출상태(위에서)

圖版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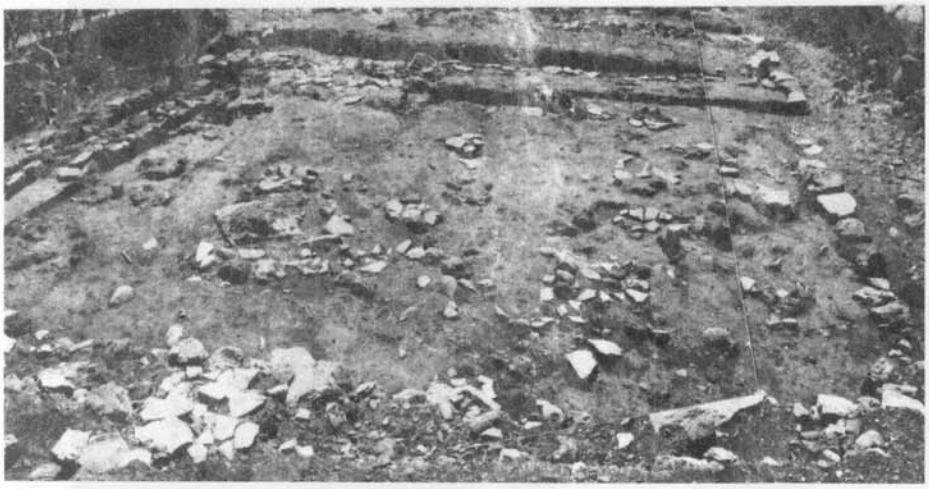


① 건물지(3) 원경(전경-남서에서)
② 건물지(3) 원경(북에서)



① 건물지(3) 근경(남서에서)
② 건물지(3) 근경(남서에서)

圖版 28







① 건물지(3) 노출상태(북에서)
② 건물지(3) 내부 적심석 배치상태
③ 건물지(3) 내부 적심석 배치상태









① 건물지(4) 기단석렬 노출상태(위에서)
② 건물지(4) 내부 적석채움상태(위에서)
③ 건물지(4) 내부 퇴적상태(남에서)
④ 건물지(4) 내부 Test Pit 노출상태 및 퇴적상태(위에서)









① 건물지(3)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3),(4) 기단석렬 배치상태(동에서)
③ 건물지(3)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④ 건물지(3),(4) 기단석렬 노출상태(동에서)









① 건물지(3),(4)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3),(4) 배치상태(서에서)
③ 건물지(3),(4) 중복상태(위에서)
④ 건물지(3),(4) 중복상태(위에서)









① 건물지(3),(4)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3),(4) 중복상태(동에서)
③ 건물지(3),(4) 기단석렬 축조상태(동에서)
④ 건물지(3),(4) 중복상태(위에서)









① 건물지(3)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4) 기단석렬 축조상태(서에서)
③ 건물지(4) 기단석렬 노출상태(서에서)
④ 건물지(3) 기단석렬 상면 축조상태(서에서)

圖版 34





① 건물지(4) 기단석렬 노출상태(동에서)
② 건물지(3),(4) 기단석렬 배치상태(동에서)





① 건물지(3),(4) 중복상태(세부)
② 건물지(3),(4) 중복상태(세부)









① 건물지(3) 기단석렬 축조상태(남에서)
② 건물지(3)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③ 건물지(3)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④ 건물지(3)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① 건물지(3)기단석렬 노출상태
② 건물지(3) 내부 배수시설 노출상태(동에서)
③ 건물지(3) 내부 아궁이시설 노출상태(위에서)

圖版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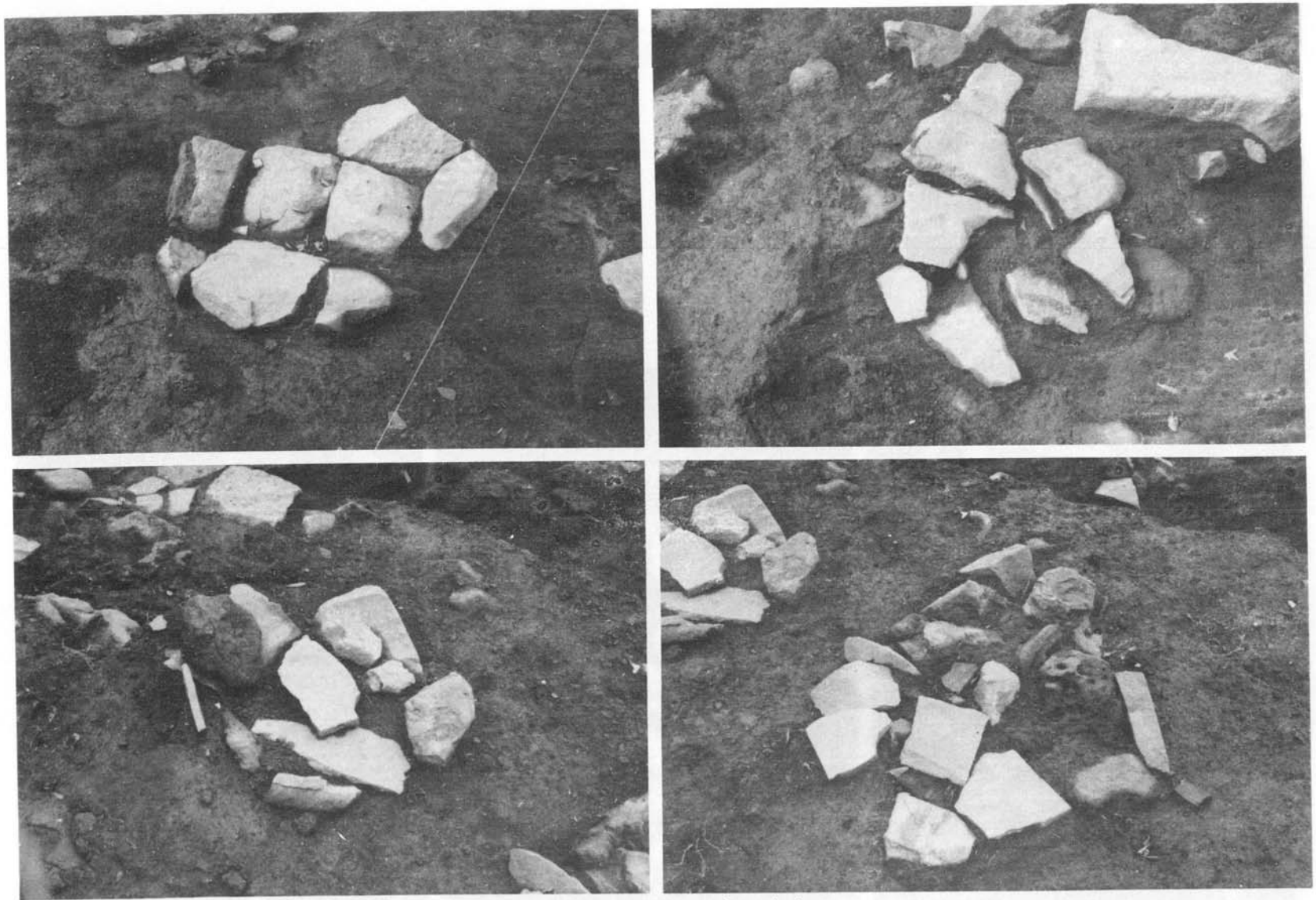
① 건물지(3) 내부 성토층과
적석유구 노출상태(세부)
② 건물지(3) 내부 아궁이 시설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3) 내부 아궁이 시설 및
적석유구 노출상태(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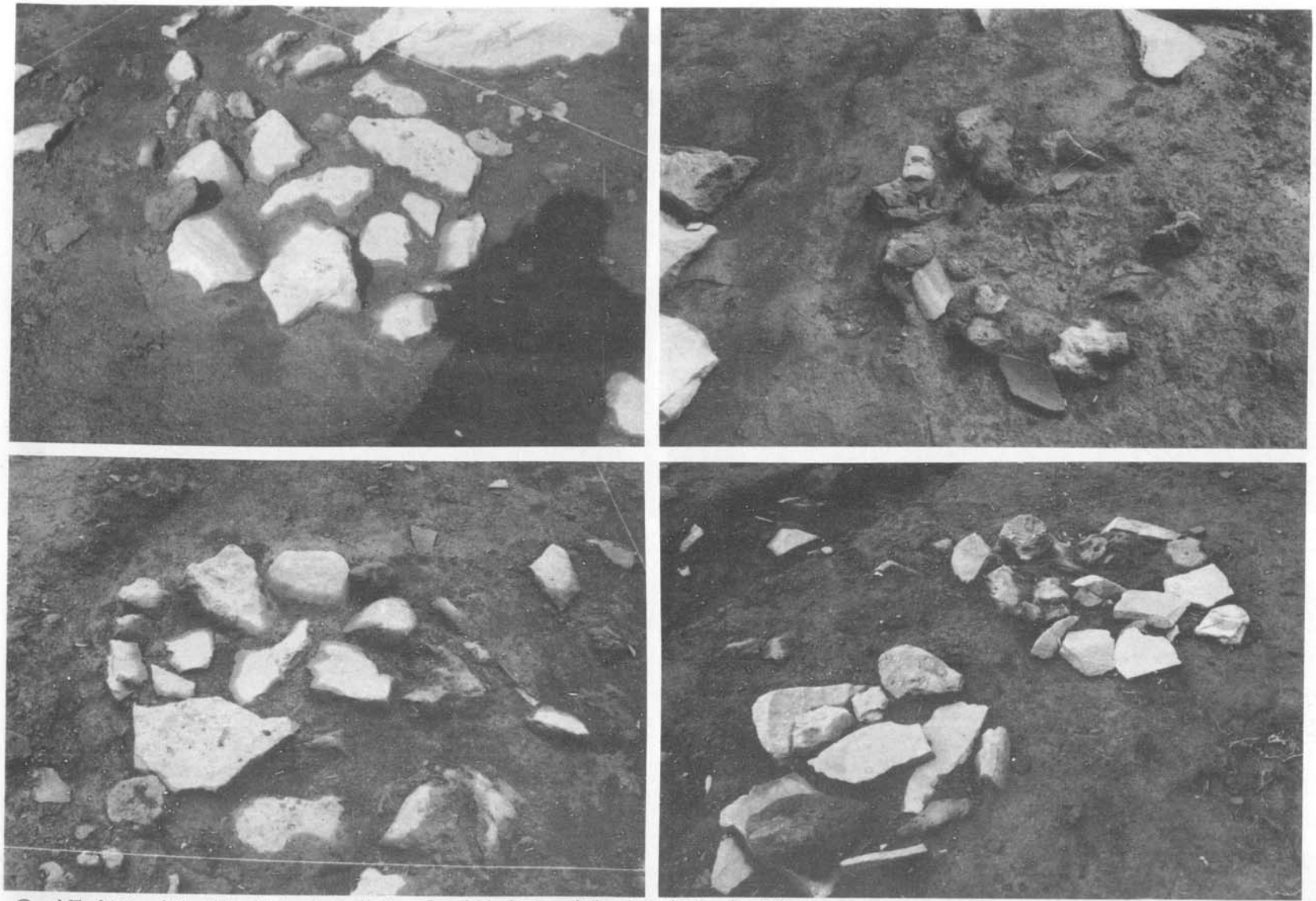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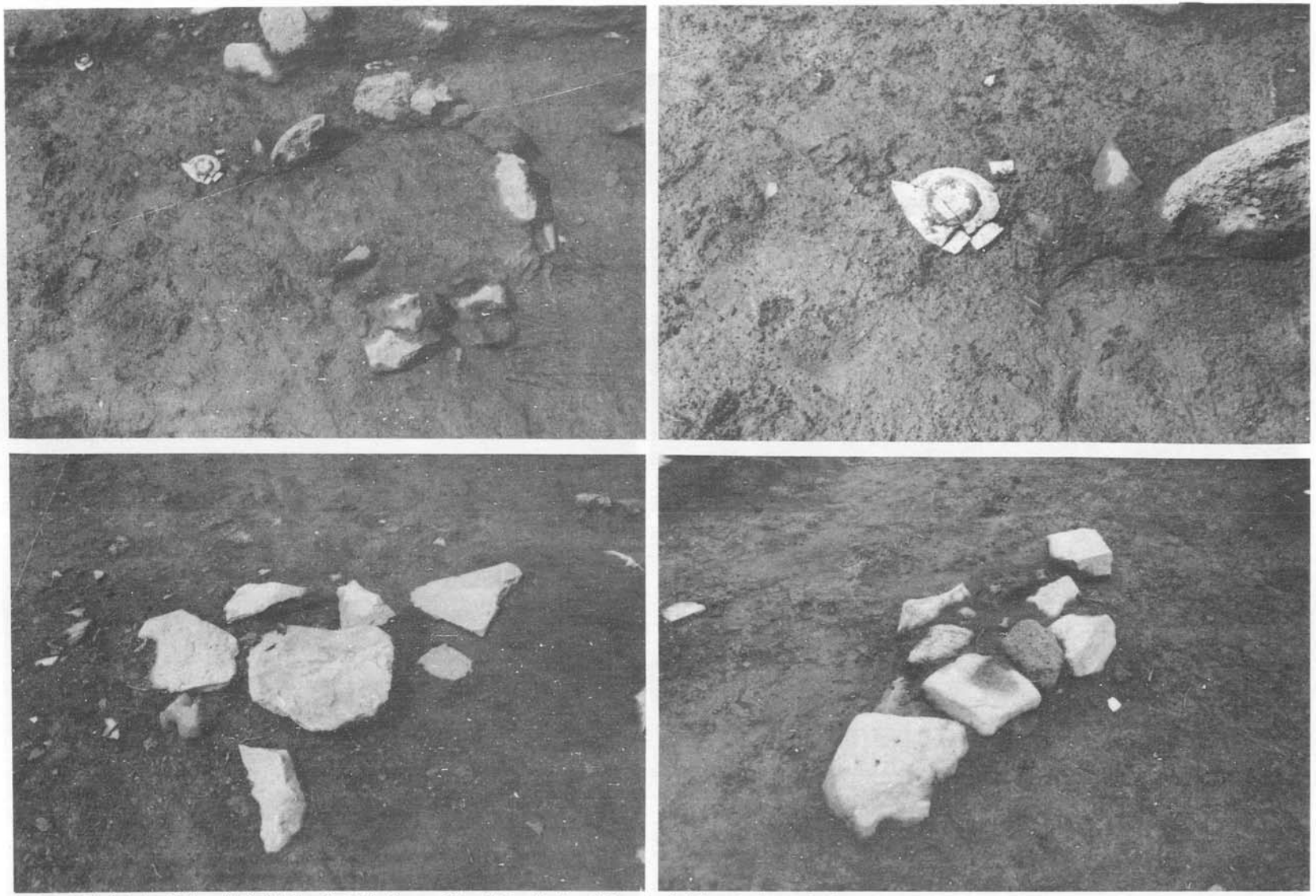
① 건물지(3) 동편 온돌시설 노출상태(위에서)
② 건물지(3) 동편 온돌시설 노출상태(세부)
③ 건물지(2) 동편 기단석렬 노출상태(위에서)



① 건물지(3) 내부 적심석(1) 축조상태　③ 건물지(3) 내부 적심석(3) 축조상태
② 건물지(3) 내부 적심석(2) 축조상태　④ 건물지(3) 내부 적심석(4) 축조상태



① 건물지(3) 내부 적심석(5) 축조상태　③ 건물지(3) 내부 적심석(7) 축조상태
② 건물지(3) 내부 적심석(6) 축조상태　④ 건물지(3) 내부 적심석(8) 축조상태



① 건물지(3) 내부 적심석(9) 축조상태
② 건물지(3) 내부 백자편 출토상태
③ 건물지(3) 내부 적심석(10) 축조상태
④ 건물지(3) 내부 적심석(11) 축조상태







① 제3단 석축시설 노출상태(서에서)
② 제3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동에서)
③ 제3단 석축시설 노출상태(동에서)

圖版 44





① 제3단 대지 발굴전 비각지 상면지표 상태
② 제3단 대지 발굴전 상태(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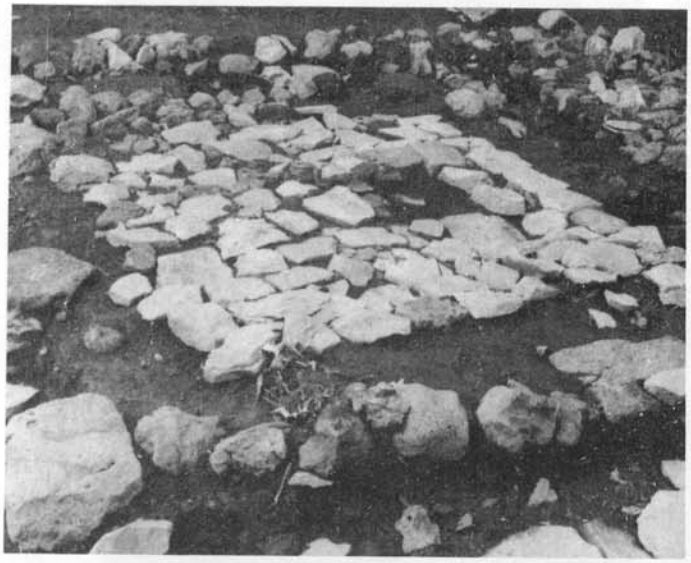
① 건물지(5) 노출상태(서에서)
② 건물지(5) 노출상태(북에서)

圖版 46





① 건물지(5) 노출상태(남동에서)
② 건물지(5) 축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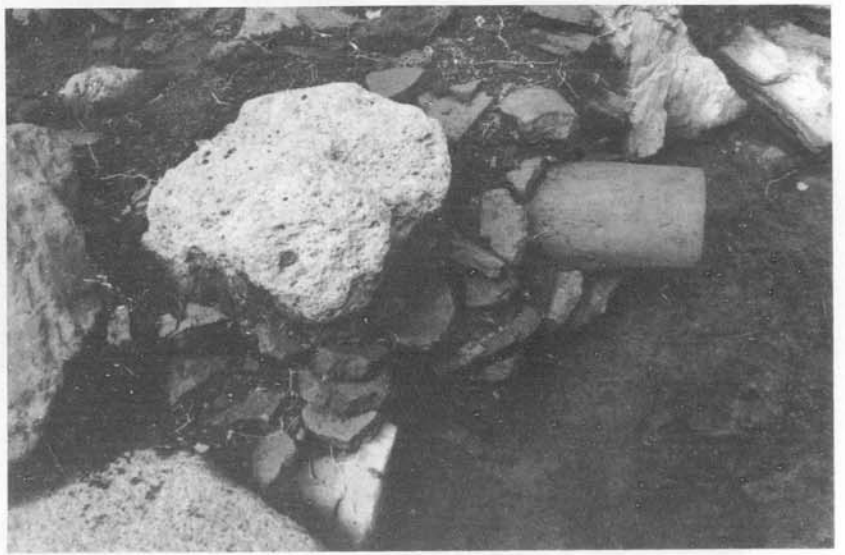


① 비각지 노출상태(북서에서)
② 비각지 하단 건물지(5) 정면 기단석렬 노출상태
③ 비각지 뒷편 담장 노출상태
④ 비각지 서편 담장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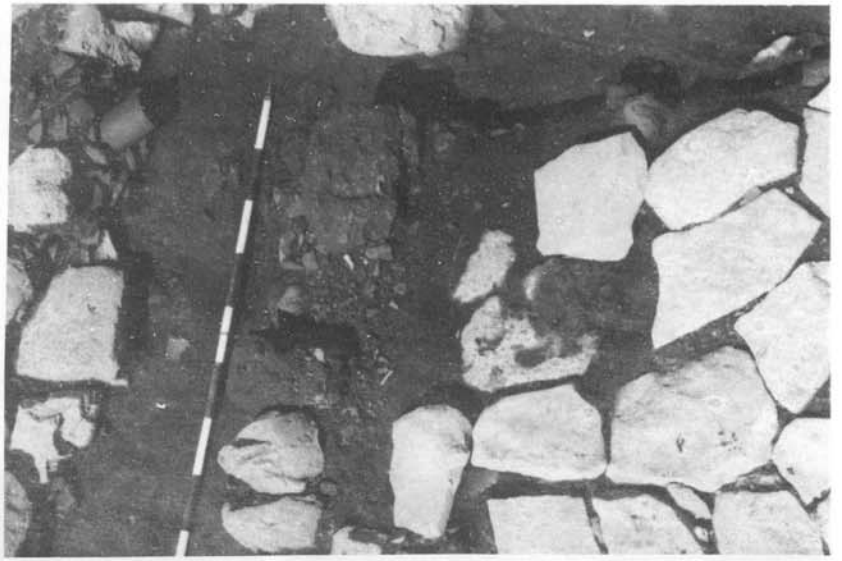






① 비각지 서편 담장 노출상태(서에서)
② 비각지 서편 담장 축조상태(세부)
③ 비각지 담장 축조상태(세부)
④ 비각지 서편 담장하부 유물 출토상태(세부)









① 비각지 내부 부석상태(서에서)
② 비각지 담장 축조상태(위에서)
③ 비각지 내부 부석시설 노출상태(세부)
④ 건물지(5) 기단석렬 축조상태(세부)

圖版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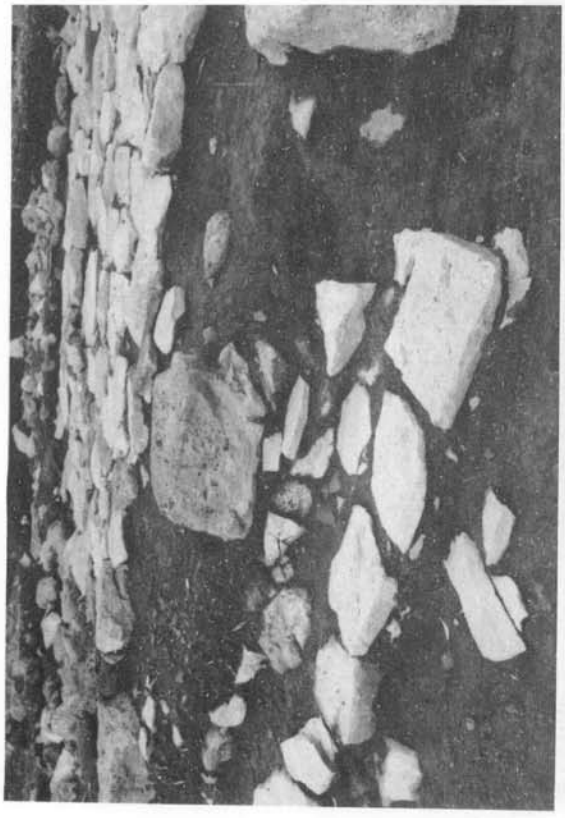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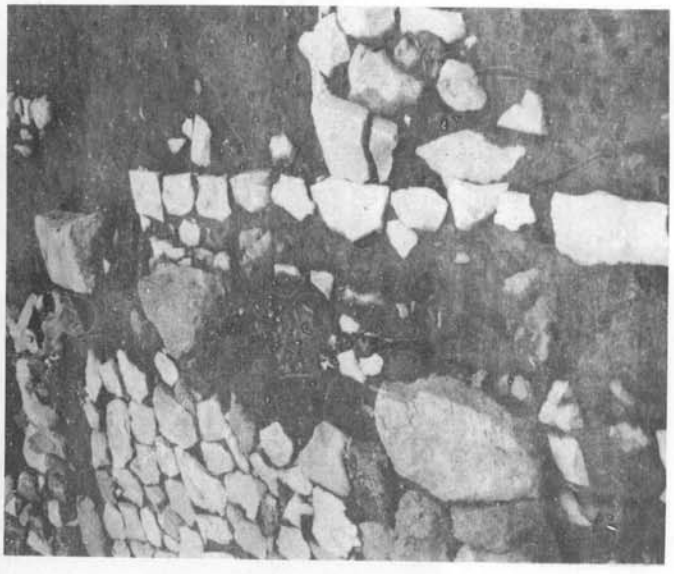


① 건물지(5) 동편 담장 노출상태
② 건물지(5) 동편 담장 축조상태
③ 건물지(5) 동편 담장 축조상태









① 건물지(5) 기단석 및 초석 배치상태(남동에서)
② 건물지(5) 기단석 및 초석 노출상태(서에서)
③ 건물지(5) 기단석렬 및 초석군 노출상태(서에서)
④ 건물지(5) 북벽 토층 단면상태

圖版 52





① 부도지: 지대석과 중대석 축조상태 ② 탑신과 상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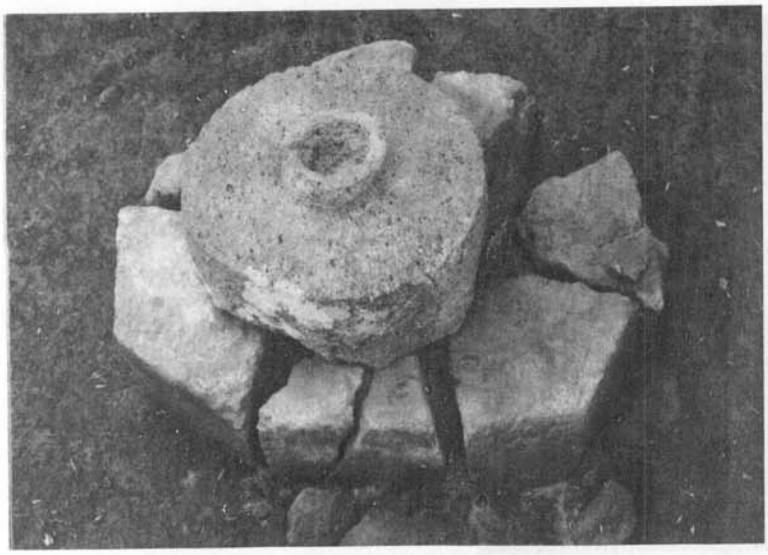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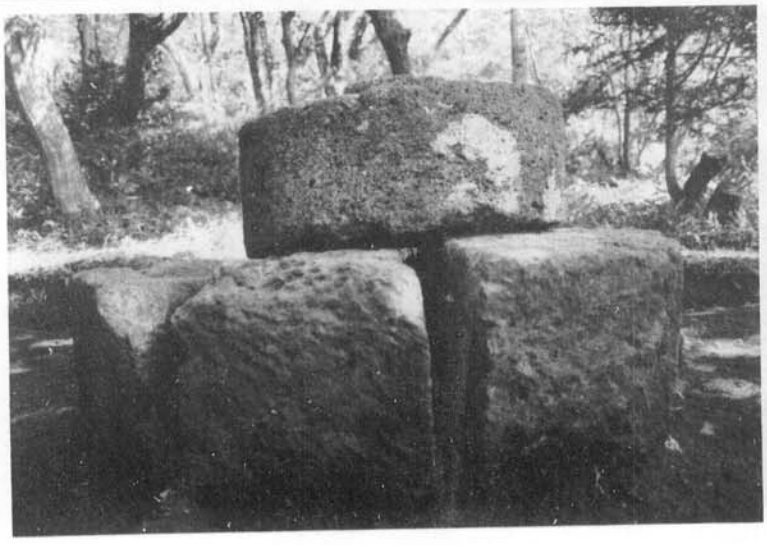


① 부도지 원경
② 부도지 원경
③ 부도지 노출상태(근경)

圖版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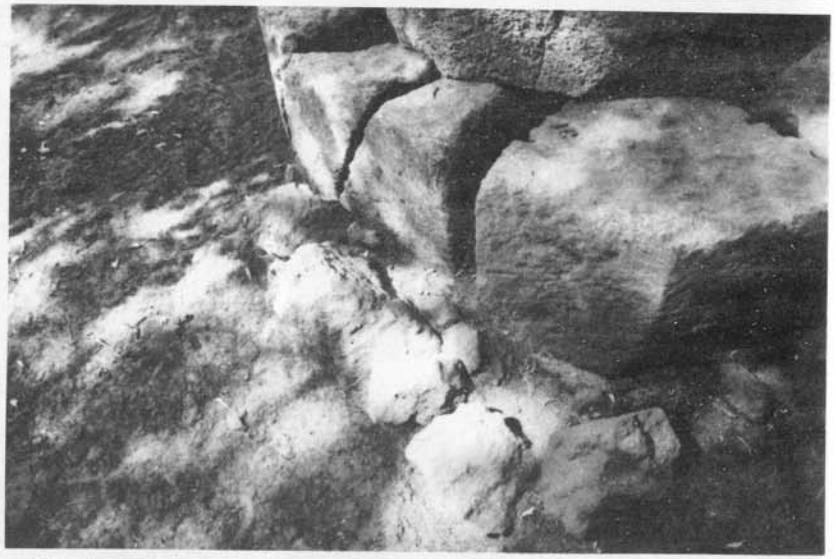


① 부도(지대석, 중대석) 노출상태
② 부도(지대석, 중대석) 노출상태
③ 부도(지대석, 중대석)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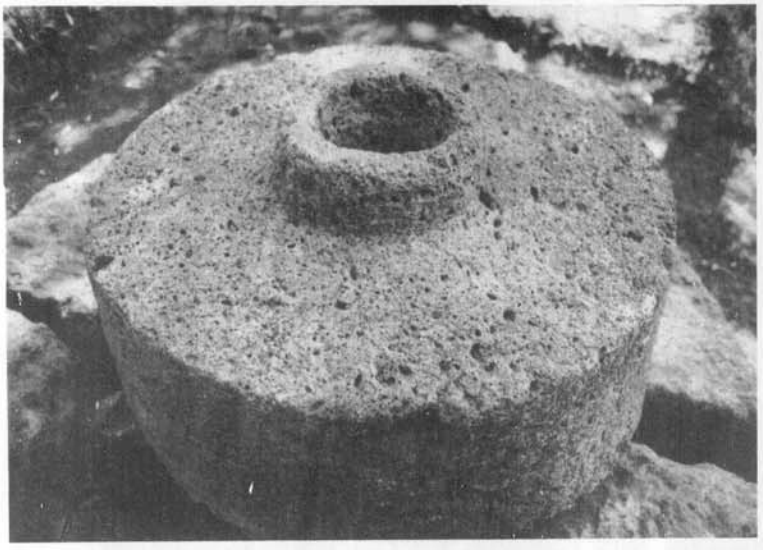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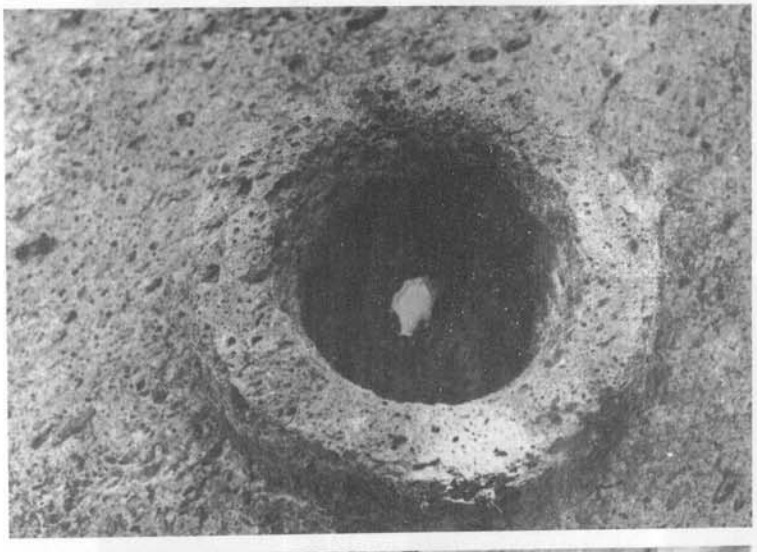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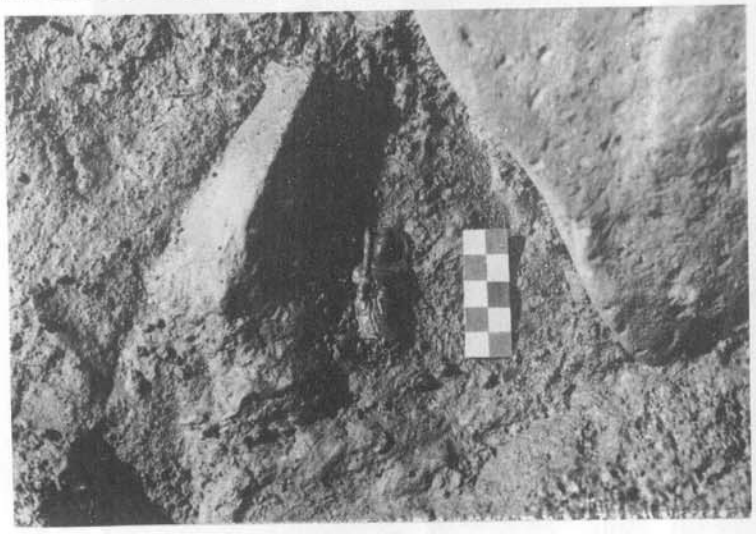


① 부도(지대석, 중대석) 축조상태(세부)
② 부도(지대석) 축조상태(세부)
③ 부도(지대석) 축조상태(세부)
④ 부도(지대석) 축조상태(세부)

圖版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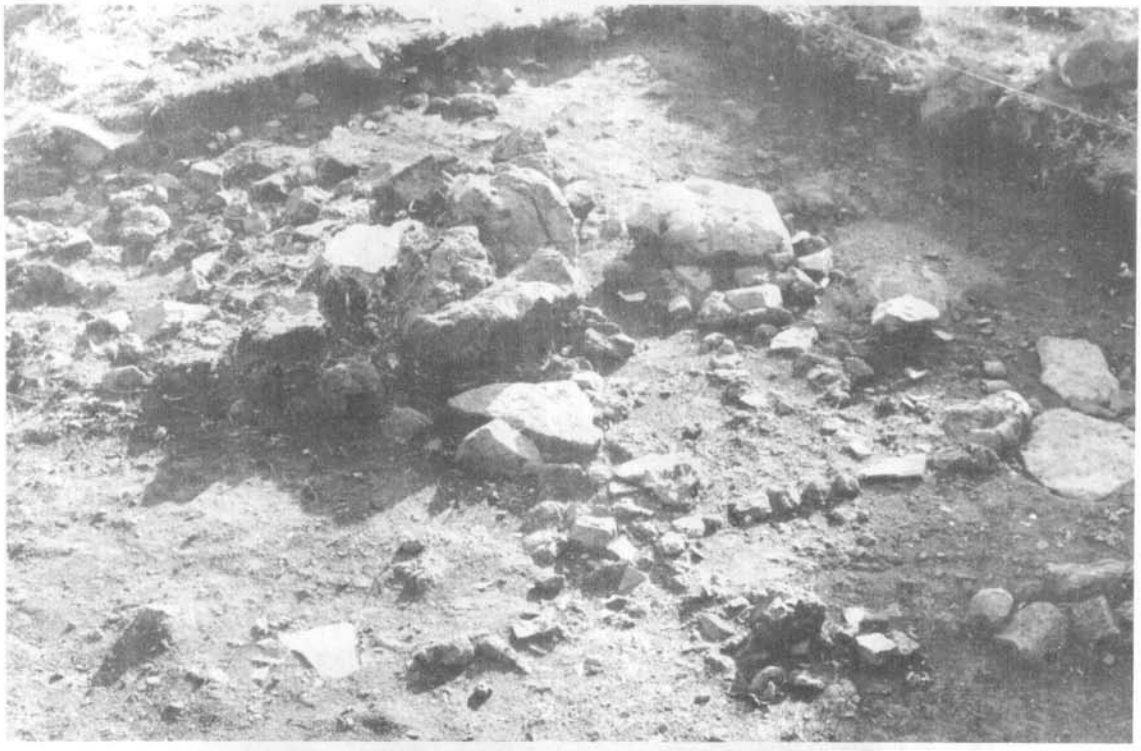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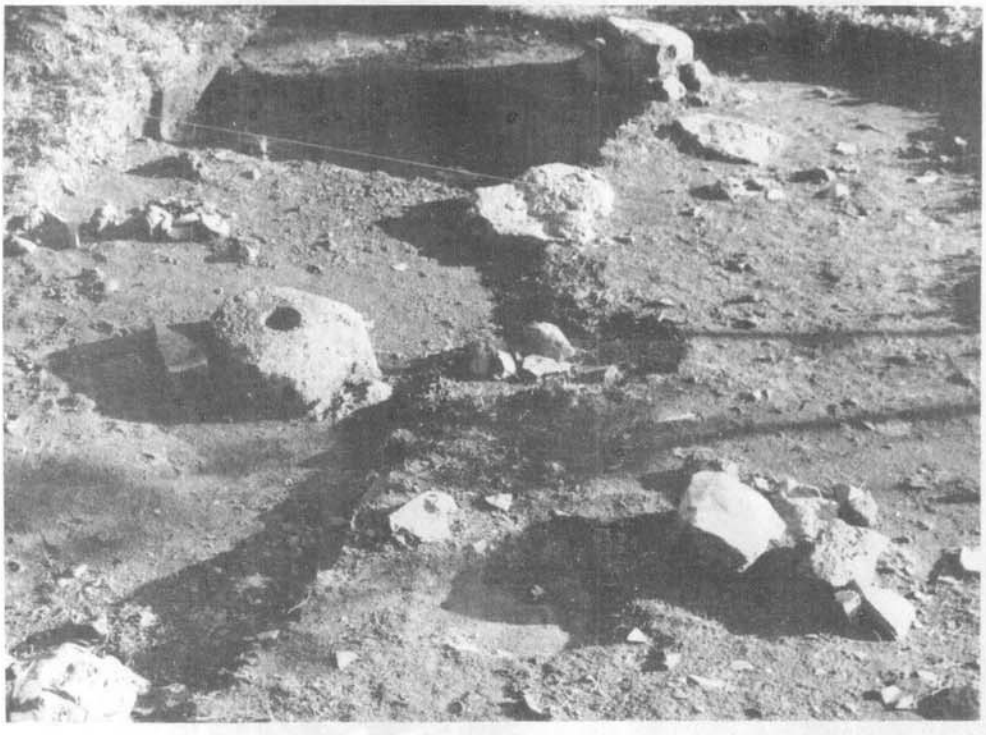


① 부도 중대석 노출상태
② 부도 사리공 노출상태
③ 청동 사천왕상 출토상태(세부)

① 탑지 추정지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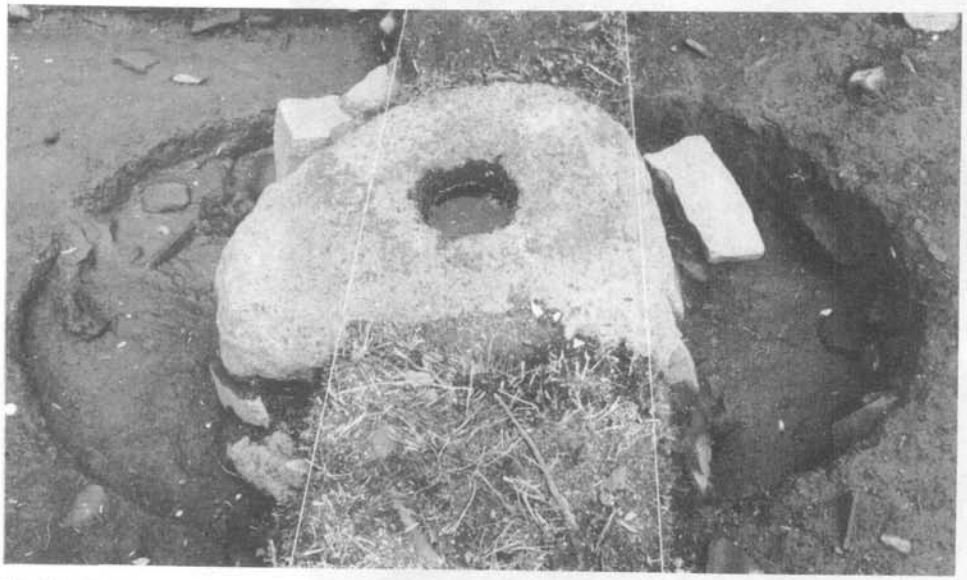
圖版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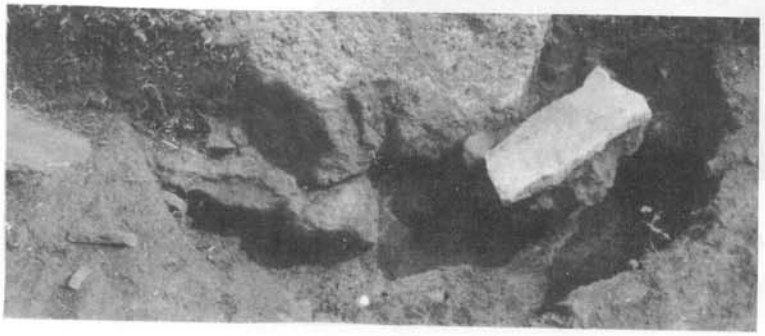




① 탑지 주정지 적석유구
② 탑지 추정지 주공석







① 탑지 추정지 주변 노출상태
② 탑지 추정지 주공석 노출상태
③ 탑지 추정지 주공석 하층 적심상태(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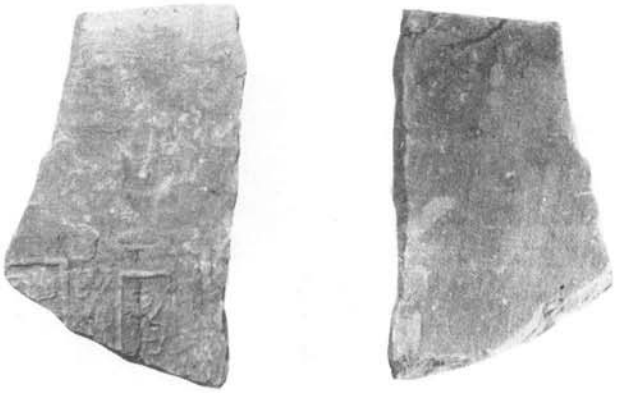
圖版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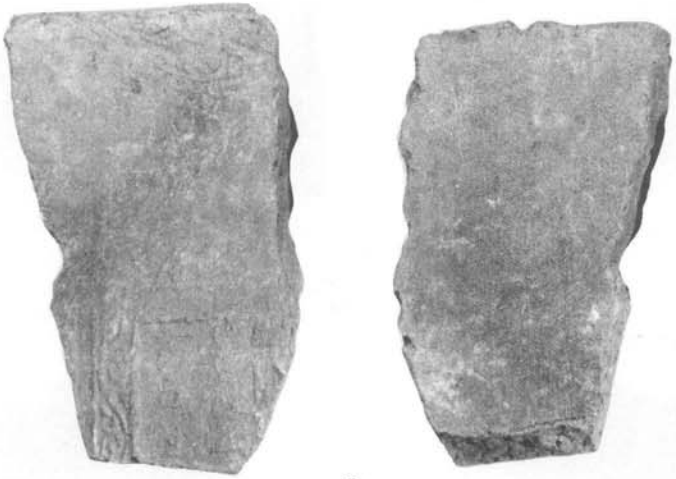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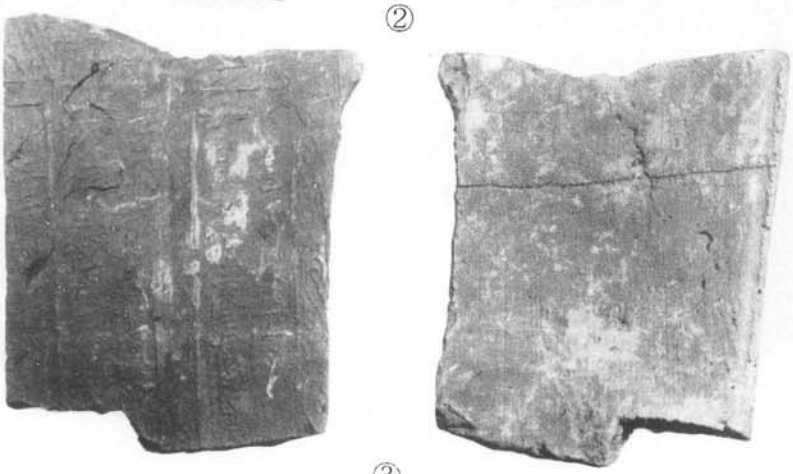
① 유적 동남편의 小川과 貯水施設
② 동서트렌치(1) 내부 제1단 적석시설 노출상태
③ NS Tr.(1) 적석시설 노출상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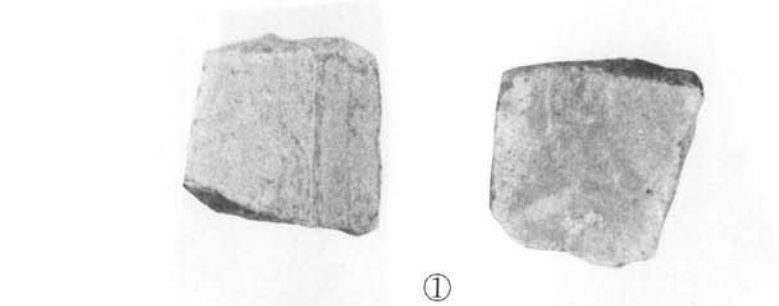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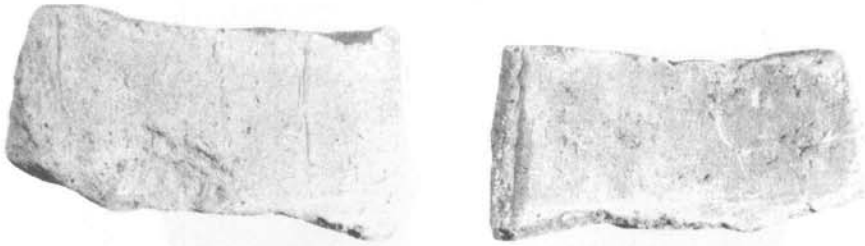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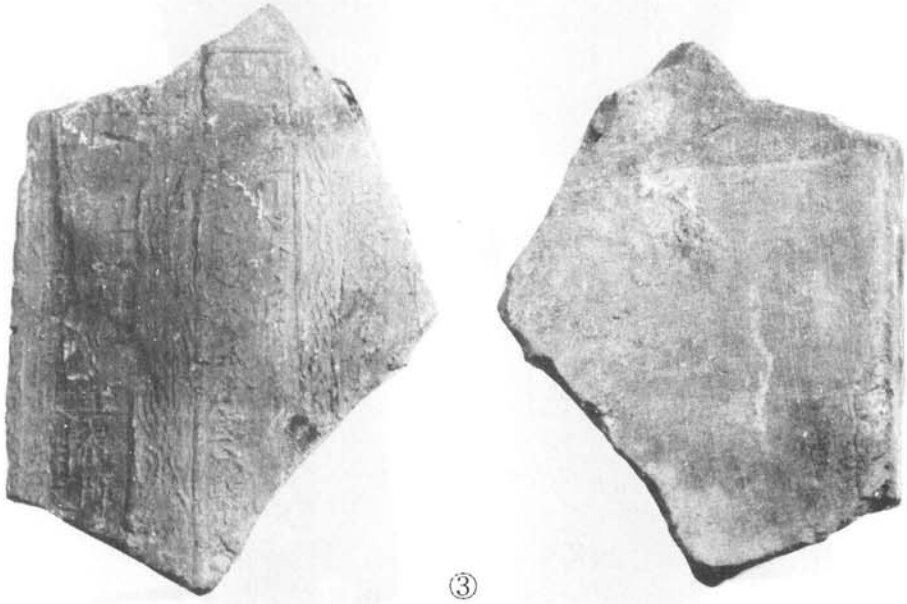
圖版 61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1)



①



②



③

圖版 62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2)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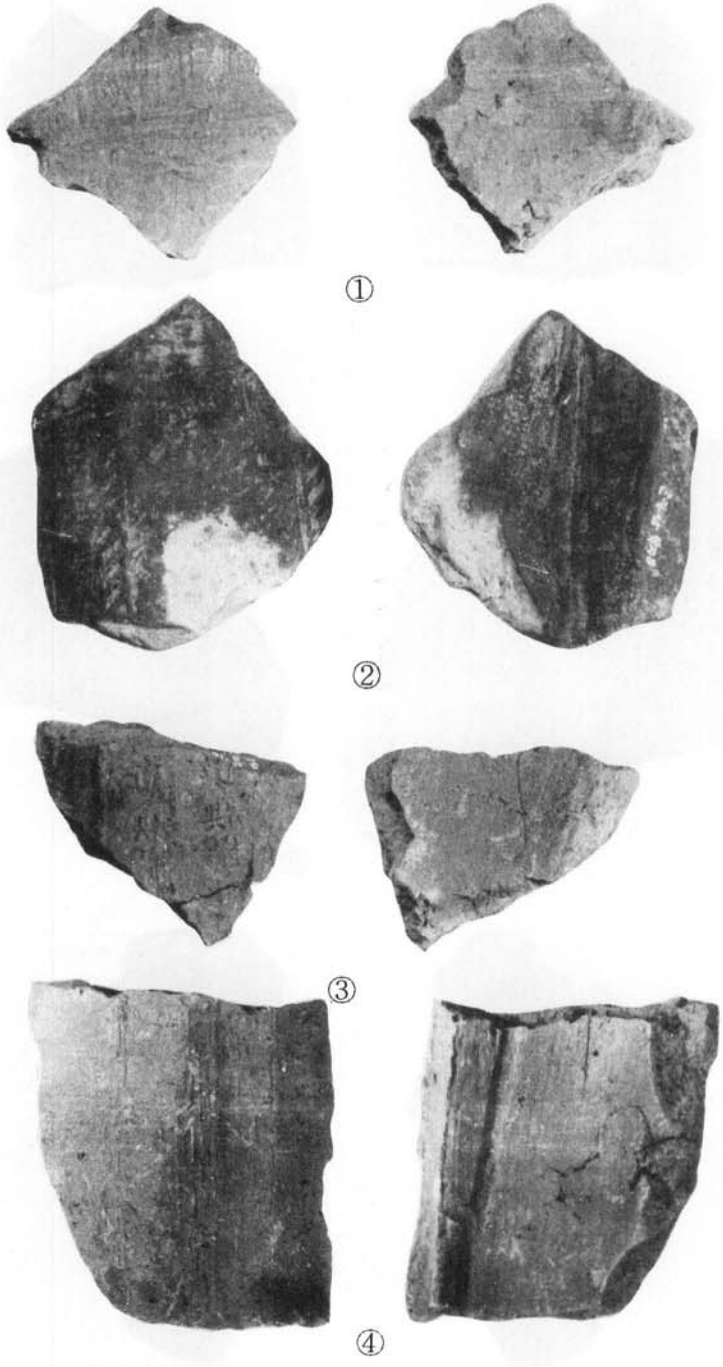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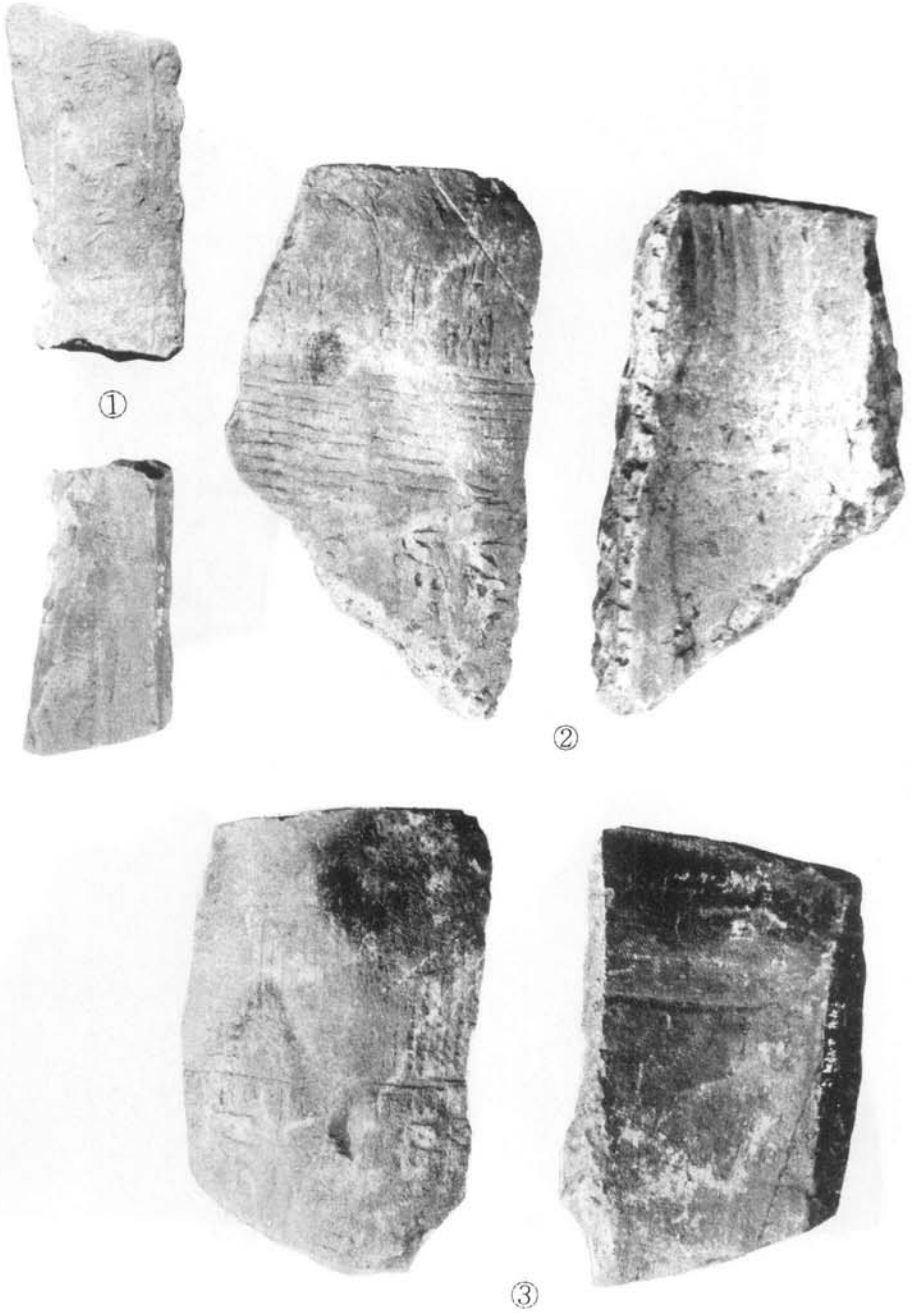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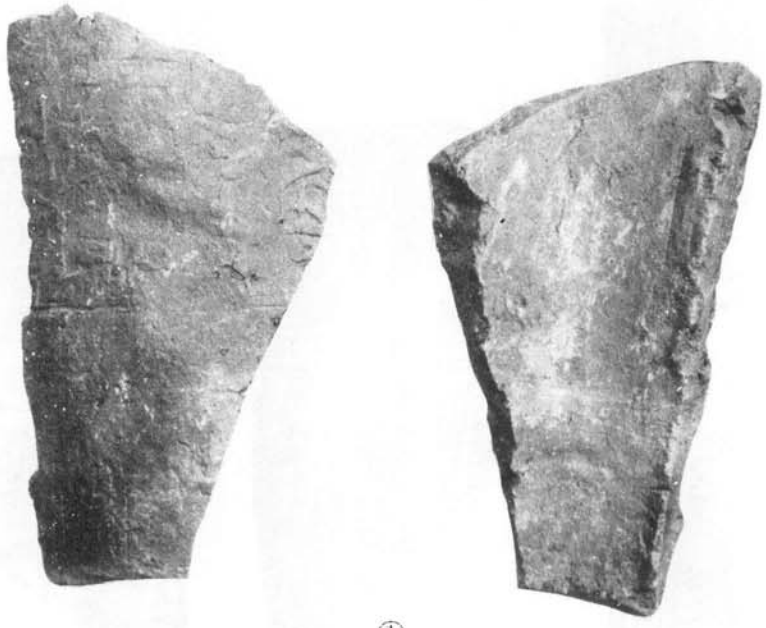
圖版 63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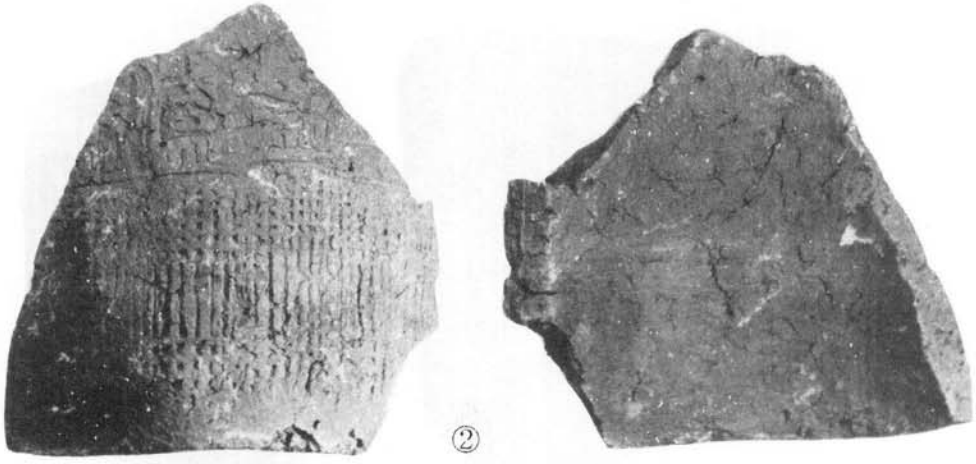
圖版 64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4)



圖版 65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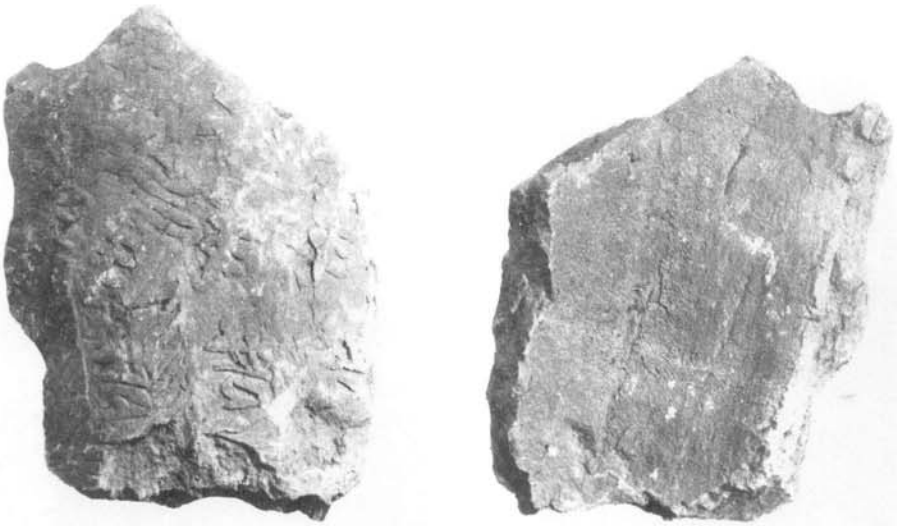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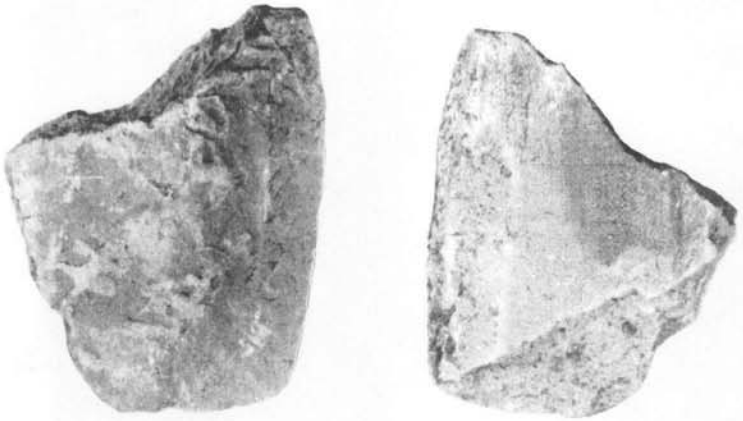


②

圖版 66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6)



①



②



圖版 67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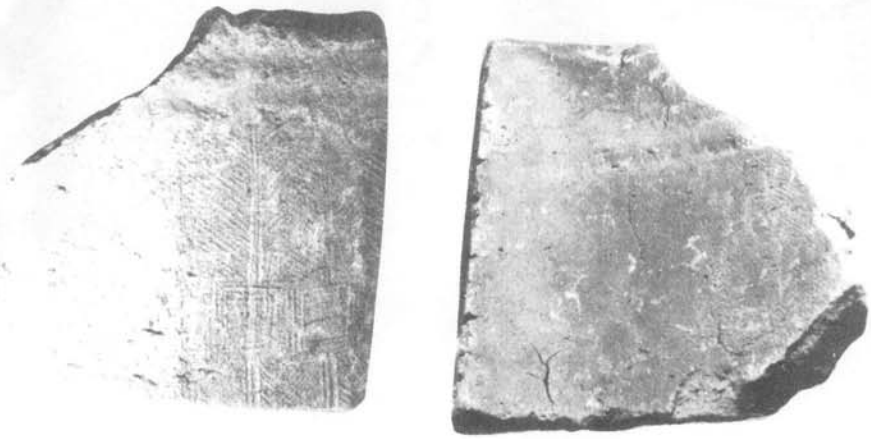


①

圖版 68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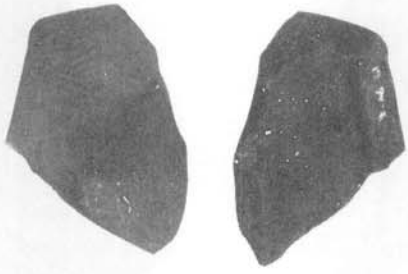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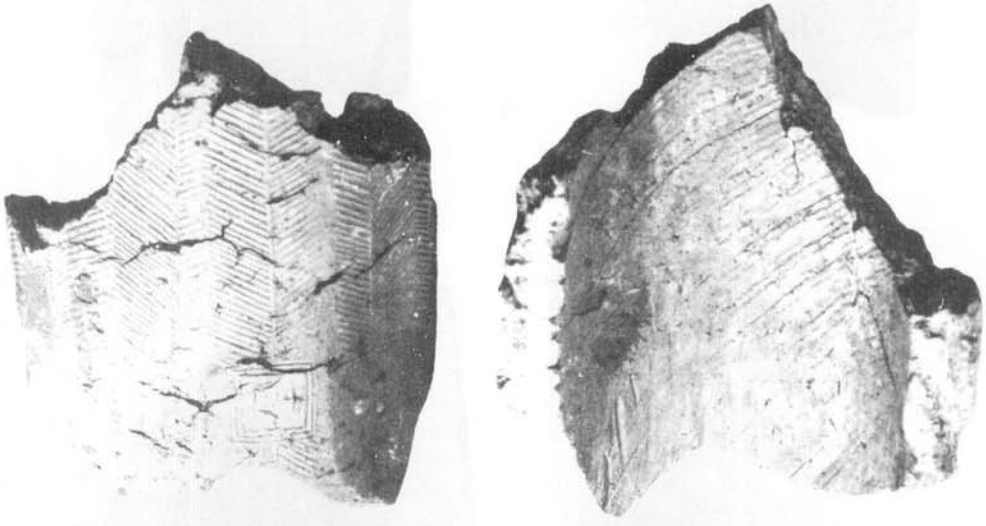


②

圖版 69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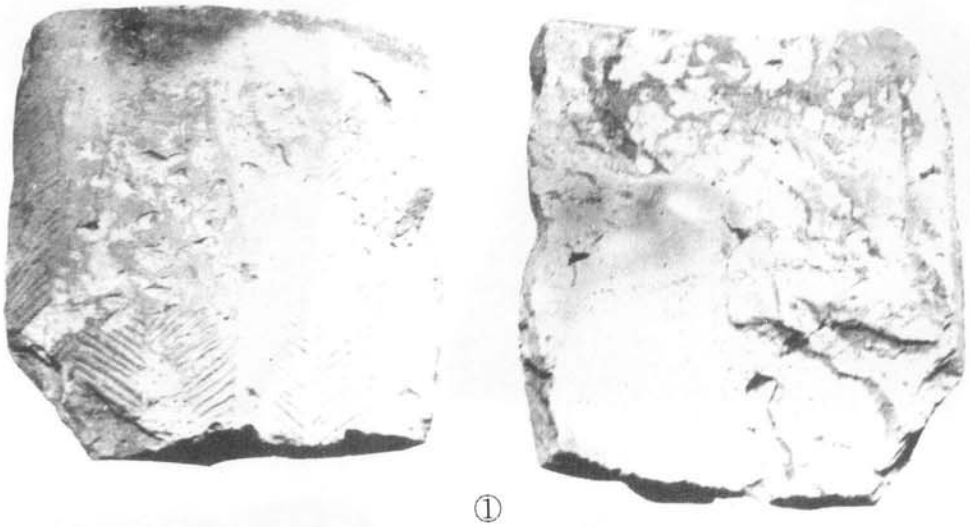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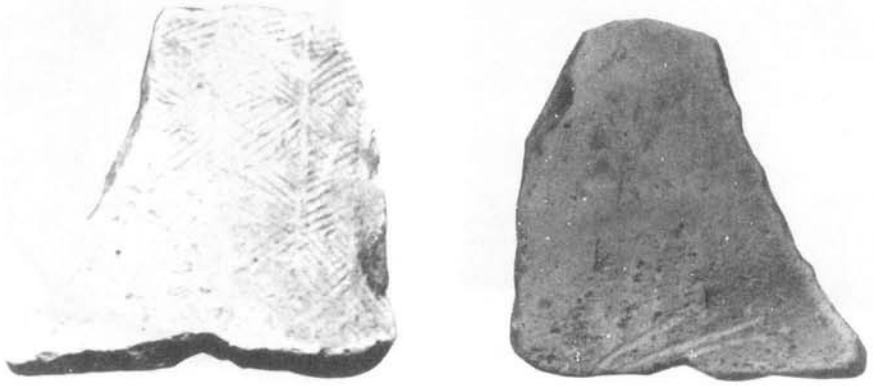


②

圖版 70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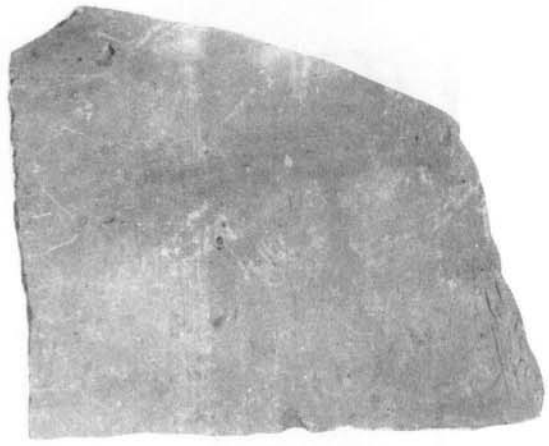


①



②

圖版 71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1)









①

②

圖版 72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2)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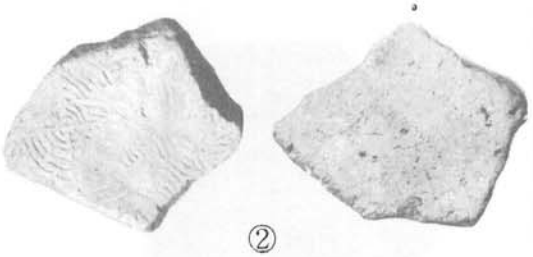

②




③

圖版 73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3)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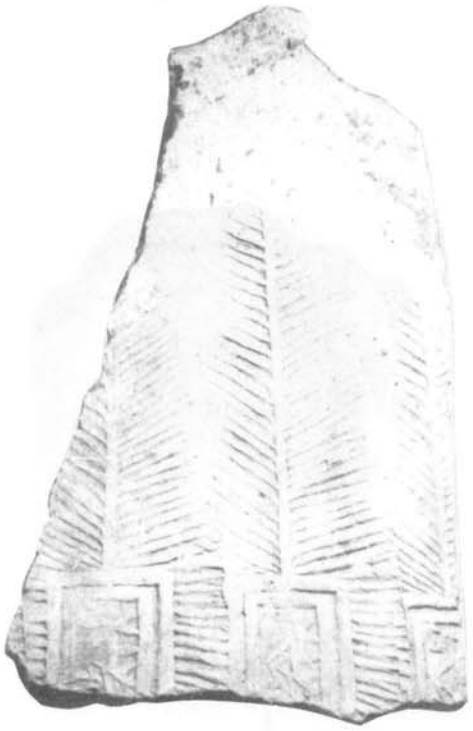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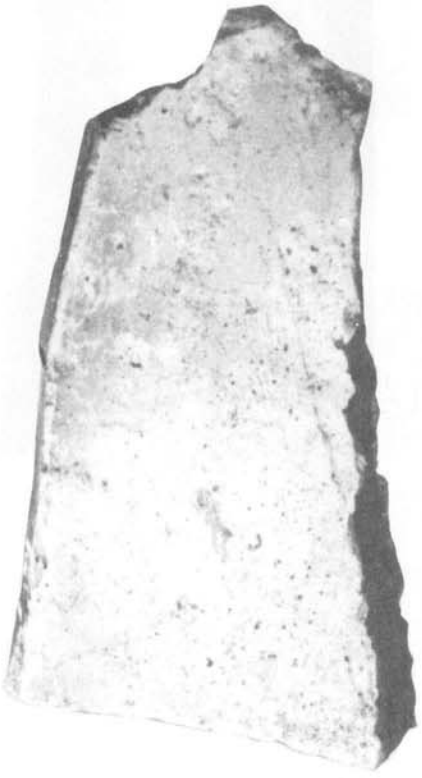


③

圖版 74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4)



①



圖版 75 존자암지 출토 암기와(5)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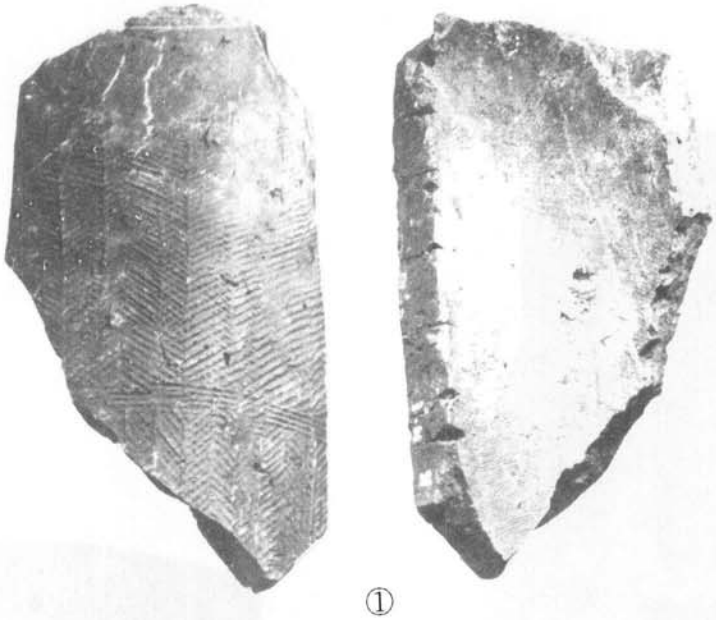
圖版 76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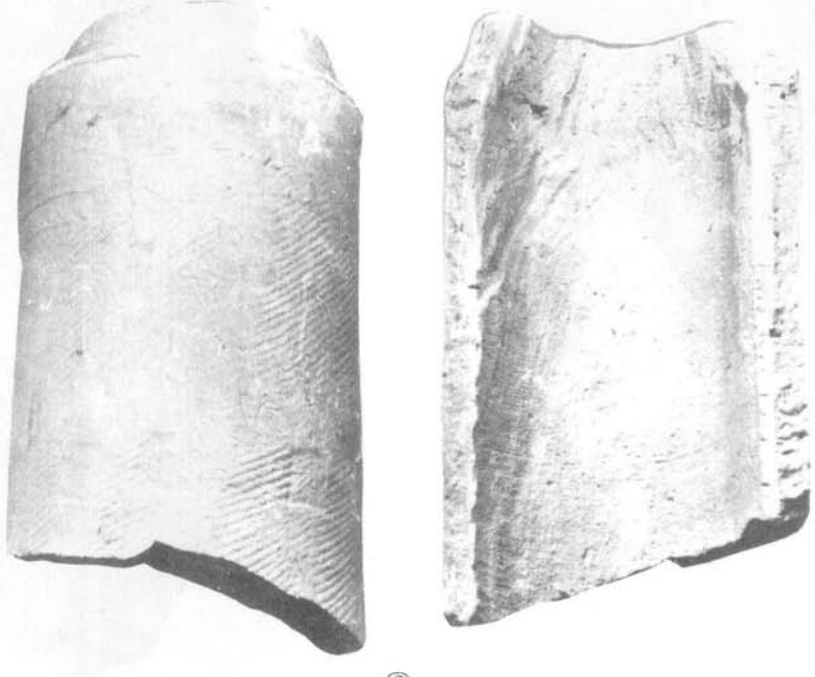
①



圖版 77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2)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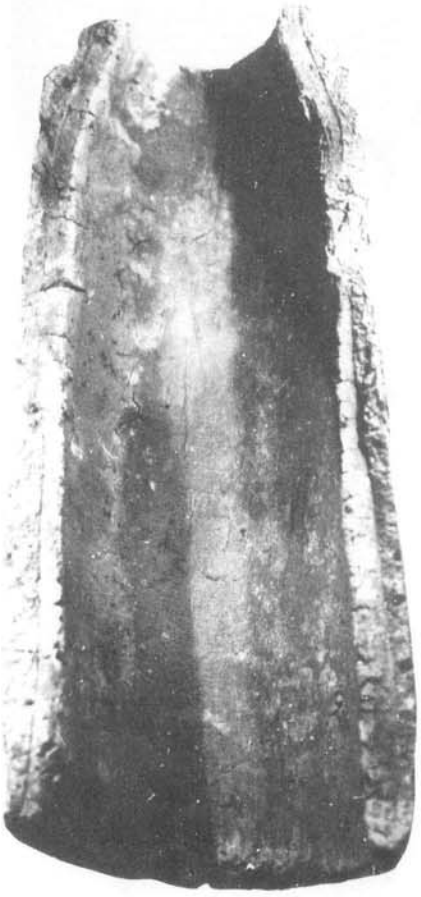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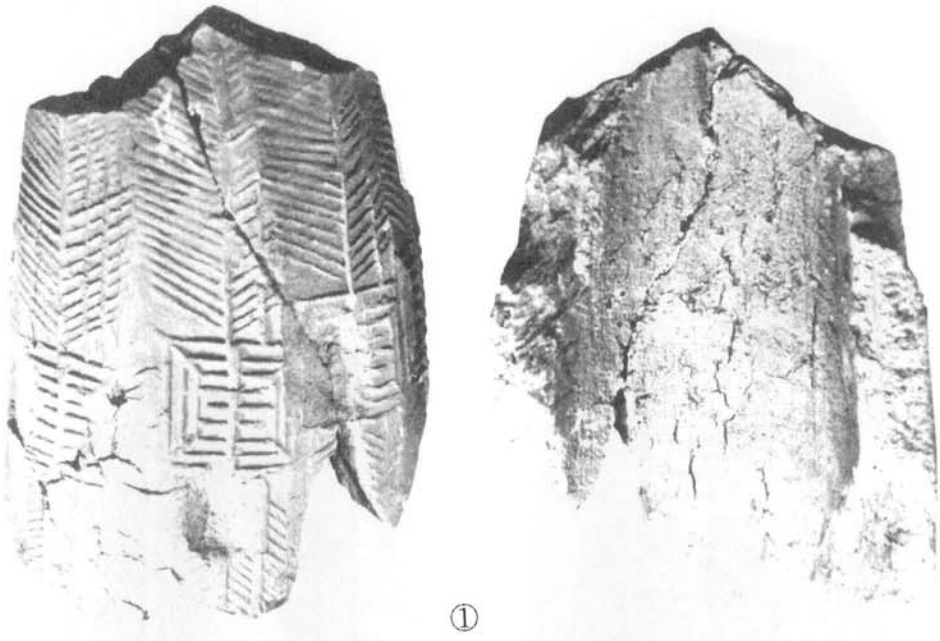
圖版 78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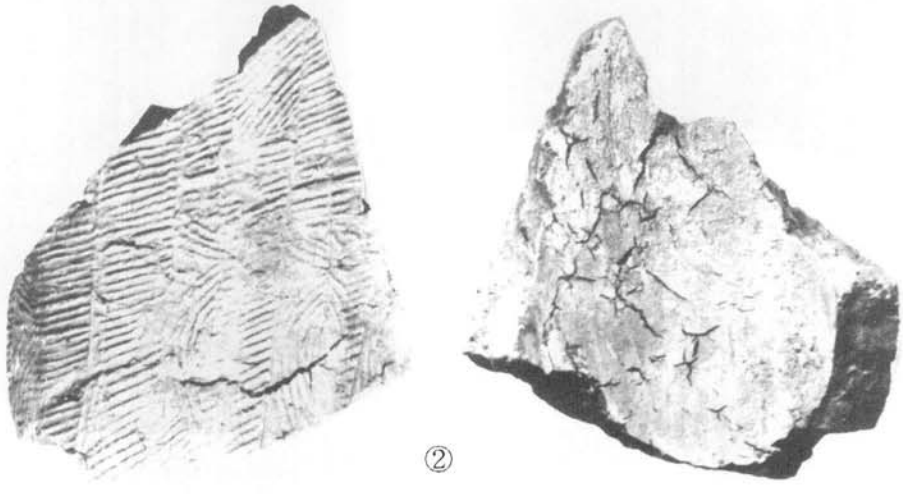
①



圖版 79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4)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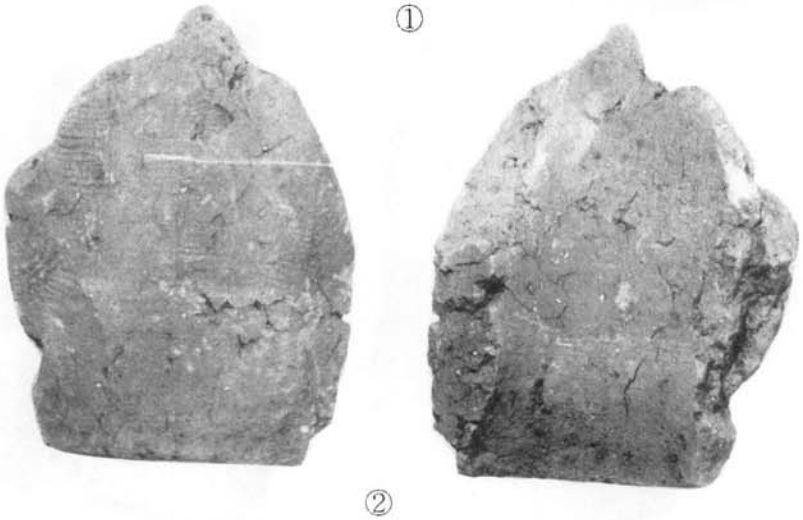


②

圖版 80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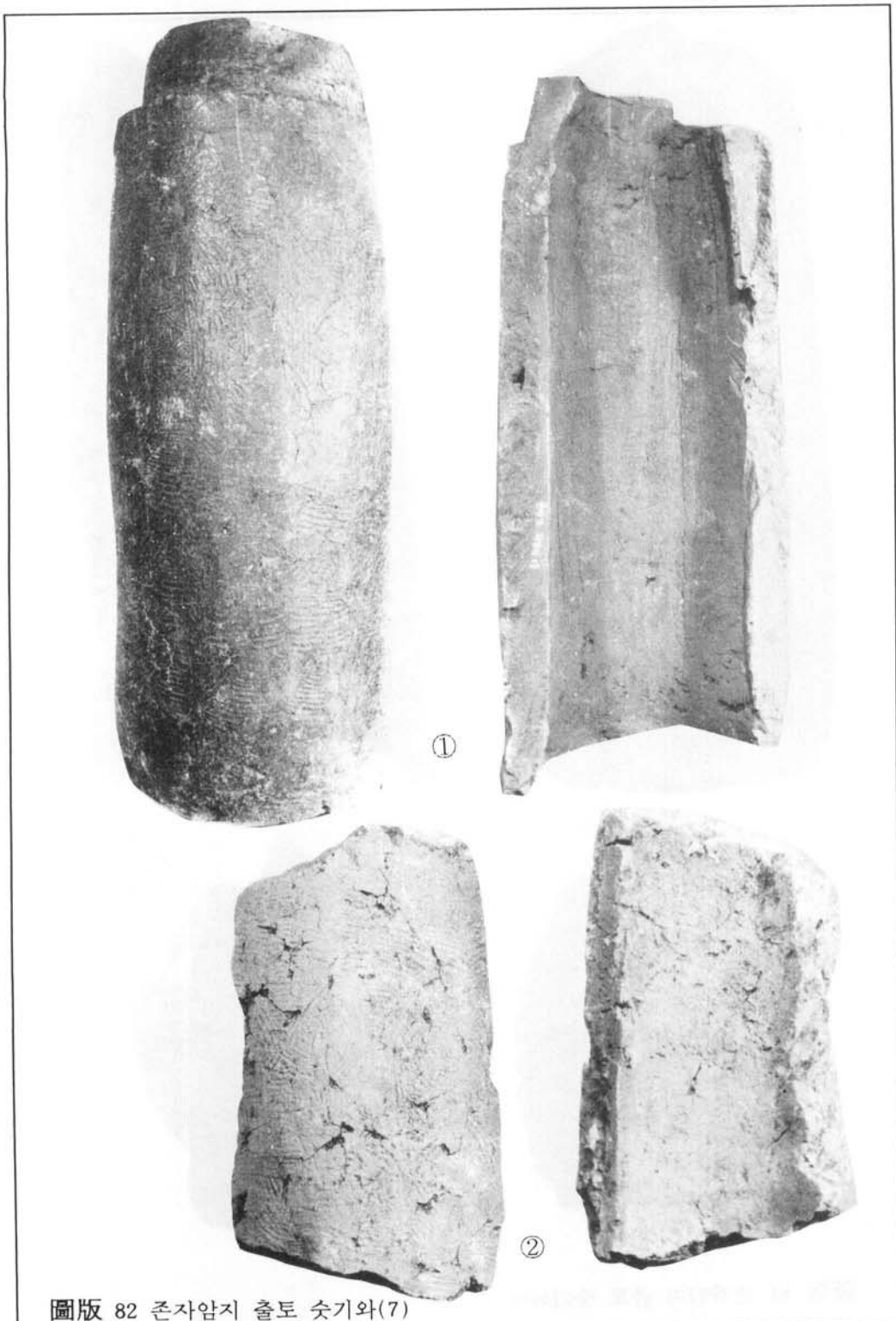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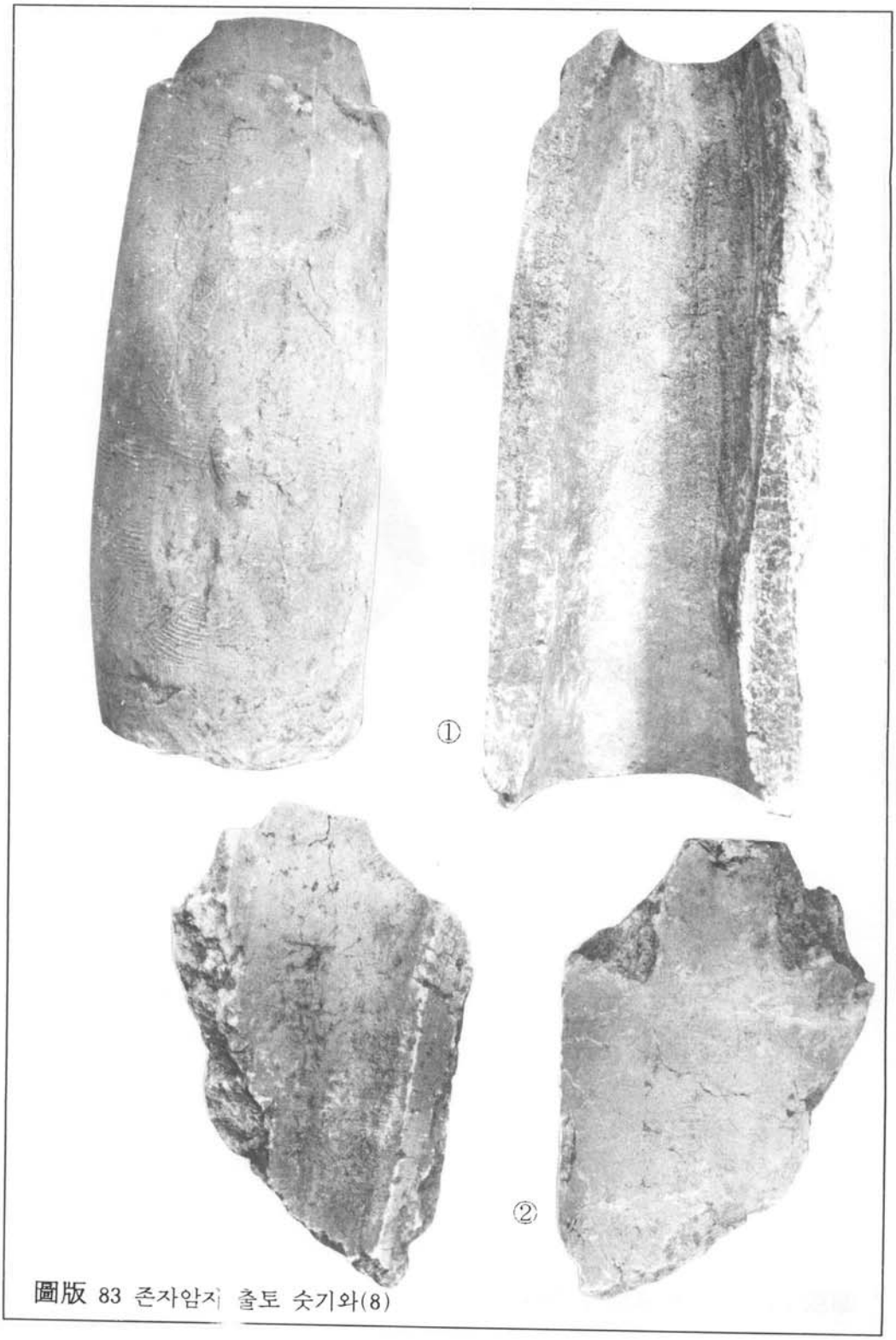


②

圖版 81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6)



圖版 82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7)



圖版 83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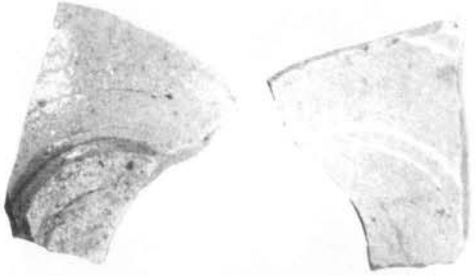
圖版 84 존자암지 출토 숫기와(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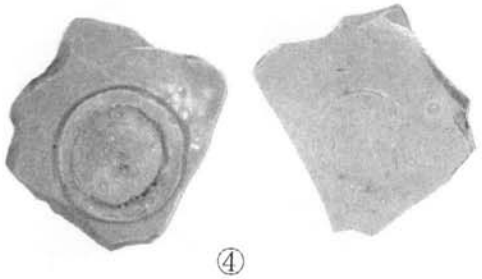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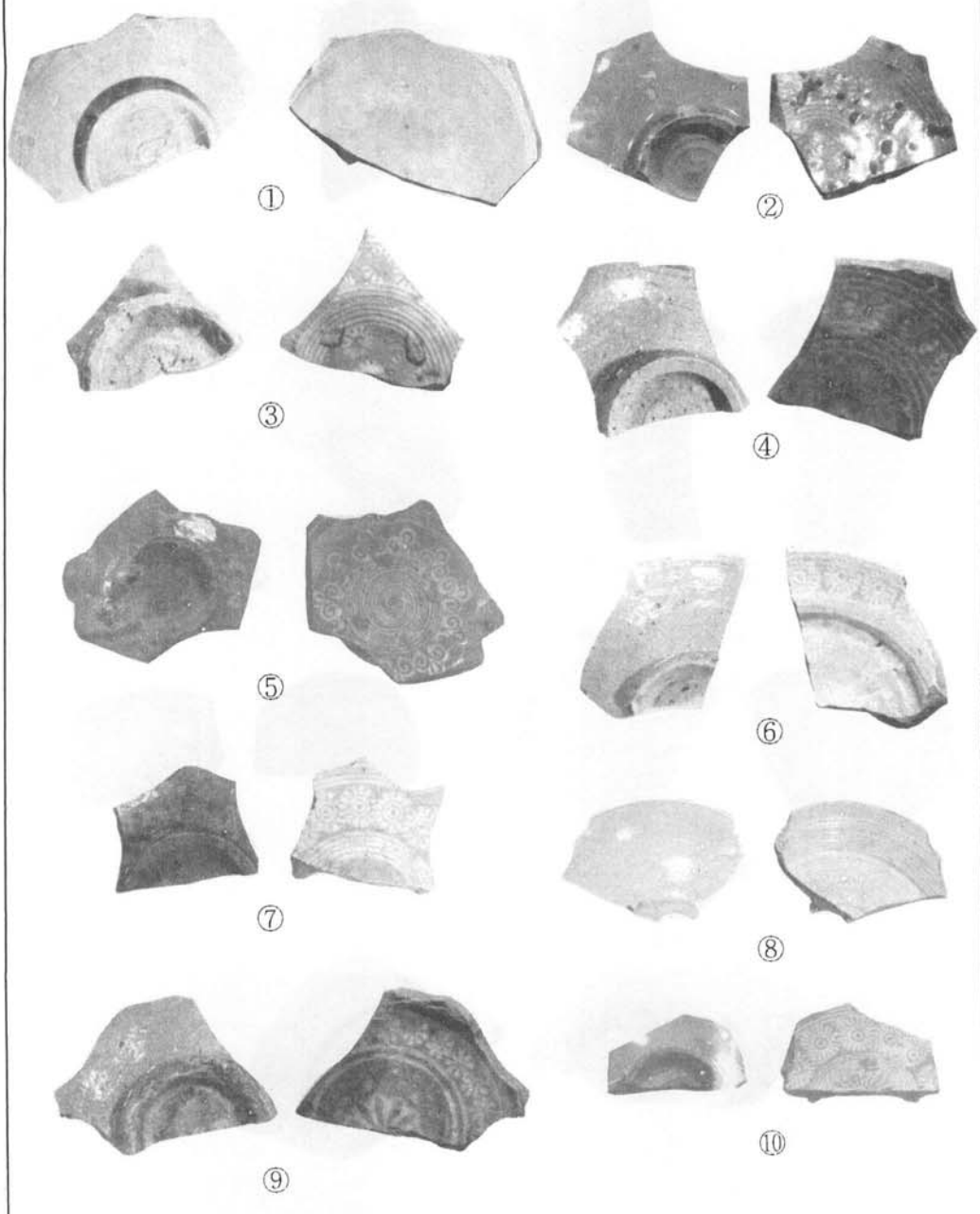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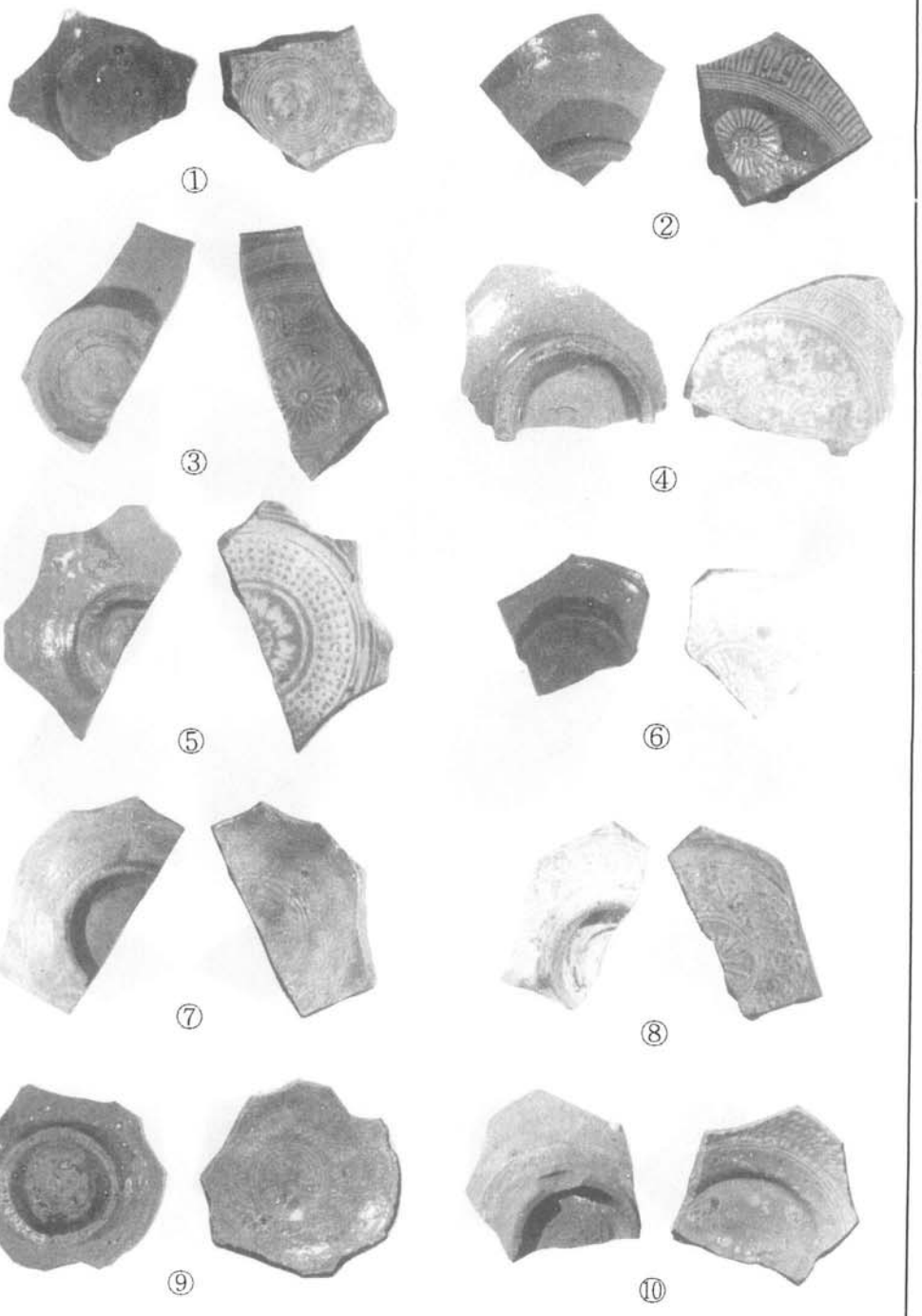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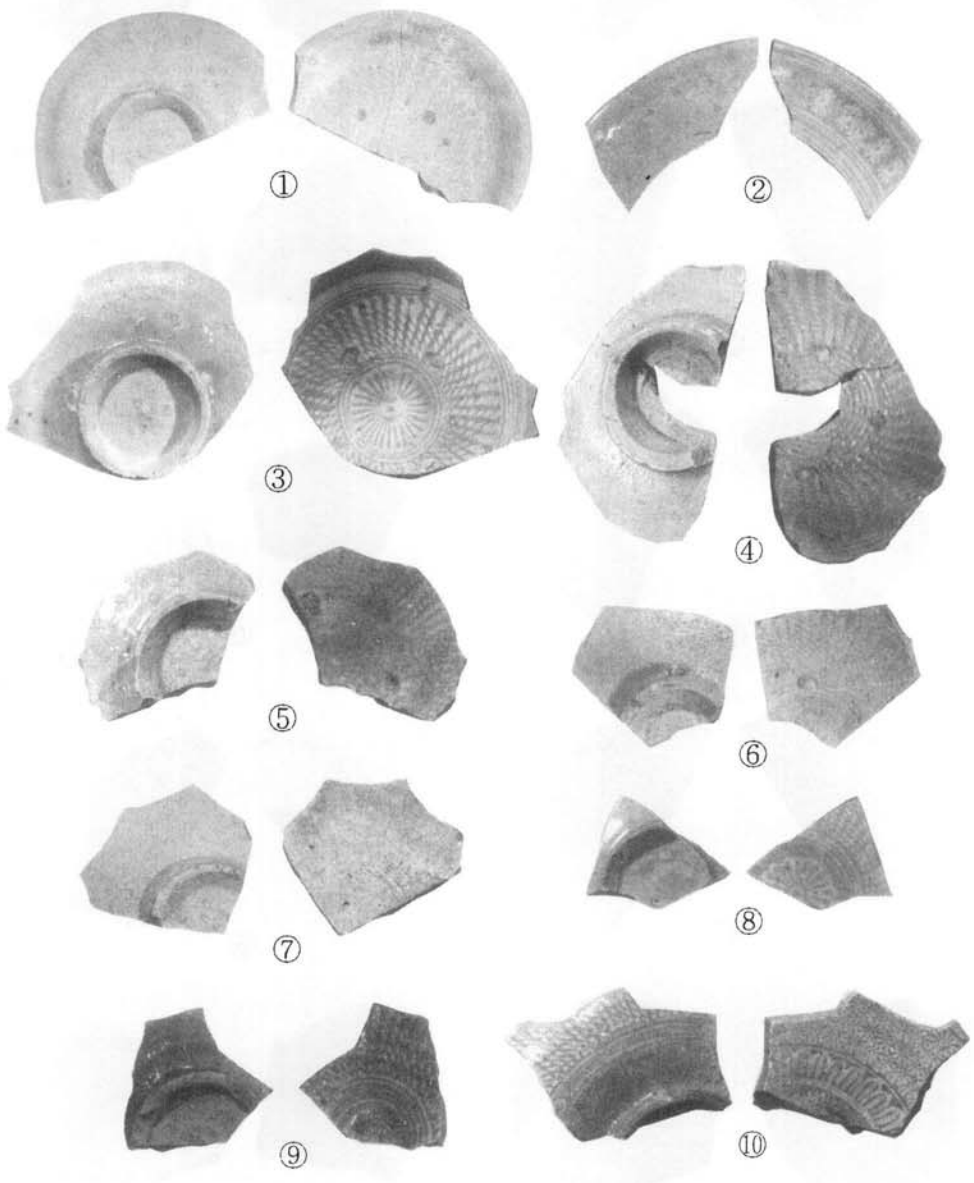
圖版 85 존자암지 출토 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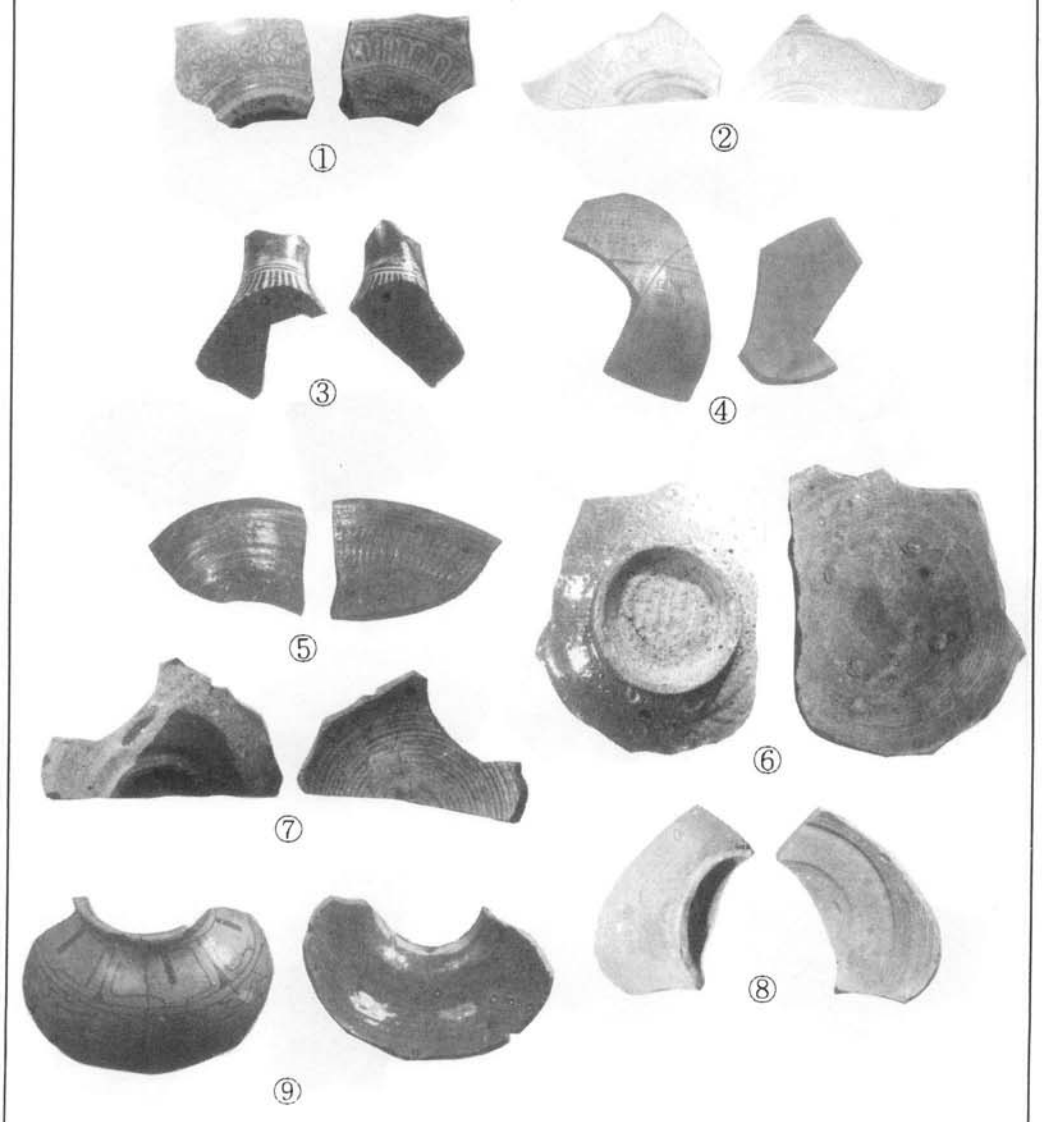
圖版 86 존자암지 출토 분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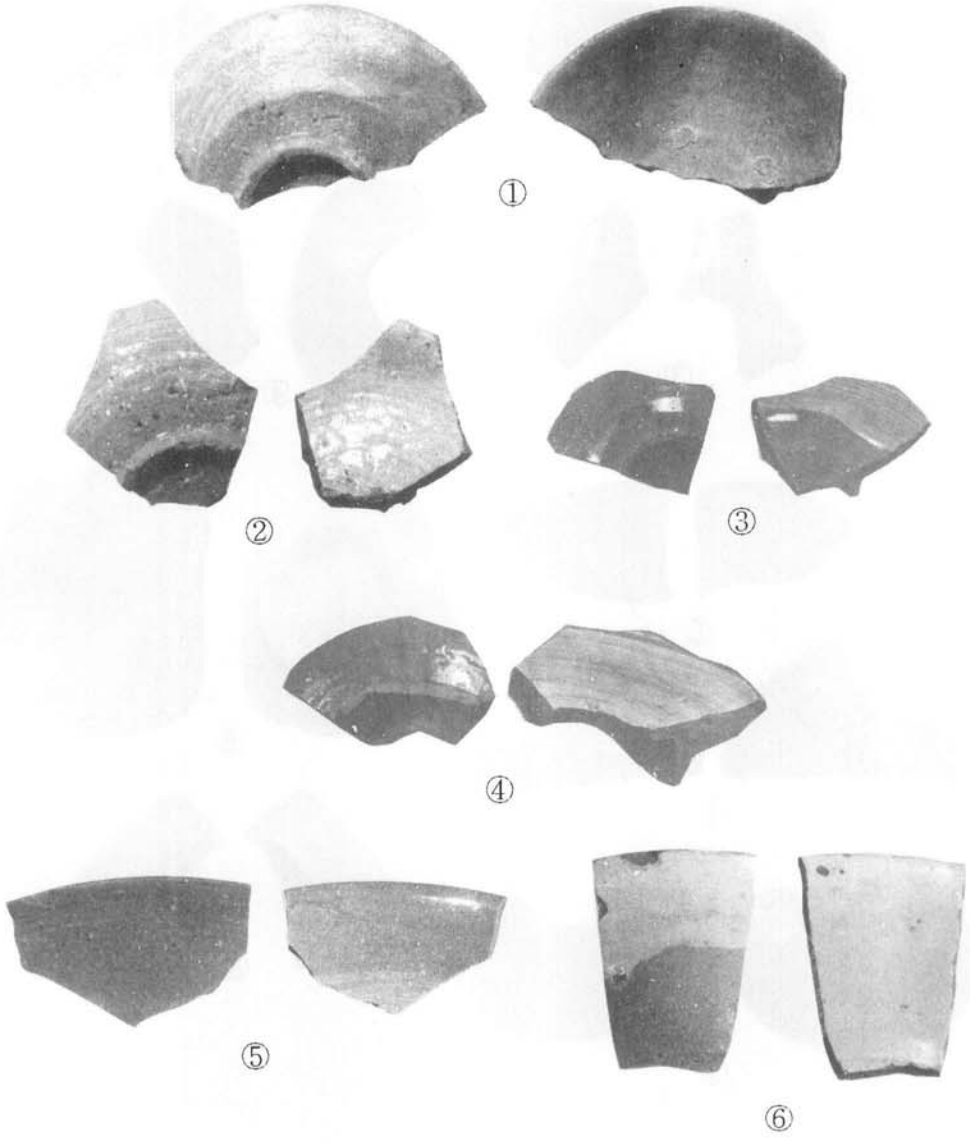
圖版 87 존자암지 출토 분청(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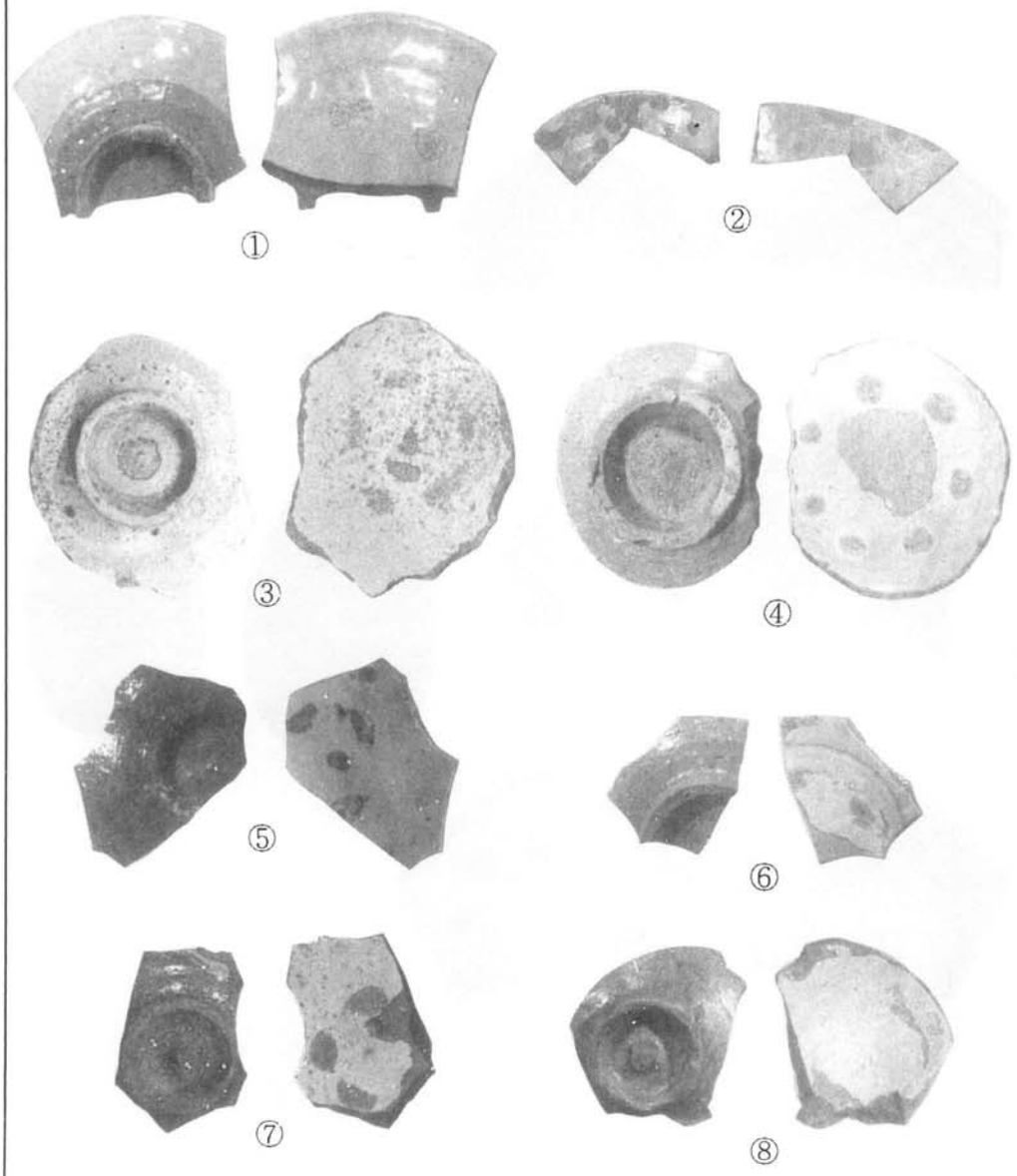
圖版 88 존자암지 출토 분청(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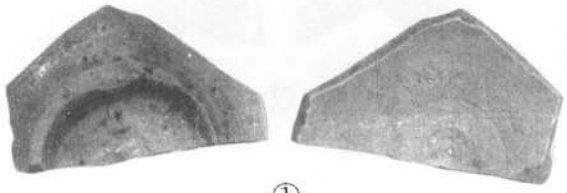
圖版 89 존자암지 출토 분청(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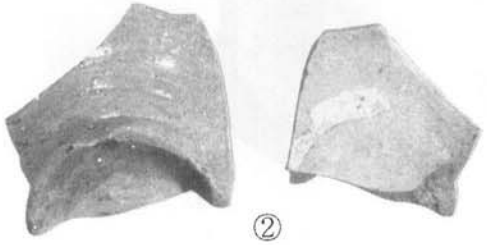
圖版 90 존자암지 출토 분청(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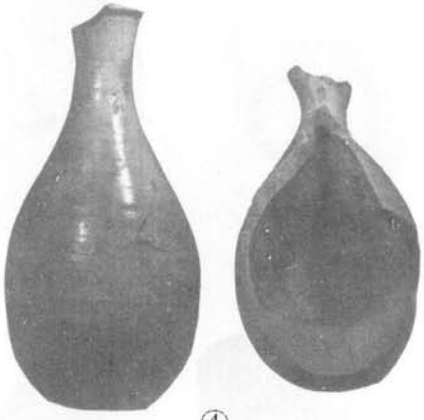
圖版 91 존자암지 출토 분청(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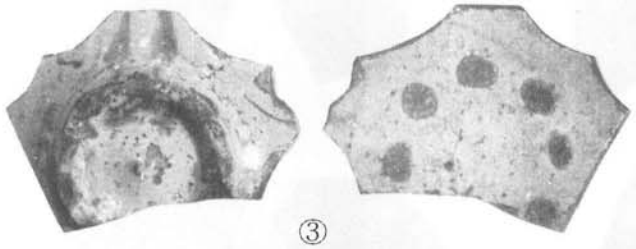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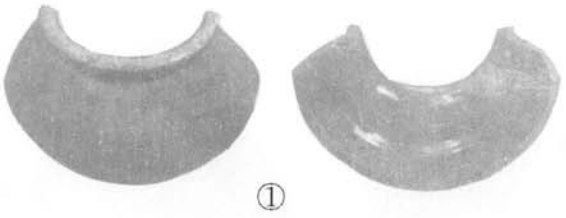


④



③

圖版 92 존자암지 출토 분청(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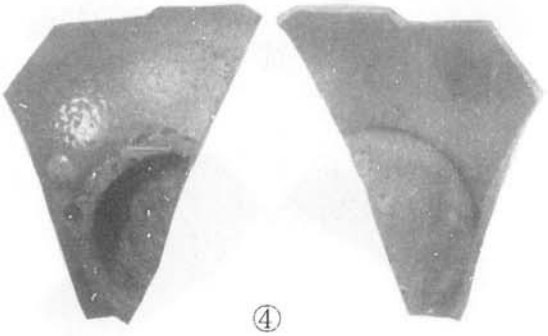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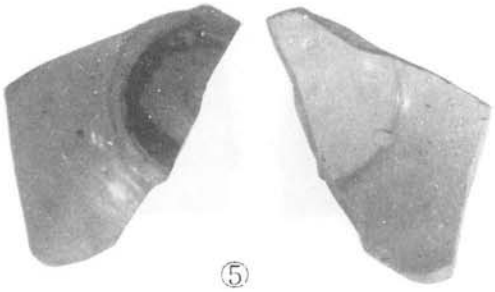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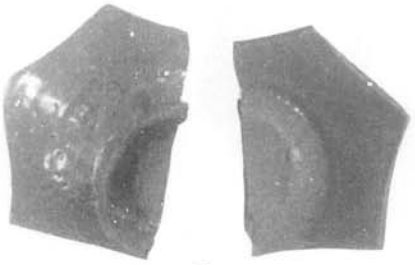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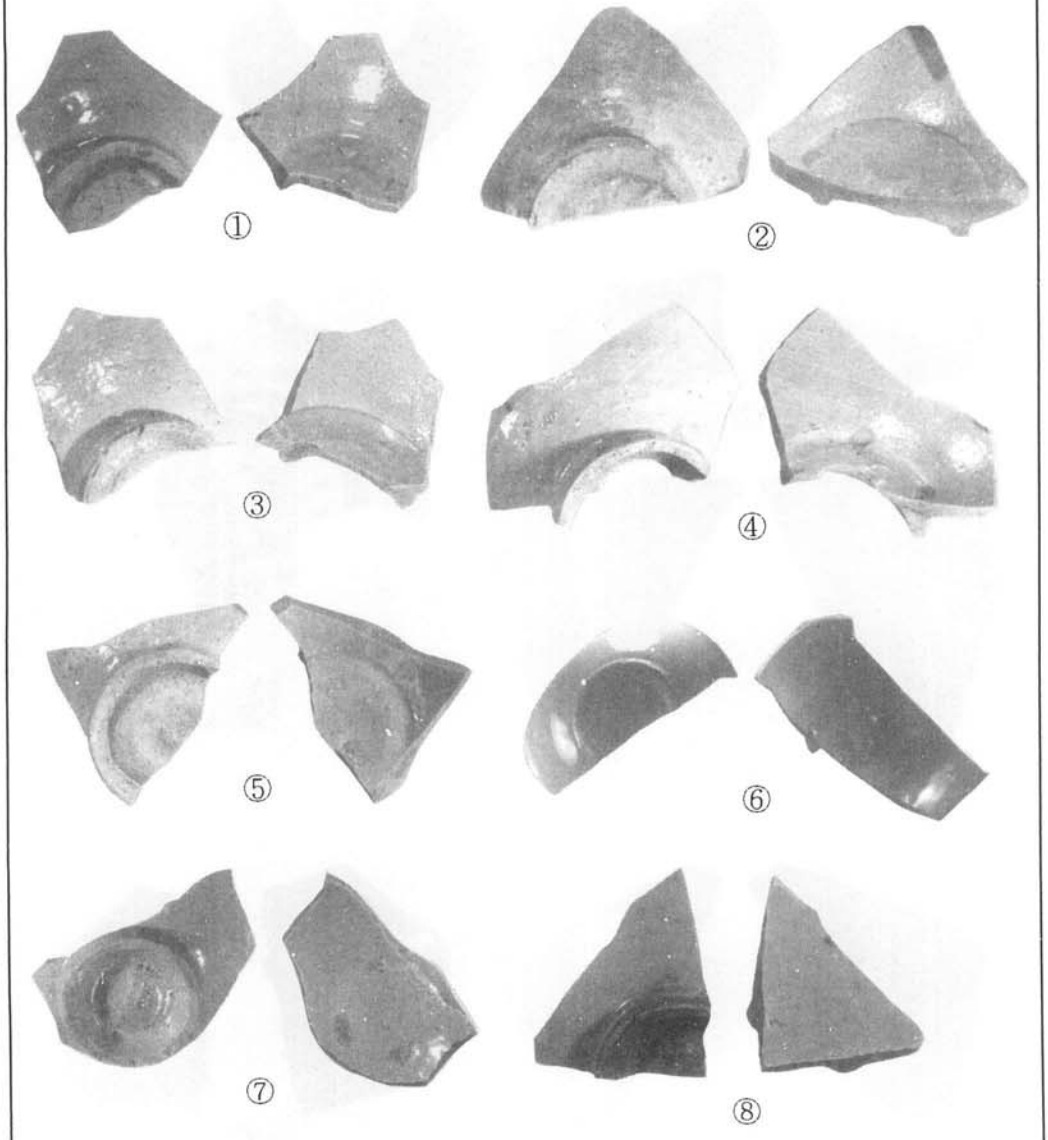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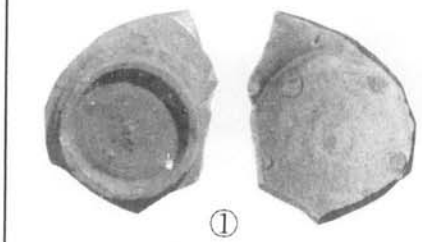


⑥

圖版 93 존자암지 출토 분청(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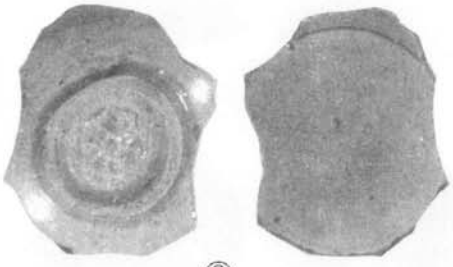
圖版 94 존자암지 출토 분청(9)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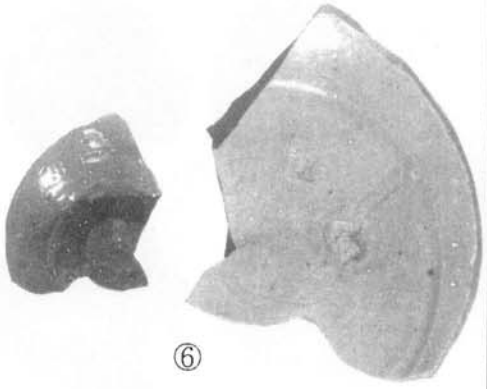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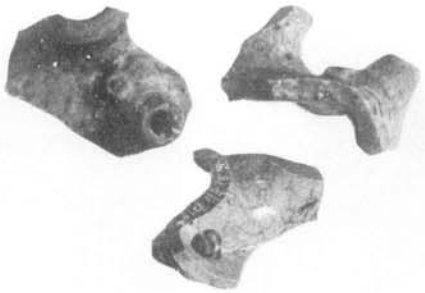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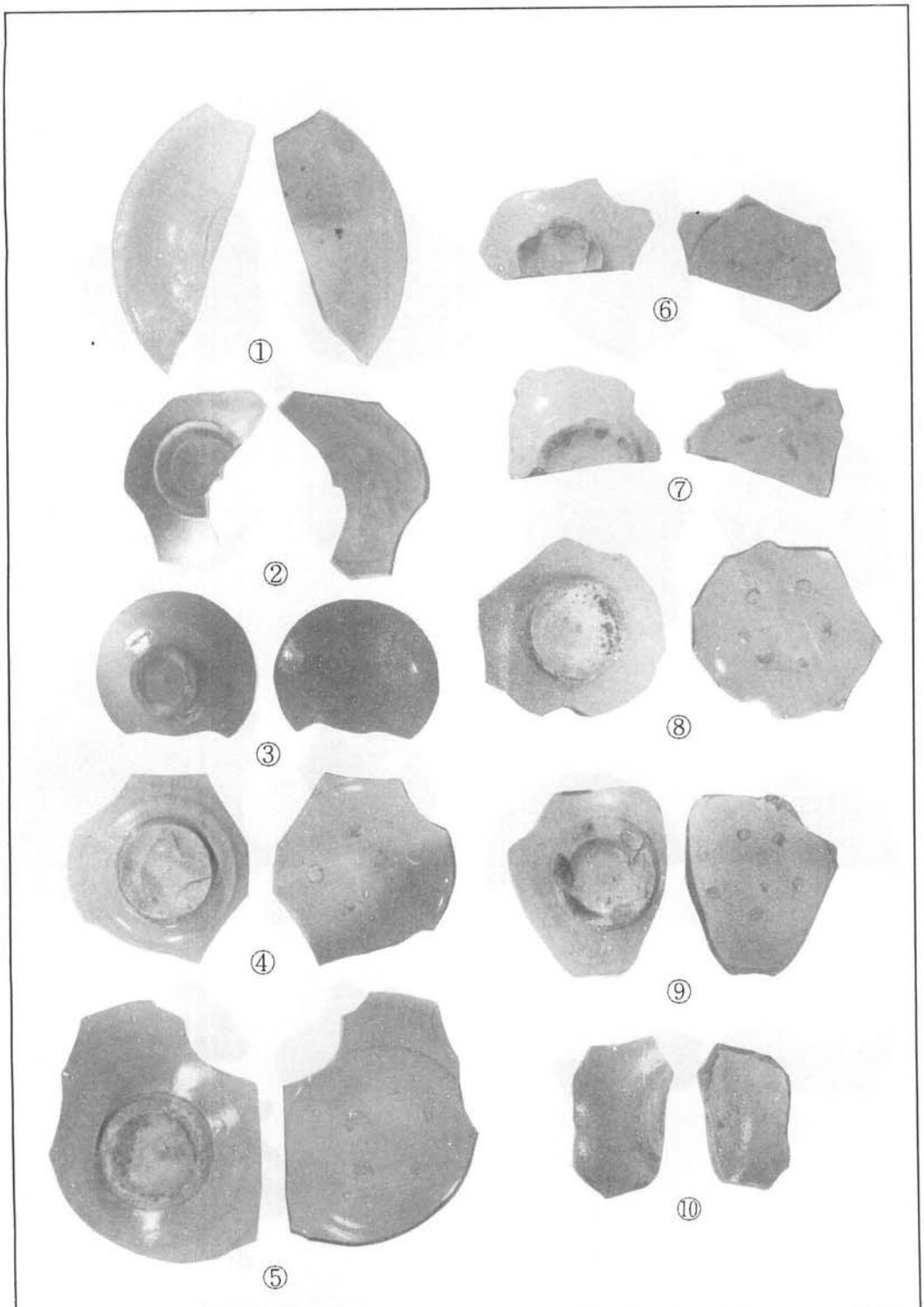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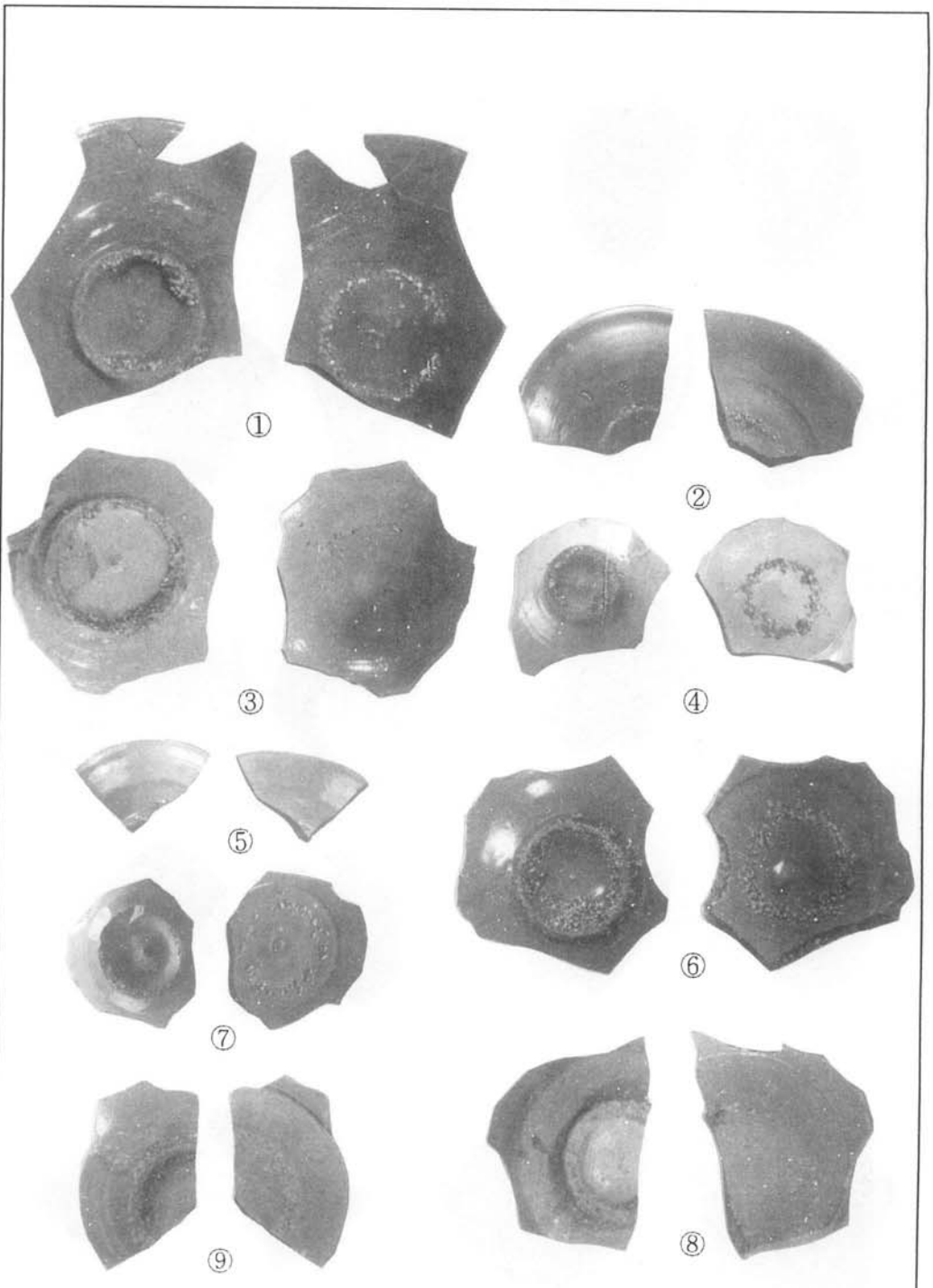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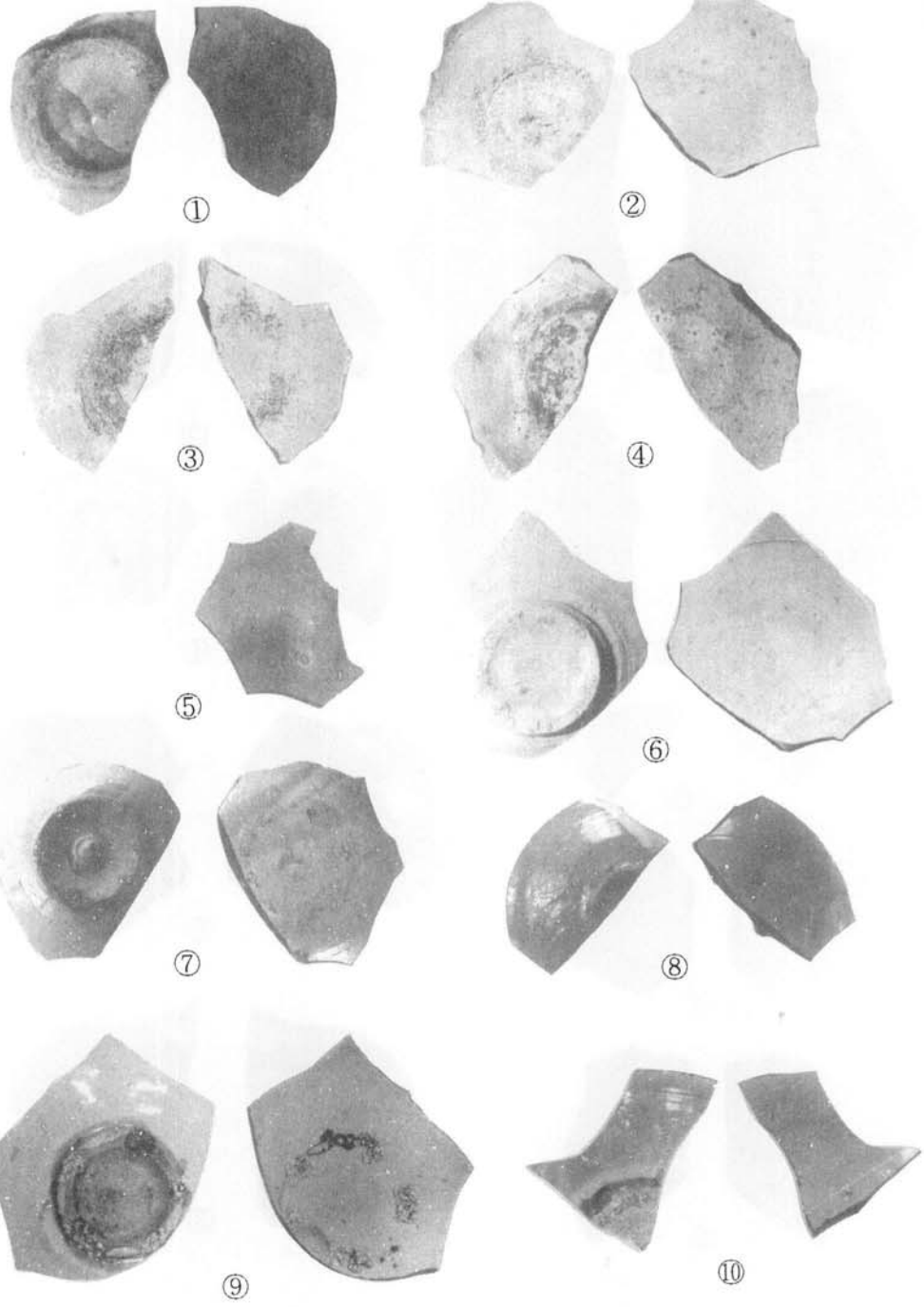
圖版 95 존자암지 출토 분청(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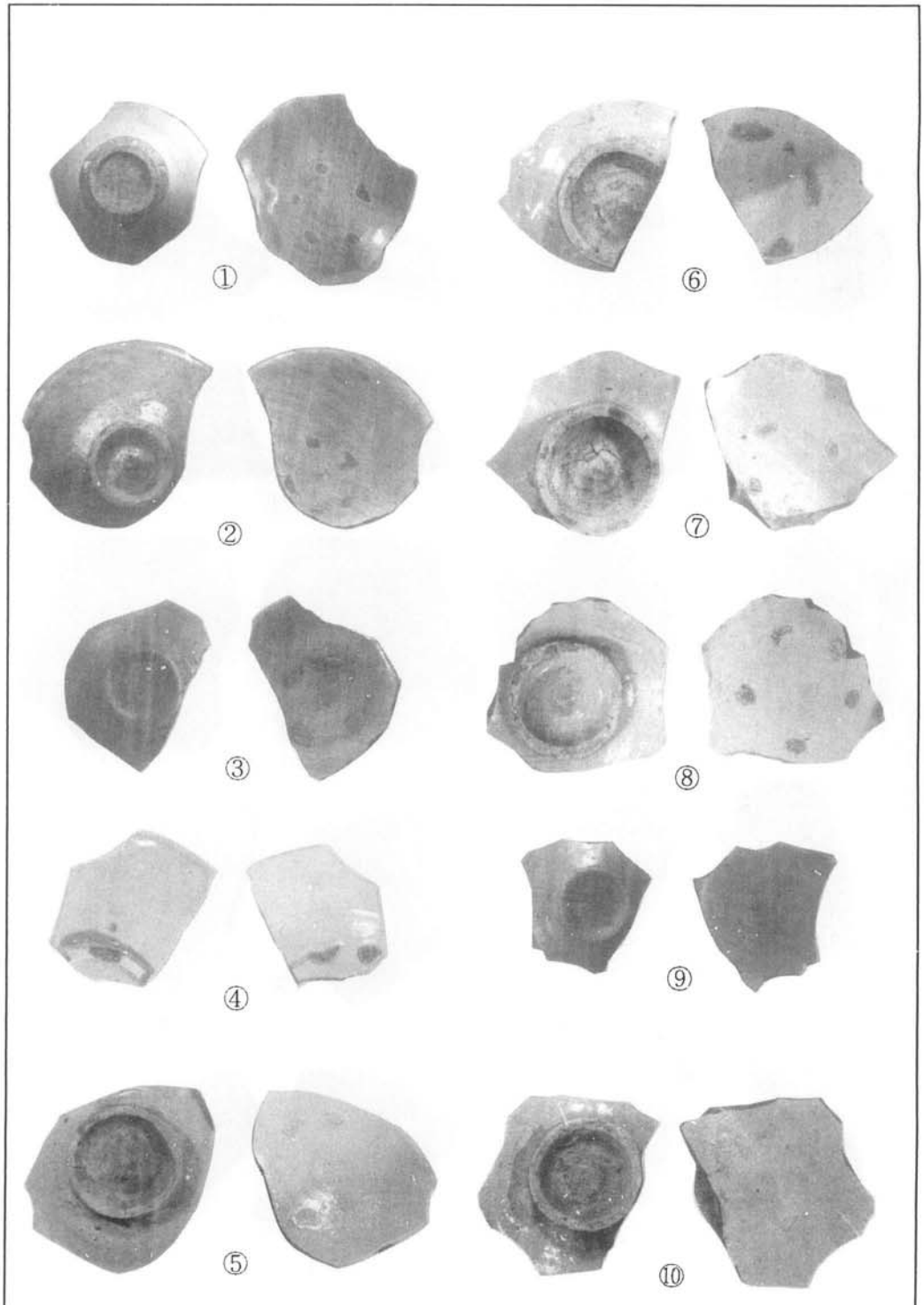
圖版 96 존자암지 출토 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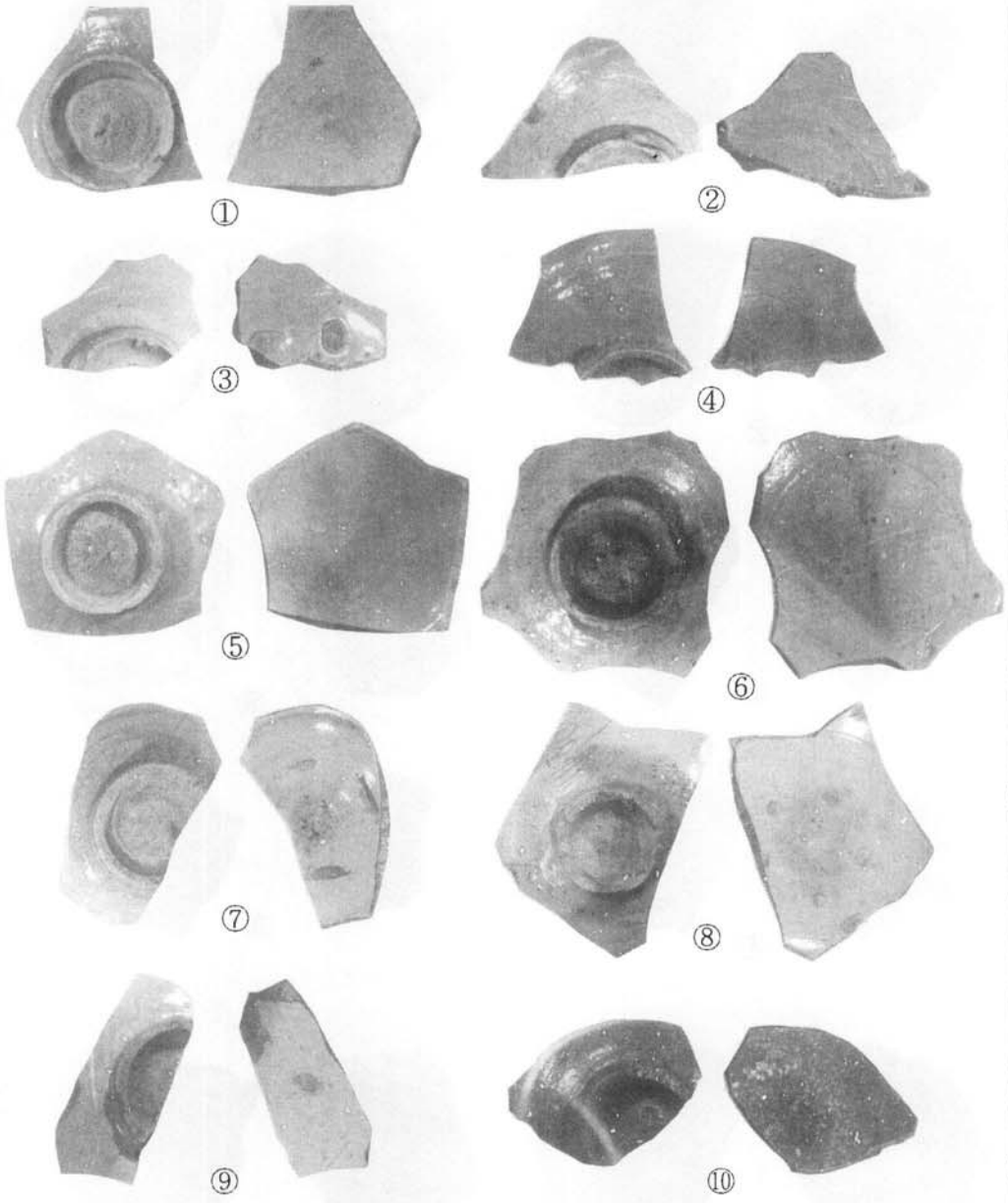
圖版 97 존자암지 출토 백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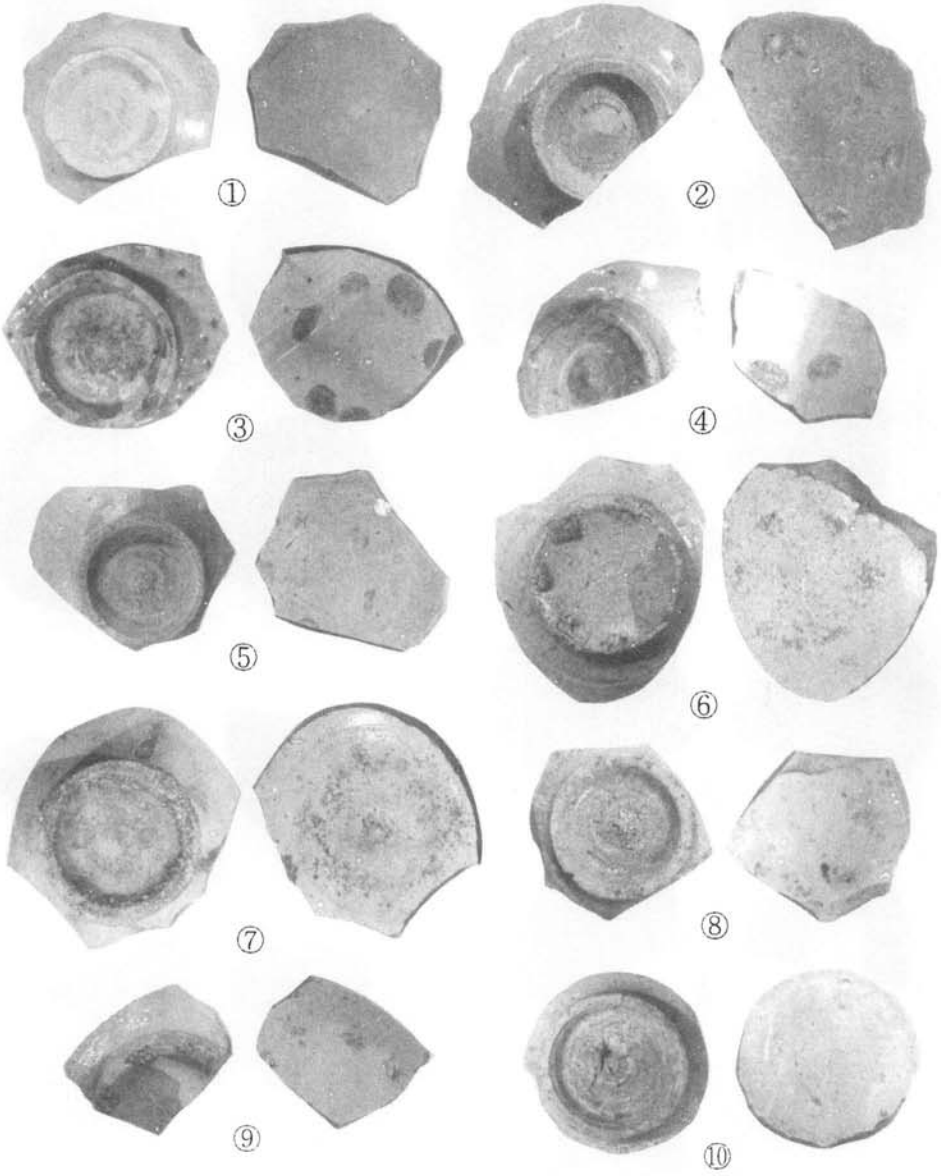
圖版 98 존자암지 출토 백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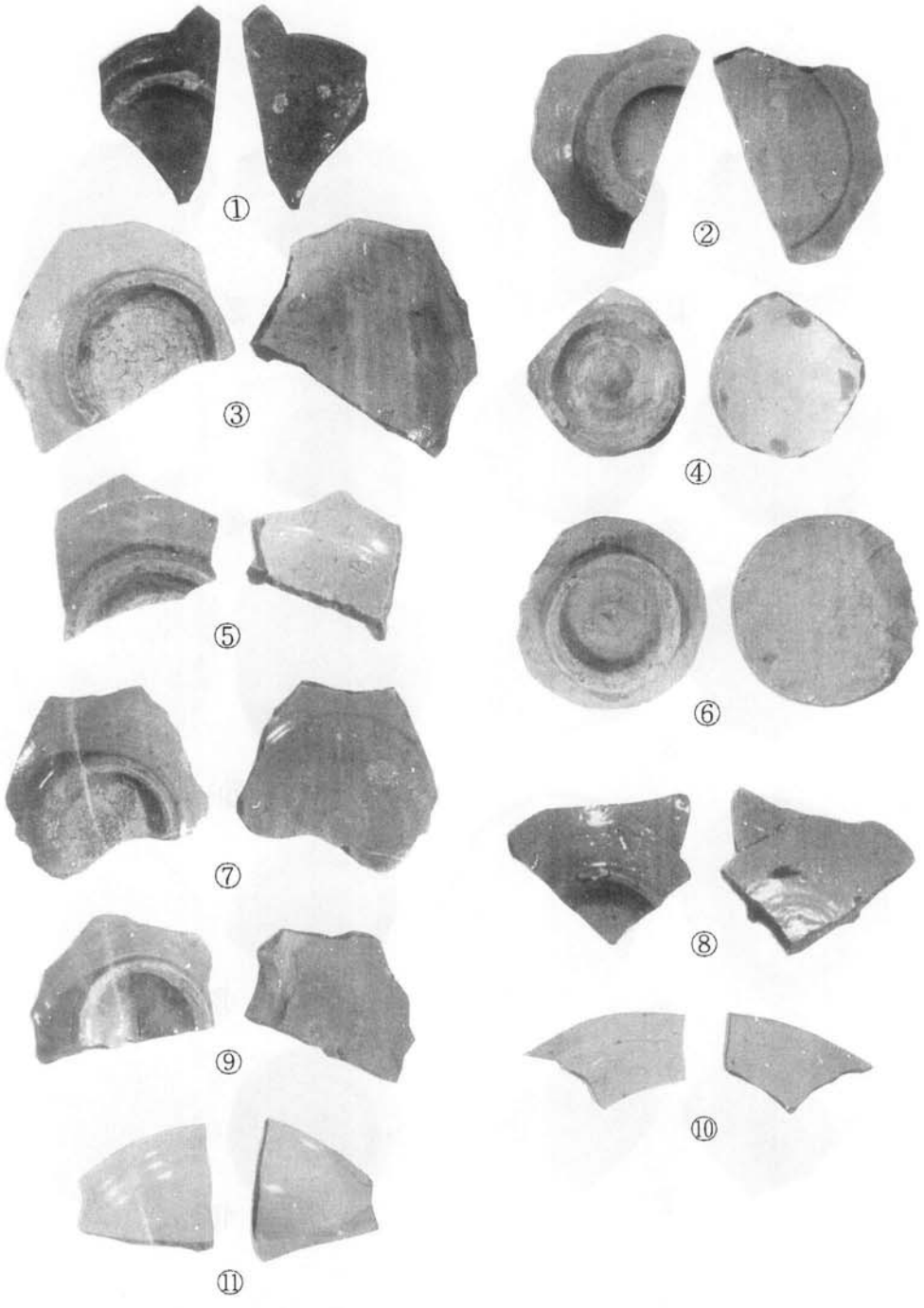
圖版 99 존자암지 출토 백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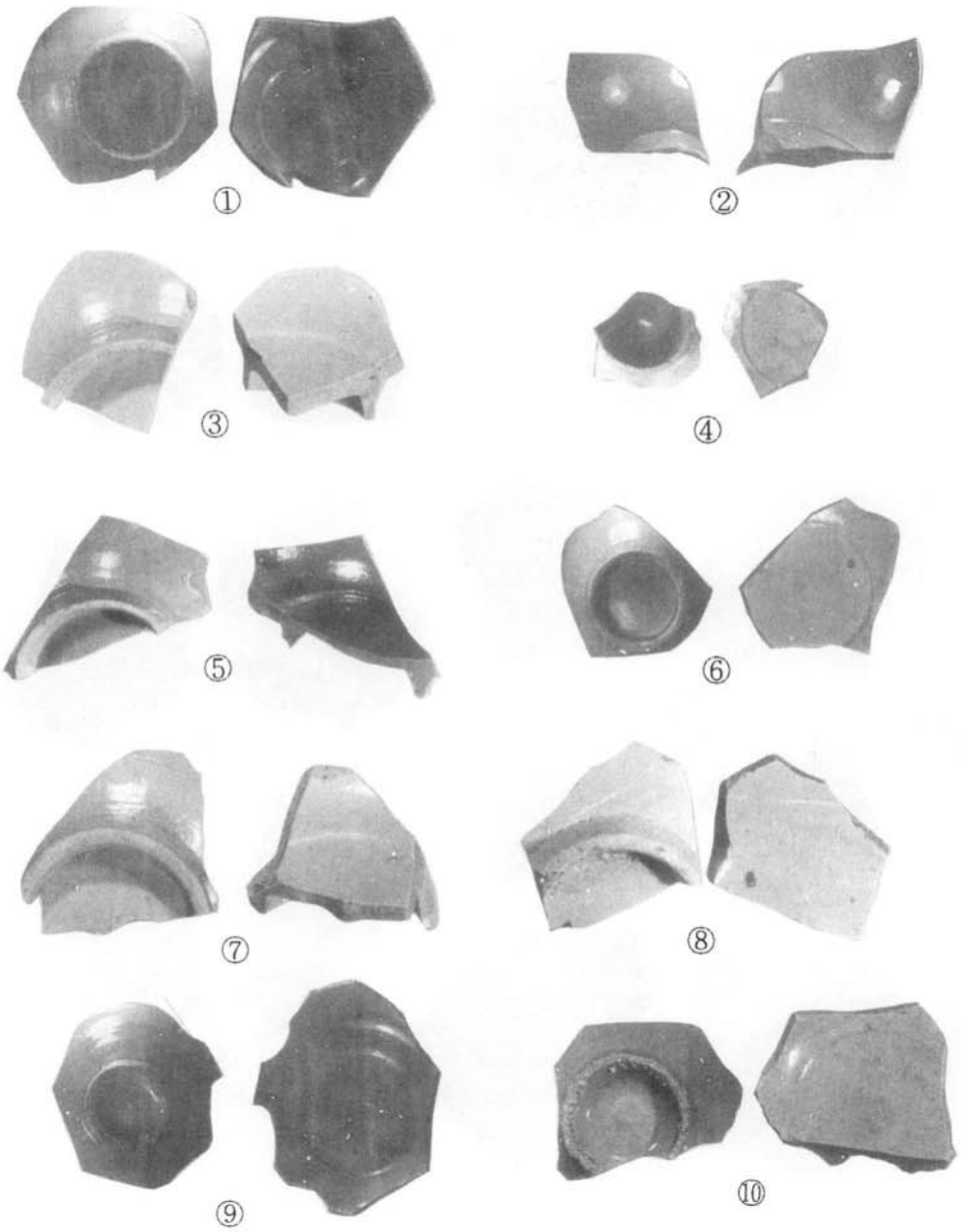
圖版100 존자암지 출토 백자(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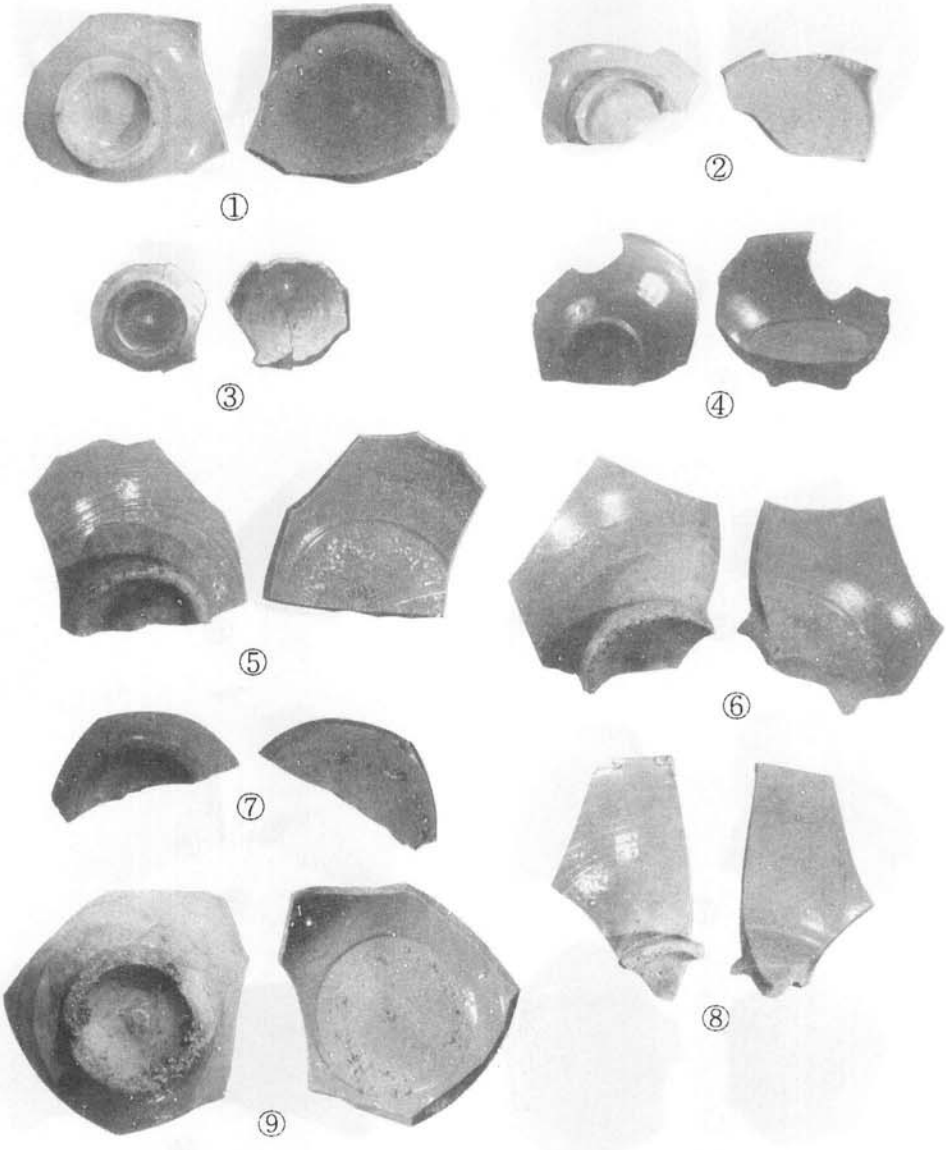
圖版101 존자암지 출토 백자(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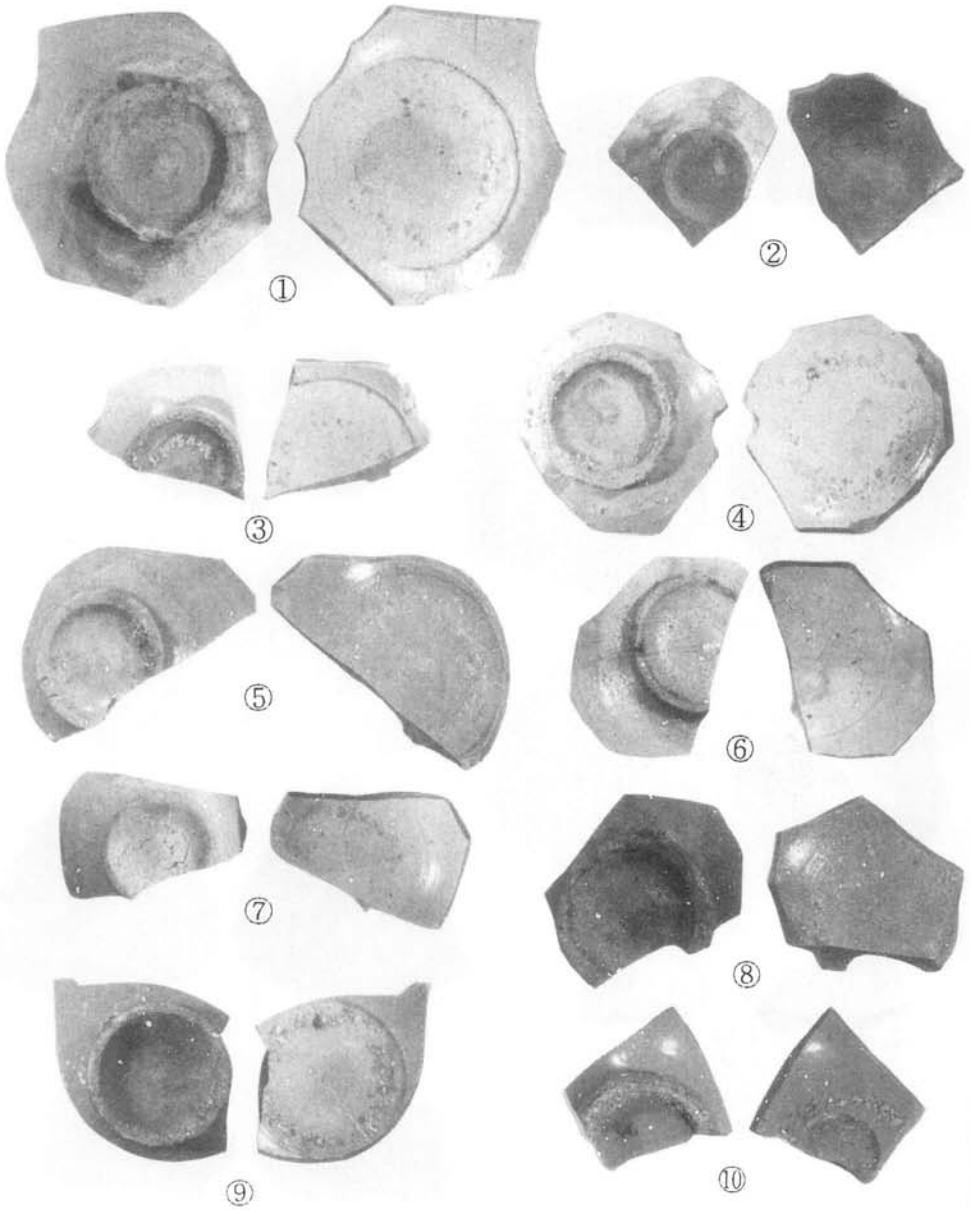
圖版102 존자암지 출토 백자(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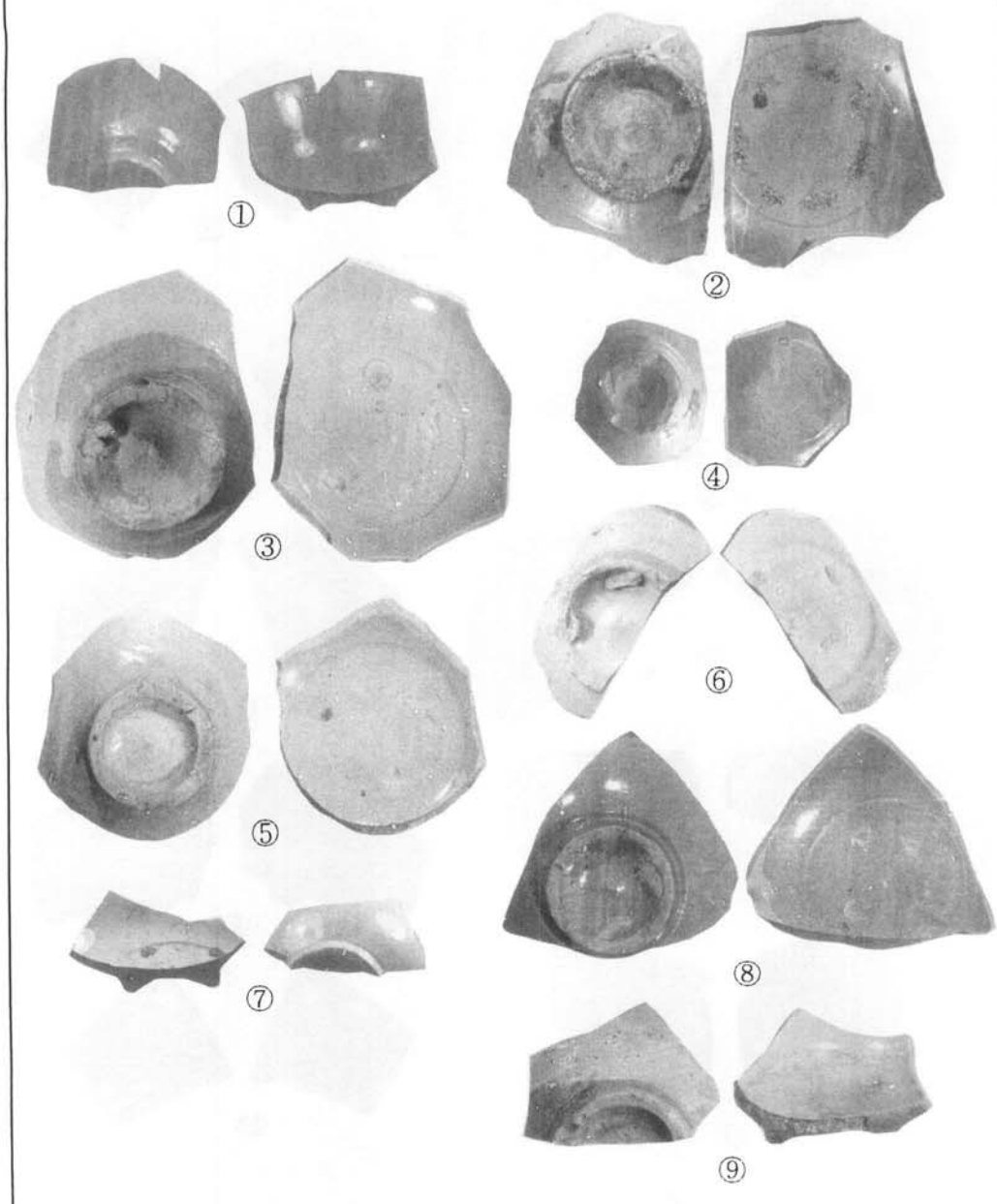
圖版103 존자암지 출토 백자(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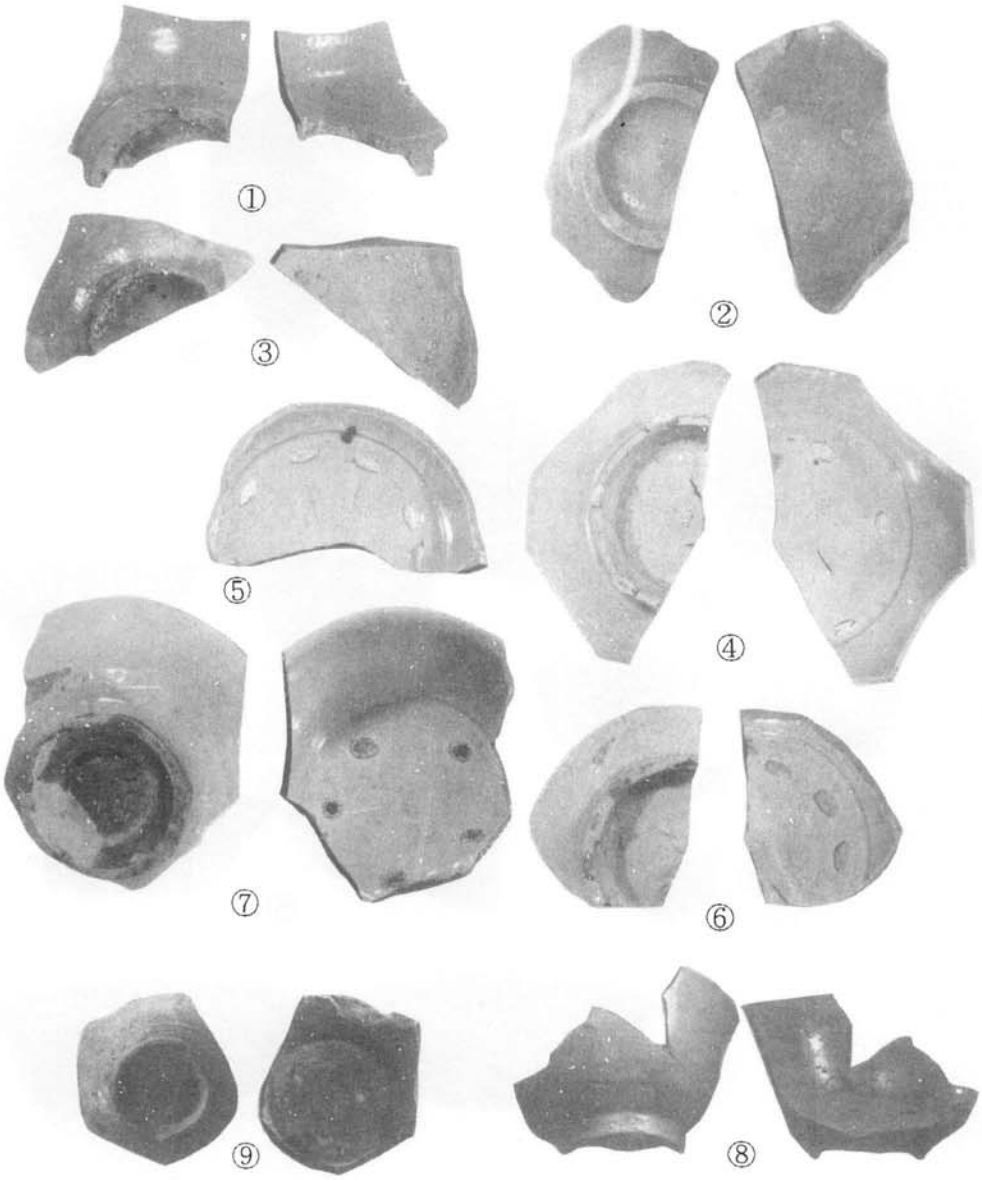
圖版104 존자암지 출토 백자(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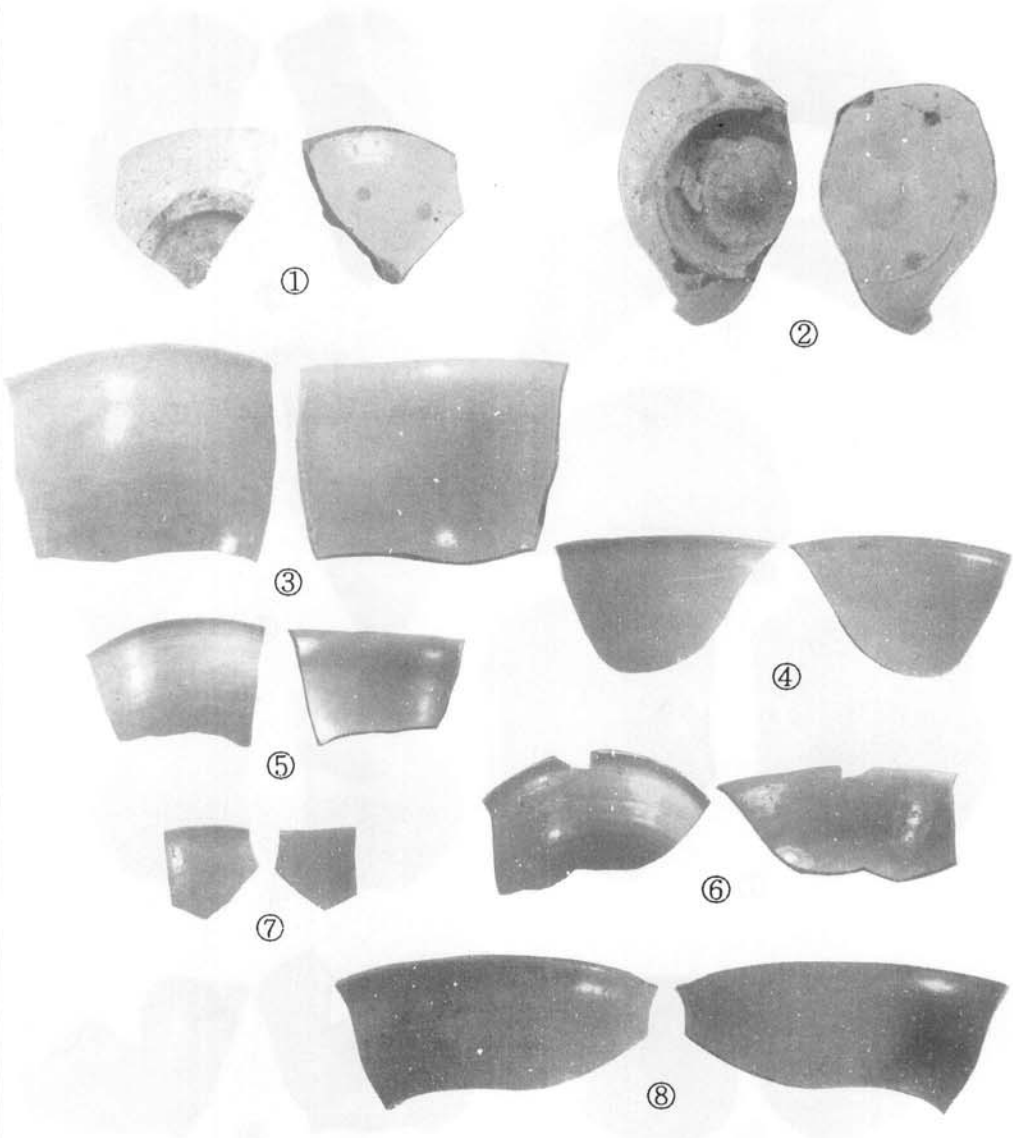
圖版105 존자암지 출토 백자(10)



圖版106 존자암지 출토 백자(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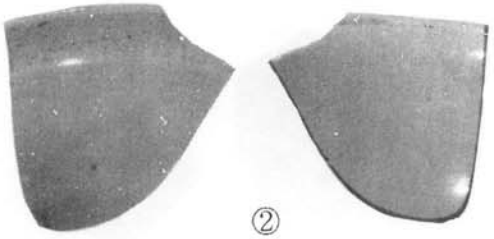
圖版107 존자암지 출토 백자(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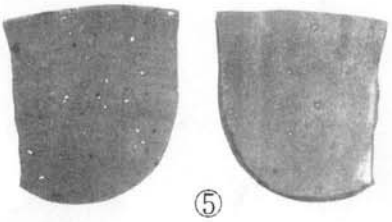
圖版108 존자암지 출토 백자(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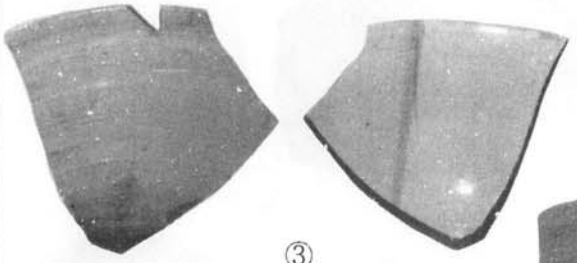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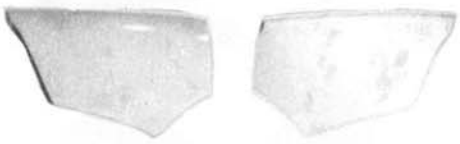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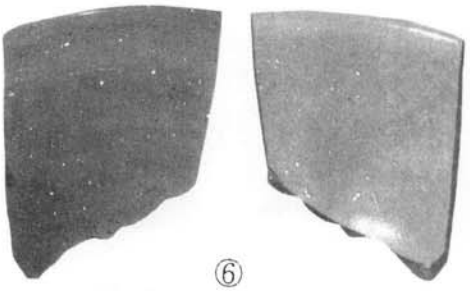
⑤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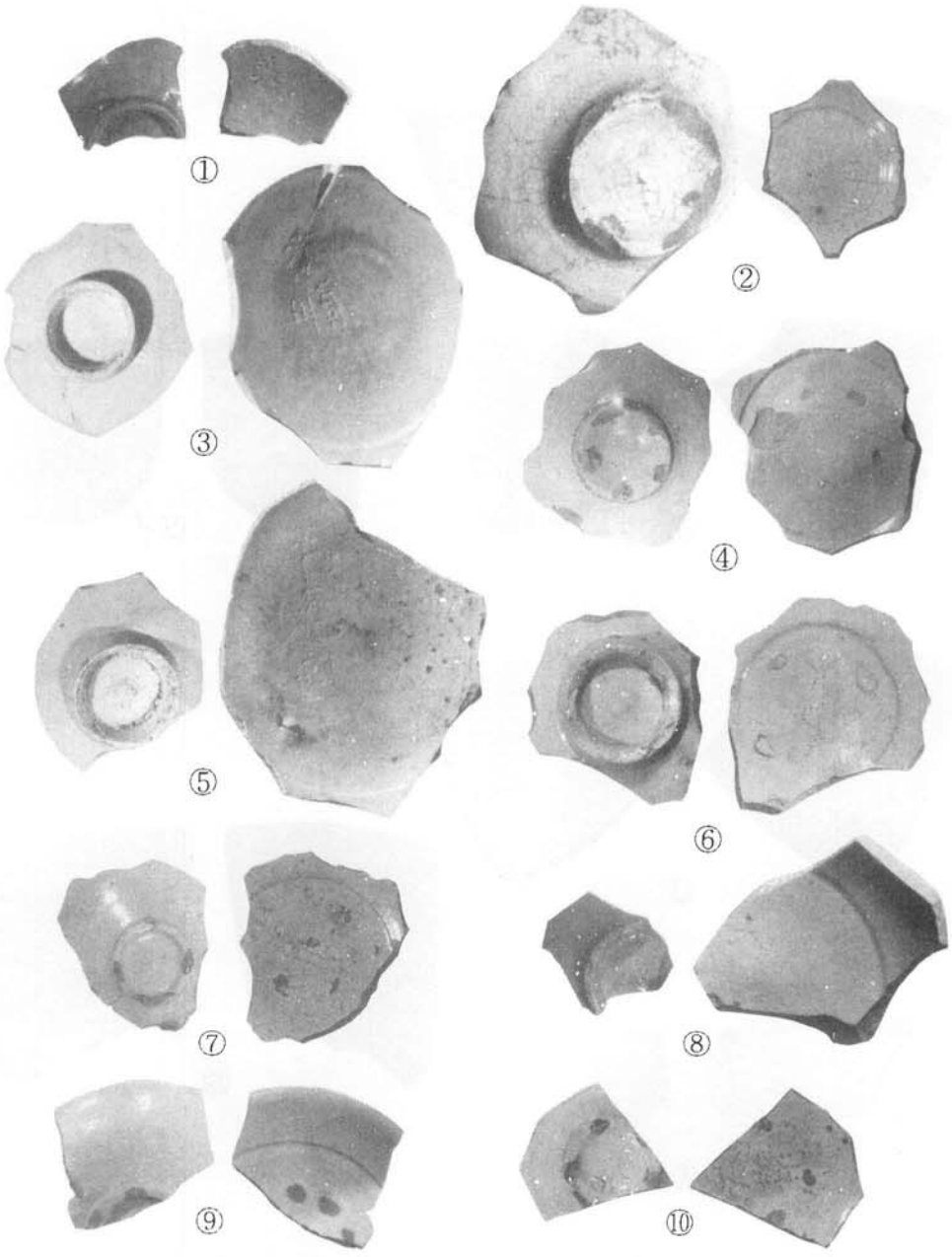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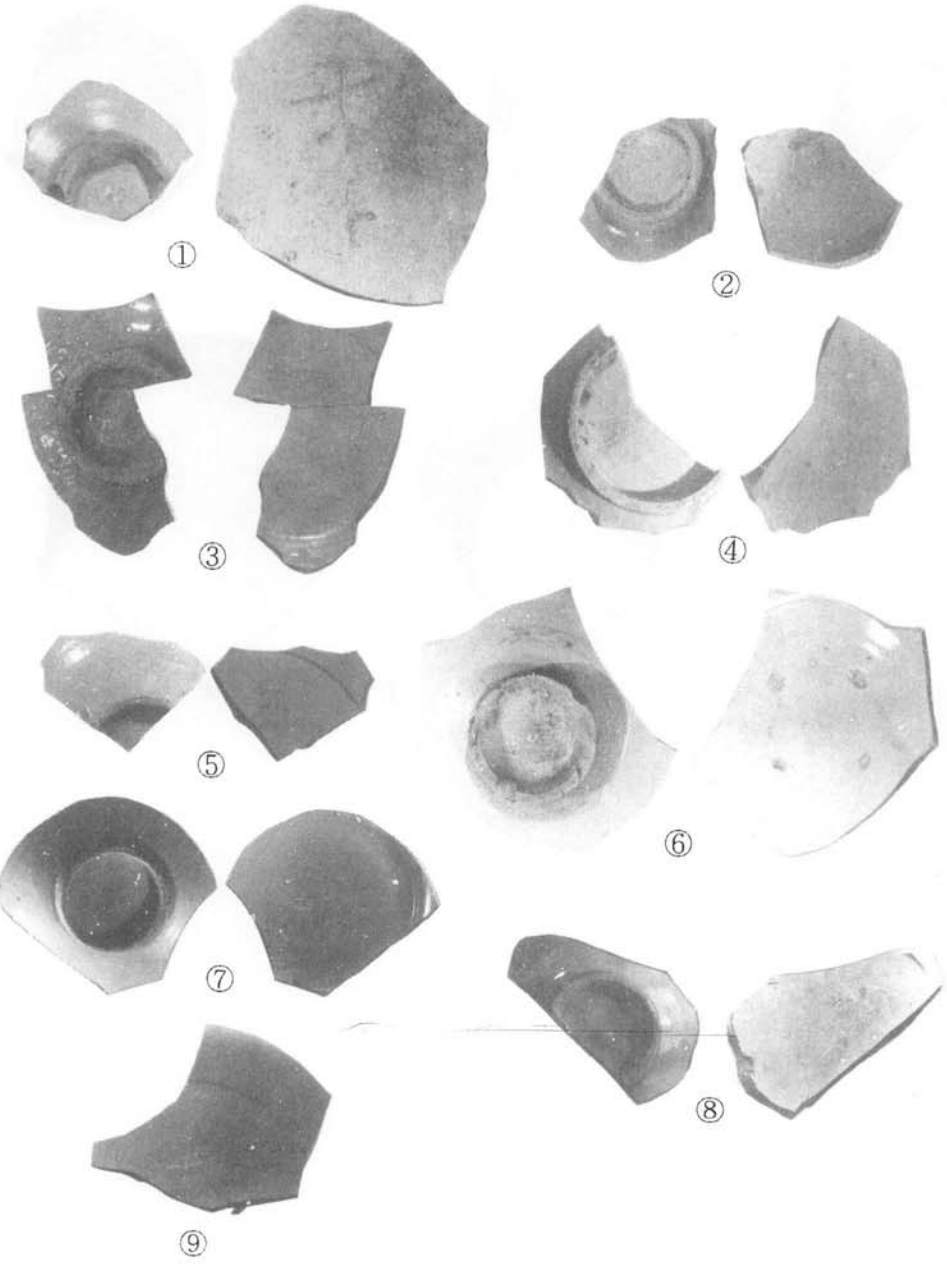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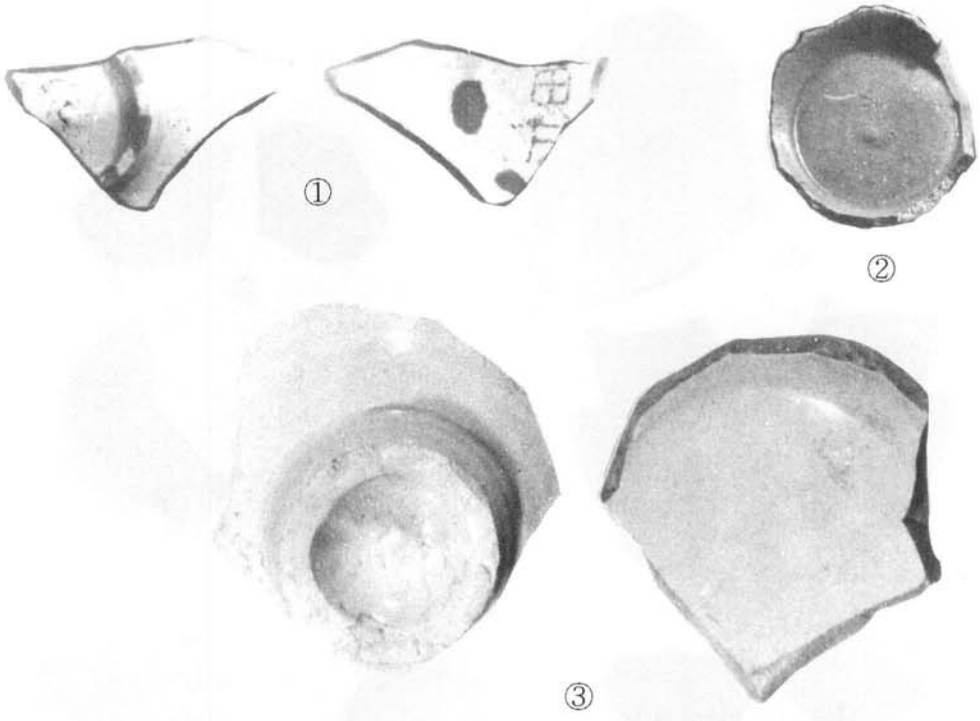
圖版109 존자암지 출토 백자(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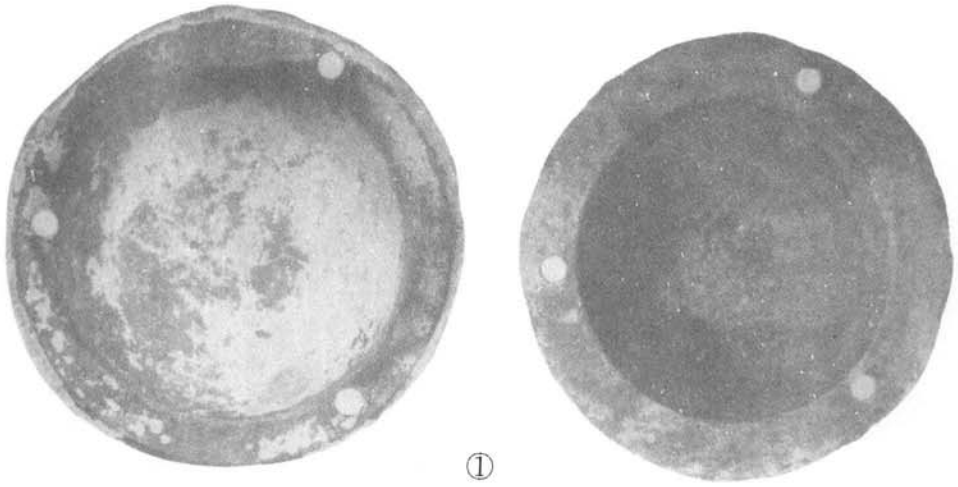
圖版110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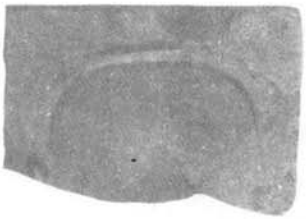
圖版111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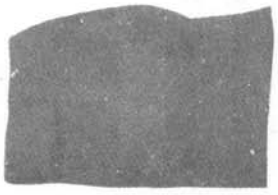


圖版112 존자암지 출토 명문백자(3)



①





②



③

圖版113 존자암지 출토 청동개·벼루·사천왕상